
2025

平安南道 平原郡 調查研究書
(평안남도 평원군 조사연구서)



평안남도

평원군가

묘평평창 - 향안양 - 산수성공 의리율이 한조지활 줄합키연 기은데다 병우구대 풍리개평 처나성원 럼라이이 돌효공기 러시현개 잊이했로 고고다다
 서열삼풍 쪽두중요 에삼사로 는천를운 불리세우 곡별은리 산은은장 대평충인 평남성원 을서을이 이일위후 루위함덕 었이이라 네다라라
 순비법남 안옥홍북 어한사통 파땅는일 숙평서이 천원산루 으과사날 기차가 달리 누 나
 그맛이 - 이 - 름이 지 오
 임란 - 공심 - 근거 다 요
 손 - 품 아 - 기 다 린 다
 한덕애나 천지국라 어동선위 항벌열해 풍어인 가 남양염전 양산일세
 에나 라 위 해 고 향 많 은 것 이 이 속 숙 천 난 봉 가 홍 홍 아 살 리 로 리 세
 다 다 다
 후렴 우 리 소리 높 여 평원군가 - 부 르 세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평원군 제22대 명예군수 김승호입니다. 평원군 조사연구업무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료의 신빙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갈피와 방향을 정하지 못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경조 지사님이 2025년 역점사업으로 평안남도 조사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 하셨습니다. 이에 평남 시장·군수 단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수십 년간 중단되어 있었던 조사연구업무와 군 지 개정 작업을 할 수 없겠다는 일념하에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편집하여 오늘에 다다른 것입니다.

조사연구업무 작업을 통해 새로 탄생한 조사연구서라는 결과물도 자랑스럽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고향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평원군은 1개 군 16개면 217개 이었으나 북한의 1952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평원군과 숙천군으로 나누어졌고 평원군은 1개 군 10개면 30개 리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숙천면과 덕산면 일대를 각각 숙천 군과 대동군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노지면 등을 병합하여 평원군을 개편하였다. 이때 평원면의 대부리와 이화리 등을 하여 평원읍으로 하면서 1읍 25리를 구성하였다. 이후 1992년 화진리와 신송리 일부를 병합하여 한천 노동자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2008년 현재 1읍 2노동자구 29리를 관할하고 있다. 고향 방문길이 열리면 이제는 1세 어르신들이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된 고이 접어두신 약도로 고향집을 찾아 갈 수도 있을 듯합니다. 또한 조사연구업무를 현대화, 디지털화를 함으로써 군민

모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고향을 더욱 잘 알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세대 어르신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해 오신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고향의 역사와 지리와 명승고적, 세시풍속, 방언, 민요, 전설을 평안남도지, 평남 망향 반세기와 군지 등을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 고향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군지에도 재수록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해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향민 후계세대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군민회, 장학회, 청년회 등을 현재 시점까지 정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세대 어르신들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에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애향 활동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조사연구업무를 개정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지금보다는 쉽고 간편하게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연구업무 작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애향 사업을 이어나가는 후계세대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명예군수 김승호

발간축사



존경하는 평원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김승호 명예 평원군수님과 조사연구서 발간에 헌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문헌 하나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잊히지 않을 미래를 향한 역사적 증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작업으로 완성된 평원군의 숨결과 역동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2025 평안남도 평원군 조사 연구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 땅을 그리며 굳건히 평원군의 정통성을 지키고 계신 평원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는 평원군의 역사와 문화는, 80여 년의 단절 속에서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정신적 뿌리입니다. 이 조사연구보고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고, 여러분의 긍지를 영원히 기릴 것입니다.

이 조사연구보고서의 발간은 「이북5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관장 사무에 명시된 조사연구업무로 미수복 지구의 전 분야에 걸친 정보 수집 및 미래 수복 정책 연구라는 이북오도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값진 결실입니다. 1945년 해방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평원군의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하고 치밀한 연구의 궤적을 우리는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연구보고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군지(郡誌)를 넘어, 평원군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내용과 평원군지에서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포함한 내용을 새롭게 발굴하여 깊이 있게 체계화하고 군민회의 1세 어르신과 북한이탈주민의 검증은 거치는 등 조사연구보고서로서 완벽성을 거친

이북오도청 개청 이래 최초로 작성된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독보적입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이 거대한 작업을 이끌어 주신 김승호 명예 군수님께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한 분의 끈질긴 탐구와 집필 노력이 없었다면, 이처럼 탁월하고 체계적인 결과물은 결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승호 명예 평원군수님은 이북5도 행정의 모범이자, 후세에 길이 남을 평원군 사랑의 표본입니다.

더불어, 본 조사연구보고서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후계 세대가 쉽게 접근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미래지향적인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로써 이 보고서는 미래 통일 정책 수립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결실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영원히 존안(存案)되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유산으로 길이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다시 한번, 평원군민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김승호 명예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통일 대한민국 평원군의 밝은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평안남도지사 정경조

발간축사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우리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보완했어야 하는 평안남도의 16개 시·군의 자료집을 완성해 세상에 내놓게 되어 중앙도민회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집이 완성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으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한 여기 나오셔서 명예시장 군수로서 활동하면서 시간도 빠듯하셨을 텐데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좋은 자료집을 내도록 노력해주신 김승호 명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군 자료의 발간을 진두지휘하신 정경도 평안남도 지사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행한 시지와 군지는 대부분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민들을 중심으로 평안남도의 향토와 문화, 그리고 여기 이남에서 실향민으로서 살아온 활동을 중심으로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행한 시·군 자료집을 살펴보면 지리적인 특징과 행정구역 변천 과정,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분야를 총망라해서 집대성해놓고 이와 함께 해당 시·군의 명승고적과 민속, 구비전승되어 오는 민요와 전설 그리고 우리 고향에서 일어난 민족사상운동과 민족의 역사, 그리고 고향에서 배출된 항일 애국지사 저명인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시·군민회와 장학회 부녀회 청년회 등 산하 조직 활동의 역사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자료집은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 실향민들이 이남에서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의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쪽에서도

통일을 위한 활동을 마음을 담아 얼마나 이어오고 있는지를 이북의 친척 가족들에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우리 통일 미래세대가 고향을 기억하고 고향을 연구하는 마음을 키워 통일 후 고향에서 경제를 부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틀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은 일반 친목 조직과는 성격이 다른 각별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들이 자유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줘야 할 큰 사명을 가슴에 안으며 이 책이 우리들의 사명을 실행하는 길에 밑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시·군 자료집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활동이 앞으로 꾸준히 이어져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회에 모범을 보이며 공헌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평남중앙도민회장 김현용

발간축사



저는 41대 평원군 군민회장 덕산면 출신 2세 이주진입니다. 제 임기에 평원군 조사연구를 편찬함에 있어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참을 느낍니다. 제가 실향민 2세로 어린 시절 아버님 손에 이끌려 우이동 사슴목장에서 아버님 고향 모임인 평원군 군민회에 따라 나오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아버님의 고향 애향 사업에 참여한 것은 1980년 청년회에 가입하면서 시작한지 벌써 45년이 됩니다. 어느덧 평원군민회가 발족한지 79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었던 1세분들이 타계하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고, 2세 청년들은 장년이 되고, 그리고 3세 아이들은 성년이 되어 결혼도 하고 4세인 자녀도 두었습니다. 이제 후세들이 사회와 애향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원군 덕산면 면민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평원군 군민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평원군 청년회원을 할 때 아버님이 저에게 아버님의 고향 애향 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무뚝뚝했던 아버님이 고맙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하면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제가 군민회장으로 애향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모든 1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자제들이 바쁘다는 생각에 부모님의 애향 사업에 참여하라고 말을 못 하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우리들의 어르신들께서는 공산 치하를 벗어나고자 고향 땅을 잠시 떠난 것이 벌써 타향살이 어언 8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배를 움츠리고 그리고 자식들만은 타향의 설움을 당하지 말라 그토록 고생하시며 고향의 애향 사업을 저희에게 전수하시

다 한 분, 두 분 타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향에 관해서 이야기 해줄 분이 점점 줄어드는 거 같아서 80주년을 맞이하여 평원군 조사연구업무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원군 조사연구업무는 2017년 발간된 70주년 군지를 바탕으로 후세들이 부모님의 고향을 잘 알고 이해하도록 편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들은 고향 평원군은 예로부터 산천이 아름답고 풍부한 여러 가지 산물들, 그리고 후덕, 온화한 인심으로 자랑스러운 평원군이라고 들었습니다. 고향의 변천을 더듬어 후세에게 고향의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여 1세 어르신들과 이 군지로 인하여 연이 이어지게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서 부모님, 어르신들이 힘들게 이룩하여 놓은 애향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통일의 선봉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평원군 조사연구업무 발간에 참여해 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고문님, 면민회장님, 면장님, 3세 여러분 총 3대에 걸쳐서 생업에 임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주셔서 평원군 조사연구업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군민회장으로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책자는 부모님의 고향이신 평원군에 직접 답사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군민회장 이주진

<제목 차례>

제1장. 지리	1
1. 개요	1
2. 지리적 위치	2
1) 위치	2
2) 지세·경제 및 사회	2
3. 연혁·지명	3
1) 연혁	3
2) 지명	3
4. 자연 지명	4
1) 대원산『해동여지도 영유 대원산 일대』	4
2) 만덕산(萬德山)	5
3) 전좌봉(殿座峯)	7
4) 화진벌(和津伐)	7
5) 율화천(栗化川)	8
6) 중교천(中橋川)	8
7) 한천개(漢川漑) 한다리개	9
8) 견룡저수지	9
5. 평원군 성씨 조건표(姓氏 未見表)	10
1) 개요	10

2) 읍면 분포현황	11
제2장. 정치	33
1. 개요(북한 정치의 특징)	33
2. 북한 정치체제의 작동원리	34
1) 수령 중심의 유일 지배체계	36
2) 권력세습	39
3) 수령-당-인민의 관계	41
제3장. 경제	45
1. 개요	45
2. 북한 경제체제 특징과 정책 기초	46
1) 경제체제의 특징	46
2) 경제정책의 기초	48
3. 경제정책의 변화	51
1) 시장화 현상과 대내 경제정책	51
2) 제한적 대외 개방정책과 한계	56
4. 산업, 교통, 통신 및 주요시설	60
1) 산업	60
2) 교통	63
3) 통신 및 주요시설	64
제4장. 사회	67
1. 북한 사회의 특징	67
1) 계급정책과 계층구조	67
2) 주민의 의식변화	70

2. 주민 생활	73
1) 조직 생활	73
2) 의식주	75
3) 여가와 생활	78
4) 보건 복지	82
3. 북한 인권	84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85
2)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85
3) 차별	86
4)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침해	87
5) 생명권 침해	88
6) 외국인 납치	89
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90
제5장. 교육	93
1. 교육정책과 제도	93
1) 교육정책	93
2) 교육제도	95
2. 교육과정과 내용	102
1) 교육과정	102
2) 교육내용	108
3. 학교생활의 특징	111
1) 사상교육	111
2) 조직 생활	112

3) 노력 동원	113
4) 군사훈련	114
4. 평원군의 교육	115
1) 개요 및 교육기관	115
제6장. 문화, 언론	117
1. 북한의 문화, 예술 정책	117
1) 주체·선군 문예이론	117
2) 사회주의 문명 강국	119
3)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국가 상징	120
4) 문화재	120
2. 언론 출판	122
1) 개요 및 출판물	122
3. 유물, 유적	123
1) 봉수(烽燧)	123
2) 유물(遺物)	124
3) 유물·유적	125
제7장. 행정구역 변천	128
1. 개요	128
1) 역사	128
2) 북한 기준 행정구역	129
3) 이북 5도 기준 행정구역	129
2. 평원군(平原郡)	138
1) 평원읍(平原邑)	138

3. 시정노동지구	145
1) 어파노동자구(漁波勞動者區)	145
2) 한천노동자구(漢川勞動者區)	145
4. 각 면·리 지명	146
5. 각 면(各面)의 리내 부락명(里內部落名)	152
1) 16개 면·리	152
제8장. 명승고적(명승, 유적, 고분, 궁지, 산성, 서원)	162
1. 명승(名勝), 사찰(寺刹)	162
1) 명승(名勝) 개요	162
2) 사찰(寺刹)	165
2. 고적(古跡)	167
1) 이화정(梨花亭)	167
2) 삼충사(三忠祠)	167
3) 고려태조영전(高麗太祖影殿)	168
4) 사직단(社稷壇)	168
5) 학사대(學士臺)	168
6) 대부정(大夫井)	169
7) 성산서원(星山書院)	169
8) 당장대(唐將臺)	169
9) 신도비(神道碑)	170
10) 배회정(徘徊亭)	170
11) 관덕정(觀德亭)	170
3. 고성지(古城址)	170

4. 산성(山城)	170
1) 영유산성(永柔山城)	170
2) 고소토성(古小土城)	171
3) 순안성(順安城)	171
4) 숙천성(肅川城)	171
5) 호전성(虎田城)	171
6) 고성(古城)	171
7) 고행성(古行城)	172
8) 응성(甕城)	172
제9장. 민속(민속예술 포함)	173
1. 세시 풍속(歲時 風俗)	173
1) [정월]정초(正初) 명절	173
2) [2 월]	180
3) [3월]	181
4) [4월]	182
5) [5월]	183
6) [6월]	184
7) [7월]	185
8) [8월]	186
9) [9월]	187
10) [10월]	187
11) [11월]	187
12) [12월]	188

13) [윤달]	188
2. 방언	189
제10장. 구비전승	198
1. 평남 무형유산	198
1) 평안남도 제1호 평양검무	198
2) 평안남도 제 2호 향두계놀이	199
3) 평안남도 제 3호 김백봉 부채춤	199
4) 평남 수건춤	200
5) 평안도 배뱅이굿	202
2. 전설	203
제11장. 명사	208
1. 명장, 명현, 의인	208
1) 충의(忠義)	208
2) 효열(孝烈)	210
2. 항일 애국지사	213
1) 송계백(宋繼白)	215
2) 김학규	218
3. 민주, 정치, 법조계	227
1) 오학진	227
2) 박양실(朴孃實)	228
3) 정희섭(鄭熙燮)	229
4) 관공요직자	234
5) 법조인	238

6) 교육자(교수)	239
7) 교육(교육) 사업가	241
8) 각급 학교장	241
9) 출판사·언론인	243
4. 의료계, 교육계	243
5. 종교계	247
6. 체육계	251
7. 문화·예술계	273
1) 이중섭(李仲燮)	273
8. 언론계	292
1) 신언준(申彦俊)	292
9. 공무원, 금융계, 실업계 등	298
1) 정중렬 (전 평안남도 도지사)	298
10. 기타	302
1) 의사(醫師)	302
2) 기업가	305
3) 사회단체장	307
제12장. 평원군민회 현황	309
1) 평원군민회 활동(약사)	309
2) 역대 군민회장(2025 현재)	314
3) 역대 명예군수(2025 현재)	315
4) 평원군 명예면장(2025 현재)	316
5) 면민회 회장단(2025 현재)	317

6) 평원군 조직현황 (평원군 집행위원) (2025년 현재)	318
2. 평원군 친목회 (平原郡 親睦會)	319
3. 평원군민회 장학회	320
1) 평원군(平原郡) 기부장학금(寄附獎學金)	321
2) 숙현 장학금	321
3) 윤건 장학금 (獎學金)	321
4. 평원군민회 청년회	324
1) 평원군 청년회(平原郡 靑年會) 약사	324
2) 평원군 3세 청년회(平原郡 3世 靑年會)	326
5. 추모공원 약사	328
6. 평원군(平原郡) 부녀회(婦女會)	332
7. 평원군(平原郡) 새마을협의회(協議會)	333
8. 평원군 유관단체	333
제13장. 기타 활동사진	336
제14장. 참고문헌	365

平原郡



평안남도

제1장. 지리

1. 개요

[명칭] 평원군(平原郡) (Pyeongwon-gun)

[면적] 451.5km²

[인구] 179,492명 (2008년)

[위치] 도의 서쪽에 위치 한 군이다.

동쪽은 전좌봉(316m)을 경계로 평성시·평양직할시와 접하며 남쪽은 만덕산(248m)을 사이에 두고 대동군이 있다 남서쪽에는 증산군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속천 군과의 경계에 중교천이 흐르고 서쪽은 서해에 접해 있다.



2. 지리적 위치

1) 위치

동쪽은 순천군, 남쪽은 대동군·강서군, 북쪽은 숙천 군과 접해 있으며, 서쪽은 황해에 면해 있다. 동경 125°21'~125°48', 북위 39°08'~39°27'에 위치하며, 면적 985.05km², 인구 약 15만 8000명(1943년 현재)이다.

16개 면 215개 리로 되어있으며, 군청 소재지는 평원면 이화리이다.



6.25사변 이전

2) 지세·경제 및 사회

군의 동쪽으로 청룡 산줄기가 지나며 중앙 동쪽에 오석산 줄기가 북에서 남으로 이어져 있어, 동쪽과 남쪽은 높으며 서쪽으로 가면서 고도가 낮아진다. 수계는 서해로 유입하는 중교천과 문흥천, 화진천이 중심을 이룬다. 오석산 줄기의 동쪽 산록에서 보통강의 지류가 흐르며, 이곳에 견룡저수지와 삼송저수지 등이 축조되어 있다. 경지는 전체 면적의 55.6%이며, 그중 논은 59.4%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주로 벼와 옥수수의 생산에 종사한다. 광물자원으로 어과 노동자지구의 영유광산에서 인회석이 채굴된다. 군의 동부를 평의선 철도가, 서쪽은 남동선 철도가 각각 남북으로 통과하며 평양~향산간 고속

도로가 지난다. 석암휴양소가 있으며 역사유적으로 법흥사와 훈련정이 있다.

3. 연혁·지명

1) 연혁

조선시대때 군의 지명은 영유현(偉柔縣)이 고구려때 부터 이 일대를 평원이라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영유에 의하면 1396년 태조5)에 영원(寧遠)과 유원(柳遠) 두진(鎭)을 합쳐 영녕현(永寧縣)이라 하였고,

1422년(세종4)에 녕(寧) 자를 피해 영유현으로 고쳤다.

『세종실록지리지』(영유)에 “영녕현(永寧縣)을 영유현(永柳縣)이라 하니 공정왕(恭靖王)의 시호와 영녕전(拍寧殿) 이름에 저촉된 까닭이었다”라는 관련 기사가 있다.

1466년(세조12)에 옛 영원 지방에 따로 군(郡)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1914년 영유·순안·숙천의 세 고을을 병합하여 평원군을 설치하였다.

1952년 숙천면과 덕산면 일대를 각각 숙천군과 대동군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노지면 등을 병합하여 평원군을 개편하였다. 이때 평원면의 대부리와 이화리 등을 병합하여 평원읍으로 하면서 1읍 25리를 구성하였다. 이후 1992년 화진리와 신송리 일부를 병합하여 한천노동자구를 신설하는 동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2008년 현재 1읍 2 노동자구 29리를 관할하고 있다.

2) 지명

평원읍(平原邑)은 군의 중앙에 위치 한 읍이다.

동쪽과 북쪽은 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과 남쪽은 평야가 발달해 있다. 남포~신안주간 도로가 읍을 지나며, 수출 피복공장이 있다.

1952년 당시 평원읍 대부리·이화리·괴천리·영덕리를 병합하여 신설한 읍이다. 북동쪽에 있는 미두산 기슭에 조선시대의 누정인 훈련장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영유)에 미두산에 봉수와 산성을 만들고 군창을 두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이 그와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동지도』(영유)에는 읍치에 해당하는 중부면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일대가 지금의 평원읍에 해당한다.¹⁾

4. 자연 지명

묘향산맥(妙香山脈)의 여맥이 뺏어 내려 동북부는 산지를 이루며, 북서부로 갈수록 점차 경사가 완만해진다. 동쪽은 강룡산(降龍山, 446m)·청룡산(靑龍山, 546m)·자모산(慈母山, 559m), 서쪽은 불곡산(佛谷山, 238m)·와룡산(臥龍山, 74m), 남쪽은 만덕산(萬德山, 243m)·대원산(大圓山, 205m)·금강산(金剛山, 253m)·동금강(東金剛, 424m)·자화산(紫華山, 230m) 등의 산이 솟아 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해안 지대에는 대규모의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숙천 동쪽에서 발원하는 백장천(百丈川)과 조운산에서 발원하는 중교천(中橋川) 및 청산천(靑山川) 등이 서류하다가 서한만으로 유입된다.

동남부에는 보통강(普通江)이 남류하다가 대동군과 평양시를 지나 대동강으로 유입된다. 하천 연안에는 대규모의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벼농사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해안은 비교적 굴곡이 심하며, 간석지가 널리 분포해 있다. 또 한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양항이 발달되기는 어렵다.

기후는 해안 지대에 위치해 있어 내륙 지방보다는 온화하지만,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연평균기온 9.3℃, 1월 평균기온 -8.1℃, 8월 평균기온 24.9℃, 연강수량 933mm이다.

1) 대원산 『해동여지도 영유 대원산 일대』

『대동여지도』(9첩4면)에는 구봉산에서 서쪽 바다로 뺏어 간 줄기에 대원

1) 한국지명유래집 494면

산이 그려져 있으며 『조선지지자료』(영유)에는 우리말 지명으로 ‘두루메’라고 기재 되어있다.

2) 만덕산(萬德山)

만덕산(萬德山) 군의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고도:248m) 덕포리와 대동군의 경계를 이룬다. 오석산 줄기에 속하며, 동남쪽 사면에서 보통강(普通江)의 지류가 발원한다. 남쪽으로 수화산(秀華山)과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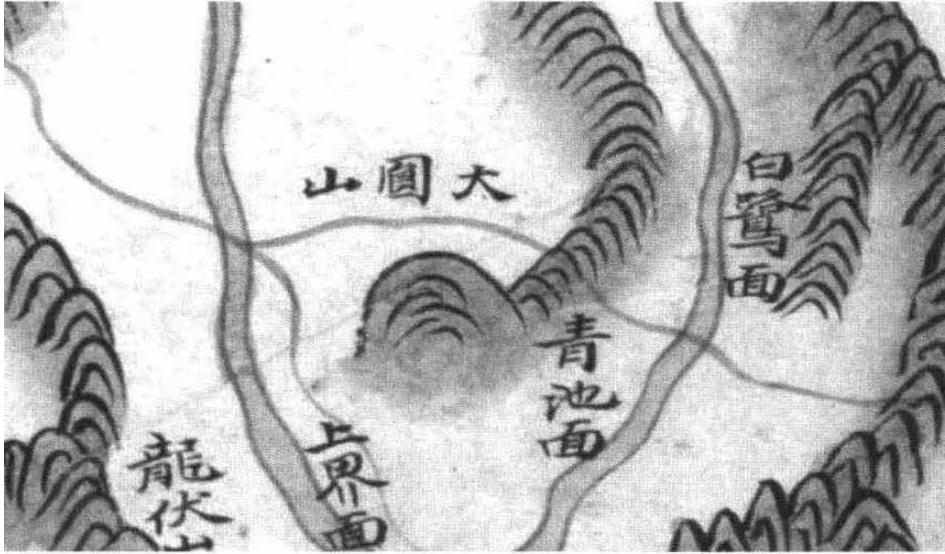
『대동여지도』(9첩 4면)에는 수화산과의 사이에 두등산(豆等山)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당시 평양시 내에 소재한 것으로 그려져 있어, 조선시대에는 순안현에 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지형도』(순안)의 덕산면에 만덕산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²⁾

평안남도 대동군 덕촌리의 서북쪽 덕화리, 평원군 덕제리·덕포리의 경계에 있는 산(해발 248m) 오석산 줄기의 중간 부분에 솟아 있다. 옛날 홍수피해 때 피난처로 이용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았다는 뜻에서 만덕산이라 하였다 한다.

임진왜란 때 외적의 침입을 피하여 만덕산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김응서 장군이 이곳에 모여든 그들을 창과 칼로 무장시켜 자기 산하의 군대와 함께 평양성 전투에 참전시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전설이 깃들여 있다. 평안남도 평원군 송림리. 평안남도 평원군 송림리의 북서쪽에 있는 산. 지난날 이 산에서 만덕을 누리게 해달라고 제를 지냈다고 한다.

2) 한국지명유래집 495~496면



『대동여지도』 (9첩4면) 대원산 일대



『대동여지도』 (9첩4면) 만덕산 일대

3) 전좌봉(殿座峯)

군의 동쪽 경계에 위치 한 산(고도 : 316m)이다. 군과 평양시와 평성시의 경계를 이룬다.

서남쪽에는 왕좌산(王座山)과 이어져 있으며 북서쪽에는 견룡저수지가 있다. 산의 서쪽으로는 보통강(普通江)이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동쪽에는 청룡산 줄기의 시작인 청룡산(靑龍山)이 있고 남쪽에는 보통강의 지류인 자시천(傑始川)이 발원한다.

『조선지형도』 순안의 동두면에 전좌봉 일대가 지명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농바위골 군의 중앙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송림리 동쪽에 소재한 샷갓봉의 동쪽에 있다.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옛날 욕심 많은 한 지주가 이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지주는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가을에는 그 몇 배에 달하는 곡식을 빼앗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주는 소작 농민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 빈 농 짝을 빼앗아 갔다. 농 짝을 신고 이 골짜기를 지나는데 하늘이 노했는지 갑자기 벼락이 쳤다. 그 바람에 지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빈 농 짝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산 중턱에 내려뚫혀 그대로 바위로 굳어졌다는 이야기에서 지명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4) 화진벌(和津伐)

평원벌 군의 서쪽에 위치한 평야이다. 화진천과 문흥천 연안에 전개되어 있으며 평원벌이 라고도 한다. 동쪽은 오석산 줄기가 지나며 서쪽으로는 서해에 연해 있다. 신의주~남포를 잇는 도로가 통과한다.

지명은 이곳의 화진리(和津里)에서 비롯되었다. 화진리는 1952년 한천면의 감육리·감칠리·감팔리를 병합하여 신설한 리이다. 서해의 바닷물이 포구로 유입되며 아늑하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지하류에 홍수 피해와 유량조절을 위한 갑문이 설치되어 있다. 농업을 위한 관개용수로 사용되며 평안남도 관개수로 체계에 속한다.

『조선지형도』 (한천)에 매전리 일대로 유입하는 하천의 유로에 ‘중교강(中

橋江)’ 지명과 함께 연교리에 중교동 지명이 기재되어 있어, 중교 지명이 마을 지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류에 홍수 피해와 유량조절을 위한 갑문이 설치되어 있다. 농업을 위한 관개용수로도 사용되며 평안남도 관개수로 체계에 속한다.

『조선지형도』(한천)에 매전리 일대로 유입하는 하천의 유로에 ‘중교강(中橋江)’ 지명과 함께 연교리에 중교동 지명이 기재되어 있어, 중교 지명이 마을 지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명은 이곳의 화진천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조선지형도』(한천)에 감육리 일대가 지명과 함께 묘사되어 있으나 화진천 지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래에 검토가 필요하다.

5) 율화천(栗化川)

군의 동쪽 일대를 흐르는 하천이다.(유로: 8.6km, 유역면적: 49.7km²)청룡산 줄기의 주봉인 청룡산(靑龍山)의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평성시의 경계에서 건룡저수지로 유입한다. 보통강의 지류이다. 평양시의 순안 구역과 형제산구역 일대에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지명은 평성시 율화리에서 비롯되었다. 1952년 순안군 동암면 율화리와 율일리·반송리를 합쳐 순안군 율화리가 되었다.

6) 중교천(中橋川)

군의 북서쪽 일대를 흐르는 하천이다.(유로: 15.5km, 유역면적: 114.3km²)미두산에서 발원하여 매전리를 지나 서해로 유입한다. 평원군에서 가장 큰 하천이며, 숙천군과의 경계를 이룬다. 하류에 홍수 피해와 유량조절을 위한 갑문이 설치되어 있다. 농업을 위한 관개용수로 사용되며 평안남도 관개하류에 홍수 피해와 유량조절을 수로 체계에 속한다.



『조선지형도』(한천) 중교천 일대

『조선지형도』(한천)에 매전리 일대로 유입하는 하천의 유로에 ‘중교강(中橋江)’ 지명과 함께 연교리에 중교동 지명이 기재되어 있어, 중교 지명이 마을 지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7) 한천개(漢川漑) 한다리개

화진천 군의 남서쪽을 흐르는 하천이다. 송화리에서 발원하여 한천 노동자 지구 일대에서 서해로 유입한다. 지명은 과거에 이곳에 있었던 한천면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지형도』(한천)에 한천면 소재지 일대에 유로가 묘사되어 있으나 지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화진리를 거쳐 흐르기 때문에 화진천이라고도 하고, 송화리 부근에 큰 다리가 건설되어 한다리개 라고도 한다.

8) 건룡저수지

석암저수지 군의 동쪽에 위치한 저수지이다. 보통강 상류의 용상리와 용이리 일대에 축조되어 있다. 평원군을 비롯하여 평양시 대부분 지역에 농업용수를 제공한다. 건룡 지명은 개천시 보부리에 있던 옛 지명인 건룡리에서 비롯되었다.

『신구대조』(개천) 외서면에 건룡리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1952년에 개

천면 건릉2리·송학리·마장리가 합쳐 보부리가 되었다. 다른 이름으로 석암저수지 라고도 한다.³⁾

5. 평원군 성씨 조건표(姓氏 早見表)⁴⁾

1) 개요

성은 혈족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정, 고대부터 사용해 온 것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옛 사서에 따르면 고구려는 시조 주몽이 건국하여 국호를 고구려라 한 까닭에 성씨를 고씨라 하고 또 주몽은 그 신하인 재에게 극씨, 무골에게 중실씨, 목거에게 소실씨를 사성했다고 하며 백제는 온조가 부여 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씨라 했다고 한다. 신라에는 박, 석, 김, 삼성의 전래가 있고 제3대왕 유리왕 때에 6부(6촌)에 사성했으니 즉 양씨(알천 양산촌)에 이씨, 사랑부(돌산 고허촌)에 최씨, 점량부(무산 대수촌)에 손씨 본피부(배산 간진촌)에 정씨, 한기부(금산 가리촌)에 배씨, 습비부(명활산 고야촌)에 설씨 등의 성을 주었다고 하며 가야국의 시조 수로왕도 황금알에서 나와 김씨로 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고대 부족사회 때부터 성을 사용한 것처럼 기록은 되어있으나 그것은 모두 중국 문화를 수입한 뒤에 지어낸대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용한 것은 중국과 왕래한 이후의 일로서 고구려는 건국 초기인 1세기 무렵부터 백제는 4세기 무렵인 근초고왕 때부터 대체로 성을 갖는 경우에는 대격 왕실의 성을 따라 쓰기 마련이다. 즉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여씨, 신라는 김씨를 쓴 사람이 가장 많고 그밖에 성을 가진 수효는 얼마 되지 않는다. 신라의 경우를 보면 김인문 김지랑 등과 같이 협신이 되어 당나라에 갔다 온 사람, 최치원 최리정 박계업 김권정 등과 같이 당나라에 유학한 사람, 장보고와 같이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칭해진(완도)대

3) 한국지명유래집 496~498면

4)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 100~127

사가 되어 동양의 제해권을 잡고 당나라와 일본무역을 한 사람들이 모두 성을 쓴 것이다. 그는 본래 미천한 사람으로서 성은 없고 다만 궁복이란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당나라에 들어가 보니 모두 성을 쓰고 있음을 보고 자기의 이름자 궁 변에다 당시 당나라의 대성인 장 씨를 모방하여 장자를 붙여 장자 성을 삼고 복의 음을 늘여서 보고로 표시한 듯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씨 중에 청주 한씨(시조 란) 신주 기씨(시조 우성) 태원(충주) 선우씨 등은 기자의 후손이라 하고 진주 강씨(시조 이식)는 수양제가 고구려에 침입할 때 따라온 사람이며 남양 홍씨(시조 은열)는 당 태종이 고구려에 파견했던 학사라 하며 연안 이씨(시조 무)는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따라온 장군이라 하며 창원 공씨는 공자의 후손이라 한다. 그 밖에도 중국 고대의 위인을 시조로 삼는 성씨가 많다. 또 사성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귀화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시대에 와서도 태조 이성계의 부하로서 남정북벌과 개국에 공을 세운 여진인 통두란에게 이지란이라 성명을 주어 청해이씨라 했다. 동국여지승람의 양덕 성씨 조에 따르면 양암진과 수덕진의 성을 대별하여 기록한 것이 있는데 고려조 말의 고성으로서 양암진에는 밀양 박/손씨, 안변오씨, 강화고씨, 전주최씨, 평강채씨, 경주김씨와 수덕진에는 이, 윤, 변 곡산한씨가 있었다. 그러나 이조에 들어와 타지방에서 전입한 성씨들이 많아 7대조 내지는 10대조까지 내려와 시향제를 보는 가문이 수십 호씩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많다. 대체로 각 면에 밀양박씨가 대성인데 그들의 중시조가 고려조 사헌이었던 규정공이며 군수공파로 성천군 영천면 대덕리에서 이주해 온 종문이며 일명 대두리 박씨라고도 한다. 청해이씨는 통두란의 후손으로 함경남도 북청 영흥에서 이주해 온 종문이며 단양우씨는 성천군 대구면 와동리에서 전입하여왔고 밀양 손씨 전주최씨는 고려말 때부터 오랫동안 정착한 고성 종문이다.

2) 읍면 분포현황

성씨 조건표는 평원군지에 의하면 20호 이상 집단으로 자성한 촌락을 이룬

성씨의 각 면별 분포 상황을 살펴본다. 86가지의 성씨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1) 공주 김씨(公州 金氏)

시조(始祖) 김알지(金闕智)의 후손 지대(之岱)의 8대손 의 손의 여덟 아들 중 용·구·원 3인이 북한으로 이거 하여 3인 다 공주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본 군의 공주 김씨는 조선조 참관 벼슬을 지낸 김구의 후손으로 평양파에 속하는데 그의 9세손 김한서가 노지면 문명리에 정착하여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노지면 문명리, 평원면 송석리, 용호면 청운리와 덕산면 대포리에도 상당수가 살고 있었다.

(2) 강화 위씨(江華 韋氏)

위씨(韋氏)는 중국 팽조(中國 彭朝)의 후예(後裔)로 당나라 때 성세를 보인 성씨로, 시조 위수 여는 고려 4대왕 광종때에 동래하여 사선관이 되었다. 후에 상주국 강화현 개국백으로 제수받고, 강화 오백 호를 식읍으로 봉하였다.

낙향 시조 위조는 평원면 송석리 시조산에 신도비와 화석동에 정착, 강화를 본관으로 하고 위조로써 기일세 한다. 본 군에는 평원면 송석리와 청산면, 노지면, 순안면 등에 수십 호가 살고 있었다.

(3) 양주 허씨(楊州 許氏)

허씨(許氏)는 48년 가락국(駕洛國) 수로왕비(首露王妃) 보주황태후(普州皇太后) 허씨(인도 지방의 공주)가 수로왕에게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성이 전해지지 못함을 호소하자 왕이 10 아들 중의 둘째 아들에게 모성을 따르게 한 데서 허씨 시초가 되었는데 후에 59본으로 나누어졌다 한다.

시조 허선문은 김수로왕의 30세손으로 고려조의 대관이었으며 왕건이 후백제를 칠 때 견훤을 항복케한 공이 커, 그 지방 동암(양천의 옛 이름)을 식읍으로 하사하였다. 양천을 본관으로 한 것인데 양주 허씨와 동원이다.

본 군에는 평원면 화림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4) 밀양 박씨(密陽朴氏)

모든 박씨(朴氏)는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유일조(唯一組)로 받들고 있다. 박씨의 대종인 밀양 박씨는 박혁거세로부터 29세손인 경명왕의 후손 중 16세손 박현이 고려때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규정을 지내고 태사를 지낸 청백리이다. 본 군의 밀양박씨는 이 규정공파로서 후손 박혁이 공덕면 향암리에 정착하여, 공덕면 원리, 동용암리, 순안면 남산리, 양화면 중흥리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

(5) 단양 우씨(丹陽 禹氏)

먼 옛날 중국(中國) 하(夏)나라의 우왕(禹王)의 후예(後裔)로서, 원손 우현이 고려때 동래하여 단양에 세거하였다. 그의 10세손 현보가 공양왕 때 삼사사로 단양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단양을 본관으로 삼았다.

본 군에는 공덕면 송매리, 원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6) 남평 김씨(南平 金氏)

고종 32년(1895)에는 남평군(南平郡)으로 승격하여 나주부(羅州府)에 속했다가 1914년 나주군 남평면이 되었다.

시조(始祖) 김운발(金雲發)은 신라 제56대왕(王)인 경순왕(敬順王)의 손자이다. 그의 벼슬은 문화시중에 이르렀고, 나주군에 봉해짐으로써 후손이 나주를 본관으로 했다. 남평 김씨는 나주 김씨와 동원인데 본 군으로 낙향하여 남평군 명으로 본관으로 삼았다. 본 군에는 공덕면 괴전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7) 백천 김씨(白川 金氏)

시조(始祖) 김선(金善)은 신라(新羅) 대보대왕(大輔大王) 김알지(金闕智)의 후예이다. 1476년 전라 좌수사로 있다가 의주로 유배되었다. 그 뒤 후손들이 백천으로 이주세거 하면서 안악 김씨에서 분 적, 김선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백천으로 하였다. 본 군에는 공덕면 퇴남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8) 만경 김씨(萬頃 金氏)

통일신라(統一新羅)때 경덕왕(景德王)이 만경현(萬頃縣)을 두었는데 전라북도 김제군에 해당된다. 지금 김제군 만경면이다.

만경 김씨는 김제 김씨인데, 시조 김천서는 고려때 문하시중으로 월성부원군에 봉해졌고, 그의 7세손 김정걸이 태종 원년에 공을 추증받아 김제군이 되었다. 후손들이 본관을 김제로 하였는데 본 군에는 공덕면 병상리에 만경 김씨로 많이 거주한다.

(9) 적성 김씨(積城 金氏)

적성(積城)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京畿道 坡州郡 積城面)이다.

시조(始祖)는 김상환(金尙煥)으로 자(字)는 문원(文遠)이며, 1636년(仁祖 14년)생으로 평양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몽립으로 1669년에 식년 문과의 병과로 급제, 벼슬은 감찰에 이르렀다. 본 군에는 공덕면 송매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10) 경주 김씨(慶州 金氏)

시조(始祖)는 김알지(金闕智)이며, 그의 7세손(世孫)인 미추왕(味鄒王)에 이르러 비(妃)로써 왕위에 올라, 그 후 38왕이 연면 계승했다. 경주 김씨 마지막 왕 경순왕의 제3자 명종과 제4자 은설의 후손들이 대를 이었고 현달하는 인물들과 세거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분파가 생겨났다. 본 군에는 공덕면 간리와 양화면 신정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11) 청주 한씨(淸州 韓氏)

한씨(韓氏)는 한국(韓國) 최고(最古)의 역사를 지닌 이른바 삼한갑족(三韓 甲族)이다. 청주 한씨의 세보에 의하면 기지 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의 후대에 3형제 중 청주 한씨의 시조 한란은 기자의 후예인 우량의 원손이라 하며 고려 태조때 개국공신으로 삼중대광이었다. 본 군에는 공덕면 장재리와 산송리에 큰 집단촌이 있었고 순안면 구서리와 용호면 운봉리에 살고 있었다.

(12) 장수 이씨(長水 李氏)

시조(始祖) 임간(林幹)은 고려(高麗) 충선왕(忠宣王)때 정승으로 장천 부원군에 봉해졌고, 그의 증손인 을진은 공민왕때 정승을 지내고 순충적덕 보조공신으로 장천부원군에 증직되어 후손들이 장수를 본관으로 하며, 공덕면 적암리에 여러 호가 모여 살고 있었다.

(13) 해주 최씨(海州 崔氏)

고려(高麗) 최충(崔沖)을 시조(始祖)로 하며, 최충(崔沖)은 문과에 장원, 해주 목민관으로 부터 문하시중까지 올랐고, 후에 내사령에 추증되며 해동공자로 추앙받았다. 검산면 신성리, 동암면 상탄리, 용호면 어당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14) 전주 김씨(全州 金氏)

시조(始祖) 김태서(金台瑞)는 신라 경순왕의 4자 은설의 8세손으로, 경주 김씨와 동원이다. 1254년 몽고의 침입으로 전주로 이주하였고 문하시랑평장사, 보문각 대제학에 올라 전주 군으로 봉해졌다. 후손들이 본관을 전주로 삼고 그의 시호는 문장이다. 본 군에는 동암면 울일리, 용호면 남양리, 뇌송리와 덕산면 대포리, 삼정리, 원오리, 제리에 살았다.

(15) 고양 김씨(高陽 金氏)

시조(始祖) 김남득(金南得)은 의성군(義城君) 김석(金錫)의 11세손으로 1340년에 진사가 된 후, 원나라에 가서 예부상서 벼슬을 받고 환국, 왕이 익대공신 고양 부원군을 봉하고 남득이라 사명했다. 고양은 고려의 옛 이름이기 때문에 후손들은 본관을 고려으로 하였는데 본 군에 낙향한 후손들은 고양을 본관으로 했다. 동암면 용인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16) 영광 김씨(靈光 金氏)

시조 김심언(金審言)은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4자 은설의 4세손으로 고려

성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현종때 오성 군에 봉해졌다. 본관을 영광으로 하여 자 윤보, 손자 극검으로 세계를 이어오다 누차 병화로 문적이 실전되어, 후손대에 와서 영광과 등 여러 갈래로 파조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본 군의 영광 김씨는 동암면 문암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17) 연일 정씨(延日 鄭氏)

시조(始祖) 습명(襲明)은 고려(高麗) 의종(毅宗)때의 충신으로 추밀원 지주사를 지냈다. 선대에 의경이 연일호장을 지냈는데, 다시 연일현백에 봉해졌으므로 후손이 연일을 본관으로 하였다. 비조는 신라 6부 시대의 지백호로서 경주의 6촌 지명을 개칭할 때, 정씨로 사성받았다. 고려말 정몽주 같은 학명 높은 충신이 많으며, 본 군에는 동암면 율화리에 많이 살았다.

(18) 충주 김씨(忠州 金氏)

시조(始祖) 김남길(金南吉)의 상계에 대한 문헌이 실전되어 상고할 수 없고, 다만 국가의 유공하여 충원(충주의 옛 이름) 군에 봉해졌다는 것만 전할 뿐이다. 그의 후손 종해의 4세손 영익이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을 지내고 한성에서 황해도 백천으로 이주한 후, 남길을 시조로 종해를 1세조로 하고 충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본 군에는 동암명 반송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19) 당악 김씨(唐岳 金氏)

시조(始祖)는 김낙(金樂) 충장공(忠壯公)이며, 신라 김알지 대왕의 23세 문성왕의 2남이다. 고려 창건 공신으로 개국통합 삼한 일등공신에 책봉되고 본관을 당악으로 하였다. 본거지는 고려 17대 인종조까지 이백년간 당악현이고 후에는 중화현으로 변경되었다. 본 군에는 순안면 원일리, 사직리, 오산리 등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20) 상산 김씨(商州 : 商山 金氏)

시조(始祖) 김수(金需)는 신라(新羅) 종실(宗室) 김알지계(金闕智系)의 후예

로서 고려 때 벼슬이 보윤에서 시중에 까지 이르렀다. 누대 상주에 세거하였는데, 5세 비궁이 상산부원군, 9세 일이 상락 군, 10세 녹이 상성군에 봉해져 본관을 상산으로 한다. 영유로 낙향한 계류는 영중추공파로 성종때 14세 김구정이 이주 정착하였다. 본 군에는 노지면 정림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21) 전주 이씨(全州 李氏)

연원(淵源)은 신라(新羅) 문성왕(文聖王)때 사공(司空) 벼슬을 지낸 이한을 시조로 하는데, 그의 18세손 안사가 대대로 전주에 살아온 호족인데, 전주 지주의 탄압 때문에 강원도 삼척으로 갔다가 함경도로 갔다. 22세손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창건하여 전주 이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전주이씨는 116파가 되며 본 군에는 노지면 대송리, 양화면 용북리와 옥정리에 살고 있었다.

(22) 연안 차씨(延安 車氏)

시조(始祖) 차효전(車孝全)은 고려(高麗) 태조(太祖)때 대광백(大匡伯)이다. 그의 7세조 차승색이 애장왕을 시해한 언승을 피해 아들 공숙과 황해도 구월산 묵방동으로 피해 류씨로 변성하고 승색은 색으로 공숙은 숙으로 개명했다.

그 후 6세손 류차달이 아들 형제와 고려 태조를 도와 창업에 큰 공을 세워 차달이 승상이 되자 왕이 장자 효전에게 대광백을 봉하고 연안을 식읍으로 하사하고 차씨로 회복시켜주었다. 19세손 명동이 전서 벼슬이 있어 후손들이 전서공파가 되었으며 동송면 군자리와 월봉리에 큰 집장촌이 있고, 덕산면 유촌리에도 1파가 살고 있었다.

(23) 광주 김씨(廣州 金氏)

시조(始祖) 김록광(金祿光)은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의 8세손으로서 고려때 벼슬이 높아져 광주군에 봉해지고 광주를 식읍으로 하사받고 후손들이 광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본 군에는 조운면 갈산리, 덕산면 호려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24) 교하 노씨(交河 盧氏)

교하 노씨(交河 盧氏)와 광산 노씨(光山盧氏)의 근원은 같다. 시조 노수(盧穗)의 자 노오의 후손인 노강필이 기계에 세거하면서, 본관을 장산으로 하였으나 고려 초 개국공신이 되어 의정부원군에 봉해진 다음 교하에 적을 두어, 후손들이 교하로 개관하였다. 본 군에는 덕산면 제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25) 연안 이씨(延安 李氏)

시조(始祖) 무(茂)는 중국(中國) 당(唐)나라 고종(高宗)때에 중낭장으로 소정방의 부장이 되어 신라에 와서 백제를 평정한 공으로 연안백에 봉해지고, 후손들이 연안을 본관으로 했다. 세월이 흘러 계대가 실전되어 후손들이 여러 파로 분파되어 각기 중시조를 일세로 계세한다. 본 군에는 노지면 대주리와 청산면 송현리에 많은 호가 살고 있었다.

(26) 사천 조씨(泗川 趙氏)

문헌(文獻)에 의하면 조씨(趙氏)는 210본이라 하는데, 조선조 시대에 명성을 떨친 명문도 있었다. 그러나 195본이 상고할 문헌이 없다. 경남 사천을 본관으로 하는 조씨도 연원을 상고할 수 없으며, 본 군에는 청산면 계산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27) 곡산 강씨(谷山 康氏)

강씨(康氏)는 중국(中國) 주(周)나라 왕실의 후예로 동도해 왔는데, 시조(始祖) 강서(康庶)는 고려때 벼슬길에 올라 삼중대광 상산백에 봉해졌는데 기자 강윤성은 고려 충혜왕때 문과급제하였고, 조선조 태조의 국구, 상산부원군으로 경안백에 추봉하였다. 본군으로 낙향한 것은 윤성의 4자인 계권의 3자 식으로 후손이 세거하니 숙천파)라 한다. 노지면 용당리와 추흥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28) 평산 신씨(平山 申氏)

시조(始祖)인 고려 개국 원훈대장군(開國 元勳大將軍) 신승겸(申崇謙)은 초명(初名)은 능산(能山)인데, 전라도 곡성에서 출생했다.

태봉국의 기장으로 궁예를 폐하고 왕건을 추대하였다. 그는 활의 명수로 왕과 함께 평주에 사냥을 나갔다가 활 쏘는 모습에 탄복하여 그곳 땅 300결을 하사하고 본관을 평산으로 삼게 했다. 숙천면 통덕리 많이 살고, 미남리, 백로리, 도덕리와 노지면 석소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29) 백천 유씨(白川 劉氏)

유씨(劉氏)의 도시조(都始組)인 전(筌)은 중국 한나라 고조(高祖)의 41 세손으로 송나라 때 병부상서 벼슬을 하였다. 1082년 8학사의 일원으로 고려에 와 경북 영일군에 살았다. 전의 8세손인 국추가 문하시중 평장사에 추증되고 백천군에 봉해져서, 후손들이 백천을 본관으로 하고 있다. 노지면 문명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30) 풍천 김씨(豐川 金氏)

시조(始祖) 김우양(金于盎)은 고려 공민왕때 선공서령을 지냈다. 193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본군 용호면 연교리, 해소면 송정리에, 평원면 부용리와 원류리에 살고 있었다.

(31) 김해 김씨(金海 金氏)

시조(始祖)는 가락국(駕洛國) 왕(王)인 김수로(金首露)의 후예이다. 가락국의 고도는 지금의 경상도 김해인데, 이는 고려 충선왕때에 이르러 김해부가 설치되어 후손들이 김해를 본관으로 한다. 김목경을 파조로 하는 김령군파를 비롯 142파로 분파되었으며, 본 군에는 조운면 순정리, 동송면 백석리, 용호면 안연리, 뇌송리 많이 살고 있었다.

(32) 경주 최씨(慶州 崔氏)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을 시조로 하는데, 기원전 50년경 서라벌 6촌중 돌산 고희촌의 촌장 소벌도리의 24세손으로 신라 6촌장이 사성 받을 때 최씨로 되었다. 대대로 경주에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경주로 하였다, 후손으로 6개파가 주축을 이루고, 용호면 용강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33) 진주 정씨(晉州 鄭氏)

진양(晉陽:진주) 정씨의 원류(源流)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 6촌중 취산 진지촌의 촌장 지백호로 내려오다,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각기 시조를 달리 하여 진주 팔정이라 한다. 근일에 와서 영절공 정예를 진주 정씨의 비조로 대동보를 만들고, 해소면 송정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34) 은진 송씨(恩津 宋氏)

시조(始祖) 대원(大原)은 여산 송씨(曠山 宋氏)의 시조 유익(惟翊)의 아우 천익(天翊)의 후손으로, 누대에 은진에서 세거했다.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계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고려조에 은진군에 봉해진 대원을 시조로 기일세하고 은진을 본관으로 하였다. 해소면 내덕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35) 경주 설씨(慶州 薛氏)

시조(始祖) 지덕(支德)의 후손으로 신라 고야촌 습비부가 경주에 속하므로 본관을 경주로 하였다. 그런데 4세자 승이 순화백에 봉해졌다 하여 순창으로 이관하였으나, 후대에 귀창을 파조로 하는 개성파는 다시 경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해소면 송정리, 동송면 월봉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36) 김화 김씨(金化 金氏)

시조(始祖) 김경언(金景言)의 선세계는 신라 종실의 후예이며, 그가 평장사로 김화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김화로 했다. 서해면 사산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37) 진주 이씨(晋州 李氏)

시조(始祖) 이군재(李君梓)는 경주 이씨의 증조인 이거명의 17세손인 이수
의 아들로써 조선조 태조때 이조판서였는데 왕에게 직간 하다가 성천으로 유
배되었다. 그 때 대제학을 사임하고 고향인 진주에 내려가 있는 형 영재를 그
리면서 진주를 본관으로 하였고, 서해면 사산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38) 원주 이씨(原州 李氏)

시조(始祖) 이신우(李申佑)는 경주 이씨 이거명의 12세손으로 고려조 때 병
부상서를 지내고 공이 있어 원주 백에 봉해졌다. 그래서 후손들이 경주 이씨
에서 분적하여 원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서해면 연풍리에 모여 살고 있었다.

(39) 동북 오씨(同福 吳氏)

서기 500년 신라 지증왕에 중국(中國)에서 동도(東渡)한 오침(吳瞻:오왕의
후손)이 함양에 정착하고, 24세손 오현좌가 고려 고종 때 거란의 침입을 형
과 아들과 함께 막아낸 공으로 동북군에 봉하여져 후손들이 현좌를 시조로
하고 동북을 본관으로 하였다. 검산면 터산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40) 해주 오씨(海州 吳氏)

오씨(吳氏)의 비조(鼻祖) 오침(吳瞻)이 중국에서 동래(東來)하여 24세손 현
보, 현좌, 현필 3형제가 거란을 토평하고 현보는 해주군, 현좌는 동북군, 현필
은 보성군에 봉해졌다. 후손들이 각기 분적하여 현보가 해주 오씨의 시조가
된 것이다. 검산면 검양리, 송양리, 신성리 그리고 오룡골에 많이 살고 있었다.

(41) 장연 노씨(長淵 盧氏)

장연 노씨(長淵 盧氏)와 광산노씨(光山盧氏)는 동원인데 시조 오수의 제4자
구가 장연백에 봉해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장연을 본관으로 삼았다.

검산면 검서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42) 전주 박씨(全州 朴氏)

시조(始祖) 박언화(朴彦華)는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朴赫居世)의 29세손인 경명왕의 제6세자로 완산 대군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본관을 전주로 하였다. 본 군에는 검산면 신지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43) 청풍 김씨(淸風 金氏)

시조(始祖) 김대유(金大猷)는 신라 경순왕의 아들 김은설의 장자 김정구의 17세손이다. 그는 고려조때 문하시중에 이르렀고, 청성 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청풍으로 하였다. 조운면 갈산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44) 광주 김씨(光州 金氏)

시조(金興光)은 신라 신무왕(神武王)의 제3자다. 그는 국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광주 서일동에 자리를 잡고 살았기에 후손들이 그대로 광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본 군으로 낙향한 후손들은 그대로 광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조운면 응암리에 많이 살았다.

(45) 안악 이씨(安岳 李氏)

시조(始祖) 이극규(李極圭)는 고려조의 공신으로 양산군에 봉해지고, 안악읍을 식읍으로 하사 받았다. 후손 이괴는 대제학을 역임했고, 이괴는 16세손 이견이 공민왕 홍건적 난때 개성을 사수하다 전사하자 안악군에 하였다. 이견을 1세로 하고 본관을 안악으로 했다. 조운면 송천리에 많이 살고 있다.

(46) 충주 석씨(忠州 石氏)

시조(始祖) 석인(石鄰)은 고려 의종(毅宗) 때에 조위청 난을 평정한 공으로 상장군에 이어, 서북 병마사를 지내고 예성(충주의 옛 이름) 군에 봉하였다. 그의 7세손 석천을의 아들 형제중 제1자 석수명의 후손은 본관을 홍주로 하였고, 제2자 석여명의 후손은 본관을 충주로 하였다. 조운면 용암리에 많이

살았다.

(47) 광주 정씨(光州 鄭氏)

시조(始祖) 정신호(鄭臣扈)는 본래 신라 6부 촌장의 한 사람인 지백 호의 후예인데 광주에서 세거하였다. 고려 충숙왕때 추증되어 후손들이 광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제9세손 정응규가 경기도 광주에 입향한 후 집성촌을 이루어 정응규를 입향조로 한다. 정응규는 조선 중종때 인물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를 지낸 인물이다. 죽은 뒤 조정에서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주고, 그가 살던 지역 일대를 사패지로 내렸기 때문에 추자리가 광주정씨의 집성촌이 되었고 특시성 한 정천세를 시조로 한다. 조운면 순정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

(48) 강화 김씨(江華 金氏)

강화 김씨(江華 金氏)는 신라 경순왕의 제4자 김은설 계에서 분적되었다. 동본 3파로 분류 계세하고 있는데, 제1파는 김은설의 8세손 고려 명종때 하음(강화의 옛지명) 군을 지낸 김성을 1세조로 하는 개성파, 또 한파는 조선조의 훈련원 주부를 지낸 김송학을 1세조로 한 용천파, 연산군때 병조참관을 지내다 무오사화 때 숙천으로 유배된 김광을 1세조로 하는 숙천파가 되었다. 숙천면 송저리에 많이 살고 있다.

(49) 문화 김씨(文華 金氏)

시조(始祖) 김검달(金檢達)은 경주 김씨의 후예인데 선세계의 문적이 병화로 실전되어 분파 계대가 미상이며, 유주(문화의 옛 지명)에 세거하여 후손들이 그를 중조 1세로 세계를 계승하고 본관을 문화로 하고 있다.

동송면 청룡리와 해소면 월현리에 많이 살고 있다.

(50) 강화 이씨(江華 李氏)

시조(始祖) 대평(大平)은 고려때 중낭장 태후를 역임한 삼한벽상 공신인데 하음(江華)에 토착하였으므로 후손들이 강화(江華)를 본관으로 하였다.

평원면 장림리에 일족이 살고 있다.

(51) 승평 김씨(昇平 金氏)

승평 김씨는 순천 김씨와 동원(同源)으로 본래 신라종성이다. 시조 김충은 호안왕때 순천으로 이적한 후, 평양 군에 봉해졌고 후손들이 순천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고, 김윤인(金允仁)을 증시조로 하는 1파의 후손 김류는 조선조 선조때 승평부원군에 봉해졌다. 본 군으로 낙향한 후손들은 본관을 승평으로 하였다. 순안면 구교리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52) 평주 박씨(平州 朴氏)

시조(始祖) 수경(守卿)의 선세계(先世系)는 신라 종성 박씨의 후예라 하나 문적이 실전되어 상고할 수 없으나, 수경은 원윤으로 평주에 침입한 견원을 격퇴한 공으로 개국공신 평주군으로 봉해졌다. 그래서 평주를 본관으로 하였는데 세계가 실전되어 그 후손 광염을 1세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양화면 상송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53) 광산 김씨(光山 金氏)

시조(始祖) 김흥광(金興光)은 신라 신무왕의 3자인데, 그는 장차 국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광주 서일동에 복거했고 후손들이 본관을 광산으로 했다. 후손 김국광은 조선조 세종때 좌의정이 되었고, 1471년에 좌리공신이 되어 광산부원군에 봉해졌다. 해소면 종율리, 양화면 신리, 용북리에 많이 살고, 순천군 은산면에도 많이 살고 있다.

(54) 원주 변씨(原州 邊氏)

변씨의 원류(原流)는 중국 송나라 말기에 귀화하여 상장군이 되고 태천백에 봉해졌던 변려의 후손 변안렬을 시조로 한다. 변안렬은 1351년 원천부원군에 봉해지고 원주를 식읍으로 하사받아 원주에 정착 세거하여 후손들이 원주를 분적한 것이다. 덕산면 등에 수십 호가 살고 있다.

(55) 전주 전씨(全州 全氏)

전씨의 도시조(都始祖)인 전섭(全儼)은 백제 온조왕(溫祚王)때 10제 공신으로 환성군에 봉해졌다. 30세손 전준이 시조로서 고려 공민왕때 호성공신이 되어 완산(全州)에 봉해지고, 후에 삼중대광첨의 문하시중 평장사에 추증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주 전씨와 완산 전씨는 동일본관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순안현(順安縣) 성씨 난에 있다.

(56) 풍천 임씨(豐川 任氏)

시조(始祖) 임온(任濫)은 중국 소흥부 자계현 사람으로 관직이 은자 광록대부에 올랐다. 6세손 임주가 고려충렬왕때 동래하여 경상도 추동 등 안찰사를 거쳐 감문위 대장군을 지냈다. 풍천으로 사적하고 송경창 선방에 제택을 하사 받아 후손이 세거하여 일문을 이루고 본관을 풍천으로 하였다.

동국여지승람 영유현(永柔縣) 성씨 난에 있다.

(57) 청주 양씨(淸州 楊氏)

중국의 주나라의 양후(楊侯)에 봉해졌던 백교가 양씨로 성을 삼게 되었다. 그 후손인 양기가 원나라때 1351년 노국대장공주를 배종하여 입국, 청주에 정착하였다가 원나라에 다시 들어가 삼한창국공신 상당백을 특배받고, 청주관적을 하사 받았다. 후손들이 양기를 시조로 하여 기 1세로 했다.

동국여지승람 숙천부(肅川府) 성씨 난에 있다.

(58) 황주 황씨(黃州 黃氏)

시조(始祖) 황응성(黃應星)은 황주(黃州)에 토착(土着)한 사족(土族)으로 부사를 역임했다. 선세계는 미상이고, 후손들이 황주에 세거하면서 본관을 황주로 하였다. 동국여지승람 숙천부(肅川府) 성씨 난에 있다.

(59) 밀양 손씨(密陽 孫氏)

시조(始祖) 손순(孫順)의 선계(先系)는 신라 6부 촌장의 한사람인 무산 대수 촌장 구례마(俱禮馬)로 박혁거세를 초대왕으로 추대하여 개국공신이 되었다. 그 후 유리왕 9년에 사성을 받아 손씨로 창성되었다. 그 후 세손이 실전되어 후손 손순이 신라 흥덕왕때 월성군에 봉해져 그를 시조로 하였다. 그의 3차 손자 손익감이 신라조에 공을 세워 응천군에 봉해져 본관을 밀양으로 했다. 동국여지승람 영유현(永柔縣) 성씨 난에 있다.

(60) 파평 윤씨(坡平 尹氏)

시조(始祖) 신달(辛達)은 태사 삼중대광(太師 三重大匡)으로 그의 5세손 윤권은 고려 문종때 급제하고, 영평 현(縣) 개국백(開國伯)에 봉해짐으로 후손들이 본관을 파평으로 하였다. 동국여지승람 영유현(永柔縣) 성씨 난에 기록이 있다.

(61) 백천 조씨(白川 趙氏)

시조(始祖) 조지린(趙之遴)은 중국 송나라 태조의 손자로 전란을 피하여 동래(東來), 황해도 백천에 정착 세거하였고 그의 아들 양유는 고려 덕종(德宗)과 정종(靖宗)때 문하시중에 오르고, 백천군(白川君)에 봉해졌다.

동국여지승람 영유현(永柔縣) 성씨 난에 있다.

(62) 남양 홍씨(南陽 洪氏)

시조(始祖) 홍천하(洪天河)는 중국 당나라에서 8학사의 한사람으로 고구려 영유왕(榮留王)때에 입국하였고, 선덕여왕때 당성백(唐城伯)에 봉해지기도 했고 태자 태사가 되었으며 당성에 사관되었다. 그 후 고려 개국공신인 홍은열(洪殷悅)을 중시조 1세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는데, 당성이 남양으로 개칭함에 남양을 본관으로 삼았다. 동국여지승람 영유현(永柔縣) 성씨 난에 기록이 있다.

(63) 풍천 노씨(豊川 盧氏)

시조(始祖)는 노수(盧穗)이나 그의 아들 노지(盧址) 이후 세계가 실전되어 후손 노지가 신라 때 봉직하여 풍천백(豊川伯)에 봉하여져 후손들이 풍천을 본관으로 삼았다. 1세조 노유는 고려조의 국자진사를 지냈다.

한천면 신성리 많이 살고 있고, 영유현(永柔縣) 성씨 난에 기록이 있다.

(64) 정선 전씨(旌善 全氏)

우리나라 모든 전씨의 유일조(唯一祖)로 되어있는 전섭(全聶)은 고구려 동명왕의 제3자 온조가 남천할 때 온조를 배종 한 막료로 부여에 도움을 정하고 백제건국 10제 공신으로 환성군(歡城君)에 봉해졌다. 8세손 전선이 백제로부터 공주를 배종하고 신라에 와서 정선군(旌善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정선이라 하고, 전선을 시조, 전선을 득관 중조로 내려온다.

동국여지승람 숙천현(肅川縣) 성씨 난에 있다.

(65) 평산 김씨(平山 金氏)

시조(始祖) 김영장(金永長)은 조선조의 검교(檢校)와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내고 세거지인 영천에서 황해도 평산으로 이거 한다. 후손들이 본관을 영천으로 한 일파가 있고 본군의 평원면 월정리에 평산 김씨들이 살고 있다.

(66) 원주 김씨(原州 金氏)

시조(始祖) 김거(金巨)는 김알지(金闕智)의 37세손으로 고려 의종때 원성백에 봉해짐으로 후손들이 원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평원군 송석리에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67) 안동 권씨(安東 權氏)

시조(始祖) 권행(權幸)은 신라왕실의 후예로 본명이 김행인데 고려 건국 당시 견훤을 토벌하고 태조를 보필한 공이 크므로 930년에 권성을 하사받았고

안동부를 식읍으로 봉해주어 후손들이 본관으로 하였다. 씨족이 번성하였으나 본 군에는 집성촌이 없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68) 경주 이씨(慶州 李氏)

시조(始祖) 이알평(李諲平)은 진한(辰韓) 6촌장의 한명으로 BC 57년 박혁거세를 신라 초대왕으로 추대하여 32년에 이씨로 사성을 받아 세계를 이어왔다. 36세손 거명을 중조 1세로 하고, 본관을 경주(慶州: 양산촌)로 하여 세계를 이어 오다 21세손대에 와서 원주 이씨와 분적한 후 경주 이씨로 현재에 이른다. 본 군에는 평원면을 중심으로 수십호가 살고 있다.

(69) 현풍 곽씨(玄風 郭氏)

시조(始祖) 곽경(郭鏡)은 1133년 중국 송나라에서 내사하여 벼슬을 얻어 포산군(苞山君: 조선조 현풍현)에 봉해짐으로써 본관을 다 현풍으로 통일하였다. 공덕면 송매리에 곽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70) 인동 장씨(仁同 張氏)

시조(始祖) 장금용(張金用)은 인동(仁同) 사람으로 장정필(張貞弼)의 후손이다. 장금용은 고려때 상장군을 지냈으며 후손들이 옥산(玉山: 仁同의 별명)에 세거하였는데, 조선조 말엽에 옥산이 인동으로 개칭됨에 본관을 인동으로 했다. 그 후 인동 재향의 자손은 옥산을 본관으로 하고 있다.

본 군에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71) 목천 마씨(木川 馬氏)

도시조(都始祖) 마여(馬黎)는 백제 온조왕의 좌보로서, 온조왕과 고구려에서 남하하여 10제국(十濟國: 후에 백제국)을 세워 온조를 초대왕으로 추대하여 십제원훈(十濟元勳)에 보임되었다. 후손 마순홍이 고려 정종때 목천군(木川君)에 봉해졌고, 아들 마점중이 문종때 또한 목천군(木川君)에 봉해져 본관을 정했다. 평원면 화림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었다.

(72) 신안 주씨(新安 朱氏)

시조(始祖) 주잠(朱潛)은 중국의 먼 옛날 전욱의 후예인 주희(朱熹 : 주자)의 증손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신안 주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700여년이 내려오면서 후손들이 각지의 거주지를 본관으로 하여 오다, 1902년(高宗39년) 문외에 의하여 상소를 올린 결과, 조칙을 받아 주잠의 후손은 모두 본관을 신안으로 하였다. 청산면 용암리(옛지명 청지면 조산리)에 「조산리 주씨」로 불리는 주촌이 있다.

(73) 연주 현씨(延州 玄氏)

시조(始祖) 현담윤(玄覃胤)은 원래 연주(延州) 사람으로 고려 의종때 대장군을 지낸 후, 명종 때 연안군(延安君)으로 봉해졌다. 후손들이 연주를 본관으로 청산군 송현리 등에 살고 있다.

(74) 순흥 안씨(順興 安氏)

시조(始祖) 안자미(安子美)는 고려조에서 보승별장(保勝別將)을 지내고 흥녕현(興寧縣: 경북 순흥)에 세거하여 본관을 순흥으로 했다. 후손이 번창하여 시조 자미의 장자 영유의 후손을 제1파, 차자 영린의 후손은 제2파, 삼자 영화의 후손은 제3파로 계대하고 있다. 용호면 응오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75) 양근 함씨(楊根 咸氏)

원래 당(唐)나라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함혁(咸赫)이 신라때 동래하여 익화(益和: 楊根의 옛 이름) 자사(刺史)를 지냈다. 후손 함신(咸信)이 785년에 강릉에서 살게 되어 본관을 강릉으로 하였다.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후손들이 60본으로 분적이 되었다 하나 모두 고려시대 개국공신으로 대사마 대장군(大司馬 大將軍)이 된 함규를 시조로 하고 있다.

본 군의 함씨는 원조(遠祖) 함혁(咸赫)의 정착지인 양근(陽根)을 본관으로 하였는데 용호면 약전리에 여러 호가 살고 있다.

(76) 전주 임씨(全州 林氏)

시조(始祖) 임팔급(林八及)은 중국 당나라 문종(文宗) 때에 한림학사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평성(彭城: 평택 옛 지명) 용주방에 세거하여 본관을 평택(平澤)으로 한 바 있으나 그 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전주외에 많은 분적이 되었다. 본 군에도 흩어져 살고 있다.

(77) 이천 서씨(利川 徐氏)

서씨의 원류(遠流)는 기자(箕子)의 42세손 기준이 이천 서하성으로 피거한 후, 그의 후손들이 서 씨가 되었다. 시조 서신일(徐神逸)은 신라 효공왕때 국운이 다함을 알고 이천 효양산록에 복성당을 짓고 은거하며 후진 양성에 여생을 바쳤다. 이천을 본관으로 하였고 본 군에도 흩어져 살고 있다.

(78) 제주 고씨(濟州 高氏)

고씨는 탐라(耽羅: 제주) 삼성(三姓)의 하나로 고을나(高乙那)의 후손인데 그 후 세거지나 조상 작호에 따라 많은 분관이 생겼으나, 다 같은 혈족이라 하여 대동 단합하여 고을나를 시조로 하고, 제주 고씨로 환적하였다.

본 군에도 여러 곳에 살고 있다.

(79) 선산 백씨(善山 白氏)

백씨의 시조(始祖) 우경(宇經)은 중국 소주(蘇州) 사람으로 780년에 동래하여 계림 자옥산 아래 정착하면서 신라조의 좌 박사 사공 대사도 벼슬에 올라 백씨 연원이 된다. 경명왕때 중낭장을 지낸 백창직을 중조로 후손들이 각기 분파를 이루고 본 군에도 흩어져 많이 산다.

(80) 남평 문씨(南平 文氏)

시조(始祖) 문다성(文多省)은 472년 2월 남평현(南平縣) 동쪽 장자지에서 신라 자비왕에게 문씨를 사성 받았다. 500년에 중시아손이 된 후, 대국사가 되어 식읍 3천 호를 받았다. 남평 개국백에 추봉되니 후손들이 남평을 본관

으로 했다. 평원면 외에 수십 호가 살고 있다.

(81) 나주 나씨(羅州 羅氏)

나씨(羅氏)의 원류(源流)는 중국 백익(伯益)의 후예로 주나라 때 대나씨(大羅氏)가 되어, 성왕때 공이 크다 하여 나(羅) 땅에 봉해지면서 나씨가 되었다. 당나라 때 수찬관(修撰官)을 지낸 나부가 정난을 피해 동래하여 고려조의 감문대장군을 지내고 나주(羅州: 회진)에 정착 세거하면서, 시조는 나부, 본관은 나주로 하였다. 이후 세계가 실전되어 나득규를 중조로 하여 기일세하고 있으며 본 군에도 곳곳에 거주하고 있다.

(82) 진주 강씨(晉州 姜氏)

시조 강이무(姜以武)는 고구려조의 도원수로 많은 전공을 세운 공신이다. 그의 후손 강진이 진양(晉陽: 진주) 후(侯)에 봉해지면서 본관을 진주로 한 것이다. 본 군 여러 곳에 살고 있다.

(83) 남원 양씨(南原 梁氏)

시조(始祖)는 탐라(耽羅: 제주) 삼성의 하나인 양을나(良乙那)이며, 중조 양우량은 양탕(梁宕)의 후손으로 757년에 대공(大公)을 세워 남원백에 봉해지고 포상이 가사되어 남원으로 득관하게 되었다. 본 군 여러 곳에 수십 호가 곳곳에 살고 있다.

(84) 원주 원씨(原州 元氏)

원씨(元氏)의 조계(祖系)는 당나라 태종 때에 8학사의 한 명으로 643년에 고구려로 파견은 원경을 도시조(都始祖)로 하고 원주를 관향(官향)으로 4파가 있다. 본 군에도 수십 호가 살고 있다.

(85) 진주 김씨(晉州 金氏)

진주 김씨는 동성동본이면서 근원을 달리하는 두 계통이 있다. 한 계통은

신라 김씨의 김알지의 후예, 신라 56대왕 경순왕의 제8자 추(鍾)가 진성군(晋城君: 晋州의 옛 지명)에 봉해져서 진주로 관직하였고 다른 계통은 가락김씨(駕洛金氏)로 김수로왕의 13세손 김유신 장군의 둘째 아들 원술을 시조로 하는 진주 김씨가 있다. 본 군 진주 김씨는 철(鐵)을 낚서 시조로 삼으며 서해면 사산리에 취락을 이루고 용산리, 신덕리, 원흥리, 연풍리와 숙천면 만흥리, 관동리, 검산면 신성리, 양화면 옥정리, 청산면과 순안면 등에 수십 호(戶)씩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86) 정선 이씨(旌善 李氏)

시조(始祖) 양혼(陽焜)은 송나라 안남국(安南國) 남평왕 건덕의 제3자로서 1114년 휘종 때 금나라의 난을 피해 내조, 경주에 정착하여 본관을 경주로 하고, 1196년에 그의 9세 손우원이 정선으로 낙향하여 세거하게 되어 본관을 정선으로 하였다. 황해도 재령 지방에 번족하고 본군 여러 곳에 살고 있다..

제2장. 정치

1. 개요(북한 정치의 특징)⁵⁾

북한 체제는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체제이며 노동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이다. 초창기 북한의 통치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그러나 1970년 제5차 당 대회를 통해 당의 지도이념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추가 되었으며, 197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치이념으로 주체사상을 명기하고 모든 권력이 주석에 집중되는 권력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어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조선노동당은 오직 김일성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당규약 서문에 명시하였다. 2009년 4월 개정된 헌법에는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추가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북한은 그들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표방하였고, 이러한 통치이념은 북한식 수령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라고 당규약을 수정했으며, 2019년 4월 개정된 헌법 제3조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밝혔다.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 시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더 나아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당-국가체제 위에 구심점으로 최고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이다. 수령 중심의 체제논리는 1974년 발표한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2013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5) 2024북한이해 (국립통일교육원)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한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령 유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강조하고 있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당의 ‘최고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이며 ‘당의 최고영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최고지도자에게 한정된 칭호이다. 2016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9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대표’로서의 권한을 분명히 하였고,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 시기와 같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하였고 이후 김정은에 대한 ‘수령’ 호칭 빈도도 증가하였다.

2. 북한 정치체제의 작동원리⁶⁾

남북 분단과 함께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한 지 80여 년이 되어 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이후 소련군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북한을 점령한 공산주의자들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1947년 2월 입법기관인 ‘북조선 인민회의’를 창립하여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 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창설 등을 포함한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1948년 4월 29일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이 승인되었으며, 8월 25일에는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9월 2일~10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채택

6) 2024 북한이 해, 국립 통일교육원, 25P

(9.8.)하였으며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9.9.)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전후 복구와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한 정과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며, 김일성은 이를 계기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소련과 및 연안파 등 정치적 경쟁세력들을 제거해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은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수령 중심의 유일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명시하고, 주석제를 신설하여 김일성 유일 체제를 공식화하였다. 유일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김일성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착수하였으며,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추대되면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후계체제 공고화를 공식화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권력투쟁 과정을 거쳐 왔다. 사회주의 체제라는 특성 속에서 북한만의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공고화하며 심지어 그 권력을 대를 이어 세습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체계화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들의 사상은 물론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이러한 특수성들이 잘 드러난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이라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1994년에는 오랫동안 절대 권력자인 ‘수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통치해오던 김일성이 사망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최악의 식량난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과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유훈 통치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였으며, 2012년 다시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후계체제 덕분에 단기간에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를 공고화하였다. 그리고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북한의 모든 권력을 권 최고 지도자임을 명확히 했다.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들이 가지는 보편성과 함께 북한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정권이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이나 당 우위체제 등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수령 중심의 유일 지배체제나 3대 세습 등은 북한 체제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이러한 특징을 가능하게 만든 북한 정치체제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수령 중심의 유일 지배체제⁷⁾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정·군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정치체제이다. 즉 ‘일당 지배체제’를 갖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 수령이 그 위에 존재하는 독재체제라는 특성을 갖는 것이다. 즉 권력 구조 면에서 수령은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전체 인민의 모든 생활과 사상체계 전반을 주체사상 등과 같은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지배하고 있다. 북한의 수령영도체제는 곧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이며, 당의 영도적 지위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 절대적 권위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당 지배체제’라기보다는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체제’, 즉 ‘수령 독재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수령을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역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

7) 2024 북한이 해 국립통일교육원 29P

여 혁명의 지도 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중을 위력한 혁명역량으로 조직하고, 혁명의 매 시기와 단계마다 정확한 투쟁구호와 올바른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대중을 영도함으로써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에서 수령제 정치체제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내부 권력투쟁과 사상투쟁을 겪으면서 구축되었다. 김일성은 6·25전쟁 후부터 1960년 후반까지 반 종파 투쟁과 갑산과 숙청 등을 거쳐 유일 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그리고 1972년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법제화, 제도화했다. 이후 혁명위업과 혁명전통의 대를 잇기 위한 김정일로의 후계문제가 대두되면서 유일지도 체제가 확립되고, 1980년대 중후반 김정일이 통치 전면에 나서면서 수령제가 완성되게 된다.

북한에서 수령은 현재 제도화된 직위인 노동당 총비서와 국무위원장을 포괄하는 권력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에서는 당이 수령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20세기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적으로 전제했던 당의 지도역할과 무오류성이 북한 정치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북한은 수령영도체계는 곧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이며, 당의 영도적 지위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 절대적 권위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수령은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북한은 수령을 “인민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인민 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는 가장 위대한 영도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일단락되고 김일성 지배체제가 공고화되던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을 수령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당이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채택하면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가 구축되었다. 같은 해 12월 16일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추대되었으며, 이후 절대자로서의 ‘수령’을 정점으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유일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북한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였다. 1972년 개정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당과 정권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 사상을 명시하였으며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김일성으로의 정치 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석은 새롭게 설립된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을 겸직하여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권수립 이후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마무리하고, 이제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74년 김정일은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10대 원칙은 이후 북한의 정치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지침이 되었다. 유일사상체계란 다른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이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수령의 사상체계이자 영도체계라 할 수 있다. 10대 원칙은 2013년 6월 김정은이 자신으로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변경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되었다.

수령 중심의 유일지도 체계는 단순히 권력이 수령 1인에게 집중된 상황만을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다.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 북한체제가 전일적인 하나의 틀로 편재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이론적 체계와 사상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면서 유일지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 혁명적 수령관, 후계자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이 수령 중심의 유일사상체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사상체계들이라 할 수 있다.

혁명적 수령관은 유일사상체계의 이론적 기초라 할 수 있는데,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견해와 관점을 일컫는 말이다. 1969년 4월 김일성 주석 57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사회과학자토론회에서 수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통일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향도적 역량인 당과 정권기관, 근로

단체들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 뇌수”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수령을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사회정치적 존재인 개개인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 적으로 결속하면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앞에서 한 “주체사상교양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북한에서는 사람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나누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전제한다. 즉 집단주의 생명관의 관점에서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수령관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의 1인 지배체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2) 권력세습⁸⁾

북한 정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이어지는 권력세습이다. 유일지배체제인 북한에서 권력세습이란 곧 수령이 후계자를 지명하고 후계자가 수령의 지위에 오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령은 북한체제에서 독특한 지위와 역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계자 지명이 바로 수령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통치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령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해 내어야 한다. 즉 수령은 당과 군, 정부의 최고 직위들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인민대중에게 수령으로서의 지도자상과 업적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여러 이론적 사상체계들을 고안하여 3대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내고 있다.

북한은 이런 점에서 권력세습 과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정당성을 쌓아나갔다. 김일성은 자신의 유

8) 2024북한이해, 국립통일교육원, 34P

일사상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을 함께 만들어갔다.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부터 김정일로의 후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후계 구도 속에서 1970년부터 선전선동부 및 조직지도부 부부장 업무를 맡고 있던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로 선출하였다. 또한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됨으로써 마침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지정되면서 후계체제 공고화를 선포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의 영속화를 위해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였다.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서 권력 승계를 정당화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후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기까지 ‘유훈통치’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삼년상을 이유로 김일성의 유훈을 내세우며 전면에 나서지 않고 실질적으로 북한체제를 통치하였다. 이는 당면한 체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간을 벌고 김일성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삼년상을 마치고 유훈통치를 끝낸 뒤 1997년 10월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중심’ 체제를 통해 자신만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군사 중심 체제는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정치체제로서, 2009년 헌법 개정 시 선군정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하였다.

한편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식 등장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서는 짧은 후계준비 기간을 거쳤는데, 이 기간에도 김정은은 단계적으로

당과 군에서 주요 지위를 확보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김정은 역시 김정일 사후 4개월 정도의 유훈 통치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에서 김정은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영도자’로 격상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어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 통치를 선언하고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화하였다. 이후 김정은은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추대되었고 6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직에 올랐다. 그리고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는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최근 김정은은 자녀를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김정은 딸은 2022년 11월 처음 등장한 이후 주로 군사 분야에서 김정은의 공개 행보에 동행하면서 존재감을 키워왔으며, 2023년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 열병식에서는 주석단 특별석에 김정은과 나란히 앉아 특별한 위상을 짐작케 했다. 2023년 8월 해군사령부와 11월 공군사령부 방문 시 군사령관들의 거수경례를 받는 모습들에서 김정은 딸에 대한 의전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11월 공군사령부 방문 시에는 김정은보다 앞쪽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최근 김정은 딸에 대한 4대 세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21년 8차 당 대회 때 당규약을 개정하여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명시한 제1비서직을 공식으로 둔 것은 권력 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이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권력을 이양받는데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김정은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력 세습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수령-당-인민의 관계⁹⁾

북한에서 수령-당-인민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유기적이고 전일적인 관계로 규정된다. 먼저 인민은 역사의 주체이며, 수령과 당의 영도 밑에서 자연과

9) 2024북한이해, 국립통일교육원,37P

사회를 개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역으로 인민이 명목상의 단순한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의 자주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령과 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이중적 본질, 즉 육체적인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동시에 획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 조직을 통해 각각의 개인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이처럼 인민들은 수령과 당 아래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수령-당-인민 간에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수령-당-인민은 하나로 결합되어야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만큼 각각을 서로 분리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그 유기체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수령을 떠나서는 인민은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인민과 분리된 수령 또한 자주성을 위한 인민의 창조적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정치적 영도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중과 유리된 수령은 단지 한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수령과 당, 인민은 서로를 떠나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수령이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령이라는 존재는 인민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동시에 수령의 영도실현은 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북한에서 수령과 당, 인민은 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존재이며, 혁명 주체는 바로 완전히 일심동체를 이룬 수령-당-인민의 결합체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일심단결을 통한 혁명 주체의 강화, 그리고 그 인식론적 토대로서의 위치를 갖는 ‘혁명적 수령관’, ‘혁명적 군중관’, ‘혁명적 조직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두를 지칭하는 ‘주체적 혁명관’을 각 인민대 중들의 내면적인 세계에까지 침윤시키고자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강조하는 ‘혁명적 도덕관’을 역설하고 있다. 즉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은 바로 수령-당-인민 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맥락의 연장 선상에서 북한에서는 북

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는 ‘사회주의 대 가정’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2년 신년사에서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대중들이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집단주의 정신을 통해 전체 인민을 단합된 하나의 대 가정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한 사회주의 대 가정 개념은 이후 ‘붉은 대 가정’, ‘혁명적 대 가정’, ‘공산주의적 대 가정’ 등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며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영향력 있는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약화된 집단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수령-당-인민을 하나로 묶는 사회주의 대 가정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동요와 이완을 막고 떨어진 수령의 권위를 회복하고 지배 권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령을 정점으로 사회를 결속시키려 한 것이다.

사회주의 대 가정은 가정의 이미지가 국가의 이미지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가정’이라는 1차 집단을 ‘국가’라는 2차 집단에 집목함으로써, 혁명의 최고영도자인 ‘수령’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구성원인 인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 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을 향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가정화’를 통해 수령의 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수령에 대한 대중의 충성과 효성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동이’와 ‘효자동이’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교육의 목표이자 공산주의 도덕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대 가정론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김정 은은 2023년 12월 8일 전국 어머니 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주의 대가정이 더욱 부흥하게 된다”며 체제 유지에 있

어 어머니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 중 하나는 수령과 당, 인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과 당, 인민의 통일체로 이루어진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생명의 중심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 대중의 핵심 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이다. 그리고 인민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담당자이다. 인민은 당을 통해 수령의 지휘를 받고,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되어야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집단주의 생명관의 관점에서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수령-당-인민이 통일체를 이룰 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대 가정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령과 당, 인민의 삼위 일체적 관계로 형성된 국가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의 관계와 같으며, 이는 결국 수령을 ‘진정한 아버지’로 인식하고 수령을 정점으로 결속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당 조직과 근로 단체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지시를 집행하는 당 간부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논리 구조로 작동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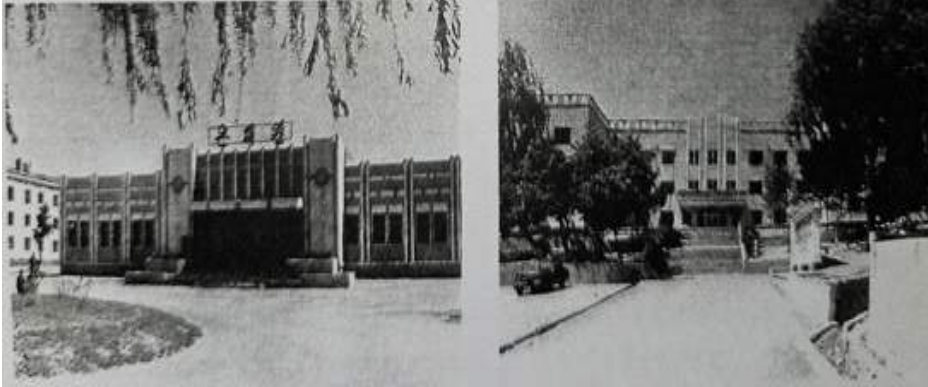
제3장. 경제

1. 개요¹⁰⁾

이 지역의 경제구조는 대체로 농업과 광업, 지방공업, 수산업으로 이루어졌다. 농업은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벼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농산물과 함께 과수업, 축산업, 잠업(누에치기) 등 여러 가지 농업 부문이 다 같이 발달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곡물 생산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대특성에 맞게 많은 간석지를 개간하였고 또 토지개발사업을 크게 벌였다. 특히 평원 저수지, 만풍동저수지, 견룡저수지를 비롯한 큰 저수지들을 신설 및 개건 확장하는 것과 함께 자일저수지, 심정저수지, 량교저수지, 동암저수지, 상송저수지, 송림저수지, 장흥저수지 등 중소규모의 저수지들을 건설하고 많은 물길을 뚫으며 수리구조물들을 건설하여 곡물 생산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체 농경지 면적 가운데 논이 70%를 차지하는데, 주요 곡물은 벼이며 그밖에 옥수수, 콩, 수수 등도 재배하고 있다. 이밖에 들깨, 참깨, 피마자 등 공예작물과 배추, 무, 양배추, 가지, 오이 등 채소 그리고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과수업체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사과가 64%를 점한다. 축산업에서는 주로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닭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이 지역의 공업은 광업과 지방공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업은 큰 의의를 차지하는 것은 인회석생산이다. 이 밖에 운모도 산출된다. 지방공업은 식료공업, 직물공업 및 피복 공업, 일용품 공업, 종이 공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공업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식료공업이다. 이 밖에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천과 옷, 일용품과 화학제품, 건제품, 종이, 약품, 악기 등이 산출되고 있다. 이 지역은 서해의 수산기지의 하나이다. 군에는 한천 수산사업소와 한천 수산협동조합, 신송 수산협동조합, 평원 수산협동조합, 용호 수산협동조합 등 수산기업소들이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은, 멸치, 까나리, 준치, 전

10) 조선향토대백과 401면 내지 402면

어, 건넵이(새우 종류), 조개류 등이다.



은덕원 평원군 임민병원

2. 북한 경제체제 특징과 정책 기조¹¹⁾

1)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 체제이다. 사회주의 소유제이란 생산수단이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 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가 협동농장이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 소유 즉 ‘전 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제21조)라고 하면서 “협동단체

11) 2024 북한이해 183P

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 시킨다”(제2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즉, ‘합법적 경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 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 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사경제 활동을 통해 축적한 부를 화폐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국의 묵인하에 주택의 사적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살림집 리용 허가증(입 사증)’을 관할 기관에 뇌물을 주고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팔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현재 1990년대 이후 과거의 엄격한 중앙 집중적·계획적 관리 시스템과 같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재정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 집중적인 계획화 자체가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은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 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들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경제지표(지방지표, 기업소 지표)들은 해당 지역의 경제계획 수립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워 생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현물계획에서 액상(금액)계획 1 달성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2014년 이른바 ‘5.30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 이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 기업소 법」도 2014·2015·2020년 개정하며 공장·기업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체의 계획을 부분 인정하는 분권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내각책임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기업경영관리 강화가 강조되었다.

요약하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기반하여 중앙집권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계획경제인 동시에 상설 시장이 운영되는 이중경제구조이며,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의 ‘우리식 사회주의’ 지향에 따라 시장 통제가 병존하는 경제체제이다.

2) 경제정책의 기조¹²⁾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등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노선”이다. 또한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자립경제의 토대가 중공업에 있다고 보고 산업 간 발전의 우선순위를 중공업 부문에 놓고 중공업 부문에 대한 우선적 자원 배분, 우선적 발전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노선이다. 다음으로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이다. 이는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軍産複合形)으로 조성하고 북한 경제 내에 인민 경제 외에 군수 경제를 독립적 경제구조로 정착시킨 정책이었다.

북한은 김정일 시기에 ‘선군 경제건설 노선’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추진하여 김일성 시대의 병진노선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경제 환경 변화에도 본질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현시대에서는 핵 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므로 이를 절대 포기

12) 2024 북한이해 185P

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병진노선은 사실상 국방부문에 대한 과잉 예산 배분으로 산업부문의 불균형과 소비재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켰으며, 계속된 핵 개발은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초래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후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공표하였으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여 유엔 안보리로부터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제시한 대표적인 경제목표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이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2016년 개최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경제 전략으로서 당면목표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기간 중에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실현할 것과 장기목표로 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달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6~2020년까지 첫째, 전력문제의 해결, 둘째, 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의 획기적인 발전, 셋째, 기계·화학·건설·건설재공업 부문의 발전, 넷째, 농업·수산업·경공업 부문의 발전, 다섯째, 대외무역·합영·합작·경제 개발구 등 대외 경제 관계의 확대 발전, 여섯째,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2020년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완성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면돌파’ 4와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대북제재 및 코로나 19등의 상황에서 군수 부문 우선에 따른 자원 배분의 불균형, 외자 유치 실패에 따른 자본 부족, 개혁개방의 지연에 따른 이중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등 북한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로 경제목표 달성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첫째, 경제자립구조의 정비 및 보강 둘째,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제품 생산의 증대, 셋째, 인민 생활 향상의 중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속·화학 등의 기간공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 정상화를 실현하며, 농업 부문에서 물질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공업 부문에서는 원자재의 국산화·재자원화를 통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외경제는 대내의 자립경제 잠재력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자력갱생’ 6과 ‘자급자족’을 전면에 내세워 5개년계획 목표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2021년 1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2022년에도 기간산업을 비롯한 생산 부문 전반에서의 증산과 민생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해결’을 중요 과업으로 제시하고 농업 근로자들의 정치의식 제고, 식량문제의 완전한 해결,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22년 2월 6일 개최한 제14기 제6차 최고 인민 회의에서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 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며, 사실상 ‘기업의 무역 자율화’ 대신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내각책임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기업경영관리,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및 일원화 통제체계 강화 등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준수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농업, 경공업 건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에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세 번째 해 달성목표에 집중하여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할 것을 독려하였다. 북한은 2023년 12월에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12개 중요고지 점령에서 큰 성과를 보여 경제성장이 노동당 8차 대회 이전(2020년)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 액은 1.4배 증가, 중요지표 중 산화철은 3.5배, 선철 2.7배, 압연 강재 1.9배, 공작기계 5.1배, 시멘트는 1.4배, 질소비료 1.3배로 증가했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2020년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기준치가 없어 실제적인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북한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경제는 과거와 비교할 때 크

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에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학생들에 대한 필수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것을 강조하였고, 2024년 1월 15일 제14기 제10차 최고 인민 회의에서는 매년 20개의 군(郡)을 대상으로 10년간 지방 산업공장을 건설할 데 대한 ‘지방발전 20×10정책’을 제시하고 전민, 전군을 동원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표면상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주민 생활 향상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재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정치체제 유지를 우선으로 한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내재한다.

3. 경제정책의 변화¹³⁾

1) 시장화 현상과 대내 경제정책

① 시장화 현상

북한 경제에서 시장화 현상은 1980년대 중후반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자재 공급과 배급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자, 2003년 북한 당국은 10일장 형태의 농민시장을 상설 시장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농민 시장은 계획경제 하에 운영되던 공식시장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암시장 형태인 ‘야시장’, ‘장마당’ 등으로 발전하여 당시 불법 거래 상품이었던 쌀·옥수수 등 식량과 공산품 등을 매매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북한 주민들은 처음 배급제가 중단되었을 당시 생존을 위한 식량 획득 목적으로 ‘단순 거래자’로서 농민 시장 장터에 개장된 자생적 암시장(Black Market)에 등장했지만, 여러 차례의 교환 활동을 통해 부의 축적을 경험하며 화폐 자본을 축적해 나갔고, 일부는 상업자본을 축적하여 돈 주’로도 성장했다. 시장에는 공장·기업소 자산의 전유, 약탈·탈취 등을 통해 유입된 재화, 텃

13) 2024 북한이해213P

밭·소토지 등에서 경작된 농축산물, 개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물품,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 중·북 간 공식·변경 무역 및 밀수 등을 통해 대규모로 유입된 재화들이 조달되었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식량난과 계획경제시스템의 붕괴에 직면한 북한 당국이 중·북 접경지대의 통상구를 개방하고, 국가 지정 무역기관 외에 정부 부처인 성(省), 기관, 군부대, 지방의 도 인민위원회, 공장·기업소들도 대외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주면서 더욱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시장은 전국적 규모의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진전되었다. 주요 시·도에 대규모 도매시장과 함께 특화된 시장들이 발달되어 나갔으며, 주민들의 장사 형태도 ‘배낭(등짐) 장사’에서 출발해 점차 지역 간에 부족한 물자를 유통시켜 이익을 얻는 ‘되넘기기 장사’,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 장사인 ‘달리기 장사’ 및 ‘차 판 장사’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003년 상설 시장이 도입된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시장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 장사’로 분화·발전되어 나갔다. 북한은 「사회주의 상업법」에서 시장을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보조적 공간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계획경제 하에 운영되는 시장은 생산물 시장뿐이다. 생산요소 시장(자본·노동·토지시장)은 공식적 운영을 허용하지 않아 부를 축적한 개인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운영 확산되고 있다. 생산물 시장으로서 북한 전역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과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2022년 기준 약 414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일 개장하여 통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산품 및 식량 등의 다양한 상품이 거래된다.

시장운영 과정에서 북한은 시장사용료(장세)를 징수하고 있다. 시장에서 매대를 빌려 공식적으로 장사하려면 시장사용료(장세)를 지불해야 하며 상인 1인이 납부하는 시장사용료(장세)는 품목별, 지역별로 다르다. 시장의 과잉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은 김정일 통치 시기인 2005~2009년까지 시장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의 시장은 더욱 확산되어, 김정은 정권은 제도권 안에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영 상업 복원 등의 사회주의 경제 관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데 대해 강조하며 계획경제 하에서 시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평양 통일거리 종합시장



지방의 장마당

② 시장 관련 대내 경제정책

1990년대 시장화 현상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으로서 북한 경제의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라는 큰 모순을 야기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을 통해 당국의 통제 밖에서 자생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시장을 규제하고, 계획경제를 복원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는 분권적 자율 경영 권한을 일부 부여받았으나, 시장을 대체할 주민 공급물자(식량 및 생필품) 조달을 보장할 수 없었다. 조치의 실패로 북한 당국은 2003년 3월 기존의 농민 시장을 상설 시장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 간 원자재·생산재 교류가 가능한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과 수입물자교류 시장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시장기능을 부분 제도화한 상설 시장화 조치 이후 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종합시장 바깥의 장사 활동(메뚜기 장사, 주택가·골목장사, 방문 판매) 및 개인 경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업종(노래방·PC방, 숙박업, 운송, 목욕탕, 식당, 개인 수리업, 자전거·오토바이 배달 등) 및 자영업이 발전되어 나갔다. 공장·기업소들은 기존 업종과 생산 활동을 아예 변경해 국가기업이득금을 납부하거나, ‘돈 주’의 투자를 유도해 ‘돈 주’로부터 수익금의 일정 몫을 받아 국가기업 이득금을 내는 현상도 나타났다. 상설 시장 도입 조치는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상호 공생하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구축시켰다. 이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북한 당국은 2005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을 통제해 나갔다. 시장억제 정책은 김정일이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라고 언급한 이후, 본격화되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시행 및 종합시장 철폐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재정 수입 증대와 시장규제,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의도했던 북한의 화폐개혁은 2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미 북한 주민들의 가계 경제가 시장 활동을 통해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 계획경제 공간도 시장에 의존해 작동되고 있었으며, 국가의 재정 수입조차 시장의 토대 위에서 상당부분 달성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 경제가 이제는

결코 계획경제 체제로 회귀할 수 없고, 시장이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화폐개혁의 실패를 교훈으로 시장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돈 주’¹⁹ 및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활용해 김정은 정권의 단기 업적을 가시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영기업소와 국영상점과 같은 공식경제 부문들이 돈 주의 투자를 받아 직접 시장 지향적 경영 활동을 행하고, 이 과정에 이익을 창출하여 국가기업이득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때때로 돈 주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가는 것을 견제하고 있지만, 공식경제 부문의 경제활동이 돈 주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국영 상업망 복원정책에 의해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가 다소 강화되고 있다.

둘째, 공장기업소의 부분적인 자율 경영에 따라 기업소 지표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생산된 생산품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국 차원의 내수시장 견인 조치를 확대되고 있다. 김정은은 의류, 신발, 식품공장 등을 방문하여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상품의 생산 판매를 촉구하였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형 상점을 건립하는 등 주민들의 소비를 국영 부문으로 흡수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협동농장 경영 활동도 시장과 연계되어 농산물 시장 유통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도입해 국영기업소, 국가기관, 협동농장들의 시장과 연계된 활동을 일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란 “경영 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노동자·농민의 일 욕심을 돋우는” 조치, 즉 경제 단위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물질적인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 조치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농업 분야에서는 ‘분조 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 책임제(2013년 전면 도입)’,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

(2014.5.30.)' 21의 시행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분조 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 책임제'는 협동농장의 하부 말단 노동단위인 분조의 규모를 10~15명에서 4~6명으로 축소하고, 토지를 배분하여 경작하게 한 후, 생산물 중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을 제외한 초과 생산물을 경작 농민들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제도이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및 인력 규모 결정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로써 협동농장에서는 '농장책임 관리제'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제·개정되는 다수의 북한 경제법을 봤을 때, 2023년 기준포전담당 책임관리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주축으로 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매체를 보면 개인주의를 경계하고, '집단주의'와 '애국'을 강조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 주민들의 사상이완을 경계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한 사경제 활동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북한 이탈주민 조사에 기반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의하면, 계획경제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경제로 비공식 소득을 취득하는 북한 주민의 비중은 68.1% 이상이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 위안화 통용이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제한적 대외 개방정책과 한계

① 4대 경제특구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산업 간 연결 관계의 단절 현상이 야기되자 대외경제 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 우호 가격으로 제공 받아왔던 원유, 코크스, 기초 원자재 등을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정상 교역의 무역 관계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처음으로 함경북도 최북단 항구 도시인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법 등을 제정하였고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

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23 등을 제정하여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이어 신의주·개성·금강산경제특구까지 4대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계획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초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무산되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 자본이 단독 투자·개발하는 형태의 특구로 개설되어 가동되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북한군의 남한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2008년 8월에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2016년 2월 전면 중단되었다.



평양역 앞의 대동강택시(2018)

② 대 중국 경제협력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한의 5.24 조치 때문에 남북경협이 위축되자, 대 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외 경제정책을 변화시켰다. 2010년 나선시를 특별시로 격상시키고, 2011년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며, 나선·황금평·위화도

를 중국과 공동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1년 북한 장성택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동 착공식을 개최하고 '조·중 라선경제 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이라는 공동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지역 간 교량,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결 및 증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과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양 지역 경제특구 공동개발은 답보 상태에 있다. 우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경우 형식관리위원회 건물만 건축된 후 사실상 수년째 추진되지 않고 있다.

나선 경제특구의 경우 중·북 간 합의된 소규모의 프로젝트만 몇 개 추진되었다. 즉 중국이 사용하는 나진항 1호 부두 개보수 및 창고건설, 북한 원정리세관과 나진항 간 도로 확장(2차선→4차선), 길림성-나선시 간 고효율 농업시범구 협력사업 일부 등만 전개되었을 뿐이다. 중국의 나선 경제특구 내 자본 투자는 주로 식당·노래방·숙박업·물류업 등 서비스 업종 위주이고,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 투자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나선 경제특구의 개발보다는 나진항을 이용해 자국 남방 지역으로의 물류 이동에 필요한 원정리-나진 간 도로 확장·개선과 제2두만강 대교 건설에 주력해왔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2013년 5월까지 나선 경제특구의 외자 유치는 약 4.1억 유로(약 4.8억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은 중·북 경제특구 공동개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2011년 중·북 간 합의되었던 통상구 연결 다리와 도로의 개보수 및 신설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현재 미개통)하고 신두만강대교를 개통(2016년)하는 한편, 중국 집안-북한 만포 간 다리 및 철로를 신축(2019년)하였으며, 중국 도문-북한 남양 간 다리를 새롭게 건설하였다. 대북제재의 강화와 상관없이, 중국의 필요에 의한 소규모 접경지대 연결 인프라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통상구 다리를 이용한 중국인의 대북 자가용 관광, 1일 혹은 반나절 관광은 코로나 19로 북한 내 해외관광객 유입이 차단되기 전까지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다.



별이버스(시외버스, 2012 평양)

8] 북한 주요 도시의 시장 쌀 가격

(단위: 북

기간	평양	신의주	혜산
24.05.12	5,530	5,540	6,500
24.04.28	5,500	5,600	6,300
24.04.14	5,350	5,400	6,100
24.03.31	5,300	5,400	6,200
24.03.17	5,200	5,300	5,700
24.03.04	4,900	5,000	5,300
24. 2.18	5,000	5,100	5,300
24. 1.21	8,400	8,440	8,460

dailyNK(<https://www.dailynk.com>)

9] 북한 주요 도시의 시장 환율

(단위: 북한

기간	평양	신의주	혜산
24.05.12	8,850	8,870	8,860
24.04.28	8,700	8,730	8,720
24.04.14	8,750	8,770	8,780
24.03.31	8,720	8,740	8,730
24.03.17	8,500	8,570	8,600
24. 3. 4.	8,460	8,470	8,500
24. 2.18	8,510	8,540	8,500
24. 1.21	8,400	8,440	8,460

dailyNK(<https://www.dailynk.com>)

③ 경제 개발구 신설

김정은 정권은 나선,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4대 중앙 특구 외에 지방에도 경제 개발구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 개발 구법」을 제정하고,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중앙급 10개와 지방급 19개 경제 개발구 등 총 29개의 경제 개발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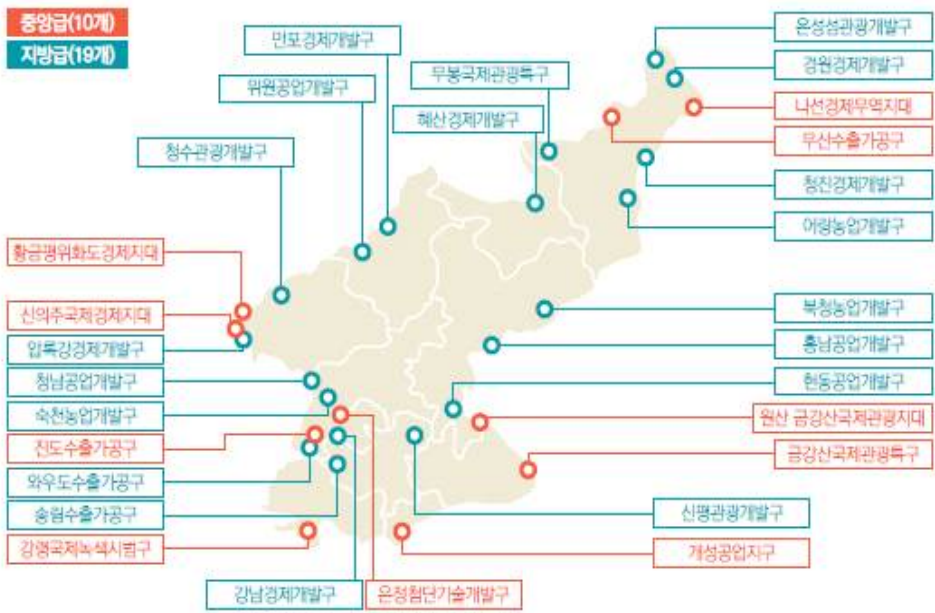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 개발구 정책은 선포된 이후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경제 개발구 신설을 선포한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정치체제 유지를 우선으로 한 핵·미사일 개발 지속, 이를 위한 불균등한 예산 배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외자 유치 환경 제약, 북한식 사회주의 강국 주장과 시장개혁 지체,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 체계 등의 내수경제 위기가 겹쳐 경제 개발구 신설 추진은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시행하는 종합 계획을 제시하고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만 김정은 정권의 경제 개발구 구상은 본격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4. 산업, 교통, 통신 및 주요시설

1) 산업¹⁴⁾

해안 지대와 보통강 및 중교천 등의 하천 연안에 대규모 평야가 형성되어 논농사 위주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수자원으로는 1930년에 준공된 평안저수지 등 수리 시설을 갖추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면적과 미곡 생산량이 도내 1위를 차지해 곡창 지대를 이룬다. 또한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밭농사와 사과·배·복숭아·밤 등의 과수 재배도 행해진다. 주요 농산물은 쌀·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평원군편



밀·조·팥·수수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농가 부업으로 돛자리·면포(무명)·견직물 등의 가내 공업과 축산업이 행해진다.

연근해에서는 조기·갈치·민어 등의 어획이 많으며, 한천면의 한천포(漢川浦)는 어업 근거지이다. 용호면에 있는 남양염전(南陽鹽田)에서는 질이 좋은 천일염이 생산된다.

광업은 순안면의 사금광, 동암면 어중리의 금·은·동·아연광, 양화면 금강산의 운모광산, 평원면의 인회석광 등이 있다. 청산면에서는 화강암 석재 등이 산출되지만 부진한 편이며, 그 밖에 고령토·흑연 등도 채굴된다.

한편 인근 지역으로부터 집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을 발달된 교통과 수운을 이용해 평양과 진남포 등지로 수송함으로써 일찍부터 상업 활동이 활발하였다. 평양과 인접한 지역은 직접 평양을 왕래했으며, 거리가 먼 지역은 정기 시장을 이용하였다. 정기 시장으로는 한천면 감팔리 한천장과 공덕면 흥운리 어판장, 그리고 동약면 어중리 어중리장이 1·6일, 동암면 암적리 암적장과 해소면 금학리 금학장이 2·7일, 속천면 성남리 속천장과 동약면 산음리 석암장이 3·8일, 평원면 대부리 영유장이 4·9일, 청산면 구원리 청산장과 순안면 군

상리 순안장, 그리고 공덕면 용흥리 공평장이 5·10일에 각각 개시된다.

이 가운데 숙천장·영유장·순안장은 미곡 거래가 활발하며, 암적·숙천·청산·영유·한천·순안 등 6개소에는 정기 우시장이 개설되어 소 거래가 활발하다. 특히 암적 우시장은 암치내 우시장으로도 불리며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우시장이다.

평원군의 경제구조는 대체로 농업과 광업, 지방공업, 수산업으로 이루어졌다. 농업은 평원군의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평원군에서는 벼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농산업과 함께 과수업, 축산업, 잠업 등 여러 가지 농업 부문이 다 같이 발달되어 있다. 평원군에서는 곡물 생산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대특성에 맞게 많은 간석지를 개간하였고 또 토지개량사업을 크게 벌였다. 특히 평원저수지, 만풍동저수지, 건룡저수지를 비롯한 큰 저수지들을 신설 및 개건 확장하는 것과 함께 자일저수지, 심정저수지, 양교저수지, 동암저수지, 상송저수지, 송림저수지, 장흥저수지 등 중소규모의 저수지들을 건설하고 많은 물길을 냈으며 수리구조물들을 건설하여 곡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체 농경지면적 가운데서 논이 70%를 차지하는데, 주요 곡물은 벼이며 그밖에 옥수수, 콩, 수수 등도 재배하고 있다. 이밖에 들깨, 참깨, 피마자 등 공예작물과 배추, 무, 양배추, 시금치, 가지, 오이 등 채소 그리고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과수업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사과가 64%를 점한다. 축산업에서는 주로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닭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평원군의 공업은 광업과 지방공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업은 평원군의 공업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광업에서 큰 의의를 차지하는 것은 인회석생산이다. 이 밖에 운모도 산출된다.

지방공업은 식료품공업, 직물공업 및 피복공업, 일용품공업, 종이공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공업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공업이다. 이 밖에 평원군에서는 여러 가지 천과 옷, 일용품과 화학제품, 건재품, 종이, 약품, 악기 등이 산출되고 있다. 평원군은 서해의 수산기지의 하나이다. 평원군에는 한천 수산사업소와 한천 수산협동조합, 신송 수산협동조합, 평원 수산

협동조합, 용호수산 협동조합 등 수산기업소들이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은 멸치, 까나리, 준치, 전어, 곤쟁이, 조개류 등이다.

2) 교통15)

교통은 동부지역으로 평의선이 통과하고 있고 여기에 어파역(漁波驛)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부지역으로는 남동선이 통과하고 있고 여기에 대풍역과 한천역이 설치되어 있다.경의선이 군의 중앙을 남북으로 통과하며, 순안·석암·어파·숙천 등 4개 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거의 병행하는 국도인 경의 가도가 통과해 교통의 요지를 이룬다.

도로는 평양~향산 간 고속도로, 평양~신의주 간 1급 도로와 남포~신안주 간 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평원군내 각 리, 노동자구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다. 평양시까지의 약 40km이며 평안남도 소재지인 평성시까지의 32km이다. 그 밖에 숙천~성천군간, 영유-한천-진남포간을 잇는 2등 도로와 평양~한천간, 순안~순천군 사인장간, 영유~어파간, 한천~순안간을 잇는 3 등 도로가 있다. 또한 동송~서해 보덕리간, 숙천~용호~청산 구원리간, 청산 구원리-덕산-대동군 김제간을 잇는 등외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신입록강대교(2023.10)



중국 단둥 룡커우의 신입록강대교 진입로(2023.1)

[네이버 지식백과] 평안남도 평원군 교통 (조선향토대백과, 2008., 평화문제연구소)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평원군편(평안남도 평원군 행정구역정보관>개관>교통)

3) 통신 및 주요시설¹⁶⁾

① 통신(通信)

통신제도는 서기 487년 신라시대에 우역제도를 세워각지에 우역을 두고 유사에 명하여 국가공문서의 체전이나, 공무를 띠고 내왕하는 관리들의 숙박 편의를 주는 시설이었다.

고려 시대에는 더욱더 우역의 제도를 확대 정비하였고, 983년 성종 때에는 파견관을 제도관역사로 개칭하고 22명의 역승을 두고 역장·역정과 용마를 두었다. 각 역의 공비와 우역리의 급료를 주기 위하여 공수 시지를 주었다.

1274년 원종 때에는 마패 제도를 창설, 관원의 관등 고하에 따라 각 역에서 공급하는 마필수를 정하였다. 조선 시대에 와서는 고려 시대에 따르다가 1458년 세자 때에 역승을 찰방이라 개칭하고 전국에 338개 우역을 두었다. 우역을 찰방역이라 했다.

임진왜란 후에는 1597년에 명나라 제도를 본 따서 파발제를 창시하고 군사는 물론 변방 서신을 전송하는 데 기마를 이용하는 기발과 보행 체송하는 보발의 2종이 있었다. 민간사설 통신에는 보부상이 특별 체전부·속달우편 배달부의 사명을 띠고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서신 혹은 구두로 전했다.

현종 때에는 육우관을 창설, 중앙에 감사를 두어 역마의 사무를 관장했다. 평안도에는 대동도라 하여 생양-안정-숙령-안흥-가평-신안-운흥-임반-양책-소곶의 순으로 편제되었다.

② 봉수(烽燧)

봉화 신호의 기원은 3국 시대 초기부터 발달하여 1149년 8월 고려 의종 때에 제도화된 국방조직으로 봉수식을 사용한 것인데, 야간에는 불을 켜고, 주간에는 연기를 내서 평시에는 한 번씩 올리고, 적의 모습이 나타나면 두 번, 적이 국경에 근접하면 세 번, 적이 국경을 침범할 때 네 번, 적과 교전할 때 다섯 번 올리게 했다.

16) 네이버 지식백과(평안남도 평원군 행정구역정보관>개관>경제)

봄은 밤에 해에 불을 켜서 알리는 것이고, 수는 나무에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 낮에만 쓰는 것이다. 해는 싸리나무 속에 관솔을 넣어서 만들고, 수는 쏘나무를 쌓고 그 위에 낭분이나 마분을 피웠는데 이 마낭분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연기가 일직선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봉수를 올릴 때 하나는 강계로부터 오는 제3 거로서 안주를 경유해서 오도산-소리산-도연산-미두산-독자산-부산으로 이어져, 나중에 한성 목면산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주로부터 오는 제4 거로서 안주-동을량산-견포-여을외-소산-대선곶-불곡마황-평양으로 이어져 나중에 한성 목면산 제4봉에 이른다. 직봉 외에 간봉이 있는데, 간봉은 직봉의 보조선이고 또 본진·본읍에 보고하는 단거리의 연대이다.

간봉으로는

- ↳ 숙천 마갑산-아산-여을외 직봉에
- ↳ 영유 두신봉-소산 직봉에
- ↳ 순안 금강산-대선곶 직봉에

평원군의 봉수는 순안 1, 숙천 2, 영유 4로 분도 내에서 제일 많았다. 이 제도는 1893년 고종 시대에 와서 폐지 되었다.

③ 신식우편(新式郵便)

1884년(고종 21년) 10월에 신식 우편제도가 창시되었으나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한때 철폐되었다가 1985년 5월 28일 칙령(勅令) 124호로 국내 우체규칙 시행으로 우체사가 설치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 합동 이후 동 5월 24일에 순안-숙천-영유에 임시우체소를 설치했다. 이것이 본 군내 통신기관 설립의 효시이다.

1906년 11월 30일 순안 임시우체소를 폐지하고 동년 12월 1일에 순안 우편취급소를 설치하고 영유-숙천에는 우체소로 승격시켰다.

1908년 4월 1일에는 숙천 우편취급소를 당하리로 이전.

동년 10월 1일 순안 우편국으로 개정하였다.

1912년 10월 23일 석암 우편소를 설치하고,

1915년 1월 26일 한천 우편소를 불삼리에 설치하였다.

1919년 7월 1일 순안 우편국을 군산리에 이전했다가

1927년 6월 1일에 다시 포정리로 이전

1940년 3월 1일 약전 우편국을 용호면 약전리에 설치함으로써 군내 통신 기관이 6개소로 되었다.

④ 전기통신(電氣通信)

1885년 8월 20일에 서울 전보총국과 인천 본국 사이에 이루어진 전기통신이 우리나라의 시초이다, 그 때 전보에 사용되는 문자는 영문·불문·한문이었는데, 한문은 수자(數字)로 번역해서 사용했다.

1885년 9월 22일에는 서울-평양간, 10월 15일에는 평양-의주간이 건설되어 개통했다.

전화는 1902년 3월 20일 서울-인천간의 각기 전보사에 병설되었고, 7월 25일에야 서울-평양간에 전화 사무를 개시했다.

제4장. 사회

1. 북한 사회의 특징¹⁷⁾

1) 계급정책과 계층구조

오늘날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급과 계층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계급과 계층은 둘 다 사회 불평등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개념이라 종종 혼용되기도 하는데, 두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면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계급은 사회 구성원들이 재화의 생산을 위해 맺은 관계 안에서 주로 토지, 공장, 기업 같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을 가리키고, 계층은 재산, 소득, 학력, 직업 같은 임의적 기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범주다. 계급은 구분 기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제한적이다. 또한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계급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집합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Karl Marx)는 고대에는 주인과 노예, 봉건시대에는 영주와 농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서로 투쟁하는 두 계급으로 보았다.¹⁾ 이와 달리 계층은 분류 기준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숫자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특정 계층에 속한 소속감인 계층의식은 귀속의식에 불과하므로 집합적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북한 노동당의 계급에 대한 정의도 앞에서 말한 계급 개념과 비슷하다. 노동당은 계급을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에 의하여 사회경제 생활에서의 지위와 역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정의한다. 노동당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 사회의 기본계급이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으로 바뀌었고, 두 기본계급의 관계 또한 자본주의 사회까지 이어졌던 착취-피착취 관계에서 친선관계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노동당은

17) 2024 북한이해 230P

계층을 임의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 사람들의 범주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 독자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노동당은 인텔리(지식인)를 대표적 계층으로 규정하면서, 인텔리를 노동계급의 인텔리로 만들기 위한 인텔리 혁명화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했었다. 이처럼 노동당은 계급을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농민을 인텔리와 마찬가지로 혁명화하고, 궁극적으로 소유 관계가 ‘전 인민적 소유’로 일원화되면 계급도 사라진다고 봤다. 노동당은 이러한 계급 철폐를 공산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인 사회주의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끝으로 노동당은 친선계급만 존재하는 사회주의 사회에도 계급투쟁은 존재하는데, 이전 사회에서 벌어졌던 계급투쟁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곧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선관계답게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1950년대까지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결과착취계급인 자본가계급은 사라졌고, 당·국가 관료는 과거 착취사회의 관료배가 아니라 일군으로서 인민을 위해 복무해왔으며, 노동계급은 선진적 의식의 소유자답게 사회주의 혁명을 선도해왔고, 농민과 인텔리 혁명화도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주장은 대부분 북한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실제 북한 사회에서는 당·국가 관료가 자본가의 자리를 대체하며 하나의 계급으로 출현했고, 노동계급도 흔들리며 1990년대 중반 군대에 사회주의 혁명 선도 집단이라는 지위를 내주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농민들이 국가에 수매해야 할 쌀을 은닉하고 밀매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노동계급과 농민이 친선관계를 맺고 있다는 노동당의 주장도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특히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당의 주장과 북한 사회 실제의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계급, 농민이라는 양대 계급 사이에서 현재 북한 사회에서 ‘돈 주’라고 불리는, 생산수단을 사실상 소유한 소고용주가 등장함으로써 자본가계급 소멸론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한 당·국가 관료가 돈 주와 후원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의 계급적 속성이 더욱 강

해지고 있다. 끝으로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도 갈수록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당이 식량 증산을 위해 협동농장의 미상환 자금 면제(2021년 12월), 수만 세대 농촌 주택 건설, 농촌과 도시의 교육수준 격차 완화 추진 등 농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처럼 북한 사회의 계급구조가 노동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변화하면서, ‘성분’을 기준으로 한 계층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분은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나뉜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출신성분은 계급적 토대, 곧 본인이 출생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부모의 “사회정치 생활 경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달리 사회성분은 본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업 및 계급적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곧 출신성분은 선천적 성분이고, 사회성분은 후천적 성분이다. 북한 당국은 1950년대 말부터 개별 주민의 성분 파악을 위한 분류작업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이렇게 파악된 성분을 토대로 북한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대 계층과 51개 부류로 분류해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주민 이탈이 심화하면서 주민 재분류 사업이 진행돼 25개 성분, 3대 계층, 56개 부류로 분류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한 사회 계층구조에 대한 논의가 ‘성분’이라는 북한 당국의 독특한 분류 기준에 주로 집중된 이유는 다른 기준에 따른 계층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더불어 성분 제도가 북한 사회의 불평등을 유지·심화시키는 대표적 제도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계층구조를 다양한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총조사(센서스: census)를 실시해 대규모 통계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사회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총 조사가 유엔인구기금(UNFPA)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1994년 1월, 2008년 10월 단 두 차례 실시됐을 뿐이라 여러 기준에 따른 계층구조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2008년 총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학력, 직업 등을 기준으로 한 계층구조는 초보적으로나마 파악됐다. 2008년 당시 북한 총인구(2,234만여 명) 중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약 381만 명이고, 초·중등 교육수준 비율은 여

성이 남성보다 높은 데 비해, 고등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1]). 그리고 16세 이상 북한 총인구를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 전문 기술 인력이 150만 명에 육박하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도 2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6-2]). 하지만, 현재까지도 재산, 소득처럼 흔히 활용되는 기준에 따른 계층구조를 파악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북한 당국이 성분 제도의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된 통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분에 따른 계층구조를 양적으로 파악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분 제도가 북한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유지·심화시켜 왔는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증언이 쌓여 왔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대표적인 계층구조로 논의되는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사회에서 성분은 여전히 주민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학 진학, 노동당 입당, 직업 및 거주지 선택 등 주민의 권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평양시와 지방,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가 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시 안에서도 중심 구역과 주변 구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한다. 대학 진학에서도 성분이 중요하며, 직장배치, 이직, 직종 변경, 승진에도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장배치와 관련해 인맥과 뇌물을 활용해 기피 직장을 피하거나 원하는 곳에 배치됐다는 증언, 이직에 성공했다는 증언 등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력이 이제는 성분 제도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확대되면 북한 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성분 제도의 통제력과 영향력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2) 주민의 의식변화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 주민의 의식

을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사회의 특징이었던 집단주의가 흔들리면서 개인주의가 성장하고 있고, 시장을 통해 유포되는 외부 문물과 정보에 따른 주민의 식 변화도 주목된다. 개인 소유와 시장기구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이해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영향력이 강하다면, 국가·협동적 소유와 계획기구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집단주의’의 영향력이 강하다. 북한 당국은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63조)는 조문을 넣을 정도로 집단주의를 대표적인 주민의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북한 당국은 1950년대에 농업·상공업 부문에서 개인 소유를 없애나감으로써 개인주의가 성장할 토대를 약화시켰고, 1959년에는 집단주의적 사상 개조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주의 교양에 주력했으며, 1970년대에는 노동당과 근로 단체(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 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 조선 민주 여성 동맹)에서의 조직 생활과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각종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집단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 당국이 1960년대에 내놓은 구호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북한 사회집단주의를 상징하는 구호이며,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 시 관람해서 화제가 됐던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2002년 초연돼 2013년까지 진행된 「아리랑」, 2018년에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공연된 「빛나는 조국」 같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도 북한 당국이 북한 사회의 집단적 결속력을 과시하는 대표적 공연들이다. 한편 다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개혁·개방 이후 집단주의적 대중운동이 자취를 감춘 데 비해, 북한 당국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이래 오늘날까지 대중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주의자로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시작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90년대 후반 ‘제2의 천리마 대진군’, 2016년 시작된 ‘만리마속도 창조 운

동’ 등이 이러한 대중운동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새 시대 천리마 정신’이라는 구호를 새롭게 내놓으며 집단주의 대중운동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은 조직 생활에 열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개인 부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은 개인 부업을 통해 만든 생산물을 농민 시장과 암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와 다른 개인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김정일이 1990년에 “일부 사람들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고 개인 이기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1990년대 들어 개인 이기주의의 성장, 개인 이기주의에 뿌리를 둔 ‘비(非)사회주의적 현상(국가재산 유용, 탐오·낭비, 부정부패 행위 등)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주민 이동이 늘고 출근율은 낮아지면서 집단주의의 제도적 기반인 조직 생활과 정치사상 교양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개인주의의 토대인 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갈수록 커지면서 개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청년기를 보낸 북한 사회 ‘기성세대’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 생존에 대한 집착과 불안 심리,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염세적 감정, ‘개인의 삶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가치관 변화에 대한 혼돈 감 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바로 아래 세대, 곧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북한 사회의 ‘청년세대’(장마당 세대)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교류하고, 외부문화에 민감하며, 개인적 소비 욕망을 드러내는 등 윗세대와는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중국 사회에서 경제 이행기(economic transition)에 시장개혁에 따른 민영기업 증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해외여행이나 외국인 접촉 증대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청년들의 개인주의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 사회에서도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개인주의와 소비 욕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요 등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청년세대 조직 생활,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 등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당은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당규약 서문에 “청년운동 강화”를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 요구”로 새롭게 규정했다.

북한 당국은 2021년 9월 최고 인민 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을 택해 청년 대상 사상교양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고, 2023년 1월 최고 인민 회의에서는 「평양 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해 남한 방송을 시청·유포하거나 말투를 따라 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한 영상물의 주요 소비층이 청년이므로 「평양 문화어보호법」 제정 역시 청년 사상 통제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해 청년뿐 아니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사상문화 유입·유포에 대한 대응과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였다.

2. 주민 생활¹⁸⁾

북한 사회의 경제구조는 과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뚜렷해지고, ‘사실상의 사유화’도 확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식도 과거 지배적이었던 집단주의가 흔들리고 개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북한 사회의 주민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 주민 생활을 크게 조직 생활, 의식주, 여가와 명절, 보건·복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조직 생활

다른 사회의 주민 생활과 비교할 때 북한 주민 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애 과정에 걸쳐 조직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조직 생활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당국의 사상과 지향을 주입

18) 2024 북한이해 241P

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며 노동력을 동원해왔다. 경제난과 시장화 진전,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조직 생활 참여도가 과거와 같지는 않다. 그래도 북한 당국은 통치 안정, 집단주의 유지, 경제적 동원 등을 위해 여전히 조직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는 부모가 직장에 다닐 경우 탁아소에서 생애 첫 집단생활을 하게 되고,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공식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공식 조직 생활은 소학교 2학년(7세) ‘조선소년단’ 입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년단 입단식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4월 15일), 소년단 창건 기념일(6월 6일)등 연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소년단원의 징표는 빨간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이다. 소년단 생활은 16세가 될 때까지 이어지고, 17세가 되면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 가입은 소년단 입단과정과 유사하지만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도 먼저 학교·직장 단위인 초급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추가적으로 시(군·구역) 청년동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8세가 되면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이 연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인 데 비해, 노동당은 일정한 입당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따르면, 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30명 단위로 당세 포를 구성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 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은 세포비서 지도 아래 당원으로서 활동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 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단위다.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소속 당 세포에 제출해야 하며, 당 세포 총회에서 입당 문제를 심의해 결정을 채택한 뒤 시·군 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식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후보당원 2년을 거쳐야 하는데, 후보당원이 2년을 채우면 당 세포 총회에서 정식 입당 문제를 심의·결정한다. 노동당원이 아닌 노동자와 사무원은 조선직업 총동맹 구성원으로서, 협동농장 농민은 조선농업근로자 동맹 구성원으로서, 전업주부 여성은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구성원으로서 조직 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직 생활에 참여하는 주민은 주별·월별·분기별 및 연말에 생활총화를 한

다. 생활총화는 주로 10~15명 정도 인원이 참가하며, 노동당에서는 당 세포, 근로 단체에서는 초급단체 혹은 분조로 나누어져 실시한다.

2) 의식주

경제난 이전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생활 모습은 비록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은 국영상점에서 공급받거나 구매하고, 식량은 국가로부터 배급받으며, 국가가 지어서 배정한 주택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을 거친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의식주를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서 개인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금도 국영상점에서 의류와 생필품을 공급받거나 구매할 수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북한 주민은 시장을 이용한다. 북한 이탈주민 조사에 따르면, 2011~2020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 중 약 90% 정도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로 입는 옷을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증언한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백화점·외화상점에서의 의류 구매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도 의류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고가의 의류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둘째, 북한 주민 중에서 식량 배급에 많이 의존했던 이들은 도시에 사는 노동자이다. 협동농장 농민은 국가를 거치지 않고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분배받기 때문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 당국은 배급 대상을 당·국가기관 종사자, 교사, 군인, 대학생, 돌격대원 등으로 축소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식량을 구매하도록 식량 공급 체계를 바꿨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2015년에는 114만 7천 톤, 2018년에는 148만 6천 톤의 식량이 부족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로 아직도 북한 사회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은 편이다.¹³ 김정은도 2021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 지고 있다”라며 식량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농사를 “당과 국가가 최종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경작하거나 시장에서 구매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 노동자들은 도시 인근에 ‘소(燒)토지’를 일궈서 직접 식량을 생산하고, 자가소비 이후 남은 식량은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14 소토지 경작은 아직 북한 사회에서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협동농장 농민들이 시장에서 파는 식량과 함께 주민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요소가 된 상황이다.

셋째, 당국이 배정해 준 주택에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 형식으로 사는 것이 과거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주거생활이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한편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국이 주택을 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거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사 밀천이 필요하거나 장사에 실패한 사람들, 식량 확보가 절실한 사람들은 당국 소유 주택을 비합법적으로 매매한다. 반대로 시장에서 돈을 번 주민은 좀 더 생활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비합법적인 주택 거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비합법적 주택 매매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입사증)’ 발급 권한을 가진 각급 인민위원회 주택 담당 부서의 간부들, 전문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이 돈 주, 개인건설업자 등과 연합해 주택을 신축한 뒤, 결혼으로 자식을 분가시켜야 하는 경우처럼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주택 매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됐다고 증언한다. 이 시기는 종합시장이 설치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때와 일치한다. 2018~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북한에 살 때 살림집을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응답률이 65.6%에 달하고,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률은 15.9%까지 낮아진 것으로 알 수 있듯이[표 6-4], 이제 북한 주민에게 주택 마련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든 개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통일부가 2024년에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에서도 경제난을 기점으로 배급제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

서 북한 주민이 부족한 의식주를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생필품을 보면 전체 응답자 6,350명 중에서 국가로부터 생필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무려 71.6%에 이르고, ‘정기적으로 공급받았다’라는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반면에 종합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 응답자 5,278명 중 무려 85.6%를 차지했다. 의복의 경우 전체 응답자 6,351명 중 87.3%가 종합시장에서 의복을 구매했다고 응답했고, 국영상점에서 의복을 국정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응답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입쌀과 강냉이 조달 방법을 물어본 문항에 응답한 비율은 ‘종합시장에서 구입’ 67.7%, ‘양정소 배급’ 1.8%, ‘소속 기업소 및 기관에서의 배급’ 6.0%로 전체 응답자 4,369명 중 대부분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고 있었다. 식생활 수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3.1%가 1일 3회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2~2020년에는 89.7%로 증가했다. 이처럼 배급 경험이 낮은 수준임에도 식사 횟수가 개선됐다는 것은 종합시장 등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는 가구 수가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지역과 정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1일 3회 응답 비율이 평양은 86.9%인 데 비해, 접경지역은 73.9%, 비접경지역은 65.8%에 그쳤다. 또한 1일 3회 응답 비율이 농장원 60.5%, 노동자 71.5%인 데 비해, 행정 일군, 보안원, 군인과 같은 직종은 87.3%에 달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식생활을 영위했다.

끝으로, 주택 관련 응답자 5,278명 중 주택 판매 경험이 있는 주민 비율은 2000년 이전에는 3.8%에 불과했으나 2001~2005년 5.0%, 2006~2010년 6.8%, 2011~2015년 8.5%로 조금씩 상승하다가 2016~2020년에 15.3%로 크게 늘었다. 주택 구매 경험이 있는 주민 비율도 2000년 이전에는 전체의 1.7%에 불과했으나 2001~2005년 3.8%, 2006~2010년 6.8%로 서서히 상승하다가 2011~2015년 14.2%로 크게 늘었고, 2016~2020년에는 20.5%에 달했다. 다만, 주택 매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김정은 집권 전후를 비교해 보면 2011년 이전 탈북민의 경우 통제가 미미했다는 비율이 62.4%, 어느 정도 통제가 있었다는 비율이 32.1%였는데,

2012년 이후 탈북민의 경우는 통제가 미미했다는 비율이 58.9%, 어느 정도 통제가 있었다는 비율이 37.5%였다. 곧 통제가 미미했다는 비율이 통제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비율보다 여전히 훨씬 많지만, 통제가 미미했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통제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표 6-3] 북한 주민의 시기별 의류 구입처

(단위: %)

구입처 \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응답자 542명)	2015-2017 (응답자 348명)	2018-2020 (응답자 226명)
시장 구입	93.0	91.4	87.6
국영상점(직매점 포함)	0.6	0.6	2.2
백화점(외화상점 포함)	1.1	1.7	8.9
국가공급	0.2	0.0	0.9
기타(해외직구 포함)	5.2	6.3	0.4
전체	100.0	100.0	100.0

※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 47, <표 2-7>.

[표 6-4] 북한 주민의 시기별 주택 마련 방법

(단위: %)

구입처 \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응답자 547명)	2015-2017 (응답자 351명)	2018-2020 (응답자 227명)
국가 배정	21.6	20.2	15.9
돈 주고 구입	55.4	50.7	65.6
직접 건축	7.1	12.3	4.8
상속 받음	13.7	14.5	11.0
친척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양도	2.2	2.3	1.8
기타	0.0	0.0	0.9
전체	100.0	100.0	100.0

※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 50, <표 2-9>.

3) 여가와 생활

북한 주민은 생산 활동은 물론 생산 외적 조직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며, 경제난 이후에는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 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여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비교적 자주 하는 여가활동은 영화 감상, 공연 감상, TV 시청 등이다. 영화 및 공연 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활동으로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 단위로 단체관람을 주로 한다.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최근에는 태양열 전지판, 축전지 등을 통한 TV 시청이 많아졌다. 특히 시장을 통해 외부 영화나 드라마 등이 유입되면서 공식 채널보다 휴대용 매체를 통한 드라마 시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체육 활동이 주요 여가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과거부터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추구해왔는데, 1990년대 들어 북한 사회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김정일이 ‘선군정치’에 맞춰 국방 체육을 중심으로 한 대중 체육 활동을 꾸준히 독려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민들에게는 체육 활동에 참가할 여력이 없었고, 당국 역시 주민들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설·리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11월 평양에 ‘인민 야외빙상장’과 대규모 롤러스케이트장을 새로 개장했고, 이후 남포시, 원산시 등 전국 곳곳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면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가 유행했다. 2013년 5월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갖춘 ‘능라 인민 체육공원’, 10월에는 대형 물놀이공원인 ‘문수물놀이장’, ‘미림 승마구락부’(클럽) 등이 새로 문을 열었다. 또한 ‘평양체육관’,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처럼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했고, 우리 태릉선수촌처럼 국제대회 메달의 산실이었던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 대표적 동계 스포츠 시설인 ‘백두산지구 체육촌’도 리모델링을 마쳤다. 2017년에는 평양 보통강 근처에 종합체육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숙소 등을 갖춘 ‘평양시 체육촌’을 완공했다. 2019년에는 물놀이장, 탁구장, 보트장, 낚시터 등을 갖춘 평양골프장 리모델링을 마무리했고,

코로나 19사태가 끝난 2023년에는 강원도 축구학교, 황해북도·남포시·강원도 항공구락부, 평안북도 승마구락부 등을 새로 준공했다.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체육관광 산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현상은 ‘스키’ 인 프라 확충이다. 2013년 12월에 대규모 스키 리조트인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했고, 2018년 1월에는 자강도에 규모는 작지만 청소년이 주로 활용할 ‘강계 스키장’이 문을 열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전국 대회 종목에 스키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탁구, 축구, 농구, 배구 등과 같은 구기 종목 위주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는 남한 주민의 주요 여가활동 중 하나인 여행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교통 사정도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로는 출장증명서와 여행 증명서가 있다. 출장증명서는 공적 용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여행증명서는 관혼상제 등 사적 용무일 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요 도시에 숙박하며 최신 정보를 취득해 부를 축적하려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지정 공식 명절도 북한 주민이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 모처럼 여가를 즐길 좋은 기회다. 북한의 명절은 사회주의적·국제적 성격의 명절, 전통 민속 명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기념하는 대표적 명절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과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2월 8일, 광복절인 8월 15일,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노동당 설립일인 10월 10일, 헌법 제정일인 12월 27일 등이다. 북한 당국은 4월 15일과 2월 16일을 북한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기념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등도 기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설과 한가위 같은 민속 명절들도 기념한다. 과거 북한 당국은 민속 명절이 봉건 잔재라면서 양력설 하나만 인정했었다. 그러다 1972년 추석을 맞이해 성묘를 허용하는 등 민속 명절을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1988년 추석 명절을 허용한 데 이어, 1989년에는 설과 한식을 부활하여 하

루를 쉬도록 했다. 2003년에는 김정일이 양력설 대신 음력설에 쉬고, 정월 대보름도 하루 휴식하며, 단오와 추석을 예전 명칭인 수리 날과 한가위로 부를 것을 지시했다. 단, 민속 명절은 제도화된 휴일이라기보다는 당국 지정에 따른다. 따라서, 민속 명절에 쉬기 위해서는 북한 내각에서 그해 민속 명절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공식 발표 절차가 필요하다.[표 6-5] 민속 명절의 대표적 활동은 전통 민속놀이를 기반으로 한 ‘민족체육’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대표적 민족체육 종목은 씨름, 그네, 널뛰기, 태권도, 밧줄 당기기 등이며 ‘전국 민족체육 경기대회’에서 각 종목별 개인전·단체전, 도별 대항전 등도 이루어진다.

[표 6-5] 북한 사회의 공휴일

명칭 *() 안은 북한 당국 공식 명칭	날짜(2024년 기준)
양력설	1.1.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절)	2.8.
음력설(설명절)	2.10.
김정일 출생일(광명성절)	2.16.
정월대보름	2.24
세계 여성의 날(국제부녀절)	3.8.
청명절(민속명절)	4.4.
김일성 출생일(태양절)	4.1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4.25.
근로자의 날(국제근로자절)	5.1.
조선소년단 창립일	6.6.
정전협정 체결일(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7.27.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15.
김정일 선군정치 개시일(선군절)	8.25.
정권수립일(공화국 창건일)	9.9.
추석	9.29.
노동당 설립일(노동당 창건일)	10.10.
어머니날	11.16.
사회주의 헌법 제정일(사회주의 헌법절)	12.27.



평양의 설 풍경

4) 보건 복지

북한 사회 보건생활의 제도적 특징은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 제도다. 현행 북한 헌법은 국민의 무상 치료권을 규정했고, 이에 따라 북한 「인민 보건법」은 모든 약의 무료 제공, 진단·실험검사·치료·수술·왕진·입원·식사 등 환자 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 무료, 근로자 의무료 요양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 국가의 질병 예방 활동을 강조하고, 예방치료 사업을 위한 의사 담당구역제를 도입하는(제28조) 등 예방의학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며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거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 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진료, 입원, 수술, 약품 구매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무상 제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 부담이 여전히 크고,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경우 수고비 명목으로 의료진에게 약간의 현금을 주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의 경우 전체 응답자 3,853명 중 병원 무상공급은 34.4%인 데 비해, 병원에서 유상 구매, ‘종합시장 구매’, ‘약국’,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구매’를 합한 유상 공급은 54.5%로 드러났다. 특히 2011년 이전에는 46.0%가 무상으로, 51.5%가 유상으로 의약품을 구했으나, 김정은 집권기인 2012년 이후에는 무상 21.3%, 유상 79.2%로 무상공급이 크게 후퇴했다.

또한 도인민병원, 평양의 중앙병원, 특수·전문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인맥과 뇌물을 동원해야 하고, 일정 계급 이상의 기관원과 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진료과’가 병원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듯이 의료서비스의 지역별·계층별 차별도 존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349명 중 병원 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5%였는데, 이 중에서 평양은 76.9%로 접경지역 60.6%, 비접경지역 6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출신성분 상층은 65.1%, 중층은 59.2%, 하층은 57.8%가 각각 진료 경험 있다고 응답했고, 소득수준 상층의 65.2%, 중층의 61.8%, 하층의 59.2%가 진료 경험이 있었다. 미세한 차이지만 출신성분이 좋고, 소득이 높을수록 병원 진료가 용이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해 사실상 의료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방의학 관련 제도 중에서 아동 대상 예방접종은 국제기구 등에 의존하여 비교적 잘 기능하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아동 예방 접종률은 경제난이 한창이던 1997년 35% 수준에 불과했지만,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백신 면역 연합(GAVI) 같은 국제기구의 지속적 지원 결과 2006년 이후 90%를 넘어섰다. 24 세계보건기구(WHO)·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 아동 예방 접종률은 97~99% 수준이었으나, 2021년 급락한 데 이어 2022년에는 결핵, 소아마비 등 7가지 항목의 예방 접종률이 0%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 국경봉쇄로 인한 국제기구의 대북 의료 지원사업 차질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의 기본인 사회보장 역시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져 있다. 현행 북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국가가 특별히 돌봐주어야 할 대상 등을 사회보장 대상으로 정하고(제37조),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 또한 「사회주의로동법」에 따라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 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 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주어야 한다(제73조). 이 밖에도 노동자가 일정한 근속연한을 채우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후 퇴직 시 연로 연금을 지급하고(제74조),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했을 때는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제77조).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다는 증언은 아예 없고, 6개월 이상 노동능력 상실 판정을 받더라도 아주 적은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6개월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해서 직장에 나가지 않게 되면 금전적 혜택이 없더라도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표현한다고 한다. 연로 연금

도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고, 유가족연금도 받았다는 증언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특히 북한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할 때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북한 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북한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사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9.0%로 ‘고령화 사회’ 기준(7.0%)을 넘어섰고, 2014년 유엔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 공동 표본조사 결과, 고령 인구 비중이 10.2%로 2008년에 비해 1.2% 증가했다. 27 합계출산율 하락, 기대여명 증가 등에 따라([표 6-6]) 북한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추세이다. 북한 중앙통계국도 저위 출산율을 가정했을 때 2030~2035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총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45~2050년 사이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총인구의 19.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난 이후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 책임, 지역공동체의 상호부조 등도 약화하고, 새롭게 형성된 시장경제에도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북한 노인들은 노후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만약 현재와 같은 인구추세, 경제 사정 등이 지속된다면 북한 노인의 삶은 갈수록 곤궁해질 가능성이 크다.

[표 6-6] 북한 사회의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

구분	1993년	2008년	2014년
합계출산율	2.2	2.0	1.9
기대여명*	73.2	69.3	72.1

※ 출처: DPRK CBS and UN Population Fund, DPRK: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CBS, 2015, p. 100; DPRK CBS, DPRK: Population Projection (2014-2050), CBS, 2016, pp. 33-35.

3. 북한 인권¹⁹⁾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2013년 3월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9) 2024 북한이해 263P

2014년 2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이하 ‘유엔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세히 알려졌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유엔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평등권, 이동 및 거주 자유, 생명권 등을 포괄한다.

2)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하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여 공식 이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노동당에 의해 통제된다.

국가는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당 산하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 활동을 통제한다. 북한 주민의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도 처벌받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의견 표명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말 반동’이다. 말 반동이란 최고지도자나 노동당 및 북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말 또는 행동으로 비난하는 행위 또는 비난을 표현한 사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북한 체제를 한국과 비교하거나, 북한 당국을 원망하는 발언까지도 말 반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 주민은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인터넷 접속 등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허용된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다.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모든 대중매체 내용은 노동당 지침에 부합해야 한다. 전화 통화는 도청당하고, 주민들의 경우 외부 세계와의 통화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 북한 내부로만 전화할 수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특별전담조직을 통해 외부 정보 접촉을 지속적으로 검열·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영상물

시청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저장 매체가 소형화돼 공유 및 유포가 용이해지자 ‘109 연합지휘부’ 같은 특별전담조직의 단속이 본격화했다. 109 연합지휘부, 보위부, 안전부 등의 기관원들이 외부 정보를 단속할 때에는 대부분 수색결정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가택수색이나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한편, 북한 당국은 수령 숭배에 도전하고, 국가 통제 밖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 및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필요에 의해 설립하여 통제하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의 종교선택 자유 및 자유로운 종교 활동은 금지돼 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3) 차별

북한 당국은 주민에게 모든 분야에서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사회에는 성분 제도라고 하는 차별 시스템이 존재한다. 성분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사회 계급과 출생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며, 정치적 견해 및 종교도 고려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평양시와 지방, 도시 지역과 농촌 등 도서벽지의 거주는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평양시와 지방의 식량 배급 및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고, 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인프라 차이 역시 크기 때문에, 성분에 의한 거주 지역 결정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또한 대학별 추천 인원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데, 성적보다는 성분이 중요하다는 게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다. 군인의 대학 입학 추천도 부모의 성분, 계층, 부류 등이 중요 고려 사항인 것으로 파악된다. 직업도 성분에 따라 결정되며, 성분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

과거 성분 제도는 거주 장소, 주거 형태, 직업, 교육(특히 대학), 식량 배급량 및 심지어 배우자 선택까지 북한 주민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였다. 이러한 성분 제도에 따른 전통적 차별은 최근 북한 내 시장경제 확

산으로 복잡하게 변화됐다. 기초 공공 서비스가 무너지고 돈을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재산이 없고 유리한 성분도 아닌 주민 상당수는 점점 소외되고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한편 성분에 의한 차별은 북한 사회에 만연한 남녀 차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록 국가에 의한 차별 개선 노력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북한 사회에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북한에서 성차별은 여성에게만 뇌물이나 벌금을 내게 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북한 사회 전역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이 만연해 있고, 피해 여성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호나 지원 서비스, 법적 구제를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정치 영역에서 여성은 당 고위 간부급 중 5%, 중앙 정부 관료 중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차별은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과 맞물려 여성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여성들을 인신매매에 노출시키고 점점 성매매로 몰고 갔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적 봉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평등한 환경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북한 여성들은 세계 다른 지역 여성들처럼 집단행동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차별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북한은 제도적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에서 차별은 지도층이 대내외적 잠재 위협으로부터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되고 있다.

4) 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해 거주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성분에 의한 차별이 바로 이러한 당국의 강제적 거주지 및 근로 장소 지정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즉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주민들은 소외된 지역으로 이주된다. 북한 당국에 가장 충성하여 혜택을 받은 이들만 거주할 수 있는 평양의 특별한 위치가 이러한 차별 제도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는 그들의 주거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여행허가제도와 숙박등록제도를 시행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또한 「주민행정법」, 「군중신고법」, 「인민 보안단속법」, 「행정 처벌법」 같은 법규를 통해 여행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³⁸ 이러한 정책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 차이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하고,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며, 국가의 통제력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가족적 유대를 희생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의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자국을 떠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이 탈북 중 붙잡히거나 강제로 북송되면 조직적으로 학대 및 고문을 가하고, 장기적이고 자의적으로 구금하며, 경우에 따라 신체 내부 수색 중 이루어지는 성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한국 국적자나 기독교인과의 접촉한 것이 발각된 북한 주민은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거나 일반 감옥에 구금되며, 경우에 따라 즉결처형되기도 한다.

5) 생명권 침해

탈북 과정에서의 총격, 구금시설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절도, 마약거래, 음란물 제작·유통 등 광범위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사형 집행으로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을 동원해 처형 과정을 목격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폭력 및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 이들은 정치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

하거나 감금한다. 고문은 북한 내 심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이며, 이는 특히 정치범죄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이루어진다. 또한 수감한 용의자들을 고의적으로 굶기거나 비인간적인 환경 아래 둠으로써 이들이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한다. 북한 주민 중 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여전히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 감금된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파악한 정치범 수용소는 총 11곳이고, 2023년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은 5곳이다. 정치범수용소는 일반 주민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개의 ‘리’나 ‘노동자구’를 합쳐 놓은 크기라고 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방에 갇히며, 가족은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예전에는 연좌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가족 모두(조부모 및 3대를 포함)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런 사례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 존재를 부인하지만, 전직 경비병, 수감자 및 수용소 인근 거주자 증언, 위성사진 등을 통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일반 감옥(교화소) 및 다양한 단기 강제노동 수감 시설에 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없이 감옥에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다. 일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고의적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 경비병 및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 성폭행, 그리고 기타 자의적인 가혹 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면도구나 여성용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6) 외국인 납치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 대한민국, 일본 및 여타 국가 국민이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북한으로 납치됐다. 북한은 납치 및 체포를 위해 군인 및 정보요원을 동원했다. 납치 피해자 대다수는

북한 당국을 위한 노동력 및 기타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 및 테러 활동에 투입됐다.

납치 피해자는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법적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도 빼앗기고,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도 상실했다. 납치 피해자들은 삼엄한 북한 당국의 감시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취업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납치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았다.

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북한 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을 포괄한다.

① 식량권 침해

북한 당국은 식량을 주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성분 제도에 기초해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분에 차등을 둔다. 또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식량 배급이 이루어질 때 배급량이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역·직종·기업소 등에 따라 배급 주기, 배급량, 곡물 혼합비율 등이 다른 경우도 있다. 북한 당국은 1995년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기 전부터 식량 배급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배급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연이은 자연재해 등 최악의 경제위기 가운데 예도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이동하거나 비공식 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걸 통제했다.

북한 당국은 기근이 최악으로 치달아 배급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의 식량 구호를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식량 배분에 있어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

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우선시함으로써 군대의 사병들에게조차 식량을 공급하지 못했다. 북한은 생산 및 배급 등 식량과 관련된 결정, 정부 예산 분배, 그리고 인도적 지원 및 국제 원조의 사용에 관련된 결정 등이 소수 관료 집단에 의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관료 집단에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 이처럼 북한에는 식량권을 침해하는 법규와 정책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계속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동농장 소속 농장원이나 농촌 지역 거주자는 텃밭이나 개간지인 폐기밭을 경작하거나 염소,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고, 산골 지역에서는 약초나 나물을 팔아 부족한 식량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자 가족의 경우 출근하는 남편을 대신해 여성이나 가족 구성원이 장사, 밀무역, 샅벌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소속된 직장에 뇌물을 통해 출근하지 않고 개인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도 많다.

②건강·교육·사회보장권 침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균형한 접근성, 개인의 불법 의료행위 만연, 불충분한 예방의학 등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수술 부대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있고, 공식 의료체계 내 의약품 부족으로 장마당을 통한 의약품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 간부 및 가족 전용 의료시설 설치, 병원 내 간부 전용 진료과 운영 등 성분·계층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이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진료과는 보통 도 인민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시 인민병원에도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간부들이 진료과를 이용할 때는 입원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무상이며, 진료과 이용자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우선 대상자로 처리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일반 주민이 도 인민병원이나 평양의 중앙병원, 특수·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맥과 뇌물을 동원해야 한다. 부족한 교육 시설과 장비, 교육 기회 차별, 학습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교육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무료교육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학교 시설 개선,

교보재 구입 등 학교운영비용과 교원 보수 등을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소학교 때부터 고급 중학교 때까지 전 학년 학생들에게 ‘꼬마계획’이라고 불리는 상납 과제와 각종 지원금까지 부과하고 있고, 결국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은퇴한 고령자, 질병·장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자, 산재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이 미비해 사회보장권도 침해되고 있다. 연로 연금과 노동능력상실 연금의 경우 지급 액수가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가족 연금과 각종 보조금의 경우에도 제도와 달리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열악한 식량·의료·교육 상황은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⁴⁵ 유엔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제5장. 교육

1. 교육정책과 제도²⁰⁾

1) 교육정책

① 교육목표

북한 교육의 이념적 지향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다. 북한은 초기에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처럼 소련식 사회주의를 북한에 의식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을 활용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문맹 타파를 비롯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1977년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¹⁾에 따라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육성을 목표로 했다. 2009년 북한은 개정된 헌법을 통해 기존의 교육목표였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변경했으며, 2019년에는 ‘참다운 애국자’,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교육목표를 변경했다. 북한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999년 채택한 이후 4회에 걸쳐 수정된 「교육법」이다. 「교육법」에 제시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제1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제3조)’를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 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영어와 과학·기술교육, 교육정보화 추진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시대적·교육적 변화에 따른 교육 법제와 제도 준비를 가속화 하고 있다. 그 예로 2011년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2012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발표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2015년 「교원법」,

20) 2024 북한이해 334P

2016년 「교육강령집행법」, 2020년 「원격교육법」, 2023년 「수재 교육법」 등을 들 수 있다. 「수재 교육법」은 전문 분야별 특출한 학생들을 조기 선발하여 키워낼 수 있도록 영재교육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학생 선발과 교육강령 작성에 관한 문제, 교육조건 보장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북한은 「보통교육법」을 개정하였는데 중등 일반 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를 새롭게 규제하고 교육행정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교원의 자격, 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1월에는 교육조직 개편(교육위원회→교육성) 및 「교육법」 개정이 있었다.

② 교육행정 체계

북한의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문화기관은 노동당 및 국가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북한 교육의 중요 정책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교육 관련 부서인 과학교육부는 실제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세부 집행계획 지침을 작성해 교육행정 기구에 내려보낸다. 중앙교육 행정기구인 내각 산하의 교육성 보통 교육국·고등 교육국과 시·도 지방 교육행정 기구는 중앙당 과학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집행 기구이다. 북한의 각급 학교 역시 노동당에 소속된 학교 당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림 8-1]과 같이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한다. 당은 감독과 지시를 하고, 내각은 당의 지침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립·구체화하며, 학교는 당과 내각의 교육정책을 실시한다.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내각의 교육성 산하에는 보통 교육국과 고등 교육국이 있다. 보통 교육국은 유치원과 소학교·중학교 및 교원대학을, 고등 교육국은 일반대학과 사범대학, 공장대학을 각각 관장한다. 교육성은 교육 지침을 각 도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이를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과로 송부하여 각급 학교에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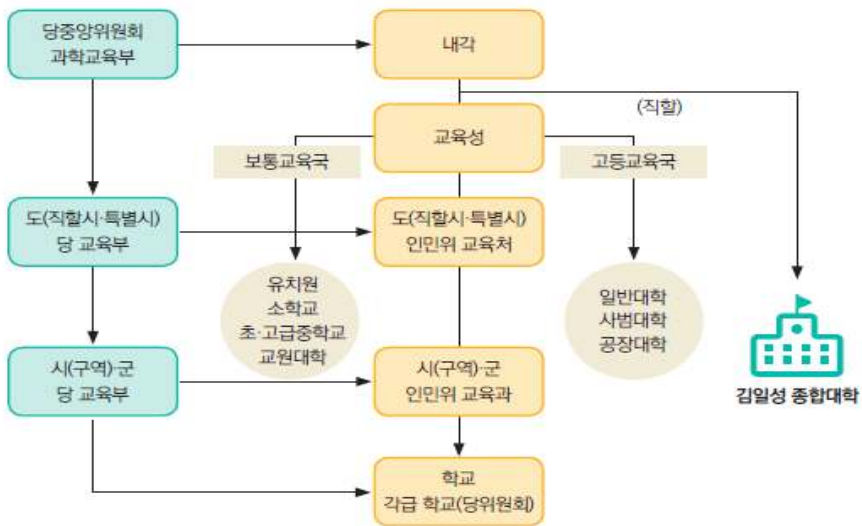
북한의 학교 행정조직 체계는 행정조직과 정치조직으로 구분된다. 행정조직은 교장과 부교장을 책임자로 하고 교무부와 경리부가 실제 행정을 담당한다.

다. 반면 정치조직은 당 세포비서를 겸하고 있는 부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당 위원회, 소년단위원회 등이 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당 중심의 위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교원과 학생들의 조직 생활과 사상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부교장에 비해 행정과 재정 업무 중심의 학교장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2) 교육제도

① 북한 교육제도의 변천

광복 이후 북한은 소련식 교육제도를 도입했고, 초기에는 전 인민의 문맹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6·25전쟁 후 북한은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전념하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 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4년제 초등 의무교육(1956년), 인민학교 4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한 7년제 중등 의무교육(1958년)을 실시했다. 이후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2년제 기술학교와 고등



기술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3년제 중학교에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한 5년제 중학교를 신설해 9년제 의무교육(1967년)을 실시했다.

1970년대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주체’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 전원회의

에서 결정된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이 1973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 양성을 위해 각시·도에 영재교육 기관인 제1중학교를 신설하고 컴퓨터 분야의 중등영재 교육기관을 지정하며, 대학에 수재반을 설치하였다. 이후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개칭(2002년)되었다.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북한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는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소학교를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늘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화했다.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는 [표8-1]과 같다.

[표 8-1]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
1972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② 북한의 학제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학제는 소학교를 기존 4년에서 5년제로 변경하고, 기존의 중학교 6년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분리해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학제는 다음의 [그림 8-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③ 북한의 보통교육

북한에서 학교 교육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눈다. 보통교육은 기본적인 일반 교육으로서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보통교육법 제19조에 따르면 보통교육은 학업 내용과 특성에 따라 [표8-2]와 같이 분류한다.

연령 (만)	학년 구분	교육 구분	교육 구분
26	4	박사원(2-4년)	고등교육
25	3		
24	2		
23	1		
22	6		
21	5		
20	4		
19	3	대학	고등교육
18	2		
17	1	고급중학교	중등교육
16	3		
15	2		
14	1	초급중학교	중등교육
13	3		
12	2	소학교	보통교육 (12년제)
11	1		
10	5		
9	4		
8	3	초등교육	보통교육 (12년제)
7	2		
6	1	유치원	취학전 교육
5	높은반		
4	낮은반		

[그림 8-2] 북한의 학제*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고 2017년 전면 실시되면서 북한 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북한 당국은 학제 개편의 배경으로 “지식경제 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와 세계적 수준에 맞게 교육의 질 향상”을 언급하였다. 2013년 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이 제시된 후 북한은 2022년 2차로 작성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라 문과, 이과, 예능, 체육, 기술 분야 등의 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새 교재를 집필하였다.

북한의 교육강령은 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의 기준 문서이다. 새 교육강령에 따라 집필된 새로운 교과서는 과거에 비해 종이의 질과 삽화 등이 개선되고, 교과서의 ‘과’별로 이해와 토론 및 탐구와 실천을 강조하

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교육 예산이 늘어나면서 새로 바뀐 교복이 지급되고 학교 건물과 시설들에 대한 개건 보수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표 8-2] 북한 보통교육의 분류

교육 구분	학교 급
취학전 교육	1년제 학교 전 교육을 위한 유치원
초등교육	5년제 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초, 중등교육	혁명학원
	장애인 교육을 위한 맹·농아학교
중등교육	3년제 낮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초급중학교
	3년제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급중학교
	외국어 및 예체능 학원
	수재형의 학생들을 위한 제1중학교

김정은 시기의 특징은 ‘보통교육’의 강화와 동시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목표하에 과학기술과 정보화 관련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2013년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내세우며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4.20.)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장기적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2019년에도 북한은 신년사 및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4.13.)을 통해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2019년 9월에는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개최하여,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함께 교원의 자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교원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온 사회에 교육과 인재를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확립하자’라는 구호 하에 지역별 교육 사업 평가순위를 발표하면서 지역 일군들과 교원들에게 온 나라에 ‘교육 경쟁 열풍’을 일으킬 것을 독려했다. 한편 2020년에는 사범 교육기관의 교원 진영 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사범·교원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확보’ 및 ‘교육내용 개선’을 평가 기준으로 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도 했다.

김정은 시기 교육 개편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보통 일반 교육’체계에 더해, 고급 중학교 단계에서 ‘기술 고급 중학교’라는 새로운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중학교’에서는 중등 일반지식을 위주로 가르치는 데 비해, ‘기술 고급 중학교’는 ‘일반 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따른 ‘기초 기술교육’을 실시한다.⁶ 북한 당국은 각 도에 11개의 ‘정보기술 고급 중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2017년부터 모든 시·군들에 ‘기술 고급 중학교’를 1개씩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기술교육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금속, 전력, 석탄, 화학, 농산, 수산 등 10개 부문에 500여 개의 기술 고급 중학교(기술반)를 설립하였으며 2023년에도 각지에 100여 개의 기술 고급 중학교(기술반)를 신설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200여 개의 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삼아 전 교육기관의 현대화·정보화 실현 등 교육발전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에서 학원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교육 기관인 만경대 혁명학원 등 ‘혁명학원’, 평양 외국어학원 등 외국어학원을 비롯해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 중앙체육학원, 태권도학원 등 예체능학교가 있다. 또한 북한은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중등 일반 교육’과 별도로 ‘수재 교육체계’를 일찍이 수립해 운영해 왔다. 북한은 이러한 수재 교육에 대해 ‘우리식’의 ‘주체 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재능 있는 학생을 가급적 조기에 발굴해 수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 초기부터 수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재 양성기지’나 ‘학원’ 등 특수교육 기관을 운영해 왔다. 1958년에는 중등학교 단계의 외국어학원을 설치하고, 1960년대 이후에는 음악·무용·체육학교 등 예체능 특수학교를 개설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분야별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 수재 교육이 더욱 늘어났다. 특히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김정은 시기에 수재 교육에 대한 강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의 학제 개편 배경을 밝힐 때도 ‘수재 교육 및 교육과학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수재 양성 사업’이나 기초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학이나 물리 등 국제 올림피아드 경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이나 문학 분야에서의 조기 영재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재능을 가진 전국 유치원 어린이들의 경연’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④ 북한의 고등교육

북한의 고등교육은 1946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6·25전쟁 후 3개년 복구 건설기(1954~1956)에는 정치·경제 분야의 대학들이 신설되었고, 이후 중등 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1970년대에는 경제 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⁷로서 공장대학·야간대학을 설립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 등을 증설하였다.

[표 8-3] 북한의 특수교육 기관

목적	학교명	비고
핵심인재 양성	혁명학원	- 1947년 설립 - 초, 중등교육과정 - 혁명가 자녀, 전사자 가족, 당정 고위간부 자녀
영재양성	제1중학교	- 1984년 설립 - 6년제 중등교육과정 - 과학·수학·물리 등 이과 위주(과학자 양성 목적) 교육
	외국어학원	- 1958년 설립 - 6년제 중등교육과정, 영·중·일·러 등 8개 외국어 중점 교육 - 소학교 졸업자 중 외국어에 소질 있는 학생 선발
예체능 인재양성	음악학원, 체육학원, 태권도학원 등	- 1960년대 설립 - 6년제 중등교육과정 - 예체능에 소질 있는 특기자 대상 특수교육

김정은 집권 초기 종합대학을 확대하는 방침을 취하여 신의주농업대학을 평북종합대학으로, 함흥컴퓨터·경공업·건설대학을 통합하여 함흥 화학공업 종합대학으로 개편하면서 지역별 종합대학을 신설하고,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평양기계대학 등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등 고등교육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이후 북한은 기존의 종합대학 확대 정책을 변경하여 다시 학부 체제로 복귀시키거나 부속 대학을 분리하면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학 교육총화회의 개최 등을 통해 중앙과 도급대학, 교원양성부문 대학, 직업기술대학, 공장대학 등 대학별 순위를 발표하고, 교육내용의 실용화·종합화·현대화 및

‘학술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에 따라 최근에는 주요 대학 산하에 첨단·핵심기술 연구 사업을 추진할 연구원을 설립하고 학부과정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일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속교육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책공업종합대학 산하에는 ‘미래과학 기술원’을, 김일성종합대학 산하에는 ‘첨단기술개발원’을 신설했다.

또한 북한은 전문학교를 직업기술대학으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실천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은 학교나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원대학과 전문대학은 3년제, 대학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인 김형직사범대학(5년제)을 제외한 사범대학은 4년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학부에 따라 4~6년제 등 다양하다.

북한의 대학 진학은 대학 입학 추천을 위한 예비시험과 도별 각 대학의 본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을 지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입학시험을 치게 하는 방법”⁸ 즉 ‘실력 본위’에 기초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령과 당에 충실하고 학과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기본으로 선발”⁹ 하는 질서가 우선된다. 교육성에서 도별로 각 대학 등에 본시험을 위한 수험생 수를 정하면, 시·군 인민위원회는 도에서 할당된 인원수를 바탕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험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 추천을 받은 학생 가운데 시험에 합격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19% 10에서

26.8% 11 수준이다.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예비시험이나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의 경우 직장에 배치되거나 군대에 가게 된다. 재수생은 없지만 직장에 배치된 경우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 군 복무 중 대학 추천을 받거나 제대 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제대군인 대학생들은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대학생들에 비하여 학업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성적뿐 아니라 출신성분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직통생’ 또는 ‘직발생’ 등으로 불린다. 경제난 이후에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 성적과 출신성분 이외에도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 교육과정과 내용²¹⁾

1) 교육과정

① 소학교

초등 교육과정은 [표 8-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학교 재학 5년동안 지도자의 어린 시절, 국어, 수학, 자연, 영어, 정보기술 등 총 1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주당 수업시간은 국어·수학·체육·음악·무용·도화공작·자연의 순으로 많으며, 학제 개편 이전보다 영어, 수학, 음악·무용, 도화공작 등의 시수가 증가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2013)에 따르면 소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과목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는 정치사상 교과 시간이 소폭 늘어났다.

국어, 영어, 수학, 체육은 우리나라와 교과명이 동일하지만, 우리의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은 북한에서는 각각 자연, 정보기술, 음악·무용, 도화 공작으로 부른다.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사회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고, 도덕은 ‘사회주의 도덕’으로 부르고 있다. 교과 비중은 우리보다 국어, 수학 등의 기초과목과 정치사상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보기술(컴퓨터) 교과는 1주 집중 교수 방식을 취하고 있다.

21) 2024 북한이해 339P



소학교 학생들



소학교 교과서

[표 8-4]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3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어린 시절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6	수학	4	5	5	5	5
7	국어	7	7	7	7	7
8	자연	1주	1주	2	2	2
9	음악무용	2	2	2	2	2
10	체육	2	2	2	2	2
11	도화공작	2	2	2	2	2
12	영어				2	2
13	정보기술(컴퓨터)			1주	1주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소학교)' 내용 재구성

* 북한의 교육과정은 주당 교수시간과 집중교수(주 단위로 표시)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위의 표에서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함.

② 초급중학교

중등 교육과정은 기존 6년제였으나 2012년 학제 개편에 따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하여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지식경제 강국’을 이끄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기초과학, 컴퓨터 기술, 외국어 교육’과 자립적인 학습능력과 창조적 능력의 배양, 실험 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23개 과목을 교육하였으나 개정된 이후 초급중학교와 고급 중학교의 교과목이 각각 16개와 22개로 분리 증대되었다. 초급중학교 과정은 주당 수업시간이 32시간이며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 학습, 소년단 생활, 과외 체육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초급중학교 단계에서 정치사상 교과와 수학, 과학, 영어의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의 기초 과목 비중이 높은 편이다.

초급중학교에서는 ‘김정은 혁명 활동’ 과목이 신설됐고, ‘자연과학’과 ‘음악·무용’ 등의 통합 교과목이 도입되었다. 개정 이전의 ‘제도, 실습’ 등의 과목이 ‘기초기술’ 과목으로, ‘컴퓨터’ 과목이 통계, ‘그림 파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정보기술’ 과목으로 새롭게 편성되어 도입되었다. 소학교에서의 ‘자연’이 초급중학교에서는 ‘자연과학’으로 바뀌고, ‘도화공작’은 ‘미술’로 바뀌었다. 사회/도덕 계열 과목으로는 ‘사회주의 도덕’과 국내 중심의 내용을 다룬 ‘조선 역사’, ‘조선지리’를 배우고 있다.



초급중학교 교과서

[표 8-5]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3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활동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6	국어	5	5	5
7	영어	4	4	4
8	조선역사	1	1	2
9	조선지리	1	1	1
10	수학	6	6	6
11	자연과학	5	5	5
12	정보기술	2주	2주	2주
13	기초기술	1	1	1
14	체육	2(1주)	2(1주)	2(1주)
15	음악무용	1	1	1
16	미술	1	1	1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초급중학교)' 내용 재구성

* 위의 표에서 체육 교과의 주당 교습 시간은 2시간이며 괄호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

③ 고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시간이 34시간으로,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 학습과 소년단 생활13과 과외 체육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고급 중학교에서는 지도자의 '혁명 역사', 국어 문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영어 등 총 22개 과목 교육이 편성되어 있다. 교과목별로는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교과와 영어 교과의 비중이 높다.

고급 중학교에서는 '김정은 혁명 역사' 과목이 신설됐고, 세분화된 분과형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초급중학교의 '자연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로 세분화되었다. 반면 초급중학교에서의 '국어'는 '국어 문학'으로, 고급 중학교의 '조선 역사'와 '조선지리'는 고급 중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로 바뀐다. 그리고 초급중학교의 음악·무용과 미술을 합쳐 고급 중학교에서는 '예술' 교과를 배운다.

또한 초급중학교에서는 없던 '현행 당정책', '심리와 논리', '한문', '공업(농

업)기초’, ‘군사 활동 초보’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다. 북한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경우 영어만 배우며, 제2외국어 과목은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주의 도덕과 법’, ‘역사’, ‘지리’, ‘심리와 논리’는 필수 교과로서 별도의 선택 교과군은 없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공업(농업) 기초’ 교과가 있다.



고급 중학교 교과서

북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정보기술,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 교과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2017년부터 우리의 실업계 고교와 비슷한 특징을 지닌 기술 고급 중학교가 새롭게 나왔다. 기술 고급 중학교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직업 기술교육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 고급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¹⁴ 또한 북한에서의 ‘군사 활동 초보’ 과목은 대부분의 고교 졸업생들이 장기적인 군 생활을 하는데 대한 준비 과목의 역할을 한다. 북한의 교육강령에는 교과 수업 이외에도 견학 1주, ‘붉은청년근위대’ 훈련 1주, 나무심기 3주, 생산노동 9주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④ 대학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교와 전공별로 다양한데, 대체로 정치사상 교과, 일반 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과와 외국어, 체육 등 일반 교과는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일반기초 과정은 전공과목과 전 대학에 규정된 공통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공기초 과정은 전공에 필요한 준비 과목으로 구성되며, 전공 과정은 지정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다. 최근 북한은 정보통신 및 컴퓨터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 강좌, 정보공학과를 설치하여 IT 중심 학부로 대학 제도 개편을 시도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정보교육, 생명과학, 나노과학기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여러 학과 및 학과목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학과와 학과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 안을 개편하고 있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 공학부를 ‘지능정보 공학부’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교육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에 따라 고등교육 부문에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체계와 내용,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학기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전 사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기술전습체계’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도서관, 자연박물관, 과학전시관의 현대화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장 근로자들이 사이버대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장대학’에 ‘과학기술 보급실’을 확대하고, 2015년 10월에는 ‘과학기술 전당’을 설립하는 등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북한은 ‘원격교육체계 확립’을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대학 수준에서 근로자들에게 원격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장려하고 있다.¹⁶ 이는 북한의 경제가 “산업 고도화와 첨단 기술산업 중심의 지식경제”¹⁷ 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제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과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평양과학기술대학’은 “과학기술, 경영 분야 인력 양성을 통한 북한 국제화와 경제 자

립 도모”를 목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의해 남북 합작으로 2010년 10월에 설립된 이공계 특수대학이다.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서는 전기공학(컴퓨터·통신·산업자동화), 농·생명공학, 국제금융·경영학 등의 전공이 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재학·졸업생 1,100여 명 중 40명 정도의 우수 학생을 유럽·남미·중국 등에 유학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2011년부터 격년(2017년 취소)으로 미국, 호주, 독일 등 유명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2) 교육내용 22)

① 교과 교육

북한의 교과 교육에서는 오랫동안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 등이 중시됐다. 김정은 시기 교육제도 개편 이후에는 영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이 중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사상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의 목표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배양으로서,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지도자(수령)와 당에 충성을 다하는 인간형을 지향하고 있다.¹⁸ 북한 학생들은 교과목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당과 수령을 향한 충실성 등 정치사상 교양을 실시한다. 북한은 교과 교육을 통해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과 김정은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 시절’, ‘혁명 활동’, ‘혁명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실리주의 교육을 표방해 왔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도 이어져 기존에는 러시아어를 가르쳤던 것에서 2008년 이후에는 소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영어는 소학교 4학년부터 고급 중학교 때까지 모든 학생이 배우며 교육 방법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정규교과로 편성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19와 평양 학생 소년궁

22) 2024 북한이해 358P

전, 금성 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하고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가운데 선발된 소수의 영재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 교육은 과학기술 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정보화 시대’, ‘지식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다매체교육, 정보화교육, 원격교육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증가하여, 어린이 교육지원 프로그램 「신비경」, 「해바라기들」, 소학교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속셈의 별」, 「반짝 별」, 중학교 영어학습지원프로그램 「영어의 별」에 이어, 증강현실 지원프로그램 「신비한 별」, 실시간 영상합성 프로그램 「자랑 별」 등도 개발하여 보통교육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교수강습소 및 원격교육을 통해 교원의 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전자화된 교수안을 제작·활용하면서, 교수 경연, 교수 방법 토론회, 교육자료(교수안·교안자료·교편물 등) 전시회, 자격증 취득 등을 강조하고 있다.

② 교과 외 교육

북한의 교과 외 교육은 ‘과외활동’으로 불리며, 정규 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실시된다. 소학교에서는 5년간 교과 시수 이외에 900시간의 과외 학습, 432시간의 소년단 생활, 513시간의 과외 체육이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3년간 교과 시수 이외에 540시간의 과외 학습, 432시간의 소년단 생활, 306시간의 과외 체육이 있다. 고급 중학교에서는 3년간 교과 시수 이외에 465시간의 과외 학습, 372시간의 소년단 생활, 243시간의 과외 체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 과외 학습

북한의 학생과 교원들은 학교에 온 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신문 사설이나 논설 등을 읽는 독보활동을 한다.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담임 교원 또는 선전 담당 열성자를 통해 ‘아침 학습’이나 ‘수업 전 학습’, ‘365일 교

양' 등의 형태로 사상교양을 실시한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모든 학생들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총화'를 실시하고, 이후 과외 학습시간이 이어진다.

과외 학습시간에는 보통 자율학습을 하거나 담임 교원을 통한 과외 복습 또는 과외 예습이 1~2시간 정도 이루어진다. 일부 학교에서는 과외 학습 시간에 담임 교원이 아니라 전공 교원을 통한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담임 교원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 대한 도덕 교양이나 '좋은 일하기 운동' 등을 지도하기도 한다. 과외학습시간에는 학과 공부 이외에도 '위대성 교양'이나 '회고록 학습'등 정치사상 교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야외 학습터' 등에서도 실시된다.

(나) 소조 활동

북한에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후대에 대한 교육 사업은 학교뿐 아니라 전 사회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학교 이외에도 학생 소년궁전, 학생 소년회관, 도서관, 소년단야영소 등 '과외 교양기지'들을 거점으로 해서 '소조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과외활동을 할 것을 강조한다. 소조활동은 일반적으로 매일 방과 후 2~3시간 동안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조를 만들어 분야별로 교원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소조의 종류는 교과, 음악, 미술, 체육 등 매우 다양한데, 학습의 교과 우등생이나 조직 생활 모범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과목 소조'·21 또는 '교과목 학습 소조', '문학 소조', 노래나 합창 등 '성악 소조', '취주악 소조', '미술 소조'뿐 아니라,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정구 등의 구기종목과 태권도, 씨름, 수영, 체조 등 다양한 '체육 소조'가 있다.

(다) 생산 노동

북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44조에서는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법」에서도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을 결합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당국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과외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보내기도 했지만, 노동력 부족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생산 노동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모내기, 김매기 등 다양한 생산 노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 기간이 길어지고 동원되는 부문도 다양해진다. 북한은 특히 ‘나무심기’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나무심기 활동을 교육강령 내에 명시하고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매 학년 1주 가운데 봄에 4일간은 나무심기를 하고 가을에 3일간은 나무 열매 따기를 진행하며, 고급 중학교에서는 매 학년 나무심기 1주와 생산노동 3주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과외활동은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대해 기여할 것을 중시한다. 또한 개인의 흥미나 관심, 자율성보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공동체 활동, 사상·교양학습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3. 학교생활의 특징²³⁾

1) 사상교육

북한의 학교 교육은 명목상 지덕체를 갖춘 ‘참다운 애국자, 사회주의 건설 역군’을 육성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내용 중에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정치사상 교육이다. 북한이 학교 교육에서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조기교육단계에서부터 지도자와 체제에 맞는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데에 있다. 가정에도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교실 전면에 전시되어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신격화를 내면화하도록 일체의 생활이 조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학교 5년 과정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과 ‘사회주의 도덕’을 매주 한 시간씩 학습하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 시절’은 1학년에서 주 1시간 교육받는다. 이러한 과목들은 초급중학교 3년 과정에도 각각의 지도자 ‘혁명 활동’이라는 과목으로 이어지고, 고급 중학교 3년 동안에는 ‘혁명 역사’라는 주제로 학습된다.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23) 2024 북한이해 363P

김정은에 대한 개별적 과목에 덧붙여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라는 교과목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신격화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자유민주주의 교육 풍토와는 달리,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는 획일적 주체 사회주의 인간형을 내재화시키는 학교 문화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북한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반세계 급교양’을 통해 적대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 지도자와 당, 인민을 일체화시키고, 그 적대 세력으로 미국과 한국을 반대편에 배치함으로써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각인시킨다. 학교 친구들과의 우애와 사랑도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지도자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중립, 혹은 다원적 사고와 판단 등은 생활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이는 곧 국제사회가 교육의 목표와 취지에서 강조하는 보편적인 인간성(humanity) 함양의 기회가 북한 학교생활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조직 생활

북한은 육체적 생명은 부모로부터 오고 유한하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 것이기에 더 귀중한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이 정치적 생명은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소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교육받는다. 집단등교라 하여, 학교 등교 시 학급별로 20-30명씩 한곳에 모여 대열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듯이 학교 정문을 통과한다. 2학년이 되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거듭나기 위한 조직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년단이다.

과거 공산권 국가의 소년조직인 ‘피오네르’(소련 공산당) 22에서 유래하여, 1946년 창단한 북한의 ‘조선소년단’은 7세부터 16세까지 이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약 300만 명이 가입되어있다. 입단 선서를 하고 목에 빨간 스카프인 ‘소년단 넥타이’를 두르면서 입단 의례를 치른 소년단원들은 북한의 유일 독재체제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북한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 수학, 외국어, 예체능 분야의 소조로 나뉘어 하나의 보충수업처럼 소조활동을 하는데, 이에 덧붙여 조직 생활의 주요한 활동은 소년단을 중심으로 자신과 학급 친구들의 생활을 검열하고, 상호비판을 통해 생활 총화를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소년 시기부터 사회통제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간다. 소년단 시절을 보낸 후 가입하는 조직은 북한에서 가장 크고 핵심역할을 하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청년동맹이다. 17세부터 30세에 이르는 청년층을 포괄하는 청년동맹은 약 500만 명의 맹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동맹은 청년들은 물론 소년단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맡고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등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옹호를 내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의 수비대이기도 하다. 청년동맹의 핵심 인재들이 노동당의 주요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고, 그만큼 당의 정책과 지도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에서 사회적 저항이나 봉기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배경에는 촘촘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소년단에서 청년동맹으로 이어지는 조직 생활을 통해 정치사상 통제와 조직 생활 실천을 강요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시장 확산과 함께 한류 문화가 퍼지면서 그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사이에 개성과 자유를 누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 문화어보호법」(2023) 등 사회통제 악법들을 연달아 제정·시행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3) 노력 동원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방과 후 활동이 학생의 자율과 선택으로 정해지고 수행되는 반면, 북한의 방과 후 활동들은 조직적이며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소조활동 외에 북한의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력 동원과 사회봉사 활동에 일정 기간 참여해야 한다. 교육과 생산 활동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교육목표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농촌지원이나 경제건설 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농촌 지역에서는 모내기, 김매기,

옥수수심기, 가을추수 등은 물론이거니와, 산에 나무 심는 작업과 도시 지역의 도로 공사장에서 돌을 나르는 작업에도 동원된다. 이외에도 소년단 차원에서 위생근위대, 녹화근위대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꼬마계획’이라 하여 독특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권의 무기 생산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매년 파철 50kg, 파지 5kg, 알루미늄이나 구리 조각들 그리고 토끼 가죽 몇 장씩을 바치고 있다. 이러한 꼬마계획 과제 수행을 하려면 북한의 학생들은 고철을 주우러 다니거나 토끼, 오리, 닭 등 가축을 길러 주어진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소년단의 위상을 높이고 중앙에서는 물론 지역사회 행사에서도 소년단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집단주의 규칙에 순응하고 조직적인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군사훈련

북한 학교생활의 특징 중 우리나라 학교 문화와 확연히 다른 분야는 바로 군사훈련이다. 우리나라에도 남녀 고등학생들이 얼룩무늬 교련복을 입고 제식 훈련과 총검술을 배우거나, 부상병 치료를 배우던 때가 있었다(1969~1996). 북한은 1970년에 창설된 ‘붉은청년근위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소년 선봉대원들과 6·25전쟁 시기의 소년 빨치산대원들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북한 청소년들을 집단주의와 군사주의로 통제하는 사회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붉은청년 근위대는 고급 중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14~16세의 청소년들 약 94만 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각 학교별로 대대와 중대급으로 편성된 소년 예비군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1년에 약 160시간을 교내 훈련을 받고, 방학 기간에 일주일 정도 학교별로 군부대에 입소하여 야영훈련을 받는다. 1년에 약 450시간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 정의하는붉은 청년근위대의 주요 임무는 전시에는 부대 간 연락과 경비, 항공감시와 순찰 및 위험분자 색출 등으로 노동적위군과 함께 후방

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대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계급적 원수들을 끝없이 증오”하게하며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수호할 것을 교양하는 등 모든 대원을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학교는 학생들이 개인 중심의 창의성과 능력을 맞춤형으로 기를 수 있고, 취미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라 할 수 없다. 북한 학생들은 촘촘하게 엮여있는 원형감옥(panopticon식) 감시와 통제 시스템, 그리고 의례적 행위와 노력 동원, 군사훈련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세뇌당하고 있다.

4. 평원군의 교육²⁴⁾

1) 개요 및 교육기관

옛 교육기관으로는 평원면에 영유향교(永柔鄉校)가 설립되어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했으며, 지방 여러 곳에 서당이 설치되어 한문을 전수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향교의 교육 기능이 약화되면서 서원이 설립되었다. 1603년(선조 36) 평원면 영덕리에 제갈량·악비·문천상 등을 배향한 삼충사와 1647년(인조 25) 순안면 남산리에 정몽주·한우신(韓禹臣) 등을 배향한 성산서원이 세워졌다. 그러나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고 삼충사만이 남게 되었다.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1906년 사립이화학교(私立李花學校)가 처음 설립되었으며, 1911년 영유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고, 1909년 설립된 사립숙명학교(私立肅明學校)도 숙천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그 밖에 양신(養信)·한흥(韓興)·영청(永淸)·서흥(西興)·덕산(德山)·광한(匡韓) 학교 등이 계속 설립되었다. 또한 1905년 안식교 계통의 순안의명학교(順安義明學校)가 설립되어 국민학교와 중등학교 교과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순안의명학교는 일제시대 말기에 순안 중학교로 개편되었다.

1910년 세워진 천주교 계통의 성숙학교(聖肅學校)는 이 군의 신학 운동의 근거지였으며, 1925년 영유향교 내에 개설된 명륜중학강습소(明倫中學講習

24) 2024 북한이해 363P

所)에서도 중등교육이 이루어졌다. 1945년 현재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6개교가 있다.

제6장. 문화, 언론

1. 북한의 문화, 예술 정책²⁵⁾

북한은 문화·예술 정책을 흔히 ‘문학예술 정책’이라고 칭한다. 이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3대 세습 정치체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을 위해 김정일은 일찍이 ‘수령형상 창조이론’을 만들어 유일 사상체계가 주민들을 지배하도록 설계하였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북한 체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문화예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화예술과 달리 상당히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당성·인민성·계급성’과 전통문화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적결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는 외부 문화의 유입을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침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류 등 자유민주주의 문화 유입을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내부적 동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 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여 외부 사상,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외부 문화 유입에 따른 체제 이완을 막고 결속력 유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1) 주체·선군 문예이론

해방 직후 북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카프(KAPF: 문학예술 단체) 1를 계승하여 1950년대 이후까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예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예 정책은 1960년대 중반 ‘모든 문예 창작을 항일혁명 문학을 중심으로 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기점으로 변화되었

25) 2024 북한이해 280P

다. 항일혁명 문예관의 핵심은 김일성이 1930년대 중국에서 항일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한 연극, 가요 등의 전통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북한의 유일사상이 문예 정책에 반영되어 문학예술을 통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추진된 것이다.

1980년대 북한 문예 정책은 다소의 변화를 보였는데 변화의 중심에는 ‘숨은 영웅따라 배우기’ 운동이 있었다. 김정일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주도했으며 이전과 차이점은 주요 인물이 항일혁명 영웅에서 기술자, 하급 당원, 간호사, 주부, 농부 등 ‘보통 사람들’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이 다시 혁명성과 이념성을 강조하자 문예 정책에서 다시 수령형상화가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려는 일환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김정일이 주체 문예이론을 정립한 특별한 시기이다. 김정일은 <무용 예술론>(1990년), <음악 예술론>(1991년), <주체 문학론>(1992년) 등을 출판했는데, 이로써 주체 문예이론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현재까지도 북한의 공식 문예관이 되었다. 주체 문예이론에 기초한 일종의 실천 강령은 ‘종자론’과 ‘군중 예술론’이다. 북한은 “작품의 핵을 이루는 것이 종자이며,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으로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없애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체 문예이론의 특징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문화 조류를 포괄한다는 점이다.

2000년대 북한은 김정일의 주체 문예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군혁명 문학’을 추가하였다. 북한은 2000년 말에 등장한 선군혁명 문학을 “주체 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발전이며, 주체 사실주의가 낳은 새 형의 문학”이라고 규정하며 선군혁명 문학의 특징을 “반제혁명 정신의 구현, 조국애의 구현, 강렬한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하였다.

2002년 12월 조선중앙방송이 ‘선군혁명 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선군’은 김정일 시대 문학예술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이후 선군 미

술, 선군 영화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핵심내용은 군인의 혁명 정신 실천과 수령 결사옹위로 북한 주민의 단합을 통해 체제 안전을 이루려는 의도라 하겠다. 여기에 2000년대 중반부터 문예 정책에 ‘실리추구’와 ‘민족문화 강조’가 더해졌다. ‘실리추구’는 실리추구를 위한 개혁·개방에 문학예술이 복무하자는 것으로 2002년 7월 1일 조치 이후 북한 문학예술계에 나타난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족문화 정책’의 강조는 개혁·개방에 따라 유입되는 자본주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처럼 ‘선군 문학예술’은 주제나 내용에서는 수령 찬양, 체제 유지, 혁명과 건설 등 기존 주제를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겠다.

2) 사회주의 문명 강국

김정은 시대 문예 정책은 ‘사회주의 문명국’, ‘사회주의 문명 강국’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2012년에 처음 사회주의 문명국을 주장한 이후 『사회주의 문명 강국 건설에 관한 주체의 리론』(2017)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주의 문명 강국이란 첫째,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닌 나라, 둘째,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 셋째,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 기풍이 차 넘치는 나라라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모란봉 악단이 창조한 혁신적인 창조 기풍을 모범’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형식,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함으로써 과학화 역시 김정은 시대 문예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2016년 김정은은 제7차 당 대회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문학예술이 김일성과 김정일 업적과 풍모를 형상화할 것을 재강조 했다. 아울러 김일성·김정일뿐 아니라 ‘김정은의 위대성’, ‘만리마 정신’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붕괴와 식량 위기 등 이른바 삼중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자력갱생’과 ‘간고분투’ 구호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위기가 높아진 2020년 이후에는 ‘휘황찬 미래’를 향해 질주하자던 ‘만리마’ 구호 대신 ‘천리마’가 다시 등장하였다. 이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구호 아래, 체제에 대한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3)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국가 상징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2017년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선전 교양되고 있으며, 2019년 신년사에서 공식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 상징’ 교량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예술 작품으로 제작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애국심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의 문화정책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상징에 대한 교양, 국가 상징에 대한 재조명, 국가 상징의 일상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국가, 국기, 국장, 국호, 수도 이외에 국견(풍산개), 국수(소나무), 국어(평양문화어), 국조(까치), 국주(평양주, 평양소주, 고려주), 국화(목란) 등의 국가 상징을 김정은 시대에 본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선언한 이후 가장 중요한 국가 상징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국기이며, 이를 토대로 창작된 공연 <우리의 국기>뿐만 아니라,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에서도 국가를 표상하는 <빛나는 조국>, <인민의 나라> 등을 공연하였다. 음악, 미술, 영화, 문학 등의 문화예술과 경공업 제품의 디자인, 기업 브랜드에도 국가 상징을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방과 같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물건의 로고에도 국가 상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애국주의의 일상화를 실현해내려는 선전 선동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관련한 상징 교량사업을 통해 세계 속의 보편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토대로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자력갱생을 위한 내부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4) 문화재

북한은 해방 이후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고자 ‘민족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명분으로 안악 고구려 고분 조사 사업 등의 발굴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950년대 들어서는 고구려가 세운 안학궁터복구 및 대성산 박물관 건설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기 위함이다.

1960년대 들어와서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위해 문화유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결의에 따라 김일성 일가의 혁명사적지와 전적지 조성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 모든 문화·예술을 김일성의 주체사상 선전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고, 이 시기에 동명왕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발굴 작업도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문화유물 보호법」(1994)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에 문화유적 발굴 사업과 복원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민족사의 정통성이 평양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유물·유적 발굴과 복원에 노력을 기했다. 그 결과 고구려 사찰 광법사(1990, 평양), 동명왕릉(1993, 평양), 단군릉(1994, 평양) 등이 개축·복원되었다. 북한은 1998년 7월 세계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고구려 고분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04.7.)



안학궁 남궁 제1호 궁전터에서 출토된 기와



안악 제3호분 서측실 서벽 묘주와 신하 전경

2. 언론 출판²⁶⁾

1) 개요 및 출판물

세계 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및 국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 취득,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표현의 수단이 되는 언론·출판 및 기타 매체는 자유로워야 하며 검열과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출판물과 언론 및 방송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및 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주민선동에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언론관에 기초하여 언론의 기능을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고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북한에서 언론은 정치사회화의 도구인 것이다. 북한은 헌법 제67조에서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²⁶⁾2024 북한이해318P

보장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데이바지” 할 때만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북한은 출판물을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의 과업 실천을 위해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로 설명한다. 20 북한 출판물의 중요 기능은 대중을 교양하고 당 정책에 따라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출판법(1999)은 “국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6조), 그 목적을 “혁명적 출판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고수 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제2조). 출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업자가 내각 또는 출판지도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제12조),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인쇄설비는 몰수된다(제49조). 출판법은 “출판지도 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어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 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판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다(제47조). 또한, “기밀을 누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 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 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고 규정하여(제48조) 사실상 출판물에 대한 당국의 임의 검열 및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출판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 국민은 정상에 따라 행정 책임 또는 형사책임에 처해진다(제50조). 이와 같이 북한은 언론 및 출판물의 임의 검열과 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표현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 언론인의 중요 임무는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의 선전과 옹호이기 때문이다.

3. 유물, 유적

1) 봉수(烽燧)

독자산 봉수(獨子山 烽燧), 미두산 봉수(米豆山 烽燧), 소산 봉수(所山 烽燧), 대선곶 봉수(大船串 烽燧), 도영산 봉수(都迎山 烽燧), 식포 봉수(息浦 烽

燧) 고석리 봉수(古石里 烽燧), 여을 외 봉수(餘乙外 烽燧)

2) 유물(遺物)

도제여래좌상(陶製如來坐像)²⁷⁾

1937년 5월에 덕산면 원오리(德山面 元五里) 동아리에서 고구려 사원지(高句麗 寺院址) 발굴에 의하여 출토(出土)되었는데 높이 약 17cm의 원형(原形) 그대로 전면(全面)에 백(白) 주(朱)채색(彩色)의 흔적이 있다.

그때 보살입상(菩薩立像)등 니불(泥佛) 다수가 함께 출토되었으나 당탑(堂塔)의 형식은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천면(漢川面) 부근에서 발견된 기와에 『대안사(大安寺)』라는 각인(刻印)이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다.



도제여래좌상

27)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95

3) 유물·유적

북한에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시대와 고조선 시대를 포함하여 낙랑·고구려를 중심으로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유물·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1946년에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호령'을 발표하고, 정권 수립 후에는 '물질문화보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형식적으로나마 민족문화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개혁정책을 구체화하여 민족문화의 개조작업이 현재에 이르기

까지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물적 대상이 역사적 유물로 상징·조작되고, 민족문화유산은 사회주의 건설에 유의한 것만을 골라 보존·관리·조사·발굴되고 있다. 1945~89년에 발굴된 유적은 모두 100여 개소이며 문화재의 개인소유는 금지되고 있다.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으로는 평양특별시 상원군 검은 모루유적, 역포구역 대현동유적,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함경북도 선봉군 서포항유적,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리 궁산유적 등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리유적, 황해남도 용연군 석교리유적 등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있다. 황해북도 황주군 침촌리 일대와 사리원시 상매리, 황해남도 은천군 약사동, 남포직할시 용강군

석천산 등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있다. 고조선시대의 유적으로는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 범의 구석기 원시 유적지를 비롯하여 청동기 시대의 석기를 그대로 모방한 초 철기시대의 유물·유적으로서 평안북도 영변군 세죽리유적, 박천군 단산리유적,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유적, 평안남도 대동군 반석리 움무덤이 알려져 있다. 대동강 하류유역과 압록강 및 그 지류 유역 일대에는 남포직할시 강서구역의 대묘·중묘·소묘 등 삼묘와 약수리 벽화고분, 태성리에 연화총, 태성리 제1·2호 고분, 용강군의 용강대총, 대안리 제1호고분, 황해남도 안악군의 안악 제1·2·3호 고분 등 고구려의 벽화고분이 많이 분포한다. 석조 및 금속 유물로는 국보급으로 묘향산 보현사 8각13층탑 외 16점, 보물급으로 홍복사 6각7층탑 외 26점과 개성 선죽교·해주 석빙고·용천 다라니석당·해주다라니석당·황초령 진흥왕순수비·마운령 진흥왕순수비 등이 있으며, 평양 역포구역 무진리에서 출토된 금동투각관형장식과 평양 동중, 연복사

동종, 국사봉출토 불상 10여 점 등이 있다. 건축유적으로는 평양의 안학궁지, 정릉사지, 개성의 만월대 등 국보급 12점, 보물급 22점, 사적 11점 등이 있으며, 목조건물은 6·25전쟁 때 소실되었거나 파손된 것이 많다

(1) 운룡리 벽화고분²⁸⁾

북한 평안남도 평원군에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구름무늬·주작도 관련 벽화무덤. 횡혈식 석실분.

운룡리 벽화고분은 평원군에서 서남쪽으로 13km 떨어진 운룡리 불당산 줄기의 남쪽에 있다. 주위에는 고구려 시대의 봉토로 덮인 돌방무덤[石室墳]여러 기가 분포되어 있고, 또 평원 청보리와 대동 덕화리 벽화고분이 인접하여 있다. 1983년 4월에 조선 중앙역사박물관과 평안남도 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하였다. 고분은 돌방무덤으로서 구조는 외방무덤[單室墳]이며 서남쪽으로 치우친 남향이다. 널길 [羨道] 을 갖추고 있는데 널 길의 천장은 평천장이고 고분의 널방 [玄室] 천장은 4단으로 된 팔각 킴 천장이다.

널 길의 벽길이는 동벽 384cm, 서벽 365cm, 북벽너비 96cm, 남북너비 115cm, 널길벽의 높이는 동벽 107cm, 서벽 90cm이고, 널길 길이는 남북길이 195cm, 너비 110cm, 높이 149cm이다. 널방의 벽면 높이는 150cm이고 천장까지의 높이는 240cm에 달하며, 널방의 벽길이는 남벽 235cm, 동벽 312cm, 북벽 252cm, 서벽 297cm이고 널방 내에 설치된 널 받침 [棺臺] 의 남북길이는 222cm, 동서너비 139cm, 널 받침 높이 15cm이다.

벽화의 내용은 천장킴부분과 벽과의 인접 부분에 남아 있는데, 남쪽 천장킴의 1단 중심에 날개와 몸체, 꼬리 부분의 벽화 등 일부가 남아 있는 주작도(朱雀圖)이고, 남벽의 윗부분에 구획선을 긋고 그 안에 벽화 일부가 남아 있다. 그리고 천장 킴 석에는 검은색과 적갈색으로 그린 구름무늬 [雲文] 등이 나선(螺旋) 모양의 문양과 둥근 모양의 문양 등이 혼합되어 그려져 있다. 유물로는 널못 [棺釘] 16점, 문손잡이 고리·은장도·은장도 편 등이 출토되었다.

28) [네이버 지식백과] 평원운룡리벽화고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고구려 고분은 모두 3단계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친다. 먼저 압록강 중·하류와 혼강 본·지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서기전 3~2세기경부터 서기 3세기 대까지는 돌덧널무덤 [石槨墓] 과 돌덧널을 가진 돌무지무덤 [積石塚] 이 중심이 되는 시기이다. 다음으로 4~5세기에 돌방과 봉토분구, 벽화라는 새로운 요소가 돌무지무덤과 공존, 결합하면서 돌무지무덤과 봉토분, 생활 풍속도가 어우러진 벽화고분이 병존하게 되고 무덤의 분포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규모가 월등히 크고 배타적 묘역시설을 가진 초대형 무덤이 등장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6세기대에 고분의 중심이 돌무지무덤에서 봉토분으로 변화한다. 봉토분 가운데 최상위 무덤은 사신도가 그려진 벽화고분이 된다.

이러한 고구려 고분의 변천 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운룡리 벽화고분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인 6~7세기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7장. 행정구역 변천²⁹⁾



1. 개요

평안남도 서북부에 위치한 군이다. 서쪽은 황해에 접하며 서북쪽으로 갈수록 이름 그대로 평원이 넓어지는 지형이다.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16개 면으로 구성된다. 면적 985km².

1) 역사

한사군 시대에는 낙랑군(樂浪郡) 혼미현(渾彌縣)이었다. 이후 조선 시대에는 왕이 머무는 영유 행궁이 지어졌다.

본래 영유군, 숙천군, 순안군이라는 세 개 군으로 나뉜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1914년 시행된 부군면 통폐합으로 평원군으로 통합되었다.

29) //namu.wiki/w/평원군(북한)

광복 당시 중심지는 평원면이었으며 1947년 4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순안면, 양화면, 동암면을 대동군으로 이관하였다. 이후 1952년 북한이 숙천군을 부활시키면서 현재 북한 행정구역상 평원군은 영유군 지역만 남은 상황이다.

김일성, 김정일이 명예 농장원인 원화 협동농장이 있어 '원화리'에 있는 이 농장은 북한 당국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는다. 여기서 첫 모내기를 시작하면 다른 협동농장들도 뒤따라 모내기를 시작하곤 한다.

2) 북한 기준 행정구역

량교리, 신성리, 룡상리, 원압리, 송림리, 월일리, 대정리, 운흥리, 운봉리, 덕제리, 덕포리, 심원리, 송화리, 화진리, 신송리, 청보리, 남산리, 청룡리, 운룡리, 배전리, 석교리, 송석리, 대암리, 삼봉리, 룡이리, 원화리, 삼송리, 석암리, 대풍리로 구성되어 있다.

3) 이북 5도 기준 행정구역

평원군 해방 당시 16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 구 영유군 지역

① 평원면(平原面)

관할 리 : 이화(梨花), 괴천(槐泉), 대부(大夫), 부용(芙蓉), 송석(松石), 어은(漁隱), 어파(漁坡), 영덕(永德), 원류(元柳), 월정(月晶), 월평(月坪), 자일(紫逸), 장림(長林), 화림(華林)면 소재지와 군청소재지는 이화리. 본래 영유군 동부면(東部面), 중부면(中部面), 서부면(西部面)으로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영유면(永柔面)이 통합되었고, 1929년 평원면으로 개칭되었다. 부군면 통폐합 이전 영유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일명 '영유(永柔)'라고 불렸다. 이화리에 조선 선조가 임진왜란 때 100일간 머물렀던 영유 행궁이 있었고, 조선 시대의 사열대인 훈련정(訓練亭)이 아직 남아 있다. 영덕리에 있던 삼층사는 제갈량(諸葛亮)·악비(岳飛)·문천상(文天祥)을 모신 사당이었다.

철도 교통은 산 넘어 이웃 공덕면에 있는 경의선 어파역을 이용해야 한다.

② 노지면(鷺池面)

관할 리 : 용정(龍井), 대송(大松), 대주(大洲), 문명(文明), 석소(石蘇), 쌍암(雙巖), 용당(龍堂), 용암(龍巖), 정림(旌林), 추흥(楸興) 1914년 덕지면(德池面), 백로면(白鷺面), 상계면(上界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③ 동암면(東巖面)

관할 리 : 산음(山陰), 도전(都田), 동석암(東石巖), 둔전(屯田), 문암(門巖), 반송(盤松), 부백(孚白), 산양(山陽), 상탄(上灘), 서문(西門), 서석암(西石巖), 송석(松石), 신평(新坪), 신흥(新興), 암적(巖赤), 어중(御重), 용산(龍山), 용우(龍隅), 용이(龍二), 원화(元和), 울일(栗一), 울화(栗花), 조산(造山) 1917년 용흥면(龍興面)이 석암면(石巖面)으로 개칭되었고, 1929년 구 순안군 지역이었던 동두면(東頭面)과 합병되어 형성되었다. 좌우로 길게 뻗은 형상으로, 면 소재지 부근에 경의선 석암 역이 있다.

④ 용호면(龍湖面)

관할 리 : 연교(蓮橋), 관성(館城), 남양(南陽), 뇌송(雷松), 당우(堂隅), 매전(梅田), 안연(安淵), 약전(藥田), 어당(魚塘), 용강(龍岡), 운봉(雲鳳), 응오(鷹烏), 장평(獐坪), 중항(中巷), 청운(靑雲), 판교(板橋) 1914년 용흥면(龍興面), 갈하면(葛下面), 연하면(蓮下面), 통호면(通湖面)의 4개 면을 통합해 신설한 면이다. 서해와 면하는 지역으로 남양리에는 남양염전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이 염전에서 평남 소금의 1/3이 생산된다고 한다. 아울러 염전 부근 와룡산(73m)의 봉수대 터도 있다.

⑤ 청산면(靑山面)

관할 리 : 구원(舊院), 개수(价水), 계산(桂山), 교산(橋山), 금봉(金峰), 남흥(南興), 보방(寶坊), 송현(松峴), 용암(龍巖), 운송(雲松), 운탑(雲塔) 1914년 청지면(靑池面)과 화산면(禾山面), 수남면(水南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노지면·덕산면과의 경계에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된 대원산(大圓山, 205m)이 있으며, 산정에 기암괴석으로 된 경승지 낙가굴(洛迦窟)이 있다.

⑥ 해소면(海蘇面)

관할 리 : 금학(金鶴), 난산(爛山), 내덕(內德), 송정(松井), 용교(龍橋), 용현(龍峴), 월현(月峴), 종률(種栗) 1914년 소호면(蘇湖面)과 해율면(海栗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바다 海가 들어가 있지만, 서쪽 끄트머리를 제외하고는 바다에 접해 있지 않다.

(2) 구 속천군 지역

아래 지역은 조선 시대 속천군의 영역에 해당한다.

① 검산면(檢山面)

관할 리 : 검흥(檢興), 검서(檢西), 검양(檢陽), 송양(松陽), 신성(新成), 신지(薪枝), 용포(龍浦), 터산(攄山), 학산(鶴山)

1914년 속천군 상검면(上檢面), 하검면(下檢面), 법리면(法里面), 애산면(艾山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검산(194m) 부근 검흥리와 터산리 사이에 있는 검산약수가 유명하다.

② 동송면(東松面)

관할 리 : 월봉(月峰), 군자(君子), 백석(白石), 백운(白雲), 송현(松峴), 수암(壽巖), 용담(龍潭), 운룡(雲龍), 운평(雲平), 청룡(靑龍) 1914년 속천군 동산면(東山面)과 송리면(松里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청룡리에 청룡사(靑龍寺)가 있었다. 한자 이름이 철원군 동송읍(東松邑)과 동일하다.

③서해면(西海面)

관할 리 : 사산(蛇山), 광천(廣川), 남포(南浦), 당오(唐塢), 보덕(補德), 보원(補元), 신덕(新德), 연풍(延豐), 용산(龍山), 원흥(元興), 중흥(中興) 1914년

숙천군 고리면(高里面), 당리면(唐里面), 보민면(補民面), 평리면(坪里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평원군의 서북쪽 끝에 있는 면으로, 이름대로 서쪽은 서해와 접한다. 철도는 남동선이 지나가며 염전역, 남동역이 있다.

④ 숙천면(肅川面)

관할 리 : 관전(官前), 관동(館東), 내동(內洞), 당하(堂下), 덕수(德水), 도덕(道德), 만흥(晩興), 미남(嶺南), 백로(白鷺), 사직(社稷), 성남(城南), 송저(松底), 신남(新南), 신흥(新興), 심정(深井), 통덕(通德) 1914년 숙천군 동부면(東部面), 서부면(西部面)과 영유군 우상면(右上面), 우하면(右下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구 숙천군의 중심지. 경의선 숙천역이 있다.

⑤ 조운면(朝雲面)

관할 리 : 갈산(葛山), 성덕(聖德), 송천(松千), 순정(順井), 응암(鷹巖), 재정(財井), 조운(朝雲), 태평(太平) 1914년 숙천군 삼리면(三里面), 성상면(聖上面), 취리면(吹里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숙천면 바로 서쪽에 있던 면으로 화가 이중섭이 이곳 송천리 출신이다.

(3) 구 순안군 지역

아래 지역은 조선 시대 순안군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동암면 둔전리·문암리·반송리·부백리·산음리·서문리·어중리·용우리·용이리·울일리·울화기(구 동두면)가 구 순안군 영역이었다.

① 공덕면(公德面)

관할 리 : 흥운(興雲), 간(間), 괴전(槐田), 법흥(法興), 병상(竝上), 산송(傘松), 상이(上二), 성교(城橋), 송매(松梅), 신교(新郊), 신화(新和), 양수(兩水), 용암(龍巖), 용흥(龍興), 원(院), 장재(長財), 적암(積巖), 퇴남(退南), 퇴상(退上), 퇴현(退峴), 향암(香巖)군의 동쪽에 있는 면. 1914년 순안군 공전면(公田面)과 평천면(平川面)을 통폐합해 공평면(公平面)이 신설되었고 1929년 자덕

면(自德面)이 합병되어 형성되었다. 1929년 축조된 평안저수지[1]가 있으며, 31본 산 중 하나였던 법흥사가 남아 있다. 관내에 경의선 어과역이 있다.

② 순안면(順安面)

관할 리 : 남창(南昌), 관북(館北), 구교(舊校), 구서(九瑞), 군상(郡上), 남산(南山), 담화(曇華), 사직(社稷), 상양(上陽), 성이(星二), 성일(星一), 수우(水隅), 신상(新上), 신안(新安), 안암(安庵), 안흥(安興), 양학(陽鶴), 연산(延山), 오산(梧山), 원일(元一), 포정(蒲井) 1914년 순안군 군내면(郡內面)과 송현면(松峴面), 정방면(定坊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구 순안군의 중심지로 평원군의 남동쪽 끝에 있으며 대동군과 접한다. 북한 치하에서는 순안구역으로 평양시에 편입되었으며 경의선 순안역과 함께 북한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이 있다. 그런데 북쪽 활주로는 동암면과 걸쳐 있고, 남쪽 활주로는 보통강 건너 양화면에 있다. 동쪽 담화산(431m)에는 동금강암(東金剛庵)이라고도 불리는 금강암(金剛庵)이 있다.

③ 양화면(兩花面)

관할 리 : 요화(蓼花), 금강(金剛), 내송(內松), 상서(上西), 상송(上松), 신(新), 신성(新成), 신정(新井), 옥정(玉井), 용복(龍伏), 중흥(中興), 평(坪) 1914년 순안군 동화면(冬花面)과 연화면(蓮花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순안면 바로 서쪽 지역으로, 남쪽으로 대동군과 접한다.

(4) 구 평양부 지역

아래 지역은 조선 시대 평양부의 영역에 해당하며 1914년 평원군 신설 당시 평원군으로 이관되었다.

① 덕산면(德山面)

관할 리 : 삼정(三井), 검암(劍巖), 경하(垓下), 귤(橘), 대포(大浦), 덕수(德水), 봉도(蜂島), 원오(元五), 유촌(兪村), 제(齊), 주촌(朱村), 탐(榻), 호여(浩

묘), 화산(華山)

(5) 구 증산군 지역[편집]

아래 지역은 조선 시대 증산군의 영역에 해당한다. 증산군은 1914년 한천면은 평원군에, 한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강서군에 편입되어 폐지되었다.

① 한천면(漢川面)

관할 리 : 감팔(甘八), 감사(甘四), 감삼(甘三), 감오(甘五), 감육(甘六), 감이(甘二), 감일(甘一), 감칠(甘七), 신성(信成), 예지(禮智), 인의(仁義) 1914년 증산군 진방면(鎭坊面)과 초곡면(草谷面)이 통폐합되어 신설되었다. 서쪽으로 서해와 접한다.

[고대]

이 지역은 고조선의 영토에 속해 있다가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때 한 군현 세력의 영지에 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발흥해 남진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천왕대에 이르러서는 고구려의 영역에 편속되었다. 숙천 지역은 고구려의 평원군에 해당하던 곳이며, 통일신라 때에는 패서 13진(溟西十三鎭) 가운데 진국성(鎭國城)이 숙천에, 안수진(安水鎭)이 영유에 각각 설치되었던 요지이기도 하다.

[고려]

고려는 개국 후에 북진정책을 펴면서 이 지역을 중시했는데, 928년(태조 11) 숙천에 진국성을 옮겨 쌓고 영유에는 평로성(平虜城)을 쌓았다. 그 뒤 947년(정종 2)에 진국성을 통덕진(通德鎭)으로 고치고, 983년(성종 2)에 다시 숙주(肅州)로 개편해 방어사(防禦使)를 주류시켰으며, 995년 패서도(溟西道)에 편속시켰다.

1018년(현종 9) 4도호부·8목제를 실시하면서 지방 제도를 개편할 때, 순안을 순화현(順和縣)으로 고치면서 서경(西京)의 직속 현으로 예속시켰다. 또한 숙주를 안북대도호부(安北大都護府)의 직속 군으로, 영유 땅의 평로진을 직속

진으로, 그리고 영유 지방에 개설된 통해현(通海縣)과 영청현(永淸縣)을 직속 현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그 뒤 영청현은 용강현(龍岡縣)에 편속되었다가 곧 복현되었으며, 1256년(고종 43) 다시 영청현을 없애고 안인진(安仁鎭)에 편속시켰다.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 이 지역은 한때 동녕부(東寧府)에 속하기도 하였으나 20여 년 후에 다시 고려에 수복되었다. 1358년(공민왕 7) 폐현 되었던 영청현을 복현시켰다. 한편 순안은 상원(祥原)에 예속되었다가 1341년(충혜왕 복위 2) 삼화(三和)로 이속되었다.

[조선]

1393년(태조 2)영녕현으로 불리던 영유 지역에 인근의 통해현을 병합시키면서 안인진은 안주(安州)로 이관시켰다. 1396년 순안현을 복현시키면서 현령을 두게 하였다. 1413년(태종 13) 서북면을 평안도로 개편했는데, 순안현과 영녕현은 이때 모두 종5품의 현령이 주류하는 현으로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1416년 숙천을 도호부로 승격하였다. 1423년(세종 5)에 영녕이라는 고을 이름이 영녕전(永寧殿)과 같다고 하여 그 이름을 영유현으로 고쳤다. 1466년(세조 12) 진관제(鎭管制)가 실시되면서 순안현은 평양진관(平壤鎭管), 영유현은 숙천현과 함께 안주진관(安州鎭管)의 관할하에 각각 속하게 되었다. 이때 절제도위(節制都尉)가 군무를 관장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현령이 절제도위를 겸무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평양으로 파천했던 선조가 다시 의주로 옮겨갔는데, 이때 영유에서 수개월간 주필(駐蹕 : 임금이 잠시 머무르는 일) 하였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로 갔던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도 약 10여 일 동안 이곳에서 머무른 바 있다.

1603년(선조 36) 영유에 제갈무후(諸葛武侯)의 사당인 무후사(武侯祠)가 건립되었다. 무후사는 그 뒤 1738년(영조 14)에 삼충사(三忠祠)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편 숙천은 1670년(현종 11)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78년(숙종 4) 부(府)로 승격되었다.

[근대]

1895년(고종 32) 전국의 군·현을 군으로 개편할 때 영유·순안·숙천이 모두 군으로 되었다가, 1914년 이 세 군을 통합해 평원군이 되었다. 이때 증산군에서 한천면, 평양부에서 덕산면이 각각 분리되어 편속되었다. 그 뒤 몇 차례 면·리의 통합이 거듭되어 1929년 16개 면 215개 리로 편제를 갖추게 되었다. 1952년 12월 숙천면·조운면·동송면·해소면·서해면·검산면과 용호면의 일부가 분리되어 숙천군이 신설되고, 나머지 평원면·공덕면·한천면·노지면과 덕산면의 7개 리, 용호면의 4개 리로 된 면 행정단위가 폐지되고 이 단위로 분할, 통폐합되어 군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1954년 10월 월일리의 일부와 송정리 일부가 평원읍에 편입되었으며, 장흥리가 어파노동자구로 개편되었다. 1972년 4월 순안군의 용이리·산음리·석암리·상송리가 편입되면서 산음리가 원화리로 개칭되었다.

현재 평안남도 서부 해안에 위치하며, 동쪽은 평양시와 평성시, 남쪽은 증산군·대동군, 북쪽은 숙천군, 서쪽은 서해와 접하여 있다. 동경 125°21′~125°47′, 북위 39°10′~39°23′에 위치하며, 면적 368km², 인구는 10만 8600여 명(1996년 현재)이다.

행정구역은 평원읍과 어파(漁波)노동자구, 양교(兩橋)·신성(信成)·용상(龍上)·용어·원암(院巖)·송림(松林)·원화(元和)·석암(石岩)·삼봉(三峰)·월일(月逸)·송석(松石)·대암(大岩)·대정(大井)·석교(石橋)·매전(梅田)·운룡(雲龍)·청룡(靑龍)·운봉(雲峰)·문흥(文興)·상송(上松)·덕제(德齊)·남산(南山)·청보(靑寶)·심원(深院)·덕포(德浦)·송화(松華)·신송(新松)·화진(華津) 등 28개 리로 되어있다.

군 소재지는 평원읍이다.

이 군은 대부분 지역이 평원벌에 놓여 있으며, 동남부 지역이 높고 서북 지역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군의 동부 지역에는 강룡산(445m)·삿갓봉(318m)을 비롯한 400m 안팎의 낮은 산들이 있고, 중심부에는 오선산맥의 자화산(229m)·대원산(205m)을 비롯한 낮은 산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

중교천·화진천·문흥천 등 작은 하천들이 서해로 흘러가고, 경룡·평원·상송저

수지 등 10여 개의 저수지가 조성되어 있다. 기반암은 주로 화강암이고 인회석·방연광·운모·장석·토탄 등 유용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갈색산림토·논 토양·간석토가 퍼져 있다. 기후는 연평균기온 9.5℃, 1월 평균기온 -8℃, 8월 평균기온 24.2℃이며, 첫서리는 10월 15일경, 마지막 서리는 4월 21일경에 내린다. 연평균강우량은 1,002mm이다. 산에는 소나무·참나무·아카시아나무·밤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평원 훈련정 은행나무가 있다.

이 군은 넓은 평원 평야를 끼고 대규모적인 평남 관개 체제가 이뤄지고 있어 농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경지는 군 넓이의 54.3%이며, 그중 논은 59%, 밭 29%, 과수밭 10%, 뽕밭이 2%를 차지한다. 쌀은 곡물 생산의 75%이며, 밭에서는 옥수수·밀·콩과 공예 작물인 담배와 목화가 경작된다. 야산과 구릉지대의 국영 과수농장을 비롯한 여러 과수밭에서는 사과·배·복숭아·포도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영유 지방의 사과는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축산은 공동 축산과 개인 축산을 병행해 돼지·닭·오리 등이 사육되며, 육류와 알류의 축산물 생산이 늘고 있다.

이 군은 서해 수산기지의 하나로서 한천 수산사업소를 비롯한 4개의 수산 협동조합과 수십 개의 수산분조가 설치되어 있다. 조기·멸치·까나리·전갱이·대합 등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군내의 저수지와 양어장에서는 잉어·초어·화련어 등 여러 가지 어종이 양식되고 있다. 공업은 광업과 지방 공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 인회석광산에서는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회석이 채굴되고 있으며, 남양 제염소에서는 소금이 생산되고 있다. 그 밖에 과일 및 식료 가공·지물·피복·일용품·악기 공장 등 소규모의 지방 공장들이 있다.

교통망으로는 평의선(평양~신의주) 철도와 이와 함께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중산·대동·평성 등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다.

유적으로는 신성리에 임진왜란 때 휴정(休靜)이 승군을 훈련했던 범흥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극락전·진경각·훈련정 등이 남아 있다. 평원읍에는 선조가 피난길에 쉬었다는 이화정이 있으며, 덕모리에는 고인돌, 화진리에는 남산 패총이 있다. 불곡산과 와룡산은 을지문덕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평원농업전문학교·평원고등중학교 등이 있다. →속천군

2. 평원군(平原郡)

1) 평원읍(平原邑)

(1) 공덕면(公德面)

군의 동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흥운리이다. 본래 공전면(公田面)과 평천면(平川面) 2개 면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공평면이 되었다. 1929년 자덕면(自德面)의 괴전리(槐田里) 일부를 제외한 그 일원을 병합해 공덕면이 되었다. 묘향산맥의 여맥이 뺏어 내려, 북쪽은 강릉산, 남쪽은 연산봉(蓮山峰, 127m) 등의 산지가 솟아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하천의 발달은 미약하며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밭농사가 행해진다.

주요 수자원으로는 1930년 평안 수리조합이 준공되어 평야 지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면서 쌀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보리·수수·고구마·고추·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의 품종 개량과 재배 방법 등을 개발해 면화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뽕밭이 많아 양잠도 활발하며, 원종우·우량우 사육을 비롯한 양돈·양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한다. 사과·배·복숭아·밤 등의 과수 재배도 행해진다.

교통은 경의선이 면의 서부를 남북으로 통과하며, 어과역이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 영유~어과간을 잇는 3등 도로가 통과하며, 숙천·평원·동암·순천군 등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유적으로는 법흥리에 법흥사가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다.

흥운(興雲)·원(院)·적암(積巖)·괴전(槐田)·송매(松梅)·향암(香巖)·장재(長財)·간(間)·양수(兩水)·성교(城橋)·산송(傘松)·용흥(龍興)·병상(竝上)·법흥(法興)·상이(上二)·퇴상(退上)·퇴현(退峴)·퇴남(退南)·용암(龍巖)·신교(新郊)·신화(新和) 등 21개 이가 있다.

(2) 노지면(鷺池面)

군의 중서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용정리이다. 본래 상계면(上界面)·덕지면(德池面)·백로면(白鷺面) 3개 면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노지면이 되었다.남부는 금강산·대원산·자화산 등의 산지가 솟아 있으며, 특히 자화산은 이 면과 평원면·양화면의 삼각 분수령을 이룬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교천이 면의 북부를 서류하다가 용호면으로 유입된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녹두·수수·고구마·고추·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의 품종 개량과 조숙 재배 방법, 단작에서 맥 간작 방법 등을 개발해 면화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양잠은 뽕밭이 많아 활발하며, 축산업에서도 원종우·우량우 사육을 비롯한 양돈·양계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농가 소득을 올려주고 있다. 사과·배·복숭아·밤 등의 과수 재배도 행해진다.

영유-한천-진남포 간을 잇는 2등 도로가 면의 중앙을 통과하며, 평원·청산·한천면 등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다.

용정(龍井)·용당(龍堂)·정림(旌林)·대송(大松)·용암(龍巖)·쌍암(雙巖)·석소(石蘇)·추흥(楸興)·문명(文明)·대주(大洲) 등 10개 이가 있다.

(3) 덕산면(德山面)

군의 남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삼정리이다. 본래 평양부(平壤府)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평원군에 편입되었다. 북쪽은 대원산, 중앙에는 만덕산 등의 산지가 솟아 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규모의 하천이 발달해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녹두·수수·고구마·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의 품종 개량과 조숙 재배 방법, 단작에서 맥간작 방법 등을 개발해 면화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잠은 뽕밭이 많아 활발한 편이고, 축산업도 활발해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하며, 사과·배·복숭아·밤 등의 과수 재배도 행

해진다.

청산 구원리~대동군 김제간을 잇는 등외도로가 면의 중앙을 통과하며, 청산·노지·양화면 등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다.

삼정(三井)·화산(華山)·검암(劍巖)·주촌(朱村)·봉도(蜂島)·유촌(兪村)·굴(橋)·덕수(德水)·탑(榻)·경하(峒下)·제(齊)·원오(元五)·대포(大浦)·호여(浩呂) 등 14개 이가 있다.

(4) 동암면(東巖面)

군의 동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산음리이다. 본래 동두면(東頭面)과 영유군(永柔郡) 용흥면(龍興面)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영유군 용흥면이 이 군에 편입되었으며, 1917년 석암면(石巖面)으로 개칭되었다. 1929년 동두면·석암면·자덕면 괴전리 일부가 병합해 동암면으로 개칭되었다.

동쪽은 청룡산, 중앙 남부에는 전좌봉(殿座峰, 317m) 등의 산지가 솟아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보통강이 남류하다가 대동군으로 유입되며, 하천 연안에는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수자원으로는 1930년 평안 수리조합에서 운영하는 평안저수지가 준공되어 관개용수를 공급하며, 쌀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보리·수수·고구마·고추·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의 품종 개량과 조숙 재배 방법, 단작에서 맥간작 방법 등을 개발해 면화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잠은 뽕밭이 많아 활발한 편이다. 축산업도 활발해 용우리 외에 2개 지역을 원종우 마을로 지정해 우량우를 사육하며, 암적리에 정기 우시장이 개시되어 매매가 활발하다. 광업은 어중리에 금·은·동·아연 등이 생산된다.

교통은 경의선이 면의 중앙을 남북으로 통과하며, 석암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거의 병행하여 경의가도가 통과하며, 평원·순안·공덕면 등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다.

산음(山陰)·암적(巖赤)·원화(元和)·조산(造山)·산양(山陽)·상탄(上灘)·용산(龍

山)·도전(都田)·신흥(新興)·송석(松石)·서석암(西石巖)·동석암(東石巖)·신평(新坪)·부백(孚白)·용이(龍二)·용우(龍隅)·둔전(屯田)·문암(門巖)·율일(栗一)·율화(栗花)·반송(盤松)·서문(西門)·어중(御重) 등 23개 이가 있다.

(5) 순안면(順安面)

군의 동남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남창리이다. 본래 군내면(郡內面)·정방면(定坊面)·송현면(松峴面) 3개 면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순안면이 되었다. 동쪽은 동금강·담화산(曇華山, 431m) 등의 산지가 솟아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보통강이 남류하다가 대동군으로 유입되며, 하천 연안에는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수자원으로는 1930년 평안 수리조합이 준공되어 관개용수를 공급하며, 쌀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보리·수수·고구마·고추·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의 품종 개량과 조숙 재배 방법, 단작에서 맥간작 방법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 면화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잠은 뽕밭이 많아 활발하다. 광업은 보통강 하류에 사금광이 있으며, 순안 사금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규모의 사금이 생산된다.

교통은 경의선이 면의 서부를 남북으로 통과하며, 순안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거의 병행하여 경의가도가 통과하며, 그 밖에 순안~순천군 사인장, 한천~순안간을 잇는 3등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유적으로는 남창리에 순안배회정(順安徘徊亭), 담화리에 금강암 등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다.

남창(南昌)·군상(郡上)·사직(社稷)·구교(舊校)·포정(蒲井)·관북(館北)·남산(南山)·오산(梧山)·안흥(安興)·수우(水隅)·신상(新上)·담화(曇華)·연산(延山)·성일(星一)·성이(星二)·신안(新安)·구서(九瑞)·양학(陽鶴)·안암(安庵)·상양(上陽)·원일(元一) 등 21개 이가 있다.

(6) 양화면(兩花面)

군의 남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요화리이다. 본래 연화면(蓮花面)과 동화면(冬花面) 2개 면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양화면이 되었다.

남쪽은 월명산(月明山, 185m), 북쪽은 자화산·금강산 등의 산지가 솟아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보통강이 남류하다가 대동군으로 유입되며, 하천 연안에는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녹두·보리·수수·고구마·고추·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의 품종 개량과 조숙 재배 방법, 단작에서 맥간작 방법 등을 개발해 면화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잠은 뽕밭이 많아 활발하다. 축산업도 활발해 원종우·우량우 사육을 비롯한 양돈·양계 등이 이루어져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하며, 사과·배·복숭아·밤 등의 과수 재배도 행해진다. 광업은 금강산의 운모광산에서 운모가 생산된다.

경의선이 면의 동부를 남북으로 통과하며, 동암면·순안면·대동군 등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다.

요화(蓼花)·옥정(玉井)·내송(內松)·상송(上松)·금강(金剛)·신정(新井)·평(坪)·용복(龍伏)·신성(新成)·상서(上西)·중흥(中興)·신(新) 등 12개 이가 있다.

(7) 용호면(龍湖面)

군의 서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연교리이다. 본래 용흥면(龍興面)·갈하면(葛下面)·연하면(蓮下面)·통호면(通湖面)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용호면이 되었다. 북쪽은 와룡산 등의 산지가 솟아 있으며, 서쪽은 해안 지대를 이룬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중교천이 면의 중앙을 서류하다가 서해로 유입되며, 하천 연안에는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녹두·보리·수수·고구마·고추·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잠은 뽕밭이 많아 활발하다. 축산업도 활발해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하며, 사과·배·복숭아·밤 등의 과수 재배도 행해진다. 연근해에

서는 조기·갈치·민어·가자미·대구·새우·대합·굴 등의 어획과 채취가 많으며, 남양리의 남양염전에서 천일염이 생산된다.

숙천-용호면-청산면 구원리간, 용호면 연교리~해소면 금학리 간을 잇는 등외도로가 통과하며, 청산-해소면 등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고, 해운 항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유적으로는 남양리에 봉수대지, 관성리에 토성(土城) 등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다.

연교(蓮橋)·운봉(雲鳳)·안연(安淵)·뇌송(雷松)·판교(板橋)·청운(靑雲)·용강(龍岡)·당우(堂隅)·약전(藥田)·관성(館城)·남양(南陽)·장평(장坪)·응오(鷹烏)·중항(中巷)·매전(梅田)·어당(魚塘) 등 16개 이가 있다.

(8) 청산면(靑山面)

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구원리이다. 본래 청지면(靑池面)·화산면(禾山面)·수남면(水南面) 3개 면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청산면이 되었다. 남쪽은 대원산 등의 산지가 솟아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보리·수수·고구마·고추·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의 품종 개량과 조숙 재배 방법, 단작에서 맥간작 방법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 면화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업도 활발해 원종우·우량우 사육을 비롯한 양돈·양계 등이 이루어져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하며, 사과·배·복숭아·밤 등의 과수 재배도 행해진다. 광업은 대원산의 화강암 석재가 채석되고 있다.

영유-한천-진남포간을 잇는 2등 도로와 숙천-용호-청산 구원리간, 청산 구원리-덕산-대동군 김제간을 잇는 등외도로가 통과하며, 용호·노지·평원·덕산·한천면 등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관광지로는 낙가굴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다.

구원(舊院)·계산(桂山)·남흥(南興)·운송(雲松)·보방(寶坊)·금봉(金峰)·교산(橋山)·개수(价水)·용암(龍巖)·송현(松峴)·운탑(雲塔) 등 11개 이가 있다.

(9) 평원면(平原面)

군의 중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이화리이다. 본래 영유군의 영유면(永柔面)·동부면(東部面)·중부면(中部面)·서부면(西部面)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평원면이 되었다. 남쪽은 자화산, 북쪽은 조운산 등의 산지가 솟아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중교천이 면의 북부를 서류하다가 용호면을 지나 서해로 유입되며, 하천 연안에는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녹두·수수·고추·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잠은 뽕밭이 많아 활발한 편이다. 축산업도 활발해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하며, 사과·배·복숭아·밤 등의 과수 재배도 행해진다. 광업은 인회석 광산에서 인회석이 생산된다.

경의가도가 면의 중앙을 통과하며, 그 밖에 영유-한천-진남포간을 잇는 2등 도로와 영유~어과간을 잇는 3등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학사대(學士臺)가 있으며, 유적으로는 영덕리에 삼층사, 대부리에 대부정, 이화리에 이화정·영천사(靈泉寺) 등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다.

이화(梨花)·괴천(槐泉)·영덕(永德)·월평(月坪)·대부(大夫)·어과(漁坡)·원류(元柳)·어은(漁隱)·부용(芙蓉)·송석(松石)·화림(華林)·자일(紫逸)·월정(月晶)·장림(長林) 등 14개 이가 있다.

(10) 한천면(漢川面)

군의 서남부에 위치한 면. 면 소재지는 감팔리이다. 본래 증산군(甌山郡)의 진방면(鎭坊面)과 초곡면(草谷面) 2개 면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한천면이 되었다. 서쪽은 불곡산 등의 산지가 솟아 있고 해안 지대를 이루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조·콩·옥수수·녹두·수수·고구마·고추·깨 등이며, 특산물로는 면화·누에고치 등이 산출된다. 특히 면화는 다각적인 방법을 개발해 생산

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잠은 뽕밭이 많아 활발하다. 축산업도 활발해 원종우·우량우 사육을 비롯한 양돈·양계 등이 이루어져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하며, 사과·배·복숭아·밤 등의 과수 재배도 행해진다. 연근해에서는 조기·갈치·민어·가자미·대구·홍어·새우·대합·굴 등의 어획이 많다.

영유-한천-진남포간을 잇는 2등 도로와 한천~순안간을 잇는 3등 도로가 통과하며, 청산면·강서군 등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한천포를 중심으로 해운 항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 교가 있다. 감팔(甘八)·감일(甘一)·감이(甘二)·감삼(甘三)·감사(甘四)·감오(甘五)·감육(甘六)·감칠(甘七)·인의(仁義)·예지(禮智)·신성(信成) 등 11개 이가 있다.

3. 시정노동지구³⁰⁾

1) 어파노동자구(漁波勞動者區)

군의 중앙 동쪽에 위치한 노동자구이다. 북쪽은 큰골을 지나 숙천군과 접하고 남서쪽에 미두산이 있다. 평의선 철도의 어파역이 있으며, 평양~신의주 간도로가 통과한다. 인회석 광산이 개발되면서 1967년에 신설된 노동자구이다. 어파리 지명은 조선 시대 영녕현 중부방의 어파리 일대로, 1914년 평원군 영유면에 속하였다가 1952년에 평원군 장흥리에 편입되면서 폐지된 지명이다. 1967년 노동자구가 신설되면서 지명이 복귀되었다.

『조선지형도』(순안)에 당시 경의선 철도의 신어파역이 묘사되어 있으며 북서쪽에 어파리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어파는 이곳에 어업이 발달하여 유래된 지명이라 하나 확실하지 않다.

2) 한천노동자구(漢川勞動者區)

군의 서쪽에 위치한 노동자구이다. 서쪽으로 서해에 연해 있으며, 수산물 가공이 특화되어 있다. 젓갈류 등의 수산물 가공 제품이 남동선 철도의 한천

30) 한국지명유래집 494면

역을 통해 반출된다.

1992년 화진리와 신송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설한 노동자구이다. 원래 초곡방이라 불렀다가 이후 불곡산의 세 번째 마을이라 하여 불삼리로, 1914년에는 감팔리라 지명이 바뀐 마을이다. 한천지명은 이곳의 만(灣)이 큰 강처럼 보인대서 명명되었다.

『조선지형도(한천에 한천면 소재지 부근에 감팔리와 감칠리 등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지명은 이곳의 한천면 지명에서 비롯되었다.

『신구대조(평원)에는 청산면에 계산리·남흥리·개수리가 수록되어 있다.

4. 각 면·리 지명³¹⁾

평원군에서 관할하는 남산리, 대암리, 대정리 등 29개 대암리(大溝埋)는 군의 북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노지면의 용암리·대송리·정림리를 병합하여 대암리가 되었다. 대암은 대송리와 용암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노지면에 용암리·대송리·정림리를 수용하고 있다. 리의 1952년 통폐합 내용은 [표]와 같다.

[표] 평원군의 리 지명

지명(한자) 1952년 통·폐합내용 및 변화

남산리(南山里) 평원군 청산면 계산리+ 남흥리 개수리—평원군 남산리
남흥+ 계산

대암리(大岩里) 평원군 노지면 용암리+ 대송리+ 정림리—평원군 대암리
대송+ 용암

대정리(大井里) 평원군 노지면 용정리+ 용당리—평원군 대정리 (신설)

대풍리(大豐里) (1990년) 운룡리+ 매전리+ 신송리 일부—대풍리 (신설)

덕제리(德濟里) 평원군 덕산면 탐리+ 삼정리+ 제리—평원군 덕제리

31) 한국지명유래집 495~496면

덕산+ 제리

덕포리(德浦里) 평원군 덕산면 대포리+ 원오리+ 호려라—평원군 덕포리

덕산+ 대포

매전리(梅田里) 평원군 용호면 매전리 중항리어당리—평원군 매전리

문흥리(文興里) 평원군 노지면 문명리+ 대주리+ 추흥리—평원군 문흥리

문명+ 추흥

삼봉리(三峯里) 평원군 평원면 원류리·화림리·어은리—평원군 삼봉리(신설)

상송리(上松里) 대동군 양화면 상송리+ 금강리+ 신정 리—순안군 상송리

석교리(石橋里) 평원군 노지면 석소리+ 쌍암리+ 용호면 연교리—평원군

석교리 석소+ 연교

석암리(石巖里) 대동군 동암면 석암리+ 도전리+ 송석리+ 신흥리—순안군

석암리

송림리(松林里) 평원군 평원면 장림리+ 공덕면 송매리—평원군 송림리

송매+ 장림

송석리(松石里) 평원군 평원면 송석리·부용리—평원군 송석리

송화리(松花里) 평원군 한천면 갑일리+ 감이리+ 갑오리—평원군 송화리

신성리(新成里) 평원군 공덕면 퇴현리+ 상이리+ 퇴상리+ 법흥리—평원군

신성리(신설)

신송리(新松里) 평원군 한천면 신성리·예지리·인의리·청산면 운송리—평원군

신성리+ 운송리

심원리(深源里) 평원군 한천면 감삼리+ 감사리+ 평원군 덕산면 동하리—

평원군 심원동

양교리(兩橋里) 평원군 공덕면 간리+ 성교리+ 상량수리+ 하량수리—평원군

양교리 상량수+ 성교

용상리(龍上里) 평원군 공덕면 용암리+ 용흥리+ 병상리+ 퇴남리—평원군

용상리 용암+ 병상

용이리(龍二里) 대동군 동암면 용이리+ 문암리+ 용우리—순안군 용이리

운룡리(雲龍里) 평원군 용호면 운봉리+ 안연리+ 너송리—평원군 운룡리

운봉+ 용호

운봉리(雲峯里) 평원군 청산면 운탑리+ 구원리—평원군 운봉리(신설)

원암리(院巖里) 평원군 공덕면 향암리·적암리·괴전리·원리—평원군

원암리 원+ 향암

원화리(伊:和里) 대동군 동암면 원화리—산음리편입폐지—(1972년 복귀)

평원군 원화리

월일리(月逸里) 평원군 평원면 월정리·자일리·월평리—평원군 월일리

월정+ 자일

청룡리(靑龍里) 평원군 용호면 청운리 청산면 용암리·송현리—평원군

청룡리 청운+ 용암

청보리(靑寶里) 평원군 청산면 금봉리·교산리·보방리—평원군 청보리

청산+ 보방

화진리(和津里) 평원군 한천면 감륙리·감칠리·감팔리—평원군 화진리(신설)

대정리(大井里)는 군의 중앙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노지면의 용정·용당을 병합하여 대정리가 되었다.

대정은 큰 우물의 고장이란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산리(南山里)는 군의 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청산면의 계산리·남흥리·개수리를 병합하여 남산리가

되었다. 남산은 남흥리와 계산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 평원에는 노지면에 용정리와 용당리가 기록되어 있다.

대풍리(大豐里)는 군의 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덕제리(德濟里)는 군의 남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덕산면의 탑리·삼정리·제리를 병합하여 덕제리가 되었다.

덕제는 덕산과 제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덕산면에 탑리·삼정리·제리가 수록되어 있다.

덕포리(德浦里)는 군의 남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덕산면의 대포리·원오리·호려리를 병합하여 덕포리가 되었다. 덕포는 덕산면과 대포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덕산면에 대포리·원오리·호려리가 기록되어 있다.
매전리(梅田里)는 군의 북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용호면의 매전리·중항리·어당리를 병합하여 매전리가 되었다.

『신구대조』(평원에는 용호면에 매전리·중항리·어당리가 수록되어 있다.
문흥리(文興里)는 군의 중앙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노지면의 문명리·대주리·추흥리를 병합하여 문흥리가 되었다. 문흥은 문명리와 추흥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노지면에 문명리·대주리·추흥리가 기록되어 있다.
삼봉리(三峯里)는 군의 북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평원면의 원류리·화림리·어은리를 병합하여 삼봉리가 되었다. 삼봉은 삼봉산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원류리·화림리·어은리가 수록되어 있다.
상송리(上松里)는 군의 남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대동군 양화면의 상송리·금강리·신정리를 병합하여 순안군 상송리가 되었다.

『신구대조』(평원에는 양화면에 상송리·금강리·산정리가 수록되어 있다.
석교리(石橋里)는 군의 북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석교 약수가 있으며, 북쪽은 중교천이 흐른다.

1952년에 평원군 노지면의 석소리·쌍암리와 용호면의 연교리를 병합하여 석교리가 되었다. 석교는 석소리와 연교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노지면에 석소리와 쌍암리를, 용호면에 연교리를 각각 수록하고 있다.

석암리(石巖里)는 군의 동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대동군 동암면의 석암리·도전리·송석리·신흥리를 병합하여 순안군 석암리가 되었다.

『신구대조』(평원에는 용흥면에 도전리·송석리·신흥리·동석암리가 수록되어 있다.

송림리(松林里)는 군의 중앙 동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평원면의 장림리와 공덕면의 송매리를 병합하여 송림리가 되었다. 송림은 송매리와 장림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영유면에 장림리를 자덕면에 송매리를 각각 수록하고 있다.

송석리(松石里)는 군의 중앙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평원면의 송석리와 부용리를 병합하면서 송석리를 대표 지명으로 사용하였다.

『신구대조』(평원에는 영유면에 송석리와 부용리를 기록하고 있다.

송화리(松花里)는 군의 남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한천면의 감일리·감이리·감오리를 병합하여 송화리가 되었다.

송화리는 지역에 송화가루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한천면에 감일리·감이리·감오리가 수록되어 있다.

신성리(新成里)는 군의 북동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공덕면의 퇴현리·상이리·퇴상리·법흥리를 병합하여 산성리가 되었다.

『신구대조』(평원에는 공평면에 퇴현리·상이리·퇴상리·법흥리가 수록되어 있다.

선송리(新松里)는 군의 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남동선이 지나고 서해와 만난다. 1952년에 평원군 한천면의 신성리·예지리·인의리와 청산면의 운송리를 병합하여 선송리가 되었다. 선송은 신성리와 운송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한천면에 산성리·예지리·인의리를 청산면에 운송리를 각각 수록하고 있다.

심원리(深源里)는 군의 남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하천면의 감삼리·감사리와 덕산면의 동하리를 병합하여 심원리가 되었다. 양교리(량교리, 兩橋里)는 군의 북동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공덕면의 간리·성교리·상량수리·하량수리를 병합하여 양교리가 되었다. 양교는 양수리와 성교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 공평면에 성교리가 수록되어 있다.

용상리(龍上里, 龍上里)는 군의 북동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공덕면의 용암리·용흥리·병상리·퇴남리를 병합하여 용상리가 되었다. 용상은 용암리와 병상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신구대조』(평원에는 공평면에 용암리·용흥리·병상리·퇴남리가 수록되어 있다.

용이리(龍二里)는 군의 동쪽에 위치한 리이다.

전좌봉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평의선이 남북으로 관통하여, 건룡저수지의 남서쪽에 자리한다.

1952년에 대동군 동암면의 용이리·문암리·용우리를 병합하여 순안군 용이리가 되었다.

『신구대조』(평원에는 동두면에 용이리·문암리·용유리가 수록되어 있다.

운룡리(雲龍里)는 군의 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용호면의 운봉리·안연리·뇌송리가 운룡리로 되었다. 운룡은 운봉리와 용호면을 합성한 지명이다.

원암리(元巖里)는 군의 동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청산면의 운탑리와 구원리를 병합하여 운봉리가 되었다.

원화리(元化里)는 군의 동쪽에 위치한 리이다.

1972년에 평원군에 신설되었다.

월일리(月逸里)는 군의 중앙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평원면의 월정리·자일리·월평리를 통합하여 월일리가 되었다. 월일은 월정리와 자일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청룡리(靑龍里)는 군의 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용호면의 청운리와 청산면의 용암리·송현리를 병합하여 청룡리가 되었다. 청룡은 청운리와 용암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청보리(靑寶里)는 군의 남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청산면의 금봉리·교산리·보방리를 병합하여 청보리가 되었다. 청보는 청산면과 보방리를 합성한 지명이다.

화진리(和津里)는 군의 남서쪽에 위치한 리이다.

1952년에 평원군 한천면의 감률리·감칠리·감팔리를 병합하여 화진리가 되었다.

5. 각 면(各面)의 리내 부락명(里内 部落名)

1) 16개 면·리

평원군에서 관할하는 18개 면의 리는 다음과 같다.

(1) 평원면(平原面)

이화리(梨花里) : 어왕골(於王洞)

괴천리(槐泉里) : 박석고개, 창동

영덕리(永德里) : 사승동

대부리(大夫里) : 새거리, 사동네

월평리(月坪里) : 달의 매기, 긴드레, 산넘의

어파리(漁波里) : 돼니(도연역 都延驛)

원류리(元柳里) : 바매기, 버들골, 잣골

어은리(漁隱里) : 동부팔동네, 동부구동네, 셋말, 엄골

부용리(芙蓉里) : 노촌, 사덕이, 우라리낭던마을, 우라리 오목마을, 사직골, 백두거리

송석리(松石里) : 오촌, 셋마을, 김촌, 이촌, 위촌, 아랫마을, 낭디건, 최촌, 흰돌거리, 새당메, 장성거리, 외짜거리

화림리(華林里) : 진창, 마촌, 칠동네

자일리(紫逸里) : 답재, 독쟁이

월품리(月品里) : 낙구지육동네, 낙구지칠동네, 낙구지팔동네, 자화산골

장림리(長林里) : 가운데거리, 열한동네, 열두동네, 권당골, 절골

(2) 공덕면(公德面)

- 흥운리(興雲里) : 어과, 안마을, 고사리골
원리(院里) : 섬마을
적암리(積岩里) : 이촌
괴전리(槐田里) : 뇌덜리, 벌마을
송매리(松梅里) : 창골, 갈매트리, 도가골, 관촌
향암리(香岩里) : 외골, 황촌, 새드레, 이촌
장재리(長材里) : 초당마을, 장재월
간리(間里) : 셋마을, 문생이
양수리(兩水里) : 세네골, 돌모루, 자재기
성교리(城橋里) : 성재, 호개골
중송리(衆松里) : 일산소린
룡여리(龍與里) : 독점골, 양지마을, 피우개
병상리(並上里) : 함박골
법흥리(法興里) : 법흥리
상이리(上二里) : 새마을
퇴상리(退上里) : 자르비
한현리(限峴里) : 무르니메, 늦골
퇴남리(退南里) : 오리골, 택골, 재우개
용암리(龍岩里) : 루동, 성주골
신교리(新郊里)
신화리(新和里)

(3) 동암면(東岩面)

- 산음리(山陰里)
암적중(岩赤重) : 암치내
원화리(元和里)
조산리(造山里)

산양리(山陽里)
상탄리(上灘里)
용산리(龍山里)
도전리(都田里)
도파리(都巴里)
신흥리(新興里)
송석리(松石里)
서석암리(西石岩里)
동석암리(東石岩里)
신평리(新坪里)
학백리(學白里) : 부백
용이리(龍二里)
용우리(龍隅里) : 농모루
둔전리(屯田里)
문암리(門岩里)
울·리(栗·里)
울화리(栗花里)

(4) 순안면(順安面)

남창리(南昌里)
도상리(都上里)
포정리(蒲井里)
관북리(館北里)
구교리(舊校里) : 구교동
오산리(梧山里) : 덩벙이
사직리(社稷里) : 앞사촌, 뒷사촌
남산리(南山里)
안흥리(安興里) : 전촌

수양리(水隅里) : 민보루
신상리(新上里)
안흥리(安興里) : 다마골
연산리(延山里) : 현촌
성일리(星一里) : 성주골
성이리(星二里)
신안리(新安里)
구서리(九瑞里) : 구서골
양학리(陽鶴里) : 대골
상양리(上陽里)
원일리(元一里) : 벌말
택엄리(宅奄里)

(5) 양화면(兩花面)

총화리(蔥花里) : 고촌 하부골 서재골 토고리
옥정리(玉井里) : 새동이 독주메
내송리(內松里) : 내골 호지무골 오봉리
상송리(上松里) : 아랫산골 윗산골 허촌
금강리(金剛里) : 상하부라
신정리(新井里) : 범암골 석박골
배리(壞里)
용복리(龍伏里) : 골산 문촌 안골 덜골
신성리(新成里) : 천고 본부락
상서리(上西里) : 동화골
중흥리(中興里) : 마산 구망역리 월명산 샘골
신리(新里) : 새말

(6) 덕산면(德山面)

삼정리(三井里) : 삼정리 쟁골
화산리(華山里) : 비런 강가골
조암리(釣岩里) : 안촌동 밤안에
주촌리(朱村里) : 주가골 송골
봉도리(蜂島里) : 별섬 안골 개급피
전촌리(前村里) : 차촌 유가골 별리
교리(橋里) : 어두운이 궁덩이 노골
덕수리(德水里) : 새방성 서당켜
양리 : 오루골 새메 랍골인
하리(下里) : 동하리 고촌
재 리(齋 里) : 서젓말 당골
원오리(元五里) : 오동네 당모루
대포리(大浦里) : 큰개논 작은개논 새방성
조여리(조呂里) : 윗호리골 아래호리골

(7) 한천면(漢川面)

감일리(甘一里) : 뒷골(後洞) 밤구리(栗洞) 서가골(徐家)
박가골(朴家) 메넘에(山陽洞) 문촌(文村)
감이리(甘二里) : 대골(竹洞) 누은택이(留雲澤洞)
감삼리(甘三里) : 마산(馬山) 건년삼골(越三洞)
감사리(甘四里) : 사골(四洞) 쪽디(叔生洞) 네계올(禮啓洞)
감오리(甘五里) : 외서창(外西會)
감육리(甘六里) : 살구재 (杏峴洞) 개머리
감칠리(甘七里) : 안골(內洞) 큰날(大洞) 윗산뒤(上山北)
아랫산뒤(下山北) 누에머리(築港) 석독이(石頭洞)
감팔리(甘八里) (漢川所在地) : 향산모루(香山洞)
인의리(仁義里) : 길아래(路下洞) 일동네(一) 이동네(二洞) 사동네(四洞)
예지리(禮智里) : 삼동네 (三洞) 한(韓村) 리촌(李村) 양승(梁村)

신성리(信成里) : 육골(六洞) 칠골(七洞)

(8) 청산면(靑山面)

구원리(舊院里) : 갈원(畵院) 장거리 남창(南倉), 소남창(小南倉), 아랫말

계산리(桂山里) 흐린마을

남전리(南典里) : 등어골

운송리(雲松里) : 시루모

보방리(寶坊里) 어두우니

금봉리(金峰里) : 금시모

교산리(橋山里) : 한다리

개수리(价水里) : 개동이

능암리(能巖里) 조산(槽山) : 안암(安岩) 소구지

송현리(松峴里) : 풀못이 리촌(李村)

운탑리(雲塔里) : 수산 새빵성 안골

(9) 노지면(警池面)

용정리(龍井里) : 생기리사동네 생기리오동네 박가곳이 윗오동네

능당리(能堂里) : 화재 뒷화재 차들이 정준 당아래강천

정림리(旌林里) : 정문마을 립동 명당뚝 동가운데 동뚝

용암리(龍岩里) : 덕무시사동네 덕무시삼동네 새마을 중교당거리

쌍암리(雙岩里) : 생기리이동네

석소리(石蘇里) : 생기리일동네 생기리상동네

대주리(大州里) : 백노리일동네 백노리이동네 백노리삼동네

문명리(文明里) : 안사동네 벌마을 새마을 소원산마을

감여리(橄與里) : 주황골 독쟁이 가래골 석쟁이

(10) 용호면(龍湖面)

연교리(蓮橋里) : 낭짓마을 우라리 중교

중항리(中巷里) : 갈마리 오목이
 매전리(梅田里) : 가라리육동네 수픈마을
 어당리(漁塘里) : 가라리 오동네 가라리사동네
 안주리(安洲里)
 판교리(板橋里) : 농포
 뇌송리(雷松里) : 하삼 구석삼동네 해당마을
 청운리(靑雲里) : 일동네 이동네 신동
 운봉리(雲鳳里) : 흥촌 한촌
 약전리(藥田里) : 회당마을 삼동네 함촌 약방골 증교
 용강리(龍岡里) : 용강골
 응오리(鷹烏里) : 너나리육동네 너나리칠동네
 당양리(堂陽里) : 앞신당리 뒷신당리
 관성리(館城里) : 회당마을 앞상가니 뒷상가니
 장평리(獐坪里) : 너나리사동네 번마을 너나리
 남양리(南陽里) : 너나리일동네 너나리이동네 너나리삼동네 산덩에

(11) 해소면(海蘇面)

금학리(金鶴里) : 차일동네 소창 원사동 북사동
 월현리(月峴里) : 정촌 월원동 삼동네 양촌 약방골
 송정리(松井里) : 작은진촌 큰진촌 은행골 동곳이 설사동네
 용아리(龍兒里) : 신당동 박촌 안촌
 종율리(種栗里) : 상구동 하구동 종산리 백자동
 내덕리(內德里) : 송촌 만금동 불당골 동십동 서십동
 란산리(爛山里) : 중오동 새둥이 벌마을 덴메
 용교리(龍橋里) : 龍橋里칠동네 팔동네 구동네

(12) 서해면(西海面)

용산리(龍山里) : 탄증 해창

사산리(蛇山里) : 남삼 중삼 북상 화전민촌
 신덕리(新德里) : 신설리 만풍
 당명리(唐鳴里) : 일리 삼리 사리
 원흥리(元興里) : 칠리 팔리 남일리 북이 신흥리
 광천리(廣川里) : 오리 옥리 노촌 황천포
 남포리(南浦里) : 하단 동촌
 연풍리(延豐里) : 상일리 열귀 고성리 건너말
 중흥리(中興里) : 두다리 개혁말 남삼 동만 신촌 서사리
 보원리(補元里) : 남동말 일리 창말 칠리
 보덕리(補德里) : 옥리 남오리 중오리 북오리 삼천포 보민동

(13) 검산면(檢山面)

학산리(鶴山里) : 앞륙리 뒷륙리 양가골
 용포리(龍浦里) : 계동 안촌 리촌
 김양리(檢陽里) : 다대마을 장스메
 검흥리(檢興里) : 과밭거리 내동 절골 최령이 태자린
 검서리(檢西里) : 오용골 외사리 노촌 외웃물 안터 하금박촌
 신지리(新枝里) : 섭가지강촌 새마을 도촌 허목이 상단박촌
 상일리(임촌, 안촌)
 신성리(新成里) : 셋동네 셋동네박촌 다리목이 애메
 송양리(松陽里) : 동촌마을 큰마을 양지마을 셋마을 학다리
 첩산리(捷山里) : 새마을 체메앞 아랫마을

(14) 조운면(朝雲面)

갈산리(葛山里) : 고인돌 대갈산 중갈산 소갈산 독쟁이
 응암리(鷹巖里) : 현돌말 석촌
 조운리(朝雲里) : 청촌
 재정리(財井里) : 민촌

송천리(松千里) : 라촌
성덕리(聖德里) : 십이리 송촌 민촌
순정리(順井里) : 바리메 사리 양촌
태평리(太平里) : 마던리 박촌 권산리

(15) 숙천면(肅川面)

관전리(館前里)
사직리(社稷里)
관동리(館東里)
당하리(堂下里)
심정리(深井里) : 돌배기장
성남리(城南里)
미남리(帽南里) : (호단성
백호리(白虎里)
통덕리(通德里) : 동데기 신촌
도덕리(道德里) : 돌연이
신흥리(新興里) : 절골
내동리(內洞里) : 우방정촌 김촌
덕수리(德水里) : 으리댕이 오촌
송저리(松底里)
만흥리(晩興里)

(16) 동송면(東松面)

월봉리(月峰里) : 차촌
군자리(君子里) : 차촌
수외리(壽歲里) 백석산 형제봉 막동골 북오리
백석리(白石里) : 배석이
백운리(白雲里) : 배석이천불

송시리(松視里) : 송대 사금터

청룡리(靑龍里) : 청농이

운평리(雲坪里) : 독방우

능담리(能潭里) : (하리

운룡리(雲龍里) : 독방우

제8장. 명승고적(명승, 유적, 고분, 궁지, 산성, 서원)

1. 명승(名勝), 사찰(寺刹)

1) 명승(名勝) 개요³²⁾

평원면 이화리에 있는 이화정(梨花亭)은 임진왜란 때 평양에서 의주로 파천하던 선조가 약 100여 일 동안 머무르던 임시 거처였다. 이때 선조가 물맛이 좋다고 하여 품계석(品階石)을 내렸던 우물이 평원면 대부리에 있는 대부정(大夫井)이다. 한편 이화정은 봉림대군이 청나라 심양(瀋陽)에 인질로 끌려갔다가 풀려나 귀국할 때 유숙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화정 북쪽의 낭청현(郎廳峴)이라는 고개에서는 배종하는 신하들이 낭청을 배풀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원면 영덕리에 있는 삼충사는 제갈량(諸葛亮)·악비(岳飛)·문천상(文天祥) 등 중국 무신들의 사당이다. 용호면 남양리에 있는 와룡산 북방에는 영유현에 병합된 적이 있는 통해현의 유적이 남아 있다. 검산면의 검산약수는 예로부터 이름난 약수터이고, 청산면의 대원산은 화강암의 거대한 산으로 이채를 띠고 있는 곳이다. 한천면의 불곡산이나 석다산은 을지문덕 장군과 관계 깊은 산으로 알려져 있다.

옛 숙천현의 고을터인 숙천면에는 고려시대의 토성인 호전성(虎田城)·진국성(鎭國城)·행성(行城)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이곳의 창랑대(滄浪臺)는 경승지이며, 이이(李珣)를 모셨다는 율곡서원(栗谷書院)은 건물이 없어지고, 다만 이이가 젊었을 때 숙천 부사로 있던 장인 노경린(盧京麟)을 방문하고 식부했다는 밤나무숲이 그대로 있다.

옛 순안현 땅에 법홍산(法弘山)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법흥사(法興寺, 일명 동량사(棟樑社))는 고려 말의 고승인 나옹(懶翁)이 중건했다는 고찰이다. 이 절은 초명이 정양사(正陽寺)이며 신라시대에 이미 세워져 원효(元曉)·의상(義

32)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 91~92

湘) 등의 명승이 한때 머물기도 한 곳이다. 성산서원(星山書院)은 정몽주(鄭夢周) 등을 모신 서원으로, 1647년(인조 25)에 건립되고 1697년(숙종 23년)에 사액 된 바 있다. 동금강사(東金剛寺)와 서금강사(西金剛寺)가 자리 잡은 동서의 금강산은 경치가 뛰어난 명승지이다.

1937년 덕산면 원오리의 만덕산 부근 절터에서는 고구려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상당수의 소조 불상 조각들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약 11cm의 크기로 200여 개에 달하는 이 불상들은 고구려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① 금강암(金剛庵)

순안면 담화리(順安面 曇華里)에 위치한 소위 동금강(東金剛)이라고 부르는 산명수려(山明秀麗)한 담화산(曇華山) 동록(東麓) 암벽(岩壁) 밑에 있는 사찰(寺刹)로서 수목이 울창하며, 봄이면 온통 진달래로 만자천홍(萬紫千紅)으로 물들이는 경관(景觀)은 말할 수가 없고, 또 가을이면 단풍으로 뒤덮여 절경(絶景)을 이룬다.

② 평안수리조합(平安水利組合) 저수지(貯水池)

평원군 공덕면(平原郡 公德面)에 있었는데, 1926년 6월에 준공했다. 저수지(貯水池)의 넓이는 6백 정보(町步)나 되고 몽리구역(蒙利區域)은 평원군(平原君)의 공덕면(公德面)·동암면(東岩面)·순안면(順安面)과 대동군(大同郡)의 재경리면(在京里面) 외 3개 면으로 몽리면적(蒙利面積)은 실로 4천 5백 56정보(町步)로 우리나라 굴지(屈指)의 수리조합이다.

사방이 병풍(屏風)처럼 둘러싸이고 수목이 울창하여 절경을 이루고 차편이 좋아 소풍객과 낚시꾼이 장사진(長蛇陣)을 이루는데 여름에는 뱃놀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었다.

③ 와룡산(臥龍山)

용호면 남양리(龍湖面 南陽里) 해안에 위치한 이 산은 옛날엔 소산(所山)이라고 했다. 방파제(防波堤)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이 마치 용(龍)이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리 높지는 않으나 유명한 이 산의 서쪽은 망망대해(茫茫大海)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그 밖의 3면은 넓은 옥야(沃野)가 펼쳐져 있다. 특히 해가 질 무렵의 붉게 물든 수평선 위의 낙조(落照)는 가경(佳境)이며 해상에서 들려오는 어부들의 『배따라기』 노래는 시정(詩情)을 더해준다.

남쪽 산정(山頂)에는 옛날의 소산 봉수대지(所山烽燧臺地)가 남아 있고, 북쪽 관성리(館城里)에는 고려시대에 축조한 웅성(甕城)의 토성지(土城址)가 남아 있다.

④ 대원산(大圓山)

청산면(靑山面)에 있는 이 산은 『두루메』라고 하는데 산이 온통 화강암(花崗岩)으로 된 석산(石山)으로 경치뿐만 아니라 석재 생산지(石材 生產地)로 유명하며 남서쪽 기슭에 약암사(藥岩寺)의 사지(寺址)가 있다. 이 산 서쪽 중턱에 있는 암자(庵子)에서는 옛날 불공객(佛供客)들이 먹을 만큼 쌀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욕심 많은 중이 쌀을 더 많이 나오라고 크게 뚫은 뒤로는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전설(傳說)이 있다.

⑤ 불곡산(佛谷山)

한천면 감팔리(漢川面 甘八里)에 있는데 산세(山勢)가 군(郡)의 서벽(西壁)을 이루고 있는 명산으로, 상중에는 큰 동굴(洞窟)이 있는데 여기서 고구려(高句麗)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수도(修道) 하였다고 전해온다.

⑥ 낙가굴(洛迦窟)

청산면(靑山面) 대원산정(大圓山頂)에 있는 큰 동굴(洞窟)로서 기암괴석(奇巖怪石)이 층루(層壘)하여 풍경(風景)이 절묘하다. 옛날에 여기에 사찰(寺刹)이 있었다 하나 그 연대를 알 수 없고 석면(石面)에 각자(刻子) 흔적이 많다.

⑦ 검산약수(檢山藥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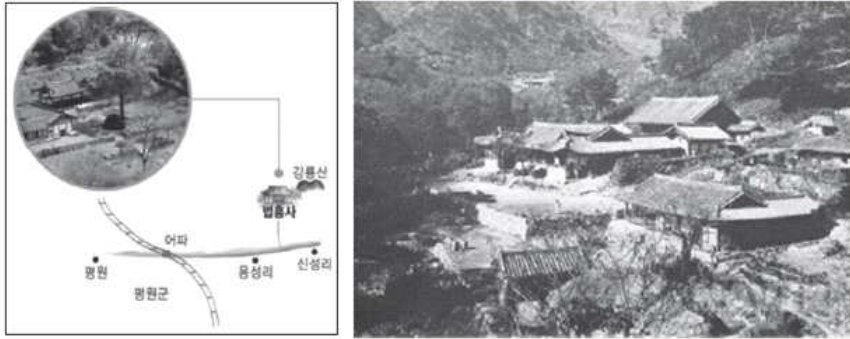
검산면(檢山面)에 있는데 테산(瀝山)의 분지(盆地) 평야(平野)의 수답(水畓) 한복판에서 솟아오르는 이 약수는 군내 유일(唯一)의 명물이다. 『칼슘』분이 풍부하고 건위강장(健胃強腸)의 특효가 있으므로 음력 4월 초파일과 단오절(端午節)·추석(秋夕)·백중(百中. 음 7월 15일) 날에는 원근(遠近) 각지에서 탕용객(湯浴客)이 모여든다.

2) 사찰(寺刹)³³⁾

① 법흥사(法興寺)

공덕면 법흥리(公德面 法興里)에 위치한 유명한 사찰(寺刹)인데, 고산준령(高山峻嶺)으로 된 법흥산(法弘山) 아래 낙낙장송(落落長松)이 울창한 경내(境內)에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소실(燒失)되고 남은 건물로 비교적 규모가 작기는 하나 1911년 7월 8일 사찰령(寺刹令) 시행규칙(施行規則)에 의하여 조선불교 30본산 중 평안남도 내에서는 평양(平壤)의 영명사(永明寺)와 함께 법흥사(法興寺)가 그 본산 중의 하나이다. 법흥사(法興寺)는 신라 시대의 『보데류지』(菩提流支) 광통율사(光統律師)가 다시 중건(重建)한바, 고려 인종(仁宗) 3년 정오(澄悟)가 왕명으로 중수(重修)한 것이다. 조선조(朝鮮朝) 시대 송유척불(崇儒斥佛)정책의 수난(受難) 속에서 남아 있는 사찰(寺刹) 수(數)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본도 내에서 평원군(平原郡)이 가장 많은 24개사가 있었다. 특기할 사실(事實)은 당대의 고승(高僧)이며 임진왜란 때의 구국(救國)의 영웅인 서산대사(西山大師)가 법흥사(法興寺)에서 불제자 1천 5백명의 승군(義僧軍)을 이끌고 평양 모란봉 전투에서 왜병을 무지르고 혁혁한 공적을 세웠던 것이다.

33)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 93~94



일제강점기 법흥사 전경(日帝强占期 法興寺 全景)

② 영천사(靈泉寺)

평원면 장림리(平原面 長林里)에 있는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청계팔경(淸溪八景)의 하나이다.

③ 청룡사(靑龍寺)

동송면(東松面) 오도산(悟道山)에 있다.

서해면(西海面)의 법당(法堂)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④ 지금은 없어진 사찰(寺刹)

(가) 영유지역(永柔地域)

약사사(藥師寺), 황갑사(黃甲寺), 봉진사(鳳進寺), 북천왕사(北天王寺), 남암사(南菴寺), 추암사(楸岩寺), 약암사(藥岩寺), 수정사(水淨寺), 불곡사(佛谷寺)

(나) 순안지역(順安地域)

남암사(南庵寺), 정양사(正陽寺), 심적사(深寂寺), 오계사(五溪寺), 참화사(參華寺), 보제사(普濟寺), 용참사(龍參寺), 신적사(新寂寺)

(다) 숙천지역(肅川地域)

동산사(東山寺), 망일사(望日寺), 백석사(白石寺), 서림사(西林寺), 청룡사(靑龍寺)

2. 고적(古跡)³⁴⁾

1) 이화정(梨花亭)

평원면 이화리에 ‘청계관’이라는 객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딸린 누각이 바로 이화정이다. 조선조 14대왕 선조(宣祖) 6년 : (癸酉(계유) 1537年) 임진왜란 당시 피난 온 선조가 왜군에게 의주(義州)까지 쫓겨 위협을 느끼게 되자 요동(遼東)으로 건너갈 뜻을 대신들에게 뜻을 비추었으나 모두 반대하였다. 후에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왜군들을 후퇴시키자 선조와 신하들이 의주를 출발, 귀로(歸路)하다 영유(永柔)에 도착한 선조는 의주에 있던 이화정을 중수케 하여 머무르며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의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당시 선조는 정자 앞의 우물을 식수로 이용하였는데, 물맛이 일품이라 이 우물에 관자를 내려주고 대부 벼슬을 주었다. 그 후 이 우물을 ‘대부정(大夫丁)’이라 부르게 되었고, 우물 옆에는 벼슬을 주었다는 품계석이 있었다. 훗날 이화정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 동북지방인 심양에 불모 되었다. 귀향하던 봉림대군(후에 효종)이 유숙하기도 했다. 이화정에 선조가 머물렀다 하여 주필각(駐蹕閣)이라고도 하고, 해근, 해봉 형제집을 3일왕도처(三日王都處)라고도 했다.

2) 삼충사(三忠祠)

평원면 영덕리(平原面永德里) 동쪽 산기슭에 있는데 1603년 조선조(선조36년) 중국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諸葛亮)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처음 명칭은 제갈량의 도호(道號)를 따서 ‘와룡사(臥龍祠)’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평안도까지 파천(播遷)했을 때 영유 지방에서 한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꿈속에서 제갈량을 보았다고 한다. 그 뒤 왜란의 극복이 제갈량의 음덕에 힘입은 바 적지 않았다고 하여 왕명으로 그의 공덕을 기리는 사당(祠堂)을 세우게 하였다. 그러나 서원(書院)이 아닌 사우(祠宇)였기 때문에 유생이 출입하거나 돌보지 않아 퇴락된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34)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 93~94

1661년(현종 2) 홍문관 부교리 이민서(李敏紱)의 실정 보고를 바탕으로 평안 감사에게 중수하게 하고, 조정에서 ‘와룡사’라는 어필 현판과 비석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다른 서원·사우와는 달리 특별히 관전(官田, 德池筒)과 공노비 약간 명을 지급하였다. 그 뒤 1695년(숙종 21) 숙종이 『송사(宋史)』를 읽다가 충신 악비(岳飛)의 충절에 감동해 그를 여기에 배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750년(영조 26) 송나라 말기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을 함께 배향하도록 하고 한편 ‘삼충사’(三忠祠)라는 사액을 내렸다.

삼충사는 국가에 대한 충절을 장려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녀 역대 왕들에 의해 건립 보호되어 왔다. 따라서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에 의한 서원·사우 철폐 때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고려태조영전(高麗太祖影殿)

미두산(米豆山) 남쪽 중턱에 있었는데, 내부 중앙에 태조 영정을 봉안(奉安)했고, 좌우에 12 장군과 동서 벽에는 37 공신(功臣)의 상(象)을 그린 화폭(畫幅)이 있었다. 제삿날과 명절이면 등에 불을 켜고 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입춘(立春)에는 지방의 수관(首官)이 제사를 지냈다. 지금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다.

4) 사직단(社稷壇)

평원면 부용리 사덕동(四德洞) 앞 큰길 옆에 있었는데, 사직(社稷)이란 사(社)는 태사(太社)요, 직(稷)은 태직(太稷)이다. 사(社)는 토신(土神)이고, 직(稷)은 곡신(穀神)인데, 임금이 될 때는 사직을 세우고 제사하여 나라와 존망을 같이 한 데서 온 말로서, 이곳은 사직(社稷)을 모신 제단(祭壇)인데 지금은 빈터에 비석(碑石)과 석물(石物)들이 흩어져 있다.

5) 학사대(學士臺)

영유(永柔) 남쪽 월평리(月坪里) 구릉(丘陵)에 있는데, 정상(頂上)에 넓은 반석(盤石)이었다. 1592년 선조(宣祖)가 임진왜란을 피하여 6월 11일 영유를

거쳐 6월22일 의주(義州)까지 몽진(蒙塵)하였다가 1593년 귀경길에 4월 13일 영유에 도착하여 68일간 체류하는 동안 학사대에 즐겨 올라 주위산천을 전망했다 한다. 현종(顯宗) 경자(庚子, 1660)에 이공민(李公敏)이 영유 현령(永柔 縣令)으로 있을 때 자주 즐겨 올랐으므로 지방민이 학사대(學士臺)라 칭(稱)하게 된 것이다.

6) 대부정(大夫井)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선조(宣祖)가 영유(永柔)에 체류할 때 식수로 쓰던 우물에 관자(貫子)를 하사(下賜)하고 「大夫」를 봉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大夫井」이란 석비(石碑)가 있다. 따라서 그 소재지를 대부리(大夫里)라 한다. 대부정은 속리산의 정이품(正二品) 소나무와 함께 유명하다.

7) 성산서원(星山書院)

순안면 남산리(順安面 南山里)에 있었다. 조선조 인조25(仁祖) 정해(丁亥·1647년)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고려말(高麗末) 충신 정몽주(鄭夢周)와 현감(縣監) 한우신(韓禹臣)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創建)하여 위패를 모셔 춘추 2회 제사를 지냈다. 숙종(肅宗) 병자(丙子·1694년)에 사액(賜額)을 받아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사우(祠宇)·강당·동재(東齋)·서재(西齋)등이 있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에 훼철(毀撤) 되었다.

8) 당장대(唐將臺)

검산면 검흥리(檢興里)와 검양리(檢陽里) 일대에 형태가 큰 분묘(墳墓) 같은 것이 많다. 그 내부는 2~3평 정도의 석실(石室)로 되어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이를 당군(唐軍)의 진지(陣地)였다고 전한다. 이 일대를 당장대(唐將臺)라 한다.

9) 신도비(神道碑)

검산면 검흥리(劍山面 檢興里)에 있다.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가 잠시 쉬고 간 곳이라 하여 해주 최씨(海州 崔氏) 문중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비석이라 한다.

10) 배회정(徘徊亭)

순안면 남창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빈터만 남았다.

11) 관덕정(觀德亭)

순안골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3. 고성지(古城址)³⁵⁾

평원군(平原郡) 고성지(古城址)

본 군은 평양(平壤)의 외곽이고 지세(地勢)로 보아 서쪽은 대평야가 펼쳐져 있고 동쪽은 묘향산맥(妙香山脈)의 지맥(支脈)이 내려왔고, 남쪽도 고준(高峻)한 산들이 있는데, 이 동쪽 가까이 경의국도(京義國道)가 생겨서 숙천(肅川) 영유(永柔) 순안(順安)을 거쳐서 남으로 서울, 북으로 신의주(新義州)로 통한다. 이 때문에 이 3개 지역은 역사적으로 대륙(大陸)과의 관계나 남북 왕래에 있어서 항상 그 통로가 되고 자고(自古)로 전란이 있을 때마다 이 지역 백성들은 종군(從軍)도 해야만 했고, 또 그 전화(戰禍)에 시달려야 했다.

그 옛날 순안성(順安城). 영유성(永柔城). 숙천성(肅川城)은 나란히 서서 이 땅을 수호하는 요충지였다. 평원군(平原郡)은 9개 성(자모산성 제외)을 가진 본 도내에서 제일 많은 성(城)이 있었던 고장이다.

4. 산성(山城)³⁶⁾

1) 영유산성(永柔山城)

35)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 88

36)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 88~90

고려(高麗) 태조(太祖) 12년 3월에 영청진(永淸鎭)에 대상염상(大相廉湘)을 보내 흙으로 성(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4천3백80척, 높이가 9척이며 안에 우물14 와 못들이 있다. 또 군창(軍倉)이 있다. 또 938년에 영청현(永淸縣)의 성(城)을 다시 쌓았다. 예종(睿宗) 10년에 다시 또 영청현(永淸縣)에 성(城)을 쌓으니 길이가 671간(間), 문(門)4, 수구(水口)1, 성두(城頭)4, 차성(遮城)2를 두었다.

2) 고소토성(古小土城)

평원면 괴천리(平原面 槐泉里) 북단(北端)에서 부용리(芙蓉里) 동북단(東北端)에 이르는 향교(鄉校) 북쪽에 있는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현의 북쪽 1리에 있다. 둘레가 1천8백20척, 높이가 14척이다. 안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성(城)의 북부를 영원진(寧遠鎭)이라 했다.

3) 순안성(順安城)

고려(高麗) 태조(太祖) 12년 3월에 안정진(安定鎭)에 축성(築城)하였다고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되어 있다.

4) 숙천성(肅川城)

고려(高麗) 태조(太祖) 11년에 진국성(鎭國城)을 옮겨다 쌓고 이름을 통덕진(通德鎭)으로 고쳤는데 윤충인(尹忠仁)을 진두(鎭頭)로 삼았다.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4천50척, 높이가 20척이며, 안에 우물 5개가 있다.

5) 호전성(虎田城)

숙천(肅川) 동쪽 20리에 있다.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9천 7백 10척, 높이가 13척인데 지금은 없어졌다.

6) 고성(古城)

숙천(肅川) 북쪽의 당산은 진산(鎭山)인데, 그 동쪽에 구성지(舊城址)가 아

직 남아있다.

7) 고행성(古行城)

“숙천(肅川) 서쪽30리 바닷가에 있으니 길이가 1만 8천 8백 17척인데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다. 서해면 고성리(西海面 古城里)에 있는데 그 기지(基地)가 아직 남아 있고 구축(舊築)이 간간히 완연하다.

8) 용성(甕城)

고려(高麗) 시대에 서해안(西海岸) 방비의 요새(要塞)로 축성했는데, 용호면 관성리(龍湖面 館城里)에 그 토성지(土城址)가 남아 있다.

제9장. 민속(민속예술 포함)³⁷⁾

1. 세시 풍속(歲時 風俗)

1) [정월]정초(正初) 명절

음력 정월 초하룻날은 연중 명절(名節) 중에서도 으뜸가는 명절(名節)로서 민속(民俗)의 종류도 가장 많다.

(1) 정초 제사(茶禮)

본 군(本郡)에서는 제사(祭祀)를 밤중(초하룻날 子時~丑時 사이, 즉 밤 12시~2시 사이)에 조상제사(祖上 祭祀)를 지낸다. 축시(丑時)가 지나면 닭이 울고, 닭이 울면 신(神)은 왔다 돌아가신다는 뜻에서이다.

제찬(祭饌)은 밥, 국, 고기, 지짐, 산적, 건어(乾魚), 포(乾肉), 나물, 김치, 식혜, 대추, 밤, 꽃감, 배, 과절 등을 진설하고 병풍에 지방(紙榜)을 써 붙이고, 촛불을 밝힌 후 제주(祭主)가 분향재배하고 술을 따른 후, 이어서 자손들이 조상 앞에 재배하다.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잠들었다가 새벽 일찍 일어난다.

(2) 세배(歲拜)

아침 일찌기 명절옷으로 갈아입고 먼저 조부모, 부모에게 세배(歲拜)를 드린 후, 친척과 동리 어른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린다. 어른들에게는 「과세 안녕하십니까」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등 인사말을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게」 「금년에는 더욱 소원성취하시게」 「올해는 좋은 신랑감(신붓감) 만나야지」 「새해에는 공부 더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등 장유(長幼)와 신분에 맞는 덕담(德談)으로 축하하고, 장년들에게는 술과 안주 또는 만둣국을 대접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세뱃돈과 엿, 강정, 과일 등을

37)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의 명절과 세시풍속

주었다. 세배는 대개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계속되나, 경우에 따라 또는 먼 곳의 어른들에게는 대보름까지 드리는 것이 보통이다.

(3) 삼재(三災) 풀이

삼재(三災)란 불길한 운성(運性)의 하나로 액년(高年)을 당한다는 뜻인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삼재조(三災條)에 의하면 삼재 벌(三法)이란 다음과 같다

12지(十二支)의

사(巳) · 유(酉) · 축(丑)년생은 - 해(亥) · 자(子) · 축(丑)년에

신(申) · 자(子) · 진(辰)년생은 - 인(寅) · 모(卯) · 진(辰)년에

해(亥) · 묘(卯) · 미(未)년생은 - 사(巳) · 오(午) · 미(未)년에

인(寅) · 오(午) · 술(戌)년생은 - 신(申) · 유(酉) · 술(戌)년에

삼재(三災)가 든다고 하는데, 삼재(三災)는 나서부터 9년마다 든다. 남녀를 물론 하고 그해에 삼재가 든 사람은 세 마리의 매(鸚)를 그려서 방문 위에 붙혀두면 재액(災厄)을 면한다고 한다. 그리고 삼재든 사람은 그해에는 무슨 일에든 삼가고 또 조심한다.

(4) 쥐불놀이(鼠火戲-上子日)

음력 정월(正月) 첫째 쥐 날(子日)에는 쥐불(鼠火)이라 하여 마을마다 청소 년들이 자기 동리 부근에 있는 밭이나 논두렁에 해가 지면 일제히 불을 놓아 잡초를 태운다. 두 자만을 써서 높이 띄워 날려 보내는데 연줄 가까이 솜방망이에 불을 달려 높이 올리면 연줄이 타서 끊어져 연은 나가고 실은 자위(얼레)에 감는다.

쥐불놀이는 쥐의 해를 막기 위해 쥐를 박멸하기 위한 것과 전답의 해충을 제거하고 또 새싹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5) 소날(丑日)

음력 정월(正月)의 첫 번째 소 날(丑日)은 소의 명절(名節)이라 하여 농가

(農家)에서 소중한 소에 대하여 고마운 뜻으로 이날은 특별히 콩을 많이 넣은
여물을 삶아주며 소 몸에 빗질이나 등을 빗자루로 쓸어주기도 하며, 이날에
일을 시키면 쟁기가 상한다 하여 소를 놀린다.

(6) 대보름(正月 十五日)

음력 정월(正月) 15일을 「대보름」이라 하여 명절(名節)로 지내는데, 정월
명절의 마지막 명절이다. 16일부터는 농가(農家)일을 시작하게 된다

전날(14일) 해 질 무렵에는 액연(厄薦)을 띄워 보내기를 하여 초하룻날부터
띄우던 연에 송액문(送厄文)을 쓰거나 송액(送厄) 이날 밤은 어린이들까지 자
면 눈썹 쎄다 하여 늦도록 놀게 하고 만무와 송편 등을 빙는다.

잠자는 아이들에게 눈썹에 밀가루를 발라 쎄 눈썹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① 이뺨이 옅, 명길이가 국수, 귀밝이 술

대보름날 아침 주부는 가족들을 깨우고 미리 준비했던 옅을 나눠주며 이뺨
이 옅이라면서 치아가 건강해진다고 뜻을 붙인다

다음, 명길이가 국수라 하여 미리 받아다 두었던 냉면 사리에 따끈한 국을
부어 온면으로 하여 식구들이 수명장수의 뜻으로 즐겨 먹는다. 어른들은 새벽
에 귀밝이술(耳明酒)이라 하여 청력(聽力) 보강(補強)의 뜻으로 술을 마신다

② 오곡(五穀) 밥

이날에는 오곡밥이라 하여 조, 수수, 쌀, 팥, 콩, 기장 등의 오곡(五穀) 잡곡
(雜穀)으로 밥을 지어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는다.

③ 채나물(陳菜食)

대보름날에는 고사리, 버섯, 호박고지, 가지말랭이, 외말냉이, 무시래기 등
햇빛에 말린 것을 깨끗이 물에 씻어서 삶은 후, 간을 맞춰 먹는데 이 채나물
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④ 달맞이(望月)

대보름날 초저녁에는 동리 청소년들이 동산이나 언덕에 올라, 달이 올라오
는 것을 기다리다가 「망월 달 올라온다」 하고 함성을 울리고 휘황찬란한 새
해의 첫 말을 구경하는데, 어른들은 달빛을 보고 한 해를 예측하는데 달빛이

붉으면 가물고, 희면 장마가 많고, 또 윤곽과 사방의 후·박으로써 점치는데 북쪽으로 닿으면 산골이 풍년되고, 남쪽으로 치우치면 바닷가에 풍년이 든다 하였다.

⑤ 육 점

대보름 달맞이를 한 후 살내에 모여 앉아 육을 던져서 첫날의 신수점을 치는데, 그 방법은 차례로 먼저 옷을 세 번 던져서, 예를 들어 첫 번에 도, 두 번째 개, 세 번째 걸이 나왔다면 점과 도, 개, 걸이므로 주역(周易) 64괘의 해당 과를 찾아 점사(占辭)를 읽어보아 점을 치는 것이다.

옷 점괘와 64 점사(占辭)

- 도도도 건괘(乾卦)-(어린아이가 자모를 만났다)
- 도도개 이괘(履卦)-(주가 창고 집에 들었다)
- 도도걸 동인괘(同人卦)-(어두운 밤에 촛불을 얻다)
- 도도모 기망과(无妄卦)-(과리가 봄을 만났다)
- 도개도 구괘(始卦)-(큰물이 거슬러 흐른다)
- 도개개 송괘(訟卦)-(죄 있는 중에 공을 세웠다)
- 도개걸 돈괘(返卦)-(나비가 등잔을 쳤다)
- 도개모 부괘(否卦)-(쇠가 불을 만났다)
- 도걸도 쾌괘(央卦)-(학이 깃을 잃었다)
- 도걸개 태괘(兌卦)-(주린 자가 먹을 것을 얻었다)
- 도걸걸 혁괘(革卦)-(용이 큰 바다에 들었다)
- 도걸모 수괘(隨卦)-(거북이가 대밭에 들었다)
- 도모도 대과과(大過卦)-(나무에 뿌리가 없다)
- 도모개 곤괘(困卦)-(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
- 도모걸 함괘(咸卦)-(사람이 옷을 얻었다)
- 도모모 취괘(萃卦)-(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었다)
- 개도도 대유과(大有卦)-(해가 구름 속에 들었다)
- 개도개 계괘(睽卦)-(장마때에 해를 보았다)
- 개도걸 이괘(離卦)-(활이 살을 잃었다)

개도모 서합과(呶卦)-(새가 날개가 없다)
 개개도 정과(鼎卦)-(약한 말이 짐이 무겁다)
 개개개 미제과(未濟卦)-(학이 하늘에 올랐다)
 개개걸 여과(旅卦)-(주린 매가 고기를 얻었다)
 개개모 전과(晉卦)-(수레에 두 바퀴가 없다)
 개걸도 대장과(大壯卦)-(어린아이가 젖을 얻었다)
 개걸개 귀미리(歸妹卦)-(중한 병에 약을 얻었다)
 개걸걸 풍과(豐卦)-(내비가 꽃을 얻었다)
 개걸모 진과(震卦)-(활이 살을 얻었다)
 개모도 항과(恒卦)-(잘 모르는 손님에게 절하여 뵈었다)
 개모개 해과(解卦)-(강물 고기가 물을 잃었다)
 개모걸 소과과(小過卦)-(돌 위에 무늬가 났다)
 개모모 예과(豫卦)-(용이 여의주를 만났다)
 걸도도 소축과(小畜卦)-(큰 고기가 물에 들었다)
 걸도개 중부과(中孚卦)-(더위에 부채를 얻었다)
 걸도걸 가입과(家人卦)-(매가 발톱이 없다)
 걸도모 익과(益卦)-(강 속에 구슬을 던졌다)
 걸개도 찬과(巽卦)-(용의 머리에 뿔이 났다)
 걸개개 환과(渙卦)-(가난하고 천하다)
 걸개걸 점과(漸卦)-(가난한 선비가 녹을 얻었다)
 걸개모 관과(觀卦)-(고양이가 쥐를 만났다)
 걸걸도 수과(需卦)-(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었다)
 걸걸개 절과(節卦)-(소가 풀과 콩을 얻었다)
 걸걸걸 기제과(既濟卦)-(나무꽃이 열매를 맺었다)
 걸걸모 둔과(屯卦)-(중이 속인이 되었다)
 걸모도 정과(井卦)-(행인이 집생각이 난다)
 걸모개 감과(坎卦)-(말에 채찍이 없다)
 걸모걸 건과(蹇卦)-(행인이 길을 얻었다)

결모모 비과(比卦)-(해가 이슬을 비었다)
 모도도 대축과(大畜卦)-(부모가 아들을 얻었다)
 모도개 손과(損卦)-(공이 있으나 상이 없다)
 모도걸 분과(賁卦)-(용이 깊은 못에 들었다)
 모도모 신과(頤卦)-(소경이 바로 문으로 들어갔다)
 모개도 충희(蟲卦)-(어두운 곳에서 불을 보았다)
 보개개 몽과(蒙卦)-(사람이 손과 팔이 없다)
 모개걸 간과(長卦)-(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모개모 반리(剝卦)-(작 궁이 줄이 없다)
 모걸도 태과(泰卦)-(귓가에 바람이 불다)
 모걸개 임과(臨卦)-(어린아이가 보배를 얻었다)
 모걸걸 명이과(明夷卦)-(사람을 얻었다가 도로 잃었다)
 모걸모 복괘(復卦)-(어지러워 길하지 못하다)
 모모도 승과(升卦)-(일이 생겨도 망연하다)
 모모개 사과(師卦)-(고기가 낚시를 물었다)
 모모걸 겸과(謙卦)-(나는 새가 사람을 만났다)
 모모모 곤과(坤卦)-(형이 아우를 얻었다)

⑥ 연 띄우기

연에는 약간의 구형(矩形) 4각형의 「큰 연」과 「작은 연」 그리고 3각형에 꼬리를 붙인 「가오리연」 등이 있다. 청소년들이 정월 초하루부터 작은 보름(14日)까지 연을 띄우는데 경연(競演)으로 높이 올리기와 「연싸움」인 끊어먹기를 재미로 한다. 연실에다 사기 가루를 먹여 서슬이 있게 하여 다른 연줄에다 걸고 빨리 연줄을 놓아 베어먹는 것이다.

그 밖에 연을 높이 올렸다 다시 거꾸로 내렸다 하고, 세로로 가로로 뒤로 홀로 보냈다 자유자재로 솜씨를 발휘한다.

14일 저녁에는 「액연을 띄운다」 하여 연에다 송액「松液」 두 자를 쓰기도 하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액문(送厄文)을 써서 연 목줄에다 솜방망이를 달고 불을 붙여 높이 올라간 뒤 타서 끊어져 나가면 「연 나간다. 함성과 함께 멀

리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연 자위(얼레)에 빨리 남은 실을 감아야 한다.

⑦ 널뛰기

정초명절(正初名節)의 여자 유희로서 널뛰기는 유명하다. 기다란 널판(대개 길이 2m가량, 넓이 50cm가량)을 짚 무늬이나 가마니 문치 위에 절반을 걸쳐놓고 널판 양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서로 구르고 뛰는 것인데, 젊은 여성들이 빗갈이 찬란한 아름다운 치마저고리를 입고 새해 새날의 공중을 서로 번갈아 솟았다 떨어졌다 노는 모양은 참으로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이 널뛰기는 옛날부터 전승해 오는 한국의 독특한 풍습으로서 경도잡지(京都雜誌) 도판회조(跳板戲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류우꾸(琉球)」에도 널뛰기 같은 판무(板舞)라는 것이 있으나. 이는 조선조 초기에 「류우꾸」 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왔을 때 우리 것을 보고 본받아 간 것이라고 하였다. 고려(高麗) 말년에서부터 조선조 중종(中宗) 때 사이에는 「류우꾸」 나라 사절(使節)의 내조가 빈번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표루민이 한동안 우리 국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간 일도 있었으니 이들에 의하여 판무(板舞)가 전하여진 것이다.

⑧ 옷놀이

정초(正初)의 유희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옷놀이는 오락으로서 가장 정초의 정취를 갖는 특수한 놀이로서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한다.

본 군(本郡)에서는 강낭콩(땅콩)이나 빨간 콩 같은 것을 반씩 쪼개서 네 쪽을 가지고 토수나 종이로 토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모나 쑹(육)」이나! 외치며 집어넣는다. 두 명이나 여러 명이 편을 갈라 경쟁을 하는데, 먼저 29 동그라미를 그린 「말판」을 놓고 옷을 두어 말을 써서 승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면 옷을 두어 그 나타나는 것을 보아 입구에서부터 말을 쓰는데, 옷 네 개가 다 없어진 것을 모라하고, 네 개가 다 자빠진 것을 쑹(옷)이라 하고, 세 개가 없어지고 한 개가 자빠지면 토라 하고, 두 개가 없어지고 두 개가 자빠진 것을 개라 하고, 한 개가 없어지고 세 개가 자빠진 것을 걸이라 한다. 그리고 토는 한자리, 개는 두 자리, 걸은 세 자리. 쑹(육)은 네 자리. 모는 다섯 자리를 가는 것이다. 또한 말을 잘 쓰고 못 쓰는 데도 승패의 원인이 많으며 자리를 거쳐 가는데도 돌아서 가는 길과 질러가는 길이 있는데, 말 네 개

가 모두 다 출구로 먼저 나가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⑨ 입춘방(立春榜)

음력 정월 초하루는 역년(曆年)의 시작이고, 입춘(立春)은 절후상(節候上)의 첫날이 된다. 입춘(立春)이 되어도 아직 추위는 남아 있다 해도 낮의 길이가 알아볼 수 있게 길어지고 재 봄을 상상할 수 있는 희망의 절후(節候)이다. 옛날부터 입춘에는 경향 각지에서 입춘방(立春榜)을 써 붙이게 되었는데, 본 군(本郡)에서는 대문,기둥,대들보 등에 국가의 태평과 가정의 번영과 행복과 재운을 기원하는 입춘방을 써 붙이는데 흔히 다음과 같은 글귀들을 써붙인다.

2) [2 월]

(1) 노래기 부적(符籙)

음력 2월 1일엔 집 안밖을 깨끗이 청소한 후, 노래기(노루각시)를 좋기 위해 「香娘閣氏 速去千里」(향낭각시는 속히 천리 밖으로 가버리라)라는 부적(符籙)을 써서 각방 석가래에 붙이기도 하고, 또 술 잎사귀를 추녀 끝에 끼워 두기도 한다. 이는 농촌 가옥이 대개 초가라 노래기(香娘閣氏: 노루각시)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것을 쫓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다.

(2) 풍년놀이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서 자녀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목화송이를 무수히 매달아서 목화(木花·棉花)가 만발한 모양을 만들고, 또 몇 개의 여자 인형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달아놓아 목화를 따는 형상을 만든다. 그리고 수수깡으로 오곡(五穀) 모양을 만들어 수수대에 꽂아 가지고 여러 개를 목화나무와 같이 담장 위에 나란히 세워 놓고 즐긴다.

(3) 춘기문묘석전(春期文廟釋奠)

2월의 첫번째 정(丁)일을 상정일(止丁日)이라 하여 해마다 이날이 되면 공자(孔子)와 기타 명현(名賢)들의 위패를 안치한 문묘(文廟)에게 유생(儒生)들이 포여 대제를 지내는데, 사제(司祭)는 홀기(笏記)에 따라 초헌(初獻)은 군수

(郡守),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은 군내의 덕망 있는 유생(儒生)이 행한다.

문보 석전(文廟釋奠)은 준수로 두 번 행하는데 이 때는 꼭 소를 잡소 의의를 갖추어 엄숙하게 대제를 지난다. [春大吉 建陽多慶 國泰民安 家給人足]

(4) 꽃샘 (花妬媚)

2월 중에는 바람과 비가 차서 마치 겨울 같으므로 이때를 「꽃샘 이라고 하는데, 속담에 「2월 바람에 장독 터진다」 라고 하며, 또 「꽃샘에 늪은이 얼어 죽는다」 라고도 한다.

(5) 한식(寒食)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寒食)이라 하는데, 청명(淸明) 다음날이 되며, 혹은 청명(淸明)과 같은 날이 되기도 한다. 또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한다. 본래는 4대 명절의 하나였으나 근래에는 명색이 쇠퇴되었다. 이날은 조상의 묘소(基所)를 찾아서 주과포병(酒果脯餅)과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성묘를 하고 석(碑石) 등을 세우기도 하며, 이장(移葬)을 할 때도 한사초(莎草)도 하고, 분묘에 가토(加土)를 하거나 상석(床石)·비식(寒食)을 맞아서 한다.

한식(寒食)의 기원(起源)에 관하여는 대가 중국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음을 불쌍히 여겨서 이를 조위하는 고사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으나 유향별록(劉向別錄)에 [寒食部蹴 黃帝所作兵勢也]라고 적혀 있음을 보아 벌써 그 이전에 있었음을 가히 알 수 있다.

3) [3월]

(1) 3월 3일

보통 3월 삼짇날이라 하는데 흔히 강남(江南) 갔던 체비가 돌아온다는 양춘가점(陽春佳節)이 되어 산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하므로 화전(花煎)놀이도 하고 꽃을 따다가 진달래 술도 담근다. 또 이날에는 나비도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만일 흰나비를 먼저 보면 그해에 상복(喪服)을 입게 된다고 하며, 노랑

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그 해에 운이 좋다고 하는 말이 전해온다.

(2) 화전(花前) 놀이

산에 만발한 진달래꽃과 어울려 버들이 물들어서 한창이니, 날은 화창하고 자연에 이끌리어 지방의 유생들이나, 노인은 노인들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부인네들은 부인네들끼리 음식과 주호(酒肴)를 준비해 가지고, 꽃피고 경치 좋은 산을 찾아 자연 가운데서 하루를 즐기는 것이다.

(3) 색시놀이

해마다 3월이 되면 여자 어린이들이 달래 잎을 뜯어다가 가는 수숫대를 잘라 치마를 입히고 달래 잎으로 머리 모양을 만든다. 종이를 저고리를 만들어 부쳐서 색시 모양을 만들고 종이를 접어서 병풍을 만들고 요·이불·베개를 만들어 색시놀이를 한다

(4) 버들피리

남자 어린이들은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비틀어서 껍질을 통째 벗겨서 적당히 만져서 피리를 만들어 불고 돌아다니면서 논다.

(5) 풀쌈

농촌 아이들이 들에서 풀줄기를 뜯어 끝에서 물이 나오면 서로 마주 대어 상대방으로 물방울이 옮겨가면 지는 것이니 이것을 「풀쌈」이라고 한다.

4) [4월]

(1) 4월 초파일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인 고로 모든 사찰(寺刹)에서 일대축하행사를 벌인다. 이날 절에는 많은 등을 달아서 일대 장관을 이루고 저녁에 불을 켜면 더욱 볼만하다. 선남선녀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각기 절에 가는데 절에서는 큰 제를 올린다. 예전에는 가가호호에 등을 달아서 동리가 환하

게 밝았다. 그 집안 자녀의 수대로 등을 켜면 모두 길하다고 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사찰 아닌 민가에서는 보기가 드물게 되었다.

(2) 봉선화 물들이기

봉선화꽃이 필 때가 되면 소녀들과 부인들까지 봉선화꽃을 따서 백반을 섞어서 짙어 가지고 손톱에다 물을 들인다. 이 습속은 붉은 색은 사거(死去)를 물리친다는 오행설에서 나온 듯한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5) [5월]

(1) 단오(端午)

5월 5일은 단오(端午)라 하여 4대 명절의 하나로서 천중절(天中節) 혹은 중오절(重五節) 이라고도 한다. 본 군(本郡)에서는 특히 큰 명절로 지내는데 순안(順安)·암치내(岩赤)·영유(永柔)·숙천(肅川)·한천(漢川)·중교(中橋) 등 큰 고장에서는 남자의 씨름대회와 여자의 그네뛰기 대회가 벌어졌다. 이날은 남녀 노소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씨름관으로, 그네 터로 모여들어 하루를 크게 즐긴다. 씨름에 우승한 장사(壯士)에게는 황소를 상으로 주고, 그네뛰기에는 금반지나 광목(廣木)등을 상품으로 주었다.

특히 영유(永柔)의 단오놀이는 유명하여 시장 한복 관에 단을 매고 당번(幢香)을 띄우고 단오굿을 하여 많은 구경꾼이 모이기도 했다. 사승정 씨름 터에는 평원, 노지, 조운, 청산, 석암 방면에서 많은 인파가 모여와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원근 각지에서 참가한 큰씨름꾼들의 승패를 가릴 때마다 함성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또 여자 그네뛰기는 삼충사(三忠祠) 앞 큰나무 가지에 맨 그네 터에서 이루어졌다. 대개 영유(永柔) 단오 행사는 2일간에 치렀다. 숙천(肅川)에서는 향교(鄉校) 뒤 소재 등에서 인근 검산·조운·동송·서해면 등지에서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5월 5일과 6일 양일간 그네뛰기, 널뛰기, 남사당놀이 등 단오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2) 단오(端午)와 부채

옛날부터 조선조 말기까지는 해마다 단오날에 공조(工趙)에서 부채를 만들어 국왕에게 진상하면 이것을 재상(宰相)과 신하들에게 나눠 주었다

한편 호남과 영남의 방백(方伯) 및 절도사들이 각기 그곳 특산품으로서 부채를 궁중에 진상했고, 또 조관과 친지들에게 선사하였다. 부채는 전주 남평(南平), 나주(羅州)에서 만든 것을 가장 좋다고 하였다.

부채의 종류는 허다하여 생략하는데, 혼례 때에는 어느 계절이고 얼굴 가리개용으로 신랑은 청색, 신부는 홍색을 사용했다. 일반용 외에 무당이나 창우(倡優) 등이 쓰는 색채가 찬란한 것도 있다.

(3) 창포탕(菖蒲湯)

단오날에는 남녀 아동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여자들은 창포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꼈었다.

6) [6월]

(1) 유두(流頭)

6월 6일을 유두날이라 하여 산수(山水) 좋은 곳을 찾아 머리를 감고 몸도 씻고 더위를 식히며 하루를 쉰다.

차차 유두날의 습속은 없어졌으나 본 군(本郡)에서는 부인들이 함께 「냉청」 맞으러 주로 영천사(靈泉寺)가 있는 절골 냉청을 찾아 머리에 찬물을 맞으러 갔는데 두통이 없어지고 여름 내 더위를 먹지 않고 무병하다고 했다.

(2) 복 놀이

하지(夏至)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넷째 경일(庚日)을 중복(中伏), 입추로부터 첫째 경일(庚日)을 말복(末伏)이라 하니, 이것을 삼복(三伏)이라 하는데,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때를 말하는 것이다.

본 군(本郡)에서는 더위를 피하고 피로를 풀기 위하여 개장 추념을 한다. 소주를 나누고 개장으로 안주를 하고 개장국에 조밥 상반을 받아먹으니 이는 더위를 물리치고 보신을 위함이다.

(3) 약수(藥水)

옛날부터 복 중에 약수를 마시면 위장병이 잘 낫고, 건강에 좋다 하여 가족 또는 친구들이 같이 검산 약수(檢山 藻水)터를 찾아가서 마시고 또 병에 넣어 오기도 했다.

(4) 향두꾼 놀이(農樂)

6월은 논 김매기가 한창인 농번기로서 일손이 바쁜 때이므로 일의 능률을 올리고 또 피로를 풀면서 즐겁게 일하기 위하여 향두꾼 놀이(農樂)를 한다. 서로가 차례로 일을 도와서 협동하는데 뜻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기를 선두로 복, 징, 팽과리, 새 낱을 놀리며 때로는 춤도 추면서, 아침 일찍이 일터로 나갈 때나. 논두렁에서 논두렁으로 옮길 때, 점심 직후, 해가 저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놀이를 한다.

7) [7월]

(1) 칠석(七夕)

7월 7일은 칠석날이라 한다. 이날 밤에는 은하수(銀河水) 서쪽의 견우성(牽牛星)과 동쪽의 직녀성(織女星)이 은하수(銀河水)에 다리가 없어서 바라보고 그리기만 하다가 해마다 이날이 되면 까마귀와 까치들이 놓은 오작교(烏熱橋)를 건너 1년에 단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때문에 이날에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다리를 놓기 위하여 은하수(銀河水)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돌을 머리에 이고 나르기 때문에 이날이 지나면 까마귀와 까치들의 머리털이 빠진다고 하였다.

칠석날 밤에 비가 내리면 견우(초牛)와 직녀(織女)의 애절한 눈물이라고 한다. 중국 제해기(齊諧記) 탄 책에 있는 이야기로, 이것이 우리 민간에 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2) 백중(百中) 날

음력 7월 15일은 백중(百中) 날, 또는 백종일(百種日), 또는 중원(中元)이라고 부른다. 신곡(新穀)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백 가지 종자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나 점점 사라져 가고 이름만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고려 때와 같이 불교(佛敎)가 성하던 시대의 우란분회(盂蘭盆會)의 불공(佛供) 들이는 날이기도 하여, 지금도 각 사원에서 부처님께 백과(百果)와 나물을 갖추어 공양한다.

(3) 짜리 붙기

울 밑의 짜리가 빨강게 익으면 소녀들은 서로 다투어 짜리를 따서 바늘로 살금살금 씨를 다 꺼내 버리고 그것을 입안에 넣고 이로써 가만히 누르면 빠드득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짜리를 붙였다.

8) [8월]

(1) 추기문묘석전(秋期文廟釋奠)

8월의 첫 번째 맞는 정(丁) 일에, 2월 상정일(上丁日)과 마찬가지로 문묘에 제향(祭享)을 올린다.

(2)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이 추석(秋夕) 인데, 중추절(仲秋節) 이라고도 한다. 각종 명절 중에서도 추석(秋夕)을 성대하게 지내는데 채로 거둔 오곡백과(五穀百果)로 떡과 술을 빚어 많은 재물을 차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가족들이 산소(山所)에 가서 성묘(省墓)를 한다. 햇찹쌀로 찰떡(인절미)을 치고, 맷쌀(입쌀)로 절편과 송편을 만들고, 기장 쌀로 노치를, 녹두로 지짐을 지지고, 기타 갖가지 음식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각색 과일을 갖추어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성묘(省墓)를 가는 이날은 해마다 기다려지는 명절이다.

9) [9월]

(1) 9월 9일

9월 9일을 중양(重陽)이라고도 하는데 양수가 겹쳤기 때문이며 중구(重九)라고도 했다. 이때가 되면 단풍노래가 시작된다. 본 군(本郡)에서는 흔히 9월 9일부터 도시제(都時祭)를 지내고, 그 후 정해진 날에 중시제(中時祭), 소시제(小時祭)의 순으로 시향을 지낸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제비가 강남(江南)으로 간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10) [10월]

(1) 개천절(開天節)

먼 옛날부터 상달 초사흘날(10월 3일)을 개천절(開天節) 또는 개천일(開天日)이라 하여,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개국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대종교(大宗教)에서는 대제를 행하며 국경일로 정해 엄숙히 기념식을 거행해 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국경일로 기념하는 날이다.

(2) 김장

우리나라 음식물 중에 특히 동절의 부식물로는 김치 위에 더한 것이 없으니 대개 이때 김장을 한다. 김장에는 김치, 동치미, 깍두기, 장김치, 찐김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무, 배추를 주로 하여 마늘, 파, 생강, 고추(당수), 자, 소금, 새우젓, 또는 밤, 굴절 등을 필요 재료로 하여 큰 질독에 담가 땅에 묻는다. 그런데 본 군(本郡)에서는 양념감으로 고추(당추)를 쓰되 많이 넣지 않는다.

11) [11월]

(1) 동지(冬至)

11월을 동짓달이라고 부르며, 동짓날은 양력 12월 22일에 해당하는데 속칭 아세(亞歲)라고도 했다. 이날은 고대(古代)에 정월(正月)로 삼았던 유풍으로 작은 정초로 생각하여 뜻있게 여겨 집마다 팔죽을 쑤어 먹는다. 이 동지

죽 속에는 찹쌀가루로 새알만 한 몽텅이(새알심)를 빚어서 넣는다.

(2) 책력(冊曆)의 반포

옛날 관상감(觀象監)에서 해마다 동(冬至)짓날에는 다음 해 해의 역서(曆書)를 만들어 궁중(宮中)에 바치면 황장(黃裝)한 것과 백장(白裝)한 것을 각궁(各宮)에 나누어 주었는데 표지에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동리 서리(書吏)들은 유생과 친지들에게 책력(冊曆)을 선물로 보냈다.

12) [12월]

12월을 서웃달 또는 설달이라고도 한다.

(1) 납일(臘日)

동지(冬至)에서 세 번째 술(戌)일, 음력 12월 8일을 납일(臘日)이라 한다. 이날에는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에 대향(大享)을 거행하니 이것을 납향(臘享)이라고도 한다. 본 군(本郡)에서는 이날을 기하여 참기름(眞油)을 달여서 연말연시에 쓸 준비를 했는데 「납일 기름」이라 했다.

13) [윤달]

윤달(潤月)은 가외의 달이므로 재액(在厄)이 없는 달로 되어있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리낌이 없다 하여 혼례, 건축, 이장(移葬), 입비(立碑), 수의(壽衣)의 재봉 등을 흔히 윤달에 마련했다.

평안도(平安道) 사투리를 표준(標準)말과 비교할 때, 그 어휘(語彙)나 발음(發音)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우리 도내(道內)에서도 지역(地域)이 광대하므로 지방(地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 지방(地方) 방언(方言)의 특색은 중앙(中央·京畿道)의 발음에 비교해 구개음화(口蓋音化 : ㄷ→ㅈ, ㅌ→ㅊ) 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며, 또 100여 년 전의 문헌(文獻)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성(中聲)을 「뚱성」으로, 「저것」을 「더것」으로, 「먹지 말라」를 「먹디 말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天」을 하늘 턴, 「地」를 따 디 등으로 모두 우리 고유(固有)의 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2. 방언 38)

저	제까지, 저까지	대접	시업, 시집
다듬이 방망이	방치	나무불상	부덩이
단장	지팽이	떡치는 그릇	떡깅이
맷돌	망	설매	발구
냉면틀	분	바리투경	바리깨
비	비짜루	책상서랍	빨함, 빼다지
성냥	성나	거울	세경
적쇠	알기쇠	연장	자분거
작은 주발	종바리	빨뿌리	빨죽, 물뿌리
상여	쌔우	팽이	세리
발가리 농구	연장	뭇그릇	웅팽이
도끼	도꾸	지게작대기	지게작섬이
도마, 칼판	칼토매기	연장 손잡이	탑조지
화로	화레		

우리 지방에서 그 고유(固有)의 발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는 우리 지방이 지난날 중앙(中央)과의 교류(交流)가 비교적 적었고, 고유(固有)의 발음(發音)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개음화(口蓋音化) 하기전의 「다, 더, 도」가 「자, 저, 조」로, 「타, 터, 토」가 「차, 처, 초」로 되고, 또 ㄴ이 ㅇ으로 변한 예(例)로 「녀자」를 「여자」로 「녘구리」를 「옆구리」로, 「넙쌀」을 「입쌀」로, 「님」을 「임」으로 발음(發音)이 변하여 표준(標準)말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평안남도지(平安南道誌)에 실려 있는 표준어(標準語)와 우리 방언(方言)을 참고로 하여 본 군(本郡)에서 쓰는 말로 기록했다.

1) 인체관계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막내둥이	꼬맹이	키다리	꼭다리
머리카락	고댕이	귀머거리	구먹댕이
옆구리	넙구리	이마	니마, 니마때기
땅다리	따배기	발가락	발꾸락, 발까락
대머리	뺨대머리	비듬	비늘
허파	섭세비	수염	쉐미
병어리	버버리, 벌찌	장님, 봉사	참봉, 쇠경
곰보	얼구멍이	쓸개	열
왼손잡이	왼쟁기	절름바리	절뚝바리
정강이	덩갱이	얼굴	상, 상판
엉덩이	궁댕이, 궁당짝	턱	턱아리, 턱주거리
주근깨	쥐깨	몸집	허우대, 허대
입천장	하누라지	혀	헤, 헤때기
배	배, 배때기	팔꿈치	팔고뱅이
발뒷굽	발뒤축	코딱지	코찌자리
부스럼	헌데	풍채	호불
딸꾹질	피기, 피검질	씹는다	깨문다

2) 복장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가죽신	갓찢	나막신	꼭두기
덧님	고매끼	기저귀	기장구
덧옷	덧조고리	비녀	통곳, 통곳
망건	맹건	양말	다비
무명, 면포	무녕	삼배, 마포	배
버선	보손, 보선	삿갓	사까디
빨래	서답	호주머니	넙차개, 험낭
옷, 의복	입성	요	포대기
여름 저고리	적삼	바지	바디
여름 하의	등에	치마	초매

3) 음식물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냉면	국수	증편	기주떡
인절미(쌀)	니차떡	수수경단	단디떡
김장	던장	쌀밥	매압, 맨자지
새우젓	배캐젓, 배카젓	누룽지	밥과줄
떡고물	보쌈이	간수	서술
시루떡	셀기떡	좁쌀밥	조팝
반찬	찜계, 건건이	빈대떡	지짐
찰밥, 찰쌀밥	차랍		

4) 건물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부뚜막	구맛갓	선반	실경
지붕위	녕마루	안마당, 들	뜨락
오막사리	마가리	못	모다구
말목	모다구	대들보	봇땅
광	후간, 쌀후간	외양간	소팅간
뒤주	토굴, 뒤지	옷거리	헛대
헛돌	토방, 토디방	부엌	백, 정재

5) 생활용구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술	가매, 가마	남비	쟁개비
가마	싱교, 가매	광주레	광지
꿀	논조	노끈	뇌긴, 농재기
단지	단다기	물동이	동에
가위	강에, 가우	자배기	벗치
숯뚜껑	소통깨, 소통	곡괭이	괭이, 꺽이
그네	건네	각귀	자구
다래끼	다랭이, 다랑치	지렛대	등장
램프등	등피	대야	세수때, 소랭이
함박	모랭이	보시기	모랭이
주걱	박죽	수저	수까락, 수갈

6) 농사관계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추수	가알	옥수수	강냉이
고추	당추	곡식	나달, 곡석
머루	얼구	배추	배체
화전	부대기	비료	걸곰
후추	고추	곡식단 더미	나까리
숨	소개	봉숭아	봉사
상치	부루	퇴비	두엄
파	팽이	해바라기	해가오리
씨앗	씨갓	참외	차무, 차메
팥	패끼, 팡		

7) 가축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개	가이	모이	멍이
강아지	개지	멍에	멍지
길마	기리매	토끼	튀끼, 튀끼
송아지	생애지	거위	게사니
고삐	꼽지, 고뻥이	꼬리	꼬랑지, 꼬랭이
소여물그릇	소궁이	씨암탉	중지닭
얼룩소	칙소, 축소	닭	지조, 굴구
고양이	오노	돼지	오래오래

8) 초목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마른참나무잎	가랑뉘	나무	남구
대싸리	답싸리	나무숲	서갈
단풍나무	시대기나무	술가지	술갱이
덩굴	덩불, 덩쿨	철	철기, 철
포기	폐기	작대기	막대기
싸리나무	싸리갱이	회양목	고향나무
아까시아	명서옥	도마도	땅파리
포푸라	미루나무	산사	짚갱이
질경이	길장구, 길장우	참포	장풍

9) 야생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까마귀	가마구, 가마귀	박쥐	빨쥐
두견새	집동새	나비	나부
부엉새	부형이	늑대	승냉이, 개승냉이
장끼	덜거기	황새	웁새
살괭이	살기	노루	놀기, 노루

10) 충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개구리	역장구, 역자구	땅벌	땃버리
여치	민칭이	벌레	벌거지
쓰르라미	씩사리	도마뱀	장지뱀
잠자리	봇쟁이	번데기	번지, 번디

11) 어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게	거이	미꾸라지	증개
메기	메사구	피래미	행베리, 날편이
장어	뱀당우	망둥이	망두기
고등어새끼	모쟁이		

12) 수관계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하나	한나	1월	정월	하루	하루
둘	두출	2월	이월	이틀	이틀
셋	서히	3월	삼월	사흘	사흘
넷	너히	4월	사월	나흘	나흘
다섯	다섯	5월	오월	닷새	닷새
여섯	여섯	6월	유월	엿새	엿새
일곱	날곱	7월	칠월	이레	니레
여덟	야들	8월	팔월	여드레	아드래
아홉	아홉	9월	구월	아흐레	아흐래
열	열	10월	시월	열흘	여름
		11월	동짓달		
		12월	섣달		

13) 시후관계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여름	너름	겨울	계울
늦가을	마갈, 마가울	아침	아츨
새벽	새박	점심	덩심
저녁	저낙	초저녁	애지낙
저녁어스름	어슬막	낙솟물	녕기새미물
눈보라	눈보래	우박	무리
별	벨	별	빌
성애	북성애	겨울 추운 때	오동짓달
홍수	탕수		

14) 지리·금석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개울	개굴, 개뚝	갯벌	감탕
언덕	든덕, 언덕배기	들	벌판
도랑	개굴창	모래	물개
자갈	자개, 자갯돌	바위	바우, 돌방구
묘	분상, 메	구리	꾸리
암반	너레등		
자네	님자	중신아비	중매비
동서	동세	며느리	메누리
사내	서날미	삼촌	아재비
형수	아지미, 아주머니	계집애	에미나
올케	오리미, 형님	고모부	작숙
인사	헌사	놈	넙
시동생	적은센	시형	아주바니

15) 인륜관계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남자들	남정덜	여인	내인
부인들	내인들	아버지	아바지
어머니	오마니	신랑	새스방
남편	남덩	여자	네펜네
남매	오누끼리	아범	애비
엄마	에미	부부	낭분이
장인	가시아바지	장모	가시오마니
처가	가시집	나그네	나가네
과부	과수, 과부	간부	곤남진이
늙은 여인	노친네	늙은 남자	닝감(뒤상)

16) 일반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잔돈	각전	공연히	괘니
화, 성년	결	심술	계중, 계중머리
핑계, 구실, 트집	언터지	거짓말	거즙뿌리
복덕방	거간	갑절	곱쟁이, 두곱
곤두박질	공동거리	괴병	건병
그사람	굿치	훈계	기갈
갯목	깨구리	재촉	깡까락
공초, 꼬투리	공다리	고나물	긴타불
꾸러미	공제기	팽과리	팽매기
연기	내, 내굴	연기냄새	낸내
기백	내털성	배웅	넌
편들어 줌	역성든다	저번	너께
계속주장	노상	변덕	노죽
늪은이	노힐	널비	너벅지
감시, 주의	닥달	말대꾸	대답질
윤기	대우	더 많이	더네미
거품	더퐁	두목	도반수
화, 피해	동토	먼지	몬주
마른 흙가루	몽당	낭떠러지	벼랑, 베랑
불충	봉창	말썽거리	무독질
잠수	물숨빼기, 소꿉질	실랑이	승갱이

표준말	북한 사투리	표준말	북한 사투리
끼운다	깁긴다	때린다	답새긴다
쌓는다	데민다	원다	따루한다
터졌다	똥졌다	말생부른다	말니킨다
몰려간다	밀레간다	망설인다	바잔다
잡아챈다	백구야 한다	빨는다	붓는다(가루)
바친다	빱한다	엇갈린다	삭갈린다
자세히 본다	쇠쇠본다	시시덕거린다	시실댄다
심는다	싱군다, 심근다	다닌다	댕긴다
꽃이 진다	꽃이 던다	찾아 본다	얻어 본다
달랜다	얼린다	열중한다	옴한다
성낸다	우물거린다	젖힌다	제긴다
마구부순다	짓몬다	버린다	팽가친다
가볍다	갑씩하다	예쁘다	곱다
더럽다	깨간하다	끈적끈적	겹진겹진
약아빠졌다	역다	약삭빠르다	약빠르다
싸다	눅다	음흉하다	능측하다
둔하다	둘하다	미련하다	민하다
불편하다	말째다	익었다	물렀다
벽차다	베차다	드물다	성글다
꼬시다	피인다	흔하다	쌌다
서글서글하다	썰썰하다	앙칼스럽다	암팍스럽다
악착스럽다	니악하다	음산하다	얼씨녕겹다
똥똥하다	여돌하다	장하다	용타
부끄럽다	점적하다	못났다	줄났다
미광스럽다	지땡미럽다	게으르다	증하다
주책없이	차부없이	창피하다	점적하다
속이 좁다	퇴미하다	물건이 좋다	출출하다
한심하다	황단하다	남루하다	허줄하다
잘 컸다	흠씩하다	분명하다	헨동하다

제10장. 구비전승³⁹⁾

1. 평남 무형유산

1) 평안남도 제1호 평양검무



평안남도 제1호 평양검무

평양은 조선 시대 지방 감영이 있었고 교방청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명기들에 의한 전통예능이 다양하게 연행되었다. ‘평양검무’의 주요 춤사위는 두 손 모아 허리춤, 한칼 사위, 연풍 돌기, 까치걸음, 번개 사위, 칼로 땅 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 사위 중 양손에 든 칼 입 춤사위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과 팔을 벌려 들어 교차할 때 동작을 밖으로 돌리다가 무대 바닥을 콕콕 찍는 동작이 이색적이며 맨손과 칼 놀림의 조화가 특징이다. 2열 8검무 등으로 추기도 했는데 반드시 짝수로 맞추어야 한다.

39)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 337~338

2) 평안남도 제 2호 향두계놀이

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저마다 사연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연희극이다. ‘평안도 향두계놀이’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온 민족전통의 연희이다.

연희 중에 향두꾼들이 부르는 호미 소리는 향두꾼들의 봉건의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농민들의 염원과 상류층을 향한 풍자도 담겨 있어 과거 봉건사회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평안남도 향두계놀이’는 전통춤과 긴아리, 자진아리, 호미타령 등 토속 민요와 수심가, 엮음 수심가 등 평안도의 대표적인 풍속민요를 곁들여 연희하고 있다.



평안남도 제2호 향두계놀이

3) 평안남도 제 3호 김백봉 부채춤

부채를 주제로 한 춤은 한국 연희사에서 가장 오래된 춤의 하나이다. 부채춤은 우리나라 무용 예술이 서양식 무대로 옮겨지면서 시대적 사상과 형식의 변모 과정을 거쳐 1954년 김백봉에 의해 예술적으로 새롭게 창출되어 발전한 우리 춤의 상징인 작품이다. “풍성한 생명력 우주의 현상, 평범한 일상에

서 느껴지는 삶의 진리, 무궁화의 향기가 온 누리에 퍼져오면 사랑의 힘으로 절정에 이르는 민족애, 그리고 오늘은 끝이 아니라 다시 올 내일을 기약하는 윤회” 부채춤은 김백봉의 예술관과 우주관이 가장 집약된 작품이다.



평안남도 제3호 김백봉 부채춤

4) 평남 수건춤

수건춤은 허튼춤, 즉흥춤, 굿거리춤, 살풀이춤 등의 명칭으로 혼용 사용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여기(女妓)에 의해 전승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담은 춤사위로 변모되었다. <평남수건춤>은 2018년에 평안남도 무형유산 제4호로 지정되었다. 애절한 서도 선율을 반주음악으로 담아 여인의 내적 갈등과 슬픔을 서사적인 구조로 풀어낸 평남 수건춤은 여인의 한(恨)을 승화시킨 홀 춤이다. 평남수건춤 무형유산 예능 보유자인 청송(靑松) 한순서는 평양에서 태어났다. 한순서는 5세 때 최승희의 춤을 보고 전통무용에 눈을 뜨게 되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춤을 추던 그에게 ‘춤추는 아이’라는 말이 따라다녔다. 한순서는 10세 때 피난지인 부산에서 강태홍에게 춤을 사사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하여 무용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서도명창이며 춤꾼인

이북 출신 김정연과 인연을 갖게 되었다. 김정연은 평양태생으로 중요무형유산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로 지정된 인물이다. 김정연은 춤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무용 저서를 출판할 정도로 한국 춤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1960년대 초 김정연에서 한순서로 이어진 수건춤은 평남지역의 풍토와 기질이 녹아들어 있는 이북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살린 오늘날의 평남수건춤으로 완성되었다. 평남수건춤의 특징으로는, 장단의 첫 박에 맞추어 강하게 내딛는 발사위가 단아하면서도 역동적이다. 발디딤(발동작)을 사용하여 춤을 진행시키고, 상향 위주의 다채로운 수건 뿌림 동작을 통한 역동성은 다양한 엇박의 사용과 정박의 엇박 쓰임으로 더욱 독특한 춤사위를 만들어낸다. 특히 반주 장단의 변화에 따라 동작을 나열하는 춤의 구조가 아닌, 스토리텔링의 서사구조로 구성되어 극적인 긴장감을 강화시키고 춤의 내용을 확장시킨다. 복색은 초록 치마에 자주깃 고름을 단 저고리를 착용하며 치마를 감아서 허리끈으로 묶는 착복 형식을 전승하고 있다. 2018년 평안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후, 매년 정기 공연을 하며 전승 활동을 하고 있다. 평남수건춤 보존회는 종로에 있는 한순서 춤 연구소를 소재지로 정기 공연과 교육을 통하여 평남수건춤을 보존하고 전승 발전시키고 있다.



평남 수건춤(국가유산청)

5) 평안도 배뱅이굿

‘평안도 배뱅이굿’은 2022년에 평안남도 무형유산 제5호로 지정되었다. ‘배뱅이굿’은 서도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판소리형태의 재담소리이다. 청중이 모인 소리판에서 소리광대가 고수의 장구 반주에 맞춰서 연행하는 1인 창극이며, 서사적인 소재의 배뱅이 이야기를 소리와 아니리 그리고 발림을 섞어가며 공연하기 때문에 남도지역의 판소리와 비교되는 서도지역의 재담 소리이다. 판소리와 공연 형태가 비슷하지만, 판소리는 남도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을 북 반주에 맞추어 실연하는 반면 ‘배뱅이굿’은 서도 수심가토리의 선율을 장구 반주에 맞추어 실연한다. ‘배뱅이굿’은 수심가토리인 산염불과 평양 다리굿에서의 사령굿, 즉 기밀발림과 재담도 함께 연기하고 행해진다. 특히 평안도 지역의 ‘배뱅이굿’은 평안도 방언이 짙게 깔려있어 향토색이 짙게 묻어나오며, 사령굿에서 기밀은 평안도 지역민들의 애환이 잘 표현되어 구슬프고 애잔한 느낌을 준다. ‘배뱅이굿’은 기존의 신분 질서와 사회적 통념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하고 반문하며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을 담아내는 서도의 재담소리이다. 사회가 금기시했던 것들은 자연스러움을 거스르고 있다. 하지만 ‘배뱅이굿’은 기존 질서와 다른 변화된 사회의식을 짚트게 하고 있다. 기존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지만, 그 순간의 상황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배뱅이굿’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문벌 높은 집안의 귀한 무남독녀로 태어난 배뱅이는 귀엽고 곱게 잘 자랐으나, 18세에 우연히 병을 얻어 죽었다. 배뱅이 부모가 딸의 혼령을 위로하는 넋풀이를 하는데 평양 출신 영터리 박수무당이 교묘한 수단을 써서 거짓 넋풀이를 해주고 많은 재물을 얻어 가진다는 내용이다. ‘평안도 배뱅이굿’은 일제 강점기 초기에 활약한 김관준이 서도지방에 전래되오던 것을 정리하여 불러오던 것을 이은관이 계승하고 이를 박정욱 명창이 그 원형을 유지하여 전승하고 있다. 박정욱 명창은 ‘평안도배뱅이굿’ 예능보유자이다.



평안도 배뱅이굿(국가유산청)

2. 전설⁴⁰⁾

이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로는 「백로리 전설」과 「불곡산의 석굴 전설」 「최룡강 전설」 등이 있다.

(1) 숙천면 백로리에 있는 「백로리 전설」은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 사는 이 좌수는 항상 자연과 벗 삼아 만년을 보내던 중 자기 집 정원수에 깃든 백로 새끼를 해치려는 뱀에게 칼을 던져 물리쳤다. 이듬해 그가 낚은 뱀장어의 뱃속에서 그 칼이 나왔는데 그냥 요리해 먹은 뒤로 배가 불러오면서 심하게 아프게 되었다. 뱀의 복수임을 짐작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이 좌수는 어느 날 나무 아래에서 바람을 쐬다가 잠이 들었는데 백로가 와서 주둥이로 배를 쪼아 배 속에 있던 뱀들을 나오게 하여 병이 나았다. 그 뒤로 이 마을을 백로리 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40) 평안남도 평원군 70년사 ● 96~99

(2) 불곡산의 석굴 전설

을지문덕이 무술을 닦던 때의 이야기이다. 을지문덕은 주로 대원산(大圓山)에 가서 칼 쓰기 연단을 했는데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연습을 했는지 산의 땅이 굳어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민둥산이 되었다고 한다. 연습이 끝나고 석굴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꿈에 머리가 셋 달린 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칼로 쳐 두 동강을 내었으나, 깨어 보니 그것은 신검(神劍)이었다. 이에 을지문덕은 자기의 수도가 부족해 신검을 뱀으로 오인했다고 하면서 더욱 단련했는데, 그 결과 고구려의 명장이 되었다고 한다.

(3) 「최룡강 전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 방향으로 몽진하는 길에 이 냇가에 당도했을 때 요기를 하기 위해 한 농가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 부인이 베를 짜고 있었다. 부인은 허름한 차림새의 왕을 공손히 대접하였다.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이름이 없던 시내를 부인의 남편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 밖에도 임진왜란 때 왕이 민가의 사랑방에서 이틀을 지냈다 하여 전해지는 평원면 부용리의 「삼일왕도처 전설」과 「흙 조산 전설」 등이 있다.

(4) 열두 삼천이 벌과 녹족부인(鹿足夫人)

서기 630년대쯤 동산사(東山寺) 아래 발이 사슴과 같은 녹족부인(鹿足夫人)이 임신하여 열두 아들을 낳았다.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부인은 상자에 아들들을 넣어 강에 버렸고 흘러 흘러 서해를 지나 중국의 한 촌부(村夫)가 발견하여 상자를 열고 보니 열두 아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재주가 뛰어나 나중에 당(唐)나라의 장수(將帥)가 되었다.

당(唐)나라가 삼국정복을 위해 열두 형제에게 한 사람 앞에 3천 군사(軍士)를 주어 고구려로 진격하였다. 장군의 소식을 들은 녹족부인은 자신의 자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해면 신덕리(西海面 新德里)를 찾아가 장수들을 만나 자신이 지어온 버선이 발에 맞으면 내 아들이요, 안 맞으면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다. 버선이 장군들의 발에 맞았고, 그 후 이들은 창검(槍劍)을 버리고 그

지방 일대를 개간(開墾)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 열두 장수가 각기 삼천 명의 군사(軍士)로 이 땅을 이루어 놓았다 하여 열두 삼천이 벌 이름이 생겼고, 이들이 살던 곳을 삼천포(三千浦)라 하고, 얼마 후 군명(君命)에 의해 중국(中國)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이곳에 어머니를 찾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하여 열귀포(悅歸浦)로 다시 이름을 고친 것이 오늘에 전(傳)해 오고 있다.

(5) 최용강(崔龍江)

검산면(檢山面) 동북부에서 서해(西海)로 흐르는 최용강(崔龍江)을 통칭 『최녕의 강』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선조(宣祖)가 의주(義州)로 몽진(蒙塵)하는 길에 이 냇가에 당도하여 요기하기 위하여 한 농가(農家)의 문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베를 짜고 있던 그 집 부인(婦人)은 일손을 멈추고 허술한 편의(便衣)의 상감(上監)을 공손히 대접하였다. 선조(宣祖)는 이를 가상(嘉賞)히 여겨 이 무명(無名)의 시내를 직부(織婦)의 남편 이름을 따서 최용강(崔龍江)으로 명명(命名)하였다고 전해온다.

(6) 증의 다리(憎之橋)

영유읍(永柔邑)에서 청산면(靑山面)으로 가는 신작로(新作路)에 다리가 생기기 전 이야기다. 비가 오면 물이 많아 건너기 어려운 개울에 한 처녀가 비는 개었는데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젊은 증이 얇은 곳을 찾아 건너오는 것이었다. 젊은 증은 처녀에게 업히라고 했고, 처녀는 할 수 없이 등과 등으로 업혀 건너게 되었다. 젊은 증은 다시 돌아갔고 처녀는 남자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처녀는 날이 갈수록 병으로 아파갔고 어머니에게 젊은 증의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고 오직 다리에 흉터만 있다는 그 증을 찾아 수많은 절을 찾아다니다 순안면 청룡산(順安面 靑龍山) 어느 절에서 젊은 증을 찾아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말하며 딸을 만나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어머니 부탁에 딸을 만났고, 딸은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원래 절에 살던 사내는 파계(破戒)하고 처녀와 혼인하고 고향으로 데려와 잘 살았다 한다. 동리 사람들은 이 개울에 돌다리를 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름하여 증의 다리(憎之橋)라 부른다.

(7) 부사(府使)의 명판결

숙천읍(肅川邑) 북쪽에 송리(松里)라는 동리(洞里)가 있었다. 여긴 농한기(農閑期)가 되면 행상(行商)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 명주나 무명 등을 걸머지고 산삼(山蔘), 현금을 받아오는 게 돈벌이다. 동리의 두 친구가 어느 지방 객주(客主)집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 행상을 갔다. 여러 날이 지나 약속한 날 객주 집에서 만났지만 한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고, 한 친구는 얼마 못 벌었다. 귀갓길에 돈을 못 번 친구는 욕심으로 친구를 죽이고 돈을 모두 차지하고 고향으로 가서 죽인 친구 집을 방문하여 『아주머니 계시오?』 『아주머니!』 하며 불렀다.

친구의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관가(官家)에 고소하였고 관장(官長)은 죽인 친구에게 죽은 친구 집을 찾아 먼저 친구를 부르지 않고 아주머니를 불렀던 것에 의구심을 갖고 현명하게 문초를 하여 자백받아, 돈도 내놓도록 하였다. 처형(處刑)은 물론 남편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

(8) 허씨 돌다리

평원면 화림리(平原面 華林里)와 조운면 순정리(朝雲面 順井里) 사이에 흐르는 개울(川)에 놓여 있는 돌다리를 『허씨 돌다리』라 하는데 이는 조선조 중엽(中葉)경 화림리(華林里) 출신 허씨(許氏)란 노파가 동리 사람(里民)들을 위하여 자비로 돌다리(石橋)를 놓아준 것인데, 당시 허허별관 빈터에다 돌다리를 놓았다 하여 이러한 이름이 된 것이라 하는데, 즉 허터(비인터·허씨의 터)의 돌다리란 뜻이다. 그런데 이 허(許)씨는 무후(無後)하였고 돌다리만 남아 있다.

(9) 기이(奇異)한 인연(因緣)

어느 해 큰 장마로 통덕천(通德川)에 물이 범람했다. 지나가던 한 젊은 중이 떠내려오는 것을 건져내고 보니 아름다운 여자 시체였다. 젊은 중은 그 미모(美貌)에 반하여 시체를 뒷산 분묘를 만들어 안장(安葬)했다. 절로 돌아간 젊은 중은 그 처녀가 꿈에 나와 은혜를 갚겠다고 하며 자신을 건져준 곳으로 가라 하였고, 다음날 그곳에서 수백 년 묵은 산삼(山蔘)을 건졌다. 돌아가던 중 한

남자를 만났는데 아내의 병 치료를 위해 수백 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남자의 집에 가니 외동딸을 잃은 부인이 앓고 있었다. 젊은 중은 자신의 산삼을 달여 먹였고 부인은 살아났다. 그리고 중은 자초지종(自初至終)을 털어놓고 딸의 산소까지 알려주니 중은 그 집의 사위가 되었다.

(10) 효자동(孝子洞)과 구룡 다리의 유래(由來)

숙천역(肅川驛)에서 2km 지점 가면 조운면 매암리 그 중간지점에 구룡 다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면 효자동(肅川驛)이다. 그 효자동(孝子洞)에 극진한 효자가 노모(老母)를 모시던 중 노모(老母)가 중병으로 눕게 되자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돌보았으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아들은 최후에 선택으로 수소문 끝에 귀한 약초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났다.

몇 개월 험준한 산속을 헤매다 천신만고 끝에 약초(藥草)를 구해서 황급히 귀가하던 중 홍수가 나 다리가 유실되었다. 노모(老母)의 생사(生死)를 걱정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중 난데없이 큰 구렁이가 나타나 다가왔다. 그는 구렁이 등을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너서 단숨에 집으로 달려와 노모(老母)에게 약초를 달여 마시게 한 후 병환이 완치됐다. 그리하여 다리의 명칭을 용(龍)이 건네주었다고 구룡 다리(九龍橋) 또는 용이 생명을 구해 주었다고 해서 구룡(救龍) 다리 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구룡다리로 변했고 효성이 지극한 효자(孝子)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자 효자문(孝子門)을 건립하여 길이 그 효성을 기리고 동네 이름도 효자동(孝子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제11장. 명사

1. 명장, 명현, 의인(41)

본 편에 수록(收錄)한 인물들은 동치(同治) 10년, 즉 1871년에 이루어 놓은 신미판(高宗 辛未版)과 개국(開國) 504년, 즉 1895년의 을미판(高宗 乙未版)의 영유 현읍지(永柔 縣邑誌)·숙천 부읍지(肅千 府邑誌)·순안 현읍지(順安 縣邑誌)에서 이기(移記) 한 것이다.

1) 충의(忠義)

영유편(永柔編)

① 나인주(羅仁柱)

고려말(高麗末) 북적(北狄)의 난 때에 선봉장(先鋒將)이 되어 적병을 대파하여 공을 세웠다. 이에 호조전서(戶曹典書)의 벼슬에 올랐다. 1397년(洪武 28年) 조정에서 명하여 현(縣)의 남쪽 15리에 있는 자화산(紫華山)에 장례(葬禮)를 치르게 했다.

② 김통가(金通可)

1504년 갑자관변(甲子适變)때 과총(把總·軍營의 從4品官)으로서 백성들의 궁선(窮善) 극악(極惡)을 통감하여 부하 병력 500인을 이끌고 역도(逆徒)들을 평정한 후, 그날 밤에 원수진(元帥陳)으로 돌아왔다. 그 공으로 안주판관(安州判官)을 제수받고, 편에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에 까지 이르렀다고 서정록(西征錄)에 기록되어 있다

③ 강응립(姜應立)

1504년 갑자관변(甲子适變)때 천총(干總:各 營門의 正3品將官)으로서 그 용역(凶逆)함을 통감(痛感)하여 부하 병력을 이끌고 근왕현(勤王峴)에서 역전(力戰)하여 역도(逆徒)를 대파했다. 그 공(功)으로 노강첨사(老江僉使)를 제수 받았다고 서정록(西征錄)에 기록되어 있다.

60) [1997년 50주년 평원군지 발췌 수록]

④ 김계묵(金啓默)

장사군관(壯士軍官)으로 1811년 순조(純祖) 신미(辛未)의 서적지변(西賊之變) : 홍경래 난(洪景來亂) 때 박천(博川)으로 가서 송림전(松林戰)에서 적의 괴수(魁首)를 생금(生擒)하고 평정 시킨 공(功)으로 현감영장우후(縣監營將度侯)를 제수받고 후에 병판(兵判)에까지 올랐다.

⑤ 김우석(金禹錫)

19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자모산성(慈母山城)에 들어가 지키다가 1637년에 삼전도(三田渡)에서 왕(王)이 청태조(淸太祖)에게 항복강화(降服講話) 할 때 이를 개탄(慨嘆)하여 시(詩)를 지어 성문(城門)에 걸었다.

호장(胡將)이 이를 보고 대노(大怒)하여 그에게 극형(極刑)을 가하려 하니 이에 대항하여 굴하지 않았다. 이때 그의 아들 응원(應元)이 아버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서니 호장(胡將)이 감탄하여 그만 용서했다.

왕이 이 일을 듣고 김우석(金禹錫) 부자에게 정문(娃門)을 내리고 같이 장령(掌令) 벼슬을 주었다.

숙천편(肅川編)

① 최용기(崔龍起)

조선조 태조(太祖) 때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된 최용기(崔龍起)가 검산(檢山)으로 낙향(落鄉) 할 때 20석 록(20섬지기)을 하사(下賜) 했다. 그의 6대손 최여한(崔汝翰)이 호조정랑(戶趙正郎)으로서 임진왜란 때 세조(宣祖)의 어가(御駕)를 모시고 의주(義州)까지 갔다. 1593년(宣祖 26年) 환도(還都) 길에 올라 검산(檢山)에 들렀을 때 그의 집에 주필 했다. 영옹교(令翁橋)는 안주(安州)와 숙천(肅川) 경계에 최용기(崔龍起)가 대판교(大板橋)를 놓은 그 이름이다.

태조(太祖)가 최용기(崔龍起)에게 호조전서(戶曹典書) 벼슬을 주고 가선일등공신(嘉善-等功臣)을 제수했었는데 졸후(卒後) 검산(檢山) 창곤산(蒼昆山)에 예장(禮葬) 되었다.

2) 효열(孝烈)

영유편(永柔編)

① 김 새(金 璽)

임진왜란(壬辰委亂)때 선조대왕(宣祖大王)이 몽진(蒙摩) 길에 영유행궁(永柔幸宮)에 있을 때부터 의주(義州)까지 가 있다가 환도(還都)할 때까지 충성을 바친 호성공신(屋聖功臣)으로 예빈참봉을 위시하여 군자직장(軍資直長)·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제수(除授)받고 왕명(王命)으로 정려문(旌閭門)을 건립했다. 그리고 진위현령(振威縣令)과 용인현령(龍仁縣令)을 지냈다. 1623년(仁祖元年)에 졸(卒) 모는 영유(永柔) 자화산(紫華山)에 있다.

1544년(中宗 39年 甲辰) 9월 15일생, 호(號)는 경호(耕湖) 1584년(宣祖 17年 甲申) 9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쇠질(喪服)을 벗지 않고 애척(哀戚 : 哀悼)을 마지않아 몇 번이나 멸성(滅性: 너무 슬퍼 性命을 잃음)했는데, 하루아침에는 전 비(奠七物:祭床에 놓을 물건)니 떨어져서 묘(墓) 옆에서 곡(哭)을 하는데 갑자기 자치(雌雉 : 암꿩)가 묘 앞에 떨어진 일이 있다.

묘 옆의 여막(蘆幕)에서 월여(月餘)를 보내는데 사슴 한 마리가 묘의 좌측을 지키고 있어서 사람이 곁에 가도 놀라지 않고 3년 후에야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에 사람들이 그 효성에 감격하였다. 또 노모(老母)를 공양(供養)함에 항상 온순한 낮으로 마음을 평안케 헤드리는데 더욱 돈독(敦篤)케 하였다고 속 삼강행실록(續 三綱行資錄)에 실려 있다고 문지(文誌)에 기록되어 있다.

② 함사건(咸士建)

부친을 모심에 효성이 지극했으며 부병(父病)이 중하자 단지(斷指: 손가락 끝을 잘라서 그 피를 먹임)를 하여 회생시켰다. 인조(仁祖) 승하(昇遐)에 복상(服喪) 3년을 했고, 쇠질을 벗지 않고 부모(父墓) 옆 여막(彦幕)에서 살았다. 왕이 이를 알고 정려문(旌國門)을 세우게 했다.

③ 관노(官奴) 이남(以南)

계모(繼母)를 섬기는데 효성을 지극히 했고, 형제간에 우애(友愛)하며 늙도록 더욱 돈독(敦篤)했다. 그 효성을 기리어 정려문(旌固門)을 세우게 했다.

④ 고일성(高日星)

부친의 병이 중하게 되자 단지(斷指)를 하여 살리고 그 수(壽)를 다하게 한 효성을 기리어 정려문(旌閭門) 을 세우게 했다.

⑤ 정계충(鄭繼忠)

1636년 병자(丙子)에 호병(胡兵)이 와 있는 안주성(安州城)에서 그의 아버지의 병이 위중함을 듣고 돌아가 단지(斷指)를 하여 희생케 했다.

이처럼 정계충의 효행이 현저하다 하여 어사(御史)가 이를 기록한 바 있고, 또 왕이 정려문(旌閭門) 을 세우게 했다.

⑥ 김응원(金應元)

우석(禹錫)의 아들인데, 우석(禹錫)이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의 강화(講話)에 분개하여 시(詩)를 지어 자모성문(慈母城門)에 걸어 놓으니 이를 본 호장(胡將)이 대노하여 우석(禹錫)에게 극형(極刑)을 가하려 할 때, 10세 동자(童子)인 응원(應元)이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대신 죽기를 원하므로 호장(胡將)이 그 효성에 감동하여 그만 풀어주었다. 왕이 이를 듣고 정려문(旌閭門)을 내리고 또 장령(掌令) 벼슬을 주었다.

⑦ 주소사(朱召史)

함사건(成土建)의 처인데 시부모를 효성 것 모심에 남편 사건(土建) 못지 않게 잘했다. 후에 남편이 죽자 3년간 상복(喪服)을 입고 그 묘 옆 여막(蘆幕)에 살았다. 그 효열(孝烈)을 가상(嘉賞)히 여겨 정려문(旌閭門)을 내렸다.

⑧ 조씨(趙氏)

김익두(金翼斗)의 처인데 좌랑(佐郎) 홍벽(弘璧)의 딸이다. 시어머니가 중병이 들자 단지(斷指)를 해서 희생케 했고, 남편이 죽으매 3년간 상복(喪服)을 벗지 않고, 제물(祭物)이 없는 날은 자기도 결식하다 죽었다.

왕이 이를 알고 정려문(旌閭門)을 내렸다.

⑨ 이씨(李氏)

김형(金珩)의 처인데 승주(承肖)의 딸이다. 어느 날 하룻밤에 그 집에 강도(強盜)가 돌입하여 칼로 그 아버지를 치려 할 때 몸으로 그 칼을 막아서 목숨을 잃지 않았다. 왕이 이를 알고 정려문(旌閭門)을 내렸다.

⑩ 김정화(金鼎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애척(哀戚:哀悼)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다 성장하며 상복(喪服)을 입고 3년동안 벗지 않고, 그 묘 옆 여막에서 곡용(哭踊)하며 지냈다. 정성왕후(貞聖王后) 승하(昇退)에도 3년 상복(喪服)을 입었다. 왕이 이에 정려문(旌閭門)을 내렸다.

⑪ 관비 천생(官婢 千生 혹은 天生)

연소(年少)하고 미색(美色) 이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적(賊)이 밀어닥쳐 덤벼드니 그가 차고 있던 장도로 자기 목을 찌르고 땅에 엎드리지니 적(賊)이 버리고 가버렸는데 겨우 살아났다.

왕이 이를 듣고 정려문(旌閭門)을 내렸다.

⑫ 위용표(韋應豹)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이 지극(至極)하여 혼정신성(昏定晨省) 병약한 모친을 위해 구약(救藥) 간병(看病)에 진력, 식음(食飲)에 애썼고 병세(病勢)가 위독(危篤)할 때 단지(斷指)로 회생시켰다. 부친상(父親喪)에 애척(哀戚) 침식(寢食)을 잊었고, 표역(墓域)에 여막(廬幕)을 짓고 보살피며 제례(祭禮)에 지성(至誠)을 기울였다. 형제간에 우애(友愛)하며 동생(同生) 옹기(應麒)의 교육(教育)에 열성을 다하여 드디어 소과(小科)에 급제(及第)하여 진사(進士)가 되게 하였다. 왕(英祖)이 이를 가상(嘉賞)히 여겨 정려문(旌閭門)을 내리고 또다시 승지(承旨)를 제수(除授)하는 식전(式典)까지 베풀었다.

⑬ 안득생(安得生) 부인

안주군 대리면 (安州郡 大尼面) 출생. 성장함에 따라 본 군 해소면 중틀리에 사는 광산(光山) 김랑(金郎)과 정혼(定婚) 하였던바 뜻밖에도 신랑(新郎)이 사망하자 백 가마를 타고 시댁(媿宅)에 와서 시집살이를 하다가 가질(家姪) 김극태(金克泰)를 입양(入養)시켜 가계(家系)를 계승케 하고 근면절약 치산(治産)에 임했다. 율지교회(栗枝敎會) 창설에 적극 참여하고 독신자로서 권사(勸師)가 되어 인근 부녀자들에게 전도(傳道)와 신앙생활에 정성을 다하여 신도(信徒) 수 300여 명의 큰 교회로 발전시켰다.

깨끗한 절개와 헌신 봉사로 인근의 칭송을 받았다.

⑭ 이치구(李致構) 부인

해소면 월현리에서 출생한 연안(延安) 이씨(李氏)로 성장함에 따라 동면 송정리 풍천(豐川) 김랑(金郎)과 정혼(定婚) 중 신랑이 불의에 사망했다. 옛법에 따라 백 가마를 타고 출가(出嫁)하여 시댁을 받들 계승(繼承)케 하고, 근면 절약 치산(治産)에 힘써 가세(家勢)를 부유(富裕)해 하고, 자손들모두 가 가질(家姪) 김류원(金柳源)을 입양(入義)시켜 가계(家系)를 교육에 열성을 다하여 출세시켰고, 친척과 이웃 간에 화진을 돈독히 했다. 동민들이 이를 가상(嘉賞)히 여겨 절부비(節婦碑)를 세워 후세에 전했다.

2. 항일 애국지사⁴²⁾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기 시작한 1895년 을미사변으로부터 광복 때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였거나, 옥고를 치른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 유공 건국훈장·독립 유공 건국포장·독립 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과 그들의 유족으로서 연금(年金)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의 총집합체이다. 본부에는 회장과 부회장 2명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의전부(儀典部)가 특설 되어있다. 전국에 11개의 지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 인원수는 1999년 현재 4,100명이다. 회원자격은 독립 유공 수상자와 그 유족 중 연금 또는 생계 부조금을 받는 사람 전원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일투쟁은 한 말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하여 시해된 1895년 을미사변을 시발로 국내 곳곳에서 의병항쟁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동북지방과 노령(露嶺)에서의 독립군의 항쟁에 이어 중국에서의 무력항쟁으로 이어져, 광복을 맞을 때까지 근 반세기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 기간중 수십만 명의 유명 무명의 열사와 지사들이 민족의 제단 위에 거룩한 희생이 되었다.

이와 같이 순국한 사람들의 유지를 현창(顯彰)하고 올바른 국권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애국지사들의 염원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1946년 이봉창(李奉

56)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 (국사편찬위원회, 1983)
『독립운동공훈사』 (보훈처, 1986)

昌)·윤봉길(尹奉吉)·백정기(白貞基) 등 삼의사유해봉송사업(三義士遺骸奉送事業)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그 뒤 광복 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전쟁 등 계속되는 국가적 시련으로 말미암아 소망했던 광복회의 구성이 미루어져 왔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본궤도에 올리자는 뜻은 있었으면서도 시행되지 못하였다.

1949년 당시 일차적으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에게 건국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이 수여되었고, 이어서 1953년 한국을 방문했던 자유중국 총통 장개석(蔣介石)에게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준 공로로 대한민국장이 수여된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된 삼 의사와 안중근(安重根)·김구(金九) 등 수많은 애국지사에게 대한 보다 큰 규모의 정부포상이 기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민적 소망 속에서 마침내 1962년 삼일절을 기해 의병장 최익현(崔益鉉)을 비롯하여 김구·안중근·윤봉길·이봉창·김창숙(金昌淑)·조만식(曹晩植)·안창호(安昌浩)·신익희(申翼熙) 등 18명에게 대한민국장이, 그리고 김성수(金性洙) 등 58명에게는 대통령장(大統領章)이, 김규식(金奎植) 등 128명에게는 국민장이 각각 추서 또는 수여되었다. 제1차 정부포상에 이어 이듬해인 1963년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774명에게 건국훈장 또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수훈하거나 수상한 사람이 무려 1,000여 명에 달하면서 수훈애국지사(受勳愛國志士)와 그 유족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1965년 2월 27일 사단법인 '광복회'가 탄생하였으며, 초대 회장에는 기미 독립운동의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이갑성(李甲成)을 선임하였다. 그 뒤 정부의 포상은 계속되어 1968년 402명, 1977년 1,314명, 1980년 407명, 1982년 428명, 1983년 424명 등 1999년 11월 현재 8,698명에게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한국독립에 공헌한 38명의 외국인에 대한 포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장을 받은 사람은 장개석·손문(孫文)·송미령(宋美齡)·진과부(陳果夫)·진기미(陳其美) 등 중국인 5명이었다.

회원의 친목단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회원경조지원(會員慶弔支援)을 시행하고, 민족정기의 선양을 위해서 해마다 광복절에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

지에서 무후선열추모제(無後先烈追慕祭)를 지내며, 또한 매년 11월 17일에는 독립운동선열추모제를 가진다. 1981년부터는 애국선열유적지 순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지역별로 가지는 이 순례행사에는 선열 후손 대학생들로 구성된 호우회(護友會)가 회동하여 유허지(遺墟地)를 동시에 돌면서 묘소 가꾸기도 정성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의식 계도를 위해서는 국민정신 교육추진 종합계획 및 통일안보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광복회에 독립정신홍보위원회를 두고 전국 중·고·대학생 및 군인·예비군을 대상으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1) 송계백(宋繼白)

활동 분야 : 국가독립

세부 분야 : 2.8 독립선언주도

출 생 : 1896년

평안남도 평원군 평원면 괴천리(현 평안남도 평원군 원암리)

사 망 : 1920년 (평안남도 평원군)

활동지역 : 일본, 국내

서 훈 :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송계백 선생은 1896년 평안남도 평원군 괴천리에서 태어났다. 선생이 성장하던 시기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던 때였다. 그리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기였다. 선생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강렬한 애국심과 민족애도 함께 키워갔던 것으로 보인다. 선생은 1911년 경성의 보성 중학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에 독립운동을 함께 전개할 선배와 동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이 보성 중학의 교장으로 있었던 최린(이때는 변절 전이었다.), 현상윤(보성 중학 1기 선배), 최승만(보성중학 1기 후배)이었다. 이들은 이후 선생과 함께 2·8 독립선언 및 3·1운동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성 중학 졸업 후 선생은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학관 영어과에 편입

하여 수학하였다. 1916년 3월 학관을 수료한 후 동경의 와세다대학 정치과에 입학하였다. 일본 유학을 하면서 선진학문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생회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해 갔다. 당시 일본 도쿄의 한국 유학생들은 조선 유학생학우회,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 조선 학회, 그리고 교토(京都)의 한국 유학생들은 조선 유학생친목회 등을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항일 민족운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중 조선 유학생학우회가 전체 유학생들은 물론 이들 조직을 통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 유학생학우회는 대한유학생회와 그 계승 조직인 대한홍학회를 이어 1912년 10월에 조직되었다. 선생은 조선 유학생학우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유학생들의 항일 민족의식 고취와 사명감을 각성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18년 1월 8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원칙으로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하였다. 민족자결주의는 당시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전세계의 수많은 약소민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선생을 비롯한 일본의 유학생들 역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1918년 여름 조선 유학생학우회 간행물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장으로 있던 와세다 대학 유학생 최팔용(崔八鏞, 1891~1922)은 "윌슨이 민족자결론을 내세운 지금 우리가 조국광복을 부르짖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니 우리도 이 기회에 일어나자"라고 제의하고 비밀리에 유학생들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 유학생학우회 역시 1918년 12월 29~30일 송년회 및 응변대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독립문제를 의제로 하여 격렬한 토론을 하였다. 그 결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독립운동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1919년 1월 6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동서 연합응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도 독립운동의 실행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여기서 독립운동 관련 일을 일임할 위원 10명을 공천하여 뽑았는데, 최팔용(崔八鏞) 주1)·전영택(田榮澤)·서춘(徐椿)·김도연(金度演)·백관수(白寬洙)·이종근(李琮根)·김상덕(金尙德)·최근우(崔謹愚) 등과 함께 송계백 선생도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실행위원들은 조선 청년독

립단을 조직하고 그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 민족대회소집청원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이를 일본 각계와 각국 공사관에 발송할 것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 실천 계획을 추진했다. 가장 먼저 국내외 동포사회와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국내에는 송계백 선생을 파견하고, 중국 상하이에는 이광수(李光洙, 1892 ~?)를 파견했다. 국내에 밀사를 파견하기로 한 이유는,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계획을 알려 국내의 독립운동을 촉구하고, 독립선언 계획을 추진할 자금을 지원받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국문 활자를 구하려는 것이었다.

송계백 선생이 국내 밀사로 파견을 결정한 것은 선생의 강한 독립 의지였다. 그리고 선생은 보성학교 출신으로 교장 최린과는 사제 간이었고, 현상윤과는 선후배 사이의 인맥으로 손병희에게 일본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계획을 전하여 천도교의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려는 것이었다.

송계백 선생은 1919년 1월 중순 국내로 잠입하여 우선 중앙학교의 현상윤을 찾아갔다. 그리고 비단 수건에 작은 글씨로 써서 사각모 안에 감추어서 들여온 2·8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꺼내 보이면서 동경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렸다. 현상윤은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듣고 벅찬 감동으로 중앙학교 교장 송진우와 친구인 최남선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린을 거쳐 손병희에게도 전달했다. 이를 본 손병희는 "젊은 학생들이 저렇게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니 우리 선배들로서도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 추진계획에 박차를 가하였다고 한다. 자료 1,000매 인쇄하였다.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 선생을 비롯한 조선 청년독립단 대표들은 준비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 민족대회소집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및 공사관, 일본 국회의원, 조선총독부, 동경 각 지역의 신문사와 잡지사, 학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오후 2시부터는 조선 청년독립단 대표들이 주도하여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400여 명의 유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 유학생학우회장인 백남규가 개회를 선언하자 곧바로 최팔용이 단상에 올라가 대회의 명칭을 '조선 청년 독립단 대회'로 바꾼 뒤, '조선 청년독립단' 발족을 선언하였다. 이어 백관수가 마쳐서라도 독립운동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1919년 1월 6일 겨울방학을 이용하, 광수가 독립선

언서를 낭독하고, 김도연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송계백 선생을 비롯한 최팔용 등 10명이 서명한 활판 인쇄의 '2.8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일본 경찰이 대회의 해산을 요구하면서 선생을 비롯한 주요 인사 30명을 체포하고, 학생 대표 서명 위원 10명과 기타 17명은 구금되었다.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가두시위 행진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지만 변화하는 세계사 속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의 필요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2.8 독립선언 이후에도 일본 유학생들의 항일운동은 계속되었다.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9일 '조선 청년독립단 동맹휴학 촉진부'의 명의로 유학생들에게 동맹 휴학한 후 귀국하여 조국의 독립운동에 합류할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뿌리기도 했다. 그 효과로 1919년 5월 15일까지 3·1운동에 참여하려고 귀국한 일본 유학생은 350명이 넘었다. 선생은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식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실행위원 10명 중 이광수와 최근우를 제외한 8명과 함께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같은 해 2월 15일 동경 지방재판소에서 금고 7개월 15일 형을 받았다. 선생은 1919년 6월 26일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다. 선생은 동경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0년 초 옥중에서 24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고 말았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되었다.

2) 김학규⁵⁶⁾

김학규 : 호 백파(白坡), 동이(東耳)

본 관 : 안동 김씨 [1]

활동 분야 : 국가독립

세부 분야 : 독립유공자

출 생 : 1900년 11월 24일 (평안남도 평원군 서해면 사산리)

(현 평안남도 숙천군 사산리) [2]

사 망 : 1967년 9월 20일 (향년 66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자택)

56) <https://namu.wiki/w/김학규>

묘 소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50호

활동 지역 : 중국, 국내

학 력 : 신흥무관학교 속성과(졸업)

문회고급학교(文會高級學校) (졸업)

주요경력 : 동명중학교 교사

조선혁명당 군사령부 참모장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참모장

한국광복군 제3지대장

한국광복군 주상해 판사 처 처장

한국독립당 동북특별위원회 위원장,당수

상 훈 :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본관은 안동(安東)

(2) 생애

1900년 11월 24일 평안남도 평원군(平原郡) 서해면(西海面) 사산리(蛇山里)에서 의사인 부친 김기섭(金基燮)의 4남 2녀 중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백파(白波), 동이(東耳)이다. 5세가 되던 1905년 부친이 사망하여 고향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10년 국권 침탈에 즈음하여 대한제국 군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동향인 이갑(李甲)을 따라 만주로 건너갔다. 1911년 12월 만주 통화현(通化縣) 이밀(二密)이라는 황무지 산골에 정착하여 산지를 개간하고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 무렵 기독교를 수용하였다.

(3) 독립군 시절

1919년 신흥무관학교 속성과를 졸업한 뒤,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한국의 용대 소대장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가을 일제가 자행한 이른바 ‘경신참변(庚申慘變)’으로 많은 한인이 학살될 때, 형제와 처남도 살해되는 일을 겪었다. 구사일생으로 피신·도피하던 중 남만주 신민현(新民縣)에서 영국인 목사 오멜브나(Omelvena)의 보호를 받았다. 영국 목사가 경영하는 중국학교인 문

회고급학교(文會高級學校)에 들어가 6년 동안 신학문을 배웠다. 뒤에 충칭(重慶) 국제방송국에서 유창한 중국어로 수행한 명연설은 이때 연마한 중국어 덕분이었다. 1927년 류허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에 있던 교민학교인 동명중학교(東明中學校)에서 동포 학생들을 가르치며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심어 주었다. 1929년 겨울 동명중학교를 떠나 국민부의 중앙 소재지인 싱징현(興京縣) 왕청문(旺淸門)에서 독립운동단체인 국민부(國民府)에 들어갔다. 국민부는 남만주 일대를 관할하는 일종의 행정부로서, 그해 12월 조선혁명당을 창당하고, 당군으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였다. 국민부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부 산하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梁世奉) 장군의 참모장으로 대일항전을 펼쳤다.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싱징현 전투, 통화현 콰이다마오 전투, 장토펙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무렵 독립운동동지인 오광심(吳光心)과 결혼하였다.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당시 중동 철로를 호위하던 중국의 마잔산(馬占山)을 비롯한 왕더린(王德林)·수빙원(蘇炳文)·탕취우(唐聚五) 등이 동북의용군·구국군·민중 자위군의 이름으로 반일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특히 탕취우는 1932년 4월 랴오닝성(遼寧省) 환런현(桓仁縣)에서 자위군을 규합하였다. 이때 조선혁명군 참모장으로서, 4월 탕취우군 사령부에 가서 탕취우와 만났다. 면담 결과, 양측이 긴밀한 군사 관계 유지와 한중연합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대일작전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한중연합군은 영릉가 전투 등에서 큰 전과를 올려 조선혁명군의 이름이 만주 전역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1932년 11월 일본군의 공세에 밀린 중국 항일부대들은 관내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은 만주에 남아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1933년 중반 무렵 조선혁명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국민부와 조선혁명군을 통제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기능 수행을 감독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때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외교담당 책임자, 자치위원회 위원 등으로 선임되었다. 이즈음 난징(南京)에 있던 김구가 장제스와 협의하여 허난성(河南省) 뤼양(洛陽)에 있는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뤼양분교 안에 한인 특별반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김구는 만주로 연락원을 보내서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등 독립군이 관내 지역으로 옮겨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일부 장군들은 1933년 말 만주에서 관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조선혁명군 사령부는 관내 지역 독립운동세력의 도움을 받아 만주를 지키며 항전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부족한 인력·물자를 보충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표를 파견하여 원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때 임시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조선혁명당과 군의 대표로서 선발되어 난징에 파견되었다.

1934년 5월 부인 오광심과 함께 농부로 변장하여 안동-칭다오-톈진-베이징을 거쳐 난징에 도착하였다. 난징에서 김규식·유동열·최동오·성주식·김원봉 등 여러 독립운동단체 지도급 인사들에게 만주 조선혁명군의 대일작전 상황을 보고하고, 인력·물력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시 관내 지역에서는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이 모여 통합을 전제로 ‘한국 대일전선 통일 동맹’을 조직하고 있었다. 조선혁명당 대표 최동오·유동열도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기에 그 역시 통일 동맹의 조직부 책임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조직부 책임자가 된 뒤 먼저 각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이 선결과제임을 깨닫고 난징의 통일 회의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아내로 하여금 암송케 한 다음 난징을 출발시켜 조선혁명당 본부에 보고하게 하였다. 보고를 받은 조선혁명당 본부에서는 그가 제안한 보고서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한편, 그를 난징 통일 회의의 조선혁명당 대표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1935년 봄부터 난징 통일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하였다. 난징 통일 회의에는 한국독립당·의열단·신한 독립당·대한독립당·조선혁명당 등 5개 단체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최동오와 함께 조선혁명당 대표로 참석하였다. 1935년 7월 단일대당 창립 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민족혁명당이 창립되었다. 이때 김원봉·김두봉·최동오·신익희·윤기섭·윤세주·조소앙·진의로·지청천 등과 함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만주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대동단결에 힘을 기울였다. 1936년 1월 군사교리 연구와 군사학 습득을 위해 중국중앙육군 군관학교 수산특별훈련반(廬山特別訓練班)에 들어가 1년간 군사훈련을 받고 난징에 돌아왔다. 이즈음 민족혁명당은 독립운동 방략과 이념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조소앙을 비롯한 한국독립당 계열 인사들

이 이탈하여 한국독립당을 재건하였다. 잇달아 신한 독립당 출신 조성환·홍진도 이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혁명당을 재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만주의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장 고이허(高而虛)와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장군의 전사했고, 일본군의 이른바 ‘토벌 작전’ 등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정황도 작용하였다.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한 인사들과 논의하여 1937년 4월 하순 난징에서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고, 이청천·최동오·유동열·양기탁·현익철·강창제 등과 함께 집행위원이 되었다. 1937년 7월 일본군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조선혁명당은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 등과 연합하여 임시정부 외곽단체인 한국 광복 운동 단체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때 조선혁명당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임시정부에도 참여하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중령(中領)(중국지역) 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이어 임시정부가 전시체제 대비와 적극적 군사 활동 추진을 위해 군무부 아래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무회의에서는 7월 15일 유동열·이청천·이복원·현익철·안공근 등과 함께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의 군사정책과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독립전쟁 계획안 작성, 군사 인재 양성, 군사 관련 서적 연구와 편찬에 몰두하였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하기 직전 중국국민당 정부가 충칭으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도 11월 말 장강을 거슬러 한커우(漢口)를 거쳐 창사(長沙)로 이동하였다. 임시정부와 이동하면서도 광복군 조직에 관한 연구, 군사학 편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후 일본군의 중국 각지 점령에 따라 임시정부와 함께 1938년 7월 광저우(廣州)를 거쳐 류저우(柳州)로 이동하였고, 1939년 봄에는 충칭 바로 아래 치장(綦江)에 도착하였다. 동년 가을 치장에서는 민족주의 우파세력과 좌파세력 등 7당 대표가 모여 통일운동을 꾀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민족주의 우파세력인 조선혁명당을 비롯한 3당은 1940년 5월 충칭에서 통일 신당인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였다.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를 보위하는 여당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동시에 한국광복군 창설 계획을 다시 추진하였다.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에는 김구를 선임하고, 위원에 선출되었다.

(4) 한국광복군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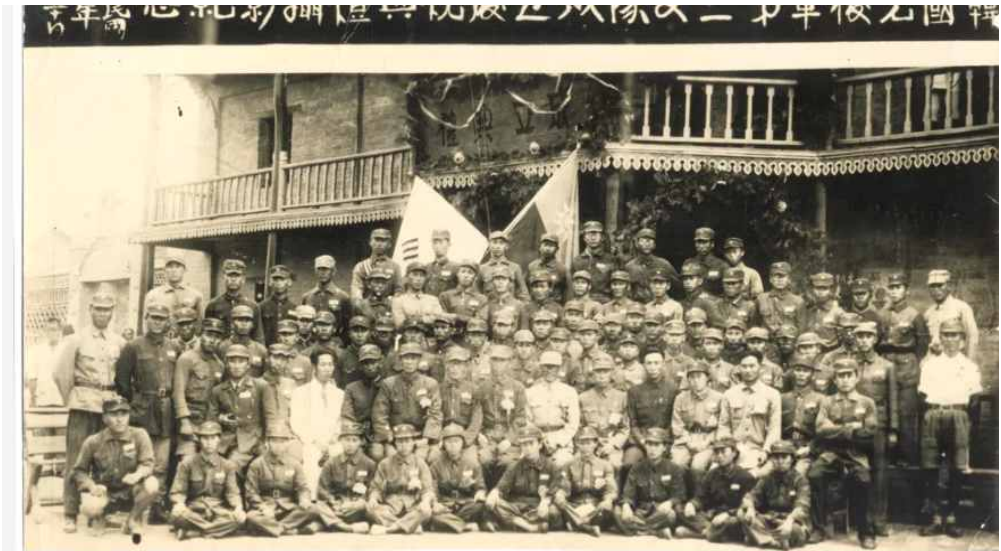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되자, 주로 광복군 총사령부에서 사무와 선전사업을 펼쳤다. 같은 해 11월 광복군 총사령부가 전선과 가까운 시안(西安)으로 옮겼으나, 총사령과 참모장은 중국 정부와 군에 관한 사무 협의차 충칭에 머물렀다. 이때 참모장 대리도 임명되어 시안으로 파견되었다. 시안 이부제(二部街)에 사령부를 설치한 뒤, 적 후방 공작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어 총사령부 예하에 5개 지대가 편성되자, 제 2 징집 분 처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제 2 징집 분 처장 겸 참모장으로 복무한다. 1942년 3월 나월환 제 5지대장이 박동운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5월 조선의용대가 신설 제1 지대로 편제되자 1941년 7월 신설 제2 지대장을 이범석에게 인계하였다.[1]

(5) 광복군 제3 지대장

1942년 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로부터 시안보다 전선에 더 가까운 산둥반도로 가서 초모공작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 일행과 함께 시안을 출발하였으나 전세로 인해 중간지점인 안후이성(安徽省) 푸양(阜陽)에 정착하여 한인 청년을 확보하는 초모공작에 나섰다.[2] 1944년 탕은버(湯恩伯) 장군이 운영하는 린촨(臨泉) 소재 중국 1전구 군사 간부훈련분단 안에 한국광복군훈련반을 설치하였다. 10월 제 1기생 51명을 광복군으로 길러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충칭 총사령부로 가기도 하고, 다시 시안으로 이동하여 제2지대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어서 제2기와 3기는 푸양에서 훈련하였다. 1945년 6월 30일 한국광복군 제삼지대를 편성하고 지대장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 파견된 미국 공군 및 정보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였다. 적 후방에서 수집한 정보를 린촨에 있던 미국 제14 항공대 소속 버취(J. M. Birch) 대위에게 알려 주었다. 1945년 5월 버취 대위와 함께 쿤밍에 가서 제14 항공대 사령관 쉐놀트(C. L. Chennault) 장군을 면담하고 그곳에서 1주일간 머무르면서 공작연락에 관하여 OSS 요원들과 회합하였다. 그 결과 시안 제2 지대와 마찬가지로 OSS와 국내 진공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데 합의하고, 안후이성 리황(立煌)에 훈련반을 두고 무전기술 교육에 나섰다. 1개월간의 훈련이 진행되던 중 일제가 항복하였다. 1945년 임시정부 군무부의 보고에 의하면, 제1기 한광반 졸업생으로 51명이 산출되었고, 그때 푸양에 5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외에 국내외 각지에 50여 명의 대원이 조직·선전·초모 등 공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푸양의 김학규 부대의 초모 성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광복군 제 3지대 성립경축전례섬영기념 1945년(대한민국 27년) 6월 30일
김학규 장군은 OSS작전 관련하여 툼밍에 가 있을 때라 사진에 없으며 현재 푸양 인민극장 자리에서 촬영되었다.

(6) 광복 이후

1945년 8·15 광복 후 광복군 주상하이 관사 처 처장에 임명되어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3만여 명의 교포를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1946년 9월 한국독립당 만주 특별 당 부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각 지대에서 일본군 점령지역에 대원을 파견하여 그곳에 있는 일본군 소속의 한국장병들을 접수, 광복군으로 편입시켜 잠편지대를 편성하였다. 1945년 10월 말까지 7개 도시에 잠편지대가 편성되었다.

한커우(漢口) 지대장 권준
 난징(南京) 지대장 안춘생, 부지대장 지달수
 항저우(抗州) 지대장 김관오
 상하이(上海) 지대장 박시창, 부지대장 이하유
 베이핑(北平) 지대장 최용덕
 광둥(廣東) 지대장 최덕신[3]
 국내(國內) 지대장 오광선
 총사령부(總司令部) 주상해 판사처 처장 김학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 군정과 대립의 시기를 지나고 1948년이 되어서 10살에 떠났던 조국에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귀국 직전까지 광복군 평진지대(平津支隊)[4]의 지대장을 역임했다. 일본군, 만주군에 소속되어 있던 한인 병력을 대거 받아들여, 해방된 조국에서 창설될 군대의 기반을 닦을 심산이었지만 고의로 일체의 정치 단체를 인정하지 않던 미 군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 이후 한국독립당의 조직부장을 맡았다. 한국민주당의 김준연이 김구를 공산주의자로 몰자 죽일 놈이라며 치를 떨었다고 한다. 너무나 신랄하고 공격적인 이 성명은 곧 한국 정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김구가 남북협상에 나서려고 하자 불가능하다며 말렸다고 한다. 김학규는 북한의 남북총선거 참여 거부 이후 단정 수립을 지지하였다. 이는 거의 모든 김구 계열 사람들이 그러했다.

1949년, 서북청년회 단원 홍종만의 소개로 안두희를 한국독립당에 가입시키고 김구에게 소개해 준다. 덕분에 안두희는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김구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김구 암살 직후 열린 재판에서 홍종만은 김학규가 군내에 한독당의 비밀당원을 늘리기 위해 안두희를 가입시켰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김학규는 김구의 살인교사범으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4.19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60년 5월, 허정 과도 정부는 김학규를 석방해주었다. 1960년 5월 6일 김학규와 조경한은 한국독립당 재건 및 조직 개편하게 된다. 한국독립당 최고 대표위원을 지냈고, 제5대 국회의원 선

거에 한독당 후보로 경기도 화성군 을에 출마했으나 서태원에 밀려 낙선했다.

(7) 여생

1960년 김학규 정치적 모략에 정치를 혐오했으며 양계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후, 독립운동 동지들에게 300~400환을 받으며 생계를 겨우 이어갔던 것으로 보여진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훈하였다. 1967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188번지 자택에서 신병으로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1968년 9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이장되었다.

(8) 선거이력

연도 : 1960년

선거종류 : 제5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군 을)

소속정당 : 한국독립당(1963년)

득표수(득표율) : 1,825표 (4.26%)

당선여부 : 낙선 (9위)

(9) 참고문헌

『독립신문』

『광복』

『한민』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2, 東京: 原書房, 1967

추현수, 『자료 한국독립운동』 1, 연세대 출판부, 197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1, 2005~2007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김학규, 「백파자서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10) 기타[편집]

김학규

Hearts of Iron II에서 중화민국 육군 소장으로 등장하며 책략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한국광복군 제2지대는 제5지대가 있던 시안(西安)에서 창설하게 된다.

[2] 처음엔 '징모 제 6부처 초모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3] 독립운동가 최동오 선생의 아들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선전과 비서를 역임했다. 훗날 1950년 8월 27일 경북 영천에서 창설된 11사단장이 된다. 최덕신의 지휘하에 1950년 11월 남원군, 12월 함평군, 1월 광산군 이어서

2월에 산청→함양→거창 양민학살을 저지른다. 박정희가 5·16쿠데타로 집권하면서 1961년 외무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1963년 8월 서독 주재 대사로 부임하던 중. 동백림사건의 수습이 실패하여 외교 문제로 인해 박정희는 최덕신을 해임. 1986년 북한으로 망명해버린다. 역사상 최고위급 인사의 월북이어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장, 조선 종교인협의회 회장, 조선 골프협회 회장 등을 맡았다.

[4] 북평(北平)과 천진(天津) 일대에 주둔하여, 지역명을 합성한 부대명.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는 난징이었으므로, 베이징은 북경이 아닌 북평으로 불렀다.

3. 민주, 정치, 법조계

1) 오학진⁴⁴⁾

활동 분야 : 군인, 국회의원

세부 분야 : 2.8 독립선언주도

출 생 : 1928년 1월 4일 (평안남도 평원군)

사 망 : 2022년 10월 4일 (평안남도 평원군)

묘 소 :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

오학진 선생은 1928년 1월 4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아버지 오태정과 어머니 광주 정씨 정득로의 딸 사이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28년 평

57)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 백과사전(정치인)

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났다.

1945. 8. 15 광복 후에 월남하여 육군사관학교를 8기로 졸업하고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전투 보병사단(33사단) 중령급 대대장(작전참모)이었던 선생은 1961년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김종필, 김형욱, 길재호, 오치성 등과 박정희가 주도한 5·16 쿠데타에 가담한 후 예비역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그 후 공화당 정책연구실 실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하여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국회에 등원했다. 1969년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민주공화당 4인방(김성곤, 백남익, 김진만, 길재호) 등이 3선 개헌을 추진하자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나중에 찬성으로 전향하였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경기도 부천군-용진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대한민국 국회 상공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경기도 부천군-용진군-시흥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신민당 이택돈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같은 해 다시 대한민국 국회 상공위원장에 선임되어 1976년 초까지 역임하였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윤국노에게 밀려 민주공화당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자 정치규제를 당하였다가 1983년 정치규제에서 해금되었다. 이후 보수 원로로 활동하였다. 2011년 6월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2011년 6월 20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 안장되었다. 제7대~제9대 총선에서 지역구(인천시 용진·부천·시흥 일원 지역)에 출마해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됐다. 정계 은퇴 후에도 보수단체 '애국시민모임'에 참여하는 등 원로로서 활동해왔다. 사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 박양실(朴孃實)⁴⁵⁾

본 관 : 밀양 박씨

활동 분야 : 의사, 정치인

세부 분야 : 제 27대 보건사회부장관

58) <https://namu.wiki/w/박양실>

재임 기간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3월 7일

출 생 : 1935년 5월 1일 (평안남도 평원군)

사 망 : 2023년 2월 20일 (향년 87세)

(1) 개요

대한민국의 의사, 정치인.

(2) 생애

1935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했으며, 1954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6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196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사이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6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69년 박양실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했다. 이후 대한산부인과학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으로 일하다가 개원의 출신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에 깜짝 발탁되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0일 만에 물러났다.

물러난 후에는 경기여고 총동창회장, 대한의사협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의료 전문지나 의사신문에 칼럼과 수필을 게재하는 등 부지런히 글쓰기를 이어갔다. 그 와중에 2번째 수필집으로 제1회 이종구 수필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23년 2월 20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87세.

3) 정희섭(鄭熙燮)⁴⁶⁾

이 명 : 정남명(鄭嵐鳴)

본 관 : 광주 정씨

활동 분야 : 의사, 정치인

세부 분야 : 제 27대 보건사회부 장관

출 생 : 1920년 7월 1일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현 평원군)

사 망 : 1987년 10월 26일 (향년 67세)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다사랑 중앙병원)

59) <https://namu.wiki/w/정희섭>

재임 기간 : 제9대 보건사회부 장관(1961년7월7일~1963년12월16일)

초대 노동청장(1963년 9월 2일 ~ 1964년 1월 17일)

제12대 보건사회부 장관(1966년1월15일 ~ 1969년10월21일)

묘 소 : 국립서울현충원 제1장군 묘역-151호

상 훈 :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관료, 정치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 수여)을 추서받았다.

(2) 생애

1920년 2월 1일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이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17번지, 용산구 이촌동 300-136번지 등에서 거주했다. 숭실전문학교 재학 중이던 1938년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참여했고, 1940년 3월 평양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해 졸업한 뒤 나가사키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중화민국으로 건너가 허난성 카이펑시(開封市) 소재 허난 의원(河南醫院)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3) 한국광복군 학교 전지공작대 입대

이때 한국광복군 징모 제 3분치의 활동에 협조하여 초모 공작과 부상병 치료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43년 12월 장흥의 협조로 문상명, 박용운, 이건국 등과 한국광복군에 정식으로 입대해 학교 전지공작대 대원으로도 활동하였다. [Washington Registry Intelligence Field Files, 1942~1947

(Entry UD108)]

한국 독립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보고에서는 한족동맹(Korean National League) 간부들을 일일이 나열하여 기록하고 있다.

[Strategic Services Unit, 미 전쟁성]

국적 : 한국

제목 : 한족동맹(韓族同盟) 간부들, 마오린(茂林) 본부

문서기원 : 상하이

전구 : 중국

문서생산날짜 : 1945년 5월

유수인 : 한족동맹 의장. 현재 제 3전구 학교 전지공작대 주임. 41세 진링 대학(金陵大學) 졸업. 향촌사범학교 교장, 남화한인연맹 가담.

박철원 : 한족동맹 총비서[5]. 제 3전구 학교 전지공작대 대원, 27세, 남경 중앙대 농학과 졸업. 동아일보 기자 및 만선일보 기자.

전일 : 한족동맹 조사위원장. 30세이며 일본에 센슈대학(專修大學)에서 공부함. 만주의 조선혁명당[6]의 정보부장.

정동율 : 한족동맹 조사위원회. 43세, 숭실대학 졸업.

이일범 : 한족동맹 조사위원회. 27세 남경 중앙대 법학과 졸업. 일본 헌병대에 통역병으로 근무.

안강 : 한족동맹 총무과장. 26세 일본 중앙대 졸업. 안후이성(安徽省) 병부(蚌埠)에서 일본영사관 직원이었다.

조일문 : 한족동맹 정치부장. 27세 남경 중앙대 법학과 졸업. 일본군 특무부대에 통역병으로 근무.

김호 : 한족동맹 훈련부장. 32세 보성 고등학교 졸업.

환남 총사령부 고문.

류향 : 한족동맹 비서. 24세. 일본의 대학에서 다닌 적이 있다.

광신소학교 교장.

심용철 : 한족동맹 비서. 32세. 푸젠성(福建省) 민생학교(民生學教)[7]에서 훈련반 졸업. 난징괴뢰국(中華民國 南京 國民 政府)의 훈련장교였다.

피춘여 : 한족동맹 총무부 총무본부. 26세 봉천대학

변일성 : 한족동맹 총무부 회계 조장. 25세. 도쿄 이과대학.

정람명 : 한족동맹 총무부처 공공복지담당. 26세,

평양 전문 의대 졸업. 약사

김형석 : 한족동맹 정치부 정보장교. 28세.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제3 분대장

한진원 : 한족동맹 선전부장. 38세. 피어슨 성경 기념 학원

(Pearson Bible Training School)[8] 졸업. 한국광복군 대원

김해성 : 한족동맹 징모 처장. 28세 강제 고등학교 졸업.

난징피뢰국의 특무대원.

석원석 : 한족동맹 군사훈련 장교 23세. 일본군 26사단 통역병.

박화 : 한족동맹 군사훈련 장교, 22세. 난징 중앙대 건축과 이수.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9]

(4) 광복 이후

8.15 광복 후 귀국하여 신익희 휘하에서 활동하였고, 유익배, 안병성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청년단 정치공작대를 결성해 중앙요원이 되었다. 1945년 12월 그는 평안남도 평양부로 잠입해 조만식을 만났고, 그에게 월남을 설득했으나 그로부터 북한 인민들을 위해 북한에 남겠다는 말만 듣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1946년 대한민국 국군 창설 후 대한민국 육군에 의무장교로 입대해 1952년 제3육군병원장(現 국군부산병원장, 당시 대령)으로 근무했고, 이후 국군 군의 학교장(現 국군 의무학교장)을 거쳐 1954년에는 육군 의무차감으로서 그해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아르헨티나 육군 보건부 주최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세계 군 의무회에 육군 대표로 참석했다. 1955년에는 제2대 육군 의무교육기지 사령관(現 국군 의무 사령관)으로서 터키에서 개최한 국제 군 의학회에 참석했다. 1957년 1월 육군본부 의무감(대령)으로 근무했으며, 1958년 3월 1일 채명신·노재현·이규동 등과 함께 준장으로 승진했다.

1961년 7월 7일 육군본부 의무감(육군 준장)으로 예편함과 동시에 제9대 보건사회부 장관에 임명되어 1963년 12월 16일까지 역임했다. 그 사이 1963년 8월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개편되어 노동청으로 발족되자 초대 노동청장에 겸임 발령받았다. 1966년 2월 한국 해외개발공사에 임명되었다가 1966년 4월 15일부터 1969년 10월 20일까지는 제12대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 1969년 10월 30일 전라남도청으로부터 1년간 구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명예 전라남도 민증과 기념 메달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중앙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출강했고, 1970년부터 기아해방운동 한국지부 위원장을 역임했다. 1972년 5월 26일 민주공화당 영등포구 을 지구당 위원장에 임명되었고, 1973년 2월 중순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의 이름 한 글자씩 따 '정수(正修)'라 이름한 정수 직업 훈련원의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신민당 김수한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고, 그해 3월 31일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임시이사회에서 제2대 보건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그해 9월 한국노동연구원 소 회장으로 재직했다. 1976년 재단법인 한국나병 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포장을 수여받았다. 1978년 8월 한국 구강 보건협회 회장으로 재직했고, 그해 12월 시행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신민당 김수한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신군부가 집권하자, 그해 11월 12일 '정치 활동규제 대상자' 1차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가 11월 25일 정치 활동규제가 해제되었다. 12월 3일에는 한국국민당 발기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12월 6일 한국국민당 서울특별시 조직책임자에 내정되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국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정의당 조종호 후보와 민주한국당 서청원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82년 9월 6일 33억 6천 2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오전리(現 의왕시 오전동) 310번지에서 시흥 종합병원을 개원해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다 1984년 10월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기독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고, 고혈압과 당뇨 증세 호소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시흥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1986년 3월 1년반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1987년 10월 26일 시흥 종합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그의 유해는 1987년 10월 28일 국립서울현충원 제1장군 묘역에 안장되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5) 원광대학교와의 관계

원광대학교는 1970년대에 의과대학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의과대학 설립에 가장 큰 어려움은 실습병원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원광대학교 측은 근처에 있던 씨그레이브 병원에 실습병원 사용을 요청하였다. 그때 씨그레이브 병원 이사장이 정희섭이었다. 정희섭 이사장은 병원을 무상으로 기증하였고, 동시에 원광대학교가 제의한 모든 보상을 사양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정희섭은 개신교 신자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과 종교가 다른 원불교 재단의 대학에 자발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병원을 통째로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 2017년 '대학을 빛낸 인물 5인'에 포함되었다.

(6) 선거 이력

연도	선거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 표 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73	제9대 국회의원	영 등 포 구 (갑)	민주 공화당	53,975표 (25.48%)	당선 (2위)	초선
1978	제10대 국회의원	관악구	민주 공화당	70,812표 (20.49%)	재선	
1981	제11대 국회의원	동작구	한국 공화당	12,927표 (7.76%)	낙선 (5위)	

(6) 관련 문서

- 대한민국 국군/인물
- 정치인/목록
- 실향민/대한민국

4) 관공요직자

고급공무원 장관급, 서기관급, 경찰은 총경이상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보건사회부 장관	정희섭	군의관, 9·10대 국회의원	공덕

건설부 장관	박기석	원호처장, 삼성중공업건설사장	한천
스위스 대사	송찬호	도미	평원
미군정청 공보국장	김길준	가족재미	순안
주독대사	전규홍		순안
축산국장	이근태	송실전문대 교수	용호
경희대학 감사	석두수	국회사무처	조운
국토통일원 차관	송한호	민족평화통일연구소 사무국장	용운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	김종택	국방대학원 교수	동송
위원장	김기덕	노동부장관, 국무위원	순안
외무부차관보	신창준	행정고시합격	숙천
전매청장	이지찬	육사18기	청산
의전실장	정동열	외무부차관	용호
관세사 이사장	정중열	서울세관장	용호
평남지사	차성호	육군소장	검산
부산지방 철도청장	임봉수	이사관	검산
무역진흥공사	김기락	테헤란 무역관장	순안
서울시	김창근	부구청장	순안

(1) 역대군수

이윤중	1896년	김화준	1935년
조종서	1896년	조상만	1936년
서은순	1886년	송주순	1938~1941년
이강하	1887년	최태봉	1945년
이용교	1899년	홍우도	
이규용	1900년	8·15 해방후	
민건식	1903년	명예군수	
박기석	1907년	김양섭	1~2대
이홍우	1910년	김영운	3~4대
김연식	1914년	한명봉	5~6대
박상준	1918년	이용팔	7대
채수현	1920년	위해룡	8~9대
박선철	1925년	오례식	10대
김화준	1928년	이재로	11대
이계한	1931년	김영걸	12대

(2) 국회의원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국회의원	정희섭	9·10대 보사부장관	공덕
국회의원	오학진	국회상공위원장	숙천
국회의원	최상업	서강대학교 부총장	한천

(3) 지방의회

도회의원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경북도의원	김대철		동송
도의원	이현두		용호

시의원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인천직할시 의원	박형철	사장	한천

구의원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서울·동작구 의원	위병룡	한의사	평원
인천·동구 의원	김철관	사장	조운

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대의원	김관철	의사	순안
대의원	김용해	춘천성수중·공고·여상설 립자교장	덕산
대의원	석윤철	약사	공덕

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대통령선거인당연직)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자문위원	김관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순안

구부회장(서울)	위병룡	대통령선거인	평원
자문위원	최봉수	대통령선거인	평원
”	서상원	군민회 회장	해소
”	위해룡	명예군수	평원
”	성정호	대통령선거인	덕산
”	오훈철	통일경모회 회장	한천
”	한명봉	명예군수	서해
”	한영운	이북5도연합 회장	
구부회장(인천)	박형철	사장	한천
자문위원	오학운	거성문화사	검산
”	김영걸	회사 대표	숙천
”	박진효		덕산

5) 법조인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변호사	한환진	전 대법관	공덕
”	한정진	전 제주 법원장	공덕
”	이학천	판사	조운
”	양정수	전 대전검사장	숙천
”	위청룡	검찰국장	평원
”	오군평	변호사	덕산
”	이태찬	지방법원장	청산
”	인춘수	변호사	한천
”	석광만	서울지방법원	조운
부장검사	신창언	부산지방법검찰청장	숙천

”	김덕주	검사	평원
검사	박형철	원주지검	순안
판사	위현석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6) 교육자(교수)

직위	성명	경력(학교·기관)	출신면
정법대학장	신동욱	대한구국선교단 부총재	동송
법경대학장	신기진	동덕대학교	숙천
명예교수	김성식	경희대학교	용호
정신문화연구원 원장	김철준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순안
부총장	최상엽	서강대학교	한천
도서관장	신기선	광운대학교	숙천
교수	박영화	경희대학교	순안
”	김희송	단국대학교	평원
”	김영균	철도전문대학	”
”	신일숙	고려대학교	숙천
”	한정진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장	청산
”	이원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덕산
”	김종균	덕성여자대학교	동송
”	김정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천
”	차영기	단국대학교 문과대학장	동송
”	최영준	한양대학교	검산
”	김이비	서울대학교	조운
”	김광준	과학기술원	순안
대학장	이선호	명지실업전문대학	노지

교수(학생처장)	위당문	한국과학기술원 공업대학	청산
교수	차배근	서울대학교 방송신문학과	동송
"	석세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안
"	김동훈	서울대학교 공업대학 공학박사	양화
"	현정준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순안
"	박숙희	가톨릭대학교	해소
"	차순도	대구계명대학 의과대학	검산
"	차순철	대구영남대학 의과대학	검산
"	김영일	캐나다 국립과학원 공학박사	순안
"	김재형	송실대학교	노지
"	한혜규	성신여자대학교	공덕
"	박영관	수원농업대학	"
교수	이신주	전북대학교	공덕
"	김정근	동국대학교	한천
"	김만호	영진전문대	용호
"	안동립	청구대학교	숙천
"	우영진	서일전문대학 이학박사	노지
"	박영립	캐나다 토론토대	숙천
"	황기호	경희대학교	"
"	이세춘	미국 롱아일랜드대학	조운
"	오창익	인천대학교	"
"	김은영	인천대학교	"
"	김봉규	칼빈신학대학	평원
"	이용하	경북대학교 농대	"
"	김남훈	천안공전	"

"	오기봉	서울산업대학	검산
"	이영기	고려 평화연구소	순안
"	김명국	건설부 건설기술연구소	"
"	전월봉	국방대학원	"
"	문중섭	국방대학원장	"
"	병재승	서울의대	용호
"	성재용	서울대	"
"	박순희	호남대	"
"	이진철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의학박사	양화
"	위상봉	천안기술교육대학 공학박사	노지
"	신명섭	의국어대학	서해
"	신현섭	충남산업대학	"
	김정주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학장	

7) 교육(교육) 사업가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이사장·교장	김용해	성수중·고등학교 · 성동여상	덕산
이사장	이병문	양구종합고등학교· 중학교	서해
"	차상진	경남실업기술학교	덕산
"	김희동	신진자동차학원	"

8) 각급 학교장

직위	성명	경력(학교)	출신면
교장	김봉주	대덕상업고등학교	평원

”	심형필	중앙고등학교	한천
”	병만제	동북고등학교	검산
”	왕춘정	송곡여자고등학교	노지
”	김기열	서울여자중학교	순안
”	최만수	부천동중학교	한천
”	병진현	서울은용국민학교	평원
”	김화원	교리중학국민학교	평원
”	최창진	경기도 미원국민학교	동암
”	이근식	동두천 생영국민학교장	조운
”	한영진	정신여자중학교	평원
”	옥춘정	송곡여자고등학교	”
”	김건영	양산학교	숙천
”	김지비	월계국민학교	조운
”	이세영	단국중학교	”
”	이세환	의정부 경이국민학교	”
”	오문섭	대전국민학교	검산
”	오기순	세화여중	”
”	최원진	인천신흥여자중학	”
”	김병로	춘천여자중·고등학교	양화
”	박병형	대전국민학교	”
”	오병옥	서울공업고등학교	검산
”	오건주	마산국민학교	검산
”	병창로	전남국민학교	”
”	김일영	중계국민학교	노지
”	이춘호	마산국민학교	”
”	이덕영	(주) 진도	”
교장	오기모	국민학교	검산

9) 출판사·언론인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사장	나병하	매일경제신문사	해소
”	신기훈	농업경제신문사	숙천
”	위상욱	새마을신문사	청산
원장	김인걸	한국예술원	순안
편집국장	김창걸	한국기독교공보사	공덕
대표	신현섭	광고계 권위	서해
시인	문중섭	시인	순안
KIST 연구위원	이화석	연구위원	덕산
논설위원	김 훈	한국일보사	양화
대표	오학운	거성문화사	검산

4. 의료계, 교육계

허 연(許 然)

허연 : 호 : 추담

출생 : 1896년 11월 8일 (평안남도 평원군 순안면)

사 망 : 1949년 8월 12일 (평안남도 평원군)

묘 소 : 망우리 가족 묘지

3.1운동 제102주년을 지나며 의명학교가 배출한 또 한 명의 역사적 인물이 발굴돼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추담 허연(許然) 선생. 그는 1896년 평안남도 순안군에서 출생했다. 1908년 러셀 박사가 의료선교사로

봉사하던 순안 병원에 침식을 제공받는 급사로 들어가면서 재림교회와 인연을 맺었다. 그의 곁에서 조수로 일하며 영어와 병원 업무를 배우던 중 1926년 러셀 박사의 주선으로 20세의 늦은 나이에 순안의명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병행했다. 1919년 3월 6일 의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한 순안 만세운동에서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며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 경찰의 체포를 피해 스승 김창세의 추천장을 들고 상해로 망명했으며, 그해 상해 삼육대학(중학부)에 입학했다. 이즈음, 일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릴 때 이름이던 용성 대신 허연으로 개명했다. 이름을 바꿔준 이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국민족의 주장〉·〈한국의 독립과 평화〉 등의 민족선언서를 작성, 배포한 항일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다.

1922년 상해 삼육대를 졸업한 그는 귀국해 경성연희전문에 입학했다. 2년 뒤 미국으로 건너가 과수원, 호텔 식당 등에서 일하며 학비를 모아 김규식 박사의 추천으로 로노크대학에 편입했다. 1929년에는 펜실베이니아대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으며, 1932년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뉴욕에서 흥사단에 가입했다. 그의 흥사단 입단을 권유한 것도 의명학교 동창인 한승인이었다. 1933년 귀국해 협성 실업학교(현 광신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이듬해 김귀애 여사와 결혼했다.

1937년 6월 10일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누하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으며 1년 2개월 동안 복역한 후 출소했다. 일경은 조서에 “조선 독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결성한 미국의 흥사단, 조선의 수양동우회에 가입해 수차례 회합하고, 협성 실업학교의 상업전수과를 동우회 지도아래 두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수양동우회 사건은 1937년 6월부터 1938년 3월에 걸쳐 일제가 수양동우회에 관련된 181명의 지식인을 검거한 사건. 당시 재경성기독교 청년 면려회가 각 지부에 기독교인으로서 독립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담은 문서를 발송한 게 일경에 발각되면서, 그 배후를 밝히려는 과정에서 동우회가 수사망에 들게 됐다. 이에 안창호를 비롯해 이광수, 김성업 등 동우회의 지역 지부 대부분 회원이 검거됐고, 재판 끝에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허연 선생은 해방 후에도 홍사단 국내 위원부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민족계몽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949년 일제 때 옥고의 후유증(폐렴)으로 병석에 누웠으며, 그해 8월 12일 향년 5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도산 선생의 발치에 묻어 달라”는 유언에 따라 가족들은 망우리에 묘지를 마련했다.

허연 선생의 이런 행적은 그간 교단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아 왔다. 단지 지난 2016년 한국삼육고등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동문회장이었던 정성화 장로가 회고담에서 “의명학교 출신(3회, 4회) 독립운동가인 최경신, 허연, 강봉호, 이면식, 유영순 선생 등 선배들이 홍사단원으로 활동하며 상해 임시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라고 짧게 언급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최근 김영식 작가가 한국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담은 책 <망우리 언덕의 십자가>를 출간하며 도산 안창호 선생,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로 참여한 박희도 목사, 조선국민회 결성의 주역인 애국지사 서광조 선생 등과 함께 허연 선생을 순안의명학교 출신의 재림교 교육가로 소개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1921.12.26.)은 1921년 12월 13일 3·1예배당에서 열린 상해 유학생회(留滬學生會)의 모임을 소개하며 허연, 주요섭, 박헌영의 연설 소식을 실었다. 독립운동의 주역이 될 조선 청년들의 상해 유학생회는 당연히 임시정부가 깊게 관여하여 이때 허연은 우사 김규식(1881~1950)과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연 선생은 뚜렷한 독립운동 족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추서한 애국지사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 작가는 이에 대해 “고인이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것과 젊은 시절 상해에서 임시정부 김규식 선생의 지도하에 임정 국채의 판매 등 활동한 경력을 들어 유족은 30여 년 전 서훈을 신청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보훈처의 심사 태도에 분개하여 이런 심사나 서훈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이니 받지 않겠다고 가족이 결의했다”고 언급했다.

허연 선생은 의명학교가 배출한 또 한 명의 역사적 인물이자 오랫동안 잊혔다 되찾은 신앙의 유산임이 틀림없다. 민족의 격동기와 숨결을 함께 한 의

명학교가 남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고 기려야 할 이유가 되고 있다.전쟁 후 1952년에 서울 청량리로 이전하였다. 청량리 지역에는 재림교 한국본부와 출판사 시조사, 삼육서울병원이 모여 있어, 한국 재림교의 발상지는 순안이고 중흥지는 청량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의명학교는 삼육중고 및 삼육대학의 전신으로, 삼육은 지·덕·체를 육성한다는 교육이념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허연 선생은 1896년 평안남도 순안군에서 출생했다. 1908년 러셀 박사가 의료선교사로 봉사하던 순안 병원에 침식을 제공받는 급사로 들어간 것이 재림교회와의 인연이 됐다. 조수로서 러셀 박사를 보필해 일하며 영어와 병원 업무를 배우던 중 1926년 러셀 박사의 주선으로 20세의 늦은 나이에 순안의 명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병행했다. 1937년 6월 10일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누하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2개월 동안 복역한 후 출소했다. 1949년 일제강점기 당시 얻은 옥고의 후유증으로 병석에 누웠으며, 그해 8월 12일 향년 5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도산 선생의 발치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가족들은 망우리에 가족 묘지를 마련했다.



5. 종교계

한경직(韓景職)

한경직 : 호 : 추양

본 관 : 청주 한씨

활동 분야 : 종교

세부 분야 : 개신교 지도자

출 생 : 1903년 1월 27일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간리(현 평안남도 양교리)

사 망 : 2000년 4월 19일 (향년 97세)

소 속 : 영락교회

활동 지역 : 국내

수 훈 : 1970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한경직 목사는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3년 1월 27일 평안남도 평원 공덕면 간리 마을에서 한도풍과 청주 이씨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청주이고 호는 추양이다. 1914년에 김병삼의 딸이었던 3살 연상의 김찬빈과 결혼하여 1918년에 딸 한순희 권사, 1938년에 아들 한혜원 목사를 낳았다. 어린 시절 기독교에 입문하여 선교사가 세운 진광소학교에서 공부했으며, 기독교 계열 학교인 정주의 오산학교에 진학하여 제10회로 졸업하고, 1919년 평양 영성소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22년 평양 송실전문학교의 이과에 입학하였다. 송실전문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1926년 미국으로 유학하였다. 캔자스 주의 장로교 계열 학교인 엠포리아 대학교를 거쳐, 1929년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29년 프린스턴대학교 졸업이후 예일대학교 대학원 등록을 앞두고 폐결핵으로 뉴멕시코 알버커크 요양원과 덴버에서 2년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목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1932년에 귀국하여 평양 송인상업학교 교목 겸 교사, 평양 송실전문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1933년 신의주에서 신의주 제2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고, 중국 안동 제1교회에서 개최한 '평안북도 의산노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35년 신의주 매지동 6번지에 건평 360평의 2층 교회당을 건축했으나 1942년 일본제국 당국으로부터 유학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목회지에서 추방되어 1939년 5월 설립한 보린원 원장으로 고아와 무의탁 노인 부양 사역에 전념하였다. 태평양 전쟁으로 기독교가 탄압받으면서 교회 문을 닫아야 했다. 태평양 전쟁이 종전된 뒤에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한병직, 윤하영 목사와 함께 신의주자치회와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으나 신의주 지역에 소련 군정의 실시와 함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3.8선을 넘어 월남하였다. 월남하여 1945년 12월 2일에 미 군정으로부터 일본이 남긴 종교 적산이었던 서울시 영랑동 소재 천리교 경성교구 본부(경성 분소)터를 불하받아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 중심의 교회인 베다니 전도교회를 설립하였다. 27명으로 시작한 베다니 전도교회는 창립 1년 만에 1500명으로 성장하여 1946년 11월 베다니 전도교회를 영락교회로 개명하고, 1947년 한국에서 최초로 2부제 예배하고, 1949년에는 교인이 6000명으로 늘었다. 일본 가마쿠라 고아원을 인수하여 영락보린원을 창설하고, 대광중학교·대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1949년 영락교회 석조 예배당을 신축하고, 1950년 보성여자중·고등학교를 재건하고, 기독교 아동복지회(CCF) 이사장을 지냈다. 이후 대한민국 장로교계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월남민 출신의 반공주의 목사로도 알려졌다. 이 시기에 서북청년회 조직의 창립에 관여하였고, 서북청년회는 반공 활동 중에 공산주의자들과 무관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도 발생하여 한경직 목사의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다. 미 군정 시기에 여수 반란이 있는 1949년 말에 십자군 전도 대를 만들어 전국 순회 전도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0년, 대전에서 기독교 구국회를 출범하여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53년 영락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고, 고아를 해외로 입양하는 홀트양자회(현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에 추대되고, 기독교 계열의 저개발국 아동 후원단체인 세계 선명회(현 월드전) 이사장에 추대되었다. 1954년 영락모자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모교이자 1938년 평양에 소재하면서 일제강점기 신사참

배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했던 숭실대학교를 서울시에서 재건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954년부터 1958년까지 제6대 숭실대학 학장을 지냈다. 1958년 학교법인 영락 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을 지내고, 1962년 서울 여자대학 2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1967년에 숭실대학교 이사장에 올랐다.

195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0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1955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를 놓고 박형룡의 예장합동과 한경직의 예장통합으로 갈라섰다. 1961년 5월 16일 남로당 출신으로 여순 반란에 가담했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정변이 발생하자 민간사절단이라는 특사로 김활란 등 개신교계 인사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쿠데타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이후 반공연맹 임원 등을 맡아 예배와 각종 집회를 통해 군사정권을 옹호하였다. 1969년 영락 여자신학교 설립하고, 1970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고, 1971년 장로회신학대학 4대 이사장을 추대되었다. 1973년 영락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한국교회진흥원 설립하여 원장을 하고, 군 복음화 운동후원회 회장에 추대되었다.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74년 예장통합 서울노회 공로목사에 추대되고, 1976년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외향선교회 명예회장을 역임하였다.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이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하는 등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각 교단이 기독교 범교단 지도자협의회를 결성하면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한경직은 "최근 인도차이나 사태에 따른 공산주의의 위협을 중시해 이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6월 22일 개신교 보수 세력이 중심이 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40만 명이 모인 '나라를 위한 기독교 연합 기도회'에서 한경직은 "북한 공산 주의자들은 지금 남침야욕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라 없이는 신앙도 자유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되므로 자유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깨어나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으로 대회를 했다. 1983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 총재에 추대되고, 1984년 (재)남강문화재단 이사장 및 고려청자 헌납위원회 고문에 위촉되었다. 1985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모교를 빛낸 영예의 동문상'을 수상하고,

1988년 군 복음화 운동후원회 회장에 추대되었다.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준비위원회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세계선명회(현 월드비전)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87년 10월 3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 등을 열고 여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극동 방송 사장인 김장환 목사 등과 함께 "북한의 테러 위협과 "8시위, 노동쟁의로 분열과 대립"의 시기로 규정하는 등 평신도들을 동원해 대규모 기도서를 열고 공산집단의 붉은 마수의 흥계를 경계하고, 정치인 근로자 학생 모두의 자성을 하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던 한경직은 887년 민주화 항쟁이 성공을 거두고 군사정권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앞세워 교계

의 주도권을 차지했던 한국교회협의회 등 진보성향에 밀리자 보수적인 교인을 결집할 목적으로 한기총을 설립하는 데 앞장섰으나 전두환 정부 당시 청와대 종교대책반과 안기부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1990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을 거쳐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을 역임하였다. 1992년 4월 29일 "노벨 종교상"으로 일컬어지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였다. 1992년 6월 18일 열린 시상식 감사예배에서 "일본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다"라면서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1997년 (사)한국군 복음화 운동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1998년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을 수훈 받았다.

목회자 은퇴 후 25년간 남한산성 우 거처에서 거주하다 노환으로 영락교회와 영락여자신학원 내 사택으로 옮겨 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0년 4월 19일 98세로 소천하였다. 2000년 4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어 영락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한경직 목사가 남긴 재산은 "말년에 타고 다녔던 휠체어와 지팡이, 겨울 털모자, 입던 옷가지, 생필품이 전부였다"라고 유족이 밝혔다.

선생에 대한 논란과 파문 - [신사참배 고백 사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며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1992년 당시 영락교회 원로 목사이던 한경직 목사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 축하 자리에서 이처럼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한 목사의 친일 고백은 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지만 한국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선생의 한국 교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가 선생의 신앙고백과 같은 진솔한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서북동지회(서북청년회) 조직 관여설]

- 서북청년회 조직 관여에 대한 선생의 고백

"나는 지난날 한때 서북동지회(서북청년회) 조직의 창립에 영락교회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북한에서 공산당을 반대하다 자유를 찾아 용감히 남하한 그들에게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얼마간 장소를 제공하고 숙식의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서북청년회의 활동 중에 일부 과격한 회원들이 피아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고백한 적이 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존경받는 교계의 지도자로서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다.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겠지요.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지요.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 (김병희 편저, 『한경직 목사』, 규장문화사, 1982.중에서)

한경직 목사가 일부 지원하고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한 문제가 된 서북청년회에 대해서는 서북청년회 주도 인물들이 평안도 사람들인 우리 선대 어르신들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체육계

김응용(金應龍) [1]

본 관 : 경주 김씨

출 생 : 1939년 4월 20일(86세)

평안남도 평원군 검산면 송양리 (현 평안남도 속천군 대성리)

학 력 : 서울 우석대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지도자 : 해태 타이거즈 감독(1983~2000)

삼성 라이온즈 감독(2001~2004)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1977~1980/2000)

프린트 : 삼성 라이온즈 사장(2004~2010)

삼성 라이온즈 고문(2010~2011)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2016~2020)

상 훈 : 체육훈장 거상장, 국민훈장 석류장

1940년 4월 8일(1940년 음력 3월 1일)[2]은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감독이다. 현역 시절에는 한일은행 등 실업팀에서 뛰었으며, KBO 리그의 여러 팀의 감독과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다. 현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회장으로 있는데 중앙정보부 야구단에 입단할 예정이었으나 창단 계획이 사라지자 육군에서 군 복무를 했다.

1940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태어나 미국 조지아 서던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뒤 1983년부터 2000년까지 18년간 프로 야구단 해태 타이거즈의 감독을 맡아 9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냈다. 2000년 시즌이 끝난 후 김성한에게 감독직을 넘기고 라이벌 팀 삼성 라이온즈로 감독 자리를 옮겼으며, 2000년 하계 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어 동메달을 이끌었다. 2002년 한국시리즈에서 또 한 번 우승하며 통산 한국시리즈 우승 10회, 정규 시즌 우승 7회를 기록하였다. 2004년 11월 9일에 2004년 한국시리즈 준우승 뒤 계약기간을 1년 남기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자,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그의 뜻을 받아들여 선동열 수석코치를 감독으로, 김응용을 제10대 구단 사장으로 승진시켰다.[3]2010년 말 사장직에서 물러나 삼성 라이온즈의 고문으로 지내다 2012년 10월 8일 한화 이글스의 새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한화 이글스에서는 2년 연속 꼴찌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남겼고, 2014년 10월

17일 2년 계약만으로 팀을 떠났다.

(1) 개요

대한민국의 야구인. 그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감독으로 가장 유명하다. 현역 시절에는 연습생 신화를 쓴 실업 리그의 홈런왕이자 부동의 국가대표 4번타자 1루수였고 지도자가 되어서는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한국 야구 사상 최초의 국제 대회 우승을 이끌었으며,[4] 프로 야구 출범 이후에는 해태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감독을 역임했고,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올림픽 동메달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삼성 감독에서 물러난 후에는 야구인 최초로 구단 사장직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민선 회장도 맡았다.

해태 타이거즈 감독 시절엔 프로 감독 데뷔 첫해에 곧바로 우승을 달성하였고, 오늘날엔 해태 왕조라 불리는 KBO 리그 최초의 왕조시대[5]를 열었다. 해태에서 18년간 한국시리즈 9회 진출 및 9회 우승[6]을 이뤘고, 2000년대 삼성 라이온즈 감독 시절엔 구단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시리즈 첫 우승을 이뤄냈으며 통산 1567승으로 감독 통산 최다승 1위[7]와 통산 10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8] 여기에 프런트 시절인 삼성 사장 시절까지 합치면 12회, 고문 시절까지 합치면 13회가 된다. 또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9년 연속 단일 팀 단일 감독 포스트 시즌 진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1997년까지 12년 연속 4위 이상을 기록하였다.[9] 삼성 부임 시기엔 4년 모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등번호는 39번(해태 1983~1996), 70번(해태→삼성→한화 1996~2004/2013~2014).[10]

"김응룡"으로도 많이 불리는데, 유니폼이나 현수막 등에 쓰이는 공식 명칭은 김응용이며, 본인의 호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 발음상 '룡'이 맞지만 집안에서 '용'으로 쓰기로 했다고. 김응용 전 감독 본인도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자주 질문 받은 모양인데 '용'이든 '룡'이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고 얘기한 적도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되,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만 '열·울'로 적는다. 따라서 엄격하게는 김응'룡'이 맞지만 실제로는 사람 이름 등의

고유명사는 규정상 두음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본인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은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며 "기분 내키는 대로 써도 좋다"고 했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보면 '김응용'보다 '김응룡'으로서 검색어 결과가 훨씬 많다. 선동열로 불리는 선동열과 같은 사례다.

(2) 경력

①선수 경력

부산상고 졸업 후 당대 최고팀이었던 농업은행[11] 입단이 좌절되었다. 덩치가 너무 커서 제대로 뛰지도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입단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당시 감독이던 김영조 씨가 김응용의 실력을 알아보고 불러서는 농업은행에 들어오라며 입학 서류를 내밀었지만, 면접에서 대놓고 서류를 찢는 것이 예의는 아닌지라 방에서 나오면서 서류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스스로 농업은행 입단 제의를 거절한 후 한국운수 야구단의 연습생으로 들어가 각고의 노력 끝에 실업 리그 최고의 강타자로 등극했다. 이후 실업 리그 홈런왕으로 장기 독재를 했는데 이걸 막아낸 선수가 OB 선수였던 김우열. 참고로 이후 '10년은 갈 것이다.'라는 평이 나왔던 김우열의 홈런왕 독식 체제는 5년여 만에 김봉연[12]이 무너뜨렸다. 프로 야구 출범 전 한국의 홈런왕 계보는 박현식-김응용(동시대 좌타자로는 박영길)-김우열-김봉연으로 이어진다. 한편, 실업 시대 홈런왕의 계보를 이은 박현식, 김응용, 박영길, 김우열 모두 실업 리그 통산 100홈런을 넘긴 레전드. 전성기에 체중은 120kg[13] 1950년대 후반 한국 남자의 평균 신장은 165cm 정도였으니 요즘으로 환산하면 190cm 중,후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당대의 농구 선수보다도 더 키가 컸다. 1960년대 농구 국가대표팀의 최장신이던 박한, 신동파와 키가 같을 정도였다. 지금도 굉장히 큰 체구다. 승승장구에 나왔을 때 키 180cm의 MC 김승우보다 더 컸으니. 신발 사이즈는 310mm라고 김성한이 밝혔다. 때문에 선수 시절 1루 수비를 볼 때 동료 야수들이 던지는 공을 받아내는 모습이 마치 코끼리가 비스킷을 받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코끼리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사장까지 올라가면서 '코사장'으로 승격하기도 했다.[14] 물론 이런 큰 덩치에 맞게 싸움 실력도 출중하다. 183cm에 98kg로 거구로 유명했던 해태 포수 장채근이 전지 훈련 중 술에 만취해서 대들었다가 50세가 다 된 김응용에게 넘치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당시 장채근이 갓 입단한 신인이었을 때 시합 중에 장채근 타석이 될 때마다 대타를 돌려 타석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열이 단단이 받은 장채근은 맥주 여러 병을 비우고 한 손에는 맥주병, 다른 한 손엔 돌을 들고 다짜고짜 김응용이 묵고 있는 방으로 쳐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결과는 장채근의 KO패[15] 그리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경기 중에 있던 일로 불만을 품고 공수교대 때 덕아웃에 들어와 깡판을 치던 털슨 브리또와 호세 카브레라를 제압한 사건도 유독 유명하다.



당시 리그의 대표 타자였던 만큼 10여 년간 국가대표팀에 빠지지 않고 선발되어 활약한 대표팀의 터줏대감이었다. 1963년 제5회 아시아 선수권 야구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3-0으로 사상 첫 국제전 우승과 사상 첫 일본전 승리를 거둘때 1회 선취 타점, 8회 투런 홈런 등 전 타점을 혼자 기록하면서 국민적 스타가 되었고 우승 당일 밤 너도나도 건네는 축하주에 꿈쩍없이 대취하여 쓰러졌다는 일화가 있다.

1960년대 후반 창단한 중앙정보부 야구단[16]에 입대하여 병역에 임했지만, 얼마 안 가 중정 야구단이 해체되는 바람에 남은 복무 기간은 육군 야구단에서 보냈다고 한다. 관련 뉴스 이후 한국운수가 매각으로 구단명이 크라운 맥주-한일은행 야구단[17]으로 바뀌는 와중에도 끝까지 4번 타자 자리를 고수하던 김응용은 1966~1972년 시즌에 한일은행 선수 겸 코치로 뛰었다. 김응용은 맥주팀과 은행팀에서 자신이 뛰어 봤기에 돈 세는 건 기가 막히게 잘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걸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아주 잘 써먹었고 휘하 코치들에게도 전수시켰다고 한다.[18]

② 지도자 경력

[삼성 라이온즈 사장]

감독 퇴임 직후인 2004년 12월 1일 삼성 라이온즈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야구인 출신으로는 최초의 야구단 사장 취임이다.[19] 평생 동안 야구 현장에 있었던 인물답게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해태 시절 수제자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현장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묵묵히 프런트로서 구단 지원 임무에만 충실했으며 특히 선수 스카우트와 신인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미래의 삼성 선수가 될 만한 자원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리틀야구 경기를 찾아다녔던 것도 삼성 사장 시절 그의 업무 중 하나였다. 이 당시 김응용의 눈에 들었던 선수가 훗날 그의 직접적 후원을 받게 되는 좌완 투수 심재민이다. 다만 모교 사랑이 지나쳐서 삼성의 연고 학교도 아닌 개성고를 지나치게 챙긴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개성고의 연고 구단인 롯데보다 삼성이 훨씬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프런트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선수를 알아보는 눈은 여전해서 실무자들이 방출했던 최형우를 다시 불러와서 삼성의 핵심 선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동열 감독을 깊이 신뢰해서 2009년 시즌에 팀이 12년만에 가을야구에서 탈락했는데도 5년 재계약을 안겨주었으나 본인이 물러나면서 제자 선동열도 함께 잘렸다. 물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라이온즈가 이룬 통합 4연패의 밑바탕에는 김응용이 구축한 라이온즈의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또한 구단이 내쳤던 장효조가 프런트로 복귀할 수 있던 것도 김응용이 구단 사장으로 재

직하던 시기였다. 사실 사장을 시킨 것은 김응용에게 야구인으로서 맡을 수 있는 최고직을 맡겨서 "사장도 해 봤으니까 그것보다 더 하위 직급인 감독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야구 원로]

삼성 라이온즈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제주도에 본인의 의견을 조율 하여 조성한 "야구인의 마을"에 거주하면서 삼성 라이온즈 구단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 외에는 조용히 일상을 보내기도 했다.[20] 그런데 2012년 9월 13일 현장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기사가 올라왔다. 재미난 사실은 희망없는 모 구단이 9월 말 감독을 정하겠단 기사가 나온 후 몇 시간 뒤에 나온 기사란 것이다. 일각에서는 희망없는 모 팀이나 답이 없는 모 구단 또는 암흑기를 쉽사리 탈출하지 못하는 모 구단 감독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9월 17일 넥센 히어로즈의 김시진 경질로 인해 감독 시장은 혼돈의 카오스가 9월 24일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나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2~3년 안에 우승시키고 싶다."라신다. 야구 팬들의 반응은 최강 전력의 명장 컴백이 기대된다는 의견, 최고의 명장이었던 것은 맞지만 너무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있었기 때문에 실전감각이 떨어져서 안될 것 같다는 의견, 삼성 맡았을 때부터 슬슬 거품 빠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현장에 복귀해 봤자 김재박 풀[21]밖에 더 나겠냐는 비아냥, 후진 양성 차원으로 두 번째 독립 야구단이라든 창단해서 서로 비슷한 전력의 팀으로 김성근 감독하고 붙어보면 재미있지 않겠냐는 의견 등 실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응용 감독 재임 기간의 삼성 성적은 2-1-4-2로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팀의 전력과 감독의 명성에 비하면 영 초라한 성적이고 때문에 김응용 감독의 까들이 그를 거품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 절하가 말이 안되는게 20년 동안 한국시리즈 우승 못 하고 있던 팀 우승시킨 게 영 초라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한화 이글스 감독으로 복귀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의 독수리 요새나 전혀 모르는 충청도 연고 아저씨들이나 국내야구 갤러리 상주들과 같이 거의 원리 주의자에 가까운 성향을 지닌 골수 이글스 팬들도 김응용 부임에 대해 최소한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김응

용의 감독 스타일이 지금의 한화에 제일 필요한 요소인 '패배주의 탈출'과 가장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2012년처럼 경기 분위기 망치면 즉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잘 돼서 성적 오르면 좋고, 설령 망하더라도 과거의 철천지원수를 확실하게 잘근잘근 씹어줄 수 있으니까 띠용 어차피 팀 상태도 개막장이겠다 손해 볼 건 없는 셈이니까. 게다가 현재 언급되는 후보군 중 류현진의 팀 잔류에 연연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인물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2015년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10개구단 감독들이 전달하는 공로패와
꽃다발

한화 감독을 끝낸 뒤에는 2015년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10개 구단감독들이 전달하는 공로패와 꽃다발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은퇴했다.[22]

이후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2016년부터 가칭 '김용용 필드'라고 불리는 야구장을 짓는 중 그 외에 아마야구와 사회인 야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③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대한야구협회와 전국야구연합회, 대한소프트볼협회의 통합으로 대한 야구

소프트볼협회가 2016년 6월 출범하였고 많은 공석 기간 많은 사람은 신임 수장이 누가 될지 촉각을 기울였다. 그러다 20일 회장 선거를 10일 정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하였다.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일구회 등의 원로 협회의 지지를 받았으며, 선동열 감독 등의 지지에 매우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공약으로는 야구계의 공정함과 성인 야구선수 확대 지원을 내건 이계안 후보[23]와 달리 대학/고교 팀 확대[24] 미디어 친화 협회 등의 공약을 걸었다. 이윽고 2016년 11월 30일 대한 야구 소프트볼협회 초대 회장 선거에서 127명 중 이계안 후보가 받은 41표와 무효표 1표를 합한 42표의 3배 정도 되는 표를 받고 당선되었다. 2016년 12월 9일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2017년 1월 16일에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관리 단체에서 해제되어 이때부터 제대로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선이 된 후 아마 야구계가 늘 그러하듯 실망스러운 행적만 보인단 지적이 있다. 이는 그동안의 많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못함에 따른 지적인데, 한편으로는 그 문제 많던 곳을 큰 잡음 없이 통합된 상태로 잘 이끌어 갔다는 평도 있다.공으로는 통합 직후의 상황에서 파벌 싸움 없이 협회를 이끌어 갔다는 점, 고교 야구 투수의 투구 수 제한 규정 강화 등이 있다.[25] 문제는 이게 사실상 공로의 전부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문제라 공로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임기 중 안우진에게 자격정지 3년을 부여해 WBC를 제외한 국제대회 출전을 막기도 하였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 참가자명단 논란이 일면서 김응용 회장의 리더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에서 선동열 대표팀 감독은 그간 관례를 깨고 아마추어 선수를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선 감독은 “김응용 회장께 ‘금메달 꼭 따야 한다’라고 양해를 구했다”며 이미 김 회장과 얘기가 끝났다는 식으로 말했다. 한 마디로 이미 김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김 회장의 행동에 대학야구 감독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학야구감독자협의회는 성명서를 냈고 홍익대 장채근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과 선 감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26] 이런 와중에 김응용 회장은 KBO(한국야구위원

회)가 최근 제안한 ‘한국야구 미래협의회’를 두고 “근본적인 혁신이 우선이다. 기존 위원회를 정리하고 참신한 인물을 주축으로 새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프로-아마추어 상생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야구계 전체 자성을 촉구했다. 2019년 7월 4일 학생 선수들에게 불법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 야구선수 이여상이 "김응용 회장과도 친하고 정치인이 뒤를 봐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김응용 회장은 이여상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27]

아시아 게임과 정반대로 2019년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는 아마추어 선수만 선발하는 데 목소리를 냈으나[28] 중국에게 두 번이나 역전패하며 철저하게 유린당한 끝에 올림픽 최종 예선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프리미어 12 대표팀은 부담이 더욱 심해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29]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라 저질스러운 경기력으로 아마추어가 왜 아마추어인지, 어째서 대학야구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피 대상인지 여실히 보여 주는 대회였으며 실력 면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김응용 회장 부임 전이나 후나 똑같이 저조하다는 말을 피할 수 없었다. 향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대표팀이나 드래프트에서 대학야구 선수가 등장하는 일은 더욱 적어질 것이며 김응용 회장 역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야구를 한국 대학야구연맹에 전적으로 맡긴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한국 대학야구연맹이 운영 면에서 슬한 문제를 드러내고 결국 2019년 말에 회장 공석 사태까지 가면서 한국 대학야구연맹을 해체하고 대한 야구 소프트볼협회에서 대학야구를 다시 관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이다.

2019년 12월 16일에 실업 야구 출범 및 창단 심의/등록 절차 안내 공지를 하면서 독립 리그 출신 선수들의 실업 야구팀 선수 등록을 불허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프로 경력자는 물론 프로 경력이 없는 선수들까지 등록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 게다가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었던 실업 야구리그 출범은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아 2020년에는 아예 치르지 못했고 2021년에 들어와서도 뚜렷한 소식이 없어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야구부의 폭력 관련 부분에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비판받고 있다. 결국 4년의 임기 후 연임하지 않고 퇴임하기로 했다.

(3) 기타

호적상으로는 1941년 9월 15일생이지만 실제로는 1940년 음력 3월 1일 [30]생으로 평안남도 속천군[31] 출신이다. 국민학교 3학년 때 6.25 전쟁 발발로 아버지 손에 끌려 1.4 후퇴 때 월남하였다. 이북에 있었을 때는 축구를 했다고 한다. 1954년에 부산 개성중학교[32]에서도 축구를 했으나 야구부 주장이 와서 "넌 이제 야구선수다"라고 하는 바람에 야구선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부산상고 시절 한때 유니폼을 똑바로 입지 않기도 하고 학교 대신 변화가에 놀러 가는 등 비뚤어지기도 했으나 어우홍 감독의 애정 어린 지도 덕택에 마음을 고쳐먹고 활약하기 시작했다. 박영길이 술회하기를 부산상고-경남고 시합에서 김응용이 홈런을 치면 "에헤이~"하고 환호하며 경남고 1루수의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2루로 달려갔다고 한다. 평소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선수들에게 정을 줄까 봐 일부러 안 한다고 한다. 김성근 감독은 선수가 홈런을 칠 때만 안 할 뿐 [33] 경기에서 이긴 뒤엔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한다. 하지만 김응용 감독은 선수가 홈런 칠 때는 물론 경기에 이겼을 때도 하이파이브를 잘 안 한다.[34] 장성호는 김응용 감독이 팀이 끝내기로 이기면 혼자 더그아웃을 빠져나가 손목 운동을 하면서 흡족해한다고 증언했다. 유일하게 하이파이브를 하러 나갔을 때가 2003년 이승엽이 56호 홈런을 치면서 아시아 신기록을 갱신했을 때인데, 김응용이 마음먹고 더아웃에 하이파이브를 하러 나갔지만 이승엽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김응용을 지나쳐 더아웃으로 들어가 버렸고 뺄뚱해진 김응용은 조용히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고 한다. 평소 거칠고 무뚝뚝한 말투 때문에 선수들에게 큰 인기는 없었다고 한다. 감독 경력 문서에도 있는, 2001년 첫 시즌 때 전지훈련을 가서 오렌지를 칼로 까먹다가 손을 베여 며칠간 훈련을 못 한 이승엽에게 "몇 억짜리가 돈값도 못하고 그게 뭐냐!"라는 식으로 말했던 일화가 유명하다. 이승엽은 김응용의 이런 직설적인 화법에 상처를

많이 받아 이듬해인 2002년 무렵 선수들과 뒷담화를 하다가 양준혁에게 야단맞은 적도 있다. 화려한 행사도 싫어하고 약간의 의견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2012년 이종범의 은퇴식 때 초/중/고/대 소속팀들의 관계자와 함께 흠을 보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이종범에게 "야, 뭐 복잡한 게 있냐?"라고 말해서 시청자들을 웃겼다.

강영식과 채태인이 예전에 김 감독의 집에서 숙식 생활을 한 적이 있다. 두 선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야구를 못 할 뻔했는데 김응용 감독이 집으로 데려와 자식처럼 키우다시피 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김 감독이 좋아 하던 덩치 큰 왼손잡이 선수였고 더구나 채태인은 까마득한 고등학교 후배였다. 그리고 둘 다 김 감독이 휘하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강영식은 2000년 해태 감독 시절 1년간 데리고 있었고 훗날 삼성 감독으로 온 뒤에는 프랜차이즈 외야수 신동주를 내주는 조건으로 강영식을 데려왔다.[35] 채태인은 감독이 아닌 사장 시절에 데리고 있던 선수였는데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 당시 삼성의 지명을 한 것도 사장이던 김응용이 채태인의 지명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임창정, 고소영 주연의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서 카메오로 나온 적이 있다. 극 중 경기는 대부분 LG 트윈스와 해태 타이거즈의 경기이다 보니 특별 출연한 듯. 영화 DVD의 특전영상에 김응용의 NG 장면도 2컷이나 들어가 있다?[36]

KBO리그 감독 중 김성근과 함께 가장 인지도가 높다. 20년 정도 전까지는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코끼리 감독 혹은 김응용을 알고 있었을 정도. 선동열과 이종범이 모두 일본에 진출하게 되자 인터뷰에서 나온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라는 명언은 그 당시 최고의 유행어로 등극하며 수많은 연예인이 김응용의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다. 덕분에 철용성 같은 카리스마의 대명사였던 김응용 감독의 이미지가 "푸근한 옆집 아저씨"로 개선되기도 했다.

야구 외적인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서, 야구 감독으로 활동하는 동안 광고는 물론 방송 출연도 거의 한 적이 없다. 홍보대사, 광고도 꾸준히 촬영하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한 김성근과는 대조적이다. 그 때문에

2011년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했을 때 깜짝 게스트로 나온 이종범이 감독님이 방송에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동안 믿질 못했다고. 자신뿐 아니라 선수들이 야구 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선동열과 이종범이 1994년 음반을 냈을 때도 노발대발하며 이후 실수할 때마다 "야 저것들 나이트나 데려가"라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 선동열과 이종범도 김응용의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음반 제작도 김응용 몰래 진행했으며, 광고를 찍을 때도 이종범은 올스타 브레이크를 이용해 몰래 촬영해야 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야구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프로 야구 선수 위주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아 동메달을 획득했다. 야구 종목에서 딴 첫 메달이자 역대 국가대표팀 가운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야구 대표팀의 금메달 다음가는 성적이다. 2004년 8월 5일 문학구장 12-5로 삼성이 앞서 있던 8회 초 삼성 진갑용이 타석에 들어서려고 할 즈음, SK 덕아웃에서 느닷없이 김기태가 뛰쳐 나와 백스톱 쪽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쏜살같이 삼성 더아웃으로 달려갔다. 다만 김기태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삼성의 더아웃을 급습하던 브리또를 말리기 위해서[37] 간 것이었다. 그리고 SK 선수들이 그 뒤를 따라 삼성 진영으로 줄줄이 쳐들어가며 벤치 클리어링이 발발하였다. SK 외국인 선수 호세 카브레라가 김응용 감독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김응용 감독이 카브레라의 목을 휘감고 제압했다. 당시 64세. 다음날 김응용 감독에게 헤드록을 당한 카브레라는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삼성 포수 진갑용에게 역시 헤드록을 당했던 SK 포수 박경완 역시 목 부상을 입었다.

2009년 WBC 감독 선발 문제가 뜨자 선동열 삼성 감독이 김응용 삼성 사장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하며 자기가 불펜에서 대기하겠다는 농담을 했다.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게스트로 출연했을 당시 몰래 온 손님이 이종범과 양준혁이 나왔다. 양 구단의 감독으로 우승을 거뒀고 양팀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라 섭외가 된 듯하다. 그간 섭외가 많았음에도 단독 방송은 처음이라고 한다. 인간적인 모습들이 꽤 나오니 팬이라면 꼭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으로 아내와 딸 둘이 있다. 아내 최은원[38] 여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 응용미술과를 나왔고 두 딸이 모두 음악을 전공했다고 한다. 꽤 오랫동안 기러기 아빠 신세였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홀로 지내다가 해태 말기에는 방세조차 내기 힘든 신인들을 불러들여 자기 집에서 지내게 했다. 그런데 해태 말년에는 해태가 가난한 팀이라 그런지[39] 두 딸의 미국 유학비를 대느라 월급에서 남는 게 거의 없었고 이전에 저축한 돈도 까먹었다 한다.[40] 신인 투수 조지훈과 김강래에게 한우를 사 줬다가 손에 쥘 60만 원짜리 계산서를 들고서 '통장 잔고 확인해 봐야겠다'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김응용 전 감독이 2012년에 한화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펜스 거리 짧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였고 한화는 바로 펜스를 뒤로 미는 공사를 하였다. 이후로 펜스 근처에서 공이 잡힐 때마다 응용 존이 1승 했다는 드립이 생겼다.

애정 통일 남남북녀에서 스승의 날을 기리기 위해 양준혁과 김은아가 김응용과 만나게 되었다. 경기도 용인시에 소유한 대지[41]에 농사를 짓고 여생을 보내는 중, 방송을 보던 야구팬들은 한화를 떠나서 신수가 흰해졌다고 양준혁이 김은아에게 김응용 전 감독은 뜬금없이 직구를 던지는 걸 좋아한다면, 김응용에게 고기 사 먹게 용돈 달라고 하자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줬다. 하지만 받을 땀이라고 사람 쓰면 일당으로 백만 원 정도는 들 평수를 양준혁이 하게 됐다. 방송 막바지에서 이북 출신인 김은아 양이 이북식 반찬을 해와 김응용에게 전달하자 눈시울 붉히는 모습을 보여 야구팬들의 가슴을 짠하게 만들었다. 이북식 음식을 보자, 김 감독은 어머니와의 추억과 이북식 닭곰탕인 온반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의사가 하루에 한 잔만 술을 하라고 했다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 괜찮다면 여러 번 마시며 고향의 어머니와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를 애잔하게 만들었다.

김응용 전 감독의 덩치가 20대에는 지금보다 더 좋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신발 크기가 310mm라는 얘기는 다들 더욱 놀란다고 한다. 하긴 185cm 키에 발도 그만큼 크면 이상한 건 아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300mm대 신발을 신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렵다는 걸 생각하면 놀랄 만도 하다. 국내에서는 300mm대 신발이 많이 없는지라 신발을 사야 할 때는 스프링캠프 등 해외로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 한 번에 몇 켤레

씩 잔뜩 사 들고 왔다고 한다.

선수들의 개인 타이틀을 챙겨주지 않기로도 유명하다. 타율 타이틀의 경우 누적 능력치가 아닌 비율 능력치인지라 자칫하다간 타율을 까먹을 수 있으므로 시즌 최종전에는 내보내지 않거나 심지어 자팀 선수의 라이벌 선수에게 고의사구를 던지면서 타이틀을 챙겨주는데 김응용의 경우 '진정한 수위타자는 마지막 경기까지 뛰어야 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선수 생활 후 한국으로 건너온 감독들의 타이틀 챙겨주기 움직임을 아주 싫어했다. 김일권이 국가대표 시절 세계 대회에서 수위타자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김응용은 '쳐서 먹어 인마'[42] 한 마디로 일축하고 김일권을 1번 타자로 기용했고 그날 5타수 2안타를 치면서 수위타자 타이틀을 내줬다고 전설의 타이거즈에 출연한 김성한, 김종모, 김일권이 술회했다.

휘하 선수들에게 고기를 매우 많이 먹을 것을 강조했다. 그러는 한편 본인 또한 고기를 매우 많이 먹었다. 이유야 당연히 운동선수는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답게 단백질 섭취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43] 선수 식당에서도 본인이 직접 선수들 상대로 매 끼니마다 잔반 검사를 했을 때 '밥을 남기는 것은 용서해도 고기를 남기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휘하 선수들에게 고기를 최대한 많이 사 주고 그걸 억지로라도 꾸역 꾸역 먹었다고. 김응용 본인도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며 해태 시절의 제자들에게 따르면 햄버거를 많이 먹는 편이었다고 한다.

2015년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최초로 그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가 진행된다. 제안자는 김경문 NC 다이노스 감독이며 이날 김응용 전 감독은 나눔 올스타팀의 감독인 염경엽(넥센 히어로즈) 감독을 대신해 1회의 감독을 맡았다.

정치 성향은 호남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서인지 민주당계 정당에 가까운 인물이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인사들 모임 '더불어포럼'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다.[44]

2017년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자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었다.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 김응용 회장 애국가 제창 백지영

그런데 이날 김응용을 대신해 시구할 높이신 분이 등장하였다.[45] 2017년 한국시리즈 문서로 대통령 보안상 김응용 감독을 시구자로 홍보하고 진짜 시구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선 타이거즈를 9번 우승시킨 감독이고 한국 야구계에 공로가 큰 사람을 대통령이 병풍 취급 하지 않았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46]

2019년 12월 10일에는 해태, 삼성 감독시절 제자 등 시대에 활약했던 야구 원로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팔순연 잔치를 열었다. 2020년 4월이 되어야 정확히 팔순을 맞이하지만 프로 야구 시즌 등의 일정으로 야구인이 다 모이기 힘든 점을 고려해 2019년 말로 앞당겨 팔순 잔치를 치르기로 했다.[47] 여기서 타이거즈 vs 라이온즈 레전드 매치 기획도 나왔다고 한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해태, 삼성 두 군데서 다 뛰어본 이순철, 양준혁, 조계현. 한화 이글스 감독 시절을 제외하면 한국야구에서 드물게 야구 인생에서 '다' 성공했다.



김응용 감독 팔순연

이 말인즉슨, 베이징 올림픽 우승 감독이지만 늘 한국시리즈 우승에는 실패하는 김경문 감독, 국제전 최고의 감독이지만 한화에서는 죽을 쓴 김인식

감독, 삼성 라이온즈의 통합 4연패와 정규 리그 5연패를 이뤘지만, 국제대회에서는 약한 류중일 감독과 달리 선수 시절도 화려하고 리그에서도 감독으로서 해태의 9번 한국시리즈 우승과 삼성의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데다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일본을 꺾고 한국에게 동메달을 안기는 등 KBO리그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모두 성공했다는 얘기. 심지어 프런트 수장으로서는 삼성 왕조 설계로 크게 성공했다.

전설의 타이거즈에서 해태 선수들이 말하길, 덩치에 맞지 않게 소심한 성격이라고 한다. 그의 밑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강태원, 김일권, 이견열, 장채근, 최해식 등이 밝힌 일화로, 김응용 감독은 선수들이 자신의 방을 찾아올 때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문고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문을 빼꼼 연다든지, 경기 중에 뭐가 불안한지 종이를 찢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렇게 종이를 찢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오더 지가 반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 소심한 성격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선수들을 때리고 폭군처럼 군림했다고 한다. 1980~1990년대 해태 타이거즈에 있으면서 자기 눈에 거슬리면 바로 발길질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경기에서는 타석에 선 타자를 제대로 못 보거나, 마운드의 투수에게 뭐라 말을 못 하고 코치만 보냈다고 한다. 이순철이 말하기를 보기에겐 굉장히 대범하고 냉혹해 보이는 분인데, 옆에서 보면 무척 여린 사람이더라.라는 평가를 했고 과거의 악연을 이후 화해하면서 이해가 간다는 평을 남겼다.

삼성 감독 시절 부산상고 47회 동기생인 정규창 교장이 개성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부산 원정 때 꼭 야구공, 야구 방망이를 들고 모교를 방문했다. 정규창 전 교장이 재학생 당시 김응용 전 감독은 주위 학생들의 도시락을 다 까먹고 시치미를 뚝 뗐다고 술회했는데 이제서야 그때 까먹은 도시락 값을 한다고 웃었다.

삼성 사장에 취임할 당시 부산상업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축하 화분을 받았다. 그러자 주위에서는 이참에 야구장 좀 지어 달라고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게 어떠냐는 부추김에 '왜들 그래? (야구장 건설)

그런 것도 다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하는 거지 지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시대냐며 곤혹스러워하기도 했다.

본인이 미국 대학팀에서 연수를 받은 덕에, 1983년 초 동계 훈련 기간에 자유타구의 일환으로 배구공을 훈련에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기 리그 우승 및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록했다.

술을 좋아하여 해태 감독 시절 저녁 식사 때마다 맥주 3병~4병을 반주로 들이켰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8년 시즌 팀의 모기업이 경영난에 처하고 마침 의사의 절주 권고도 받아 이후로는 술을 절제하는 편이다.[48]

김영덕 전 감독에게 매우 강했다. 해태 감독 시절 한국시리즈에서 4번 맞붙어 모두 승리했다.[49] 하지만 강병철 전 감독에겐 매우 약했는데 강병철 감독이 롯데 감독 시절인 1992 플레이오프에서 해태는 2위로 우위에 있었으나 2승 3패로 업 셋을 허용했고 강병철이 한화로 옮긴 1994 준플레이오프도 해태는 3위로 우위였으나 2연패로 탈락했다. 강병철과의 대결에선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야구팬들이 매일 논쟁하는 김응용 vs 김성근 대결에선 모두 승리했다.[50] 의외로 음식을 크게 가리지 않는데 대만으로 전지훈련을 갔을 때 선수들이 팔각, 고수 냄새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김응용은 고수를 좋아해서 문제없이 먹었다고 한다.

2024년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제자들인 김성한, 김종모와 함께 2017 한국시리즈 이후 7년 만에 시구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다 보니 본인이 우승했던 팀들의 대결에서 시구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중립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을 남겼다.

[1] 음력 1939년 3월 1일, 호적상 생년월일 1941년 9월 15일. 다만 실제 생년월일은 1939년이나 1950년에 초3이었기에 학교는 1941년생과 다닌 것으로 보인다. 기사

[2] 1913년까지 줄곧 숙천군 소속이었다가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평원군에 편입된 것이며, 1952년 북한 정권의 군면리 대 폐합으로 다시 숙천군으로 환원되어 숙천군 대성리에 편입되었다. 대한민국 이북5도 기준으로는 평원군 소속.

[3] 現 부산 개성고등학교.

[4] 1977년 IBAF 인터콘티넨털 컵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우승했다.

[5] 1983년~1997년 15년간 9번의 우승.

[6] 김응용 개인의 준우승은 두 번뿐인데 이는 해태 시절에는 없던 것으로 모두 삼성 감독 시절이었다. 심지어 해태 시절은 정규 리그 1위가 아닌 상태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을 때도 우승했다. KBO 단일리그 도입 후 최초의 2위 우승이 1989년 해태 타이거즈다. 이후 해태-KIA 타이거즈는 12회 진출 12회 우승이라는 한국시리즈 불패 기록을 유지 중이다.

[7] 1300패로 최다 패 1위의 기록도 갖고 있다. 다만, 감독 생활을 누적 24년이나 한 만큼 누적된 패도 많으므로 생긴 기록인 것이다.

[8] 2위는 2004년 한국시리즈에서 본인을 쓰러트린 김재박 전 감독과 삼성 시절 코치로 본인을 보좌했던 류중일 감독의 4회.

[9] 1995년에 4위를 기록했지만, 3위와 승차가 3게임 이상 나게 되면 준플레이오프가 생략된다는 당시 규정상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진 못했다.

[10] 양현종, 김성한, 이강철 등과 함께 타이거즈 영구 결번 0순위위기에 39번과 70번 중 어떤 번호가 적합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에 리그 최초의 양 번호 결번이 제안되었으며, 타이거즈에서만 9번의 우승이라는 전설적인 업적에 부합하는 제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11] 現 농협.

[12] 김봉연은 한국프로야구 출범 이후 해태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는데 1983년부터 김응용 감독 밑에서 말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러나 김봉연이 전설의 타이거즈에서 술회하기를 은퇴 후 코치 생활을 하면서 선수 김봉연과 코치 김봉연을 대하는 태도는 천지 차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응용의 차기 감독직을 꿈꿨던 김봉연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건넸고 그 이후로 경기장 밖에서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13] 체중은 크라운맥주 시절 많이 늘었다고 한다. 위의 부산상고 시절 사진과 아래의 1965년 사진을 보면 확연히 다른데, 크라운맥주 당시 영업을 뛰면서 맥주를 많이 마셔서 체중이 늘었다고 한다. 그 '영업'이라는 건 선수들이 모여서 명동 등지의 호프집을 다니며 자기들도 돈 내고 마시는 손님인 것처럼 테이블을 잡고 앉아, 경쟁사 맥주를 비하하며("그 맥주는 마시면 설사가 나서 못 먹겠다" 등), "맥주는 역시 크라운맥주가 최고다!" 등의 찬사를 선수들끼리 떠들어 대면서 크라운 맥주를 맛있게 마셔대는 걸 손님들에게 보여 주는 것. 맥주와 안주를 배불리 먹고 계산한 뒤 다음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산해주었다고 한다. 바이럴 마케팅의 오프라인 버전이다.

[14] 이 별명 창안자는 당시 동아방송 야구 해설 위원 손희준[24] 이었으며, 2019년 10월 16일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언급됐다. 이 썰 외에도 또 다른 썰은 당시 야구 중계를 맡은 해설자가 지어낸 썰로 그 해설자가 경기를 중계하는 도중 김응용 선수가 공을 잡아내는 장면을 보고는 "참~ 체격도 큰 거구의 김응용 선수가 꼭 코끼리가 과거 받아먹듯이 공을 잘 잡아서 아웃시킨다"라고 말하며 표현했고 이것이 코끼리란 별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썰을 말해준 사람은 하일성 해설 위원으로 당시 KBS N SPORTS에서 방영된 '한국야구 레전드(現 The 레전드)' 김응용 감독 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썰을 풀게 되었다. 후배 강병철

감독의 증언에 의하면 김응용의 동료이자 절친 박영길도 키가 크고 한 덩치 했던지라 둘을 엮어 '코코 브라더스'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한다.

[15]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김응용은 오히려 자기에게 대드는 배짱을 높게 평가했다는 거다. 이후 김무중이 부진할 때마다 김응용은 바로 장채근을 투입시켰고, 결국 장채근은 김무중의 뒤를 이어 해태의 주전 포수로 활약하게 된다. 어찌 보면 대인군자 같은 측면 류중일도 이와 비슷하게 코치시절 당시 삼성 감독이었던 김응용에게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해 도리어 높게 평가했던 일화도 있다. 류중일 문서로.

[16] 당시 먼저 창단했던 양지 축구단과 함께 지금으로 치면 야구판 실미도였다. 그러나 양지 축구단도 창단 3년 만에 해체되었다.

[17] 한일은행은 당시 실업 리그 최강팀이었다. 김응용과 같이 뛰던 멤버로 5년 선배인 투수 김영덕, 후배로 3루수 강병철(심지어 똑같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등이 있었다.

[18] 지금은 공식적으로 금지된 사항이지만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프로 야구에서는 금일봉이라는 것이 있었다. 경기에 이기면 기여도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현금을 선수들에게 이튿날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프로 선수들이 1군에만 있다면 경기에 나가지 않아도 최소 1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나 삼성같이 돈 많은 기업 구단은 연봉 이외에 이 금일봉을 굉장히 넉넉하게 줘서 모 선수는 연봉에 손을 안대고 금일봉만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마침 2000년대 초반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은 김응용이었는데 승리한 경기 이튿날 코치진이 아침부터 출근하여 마치 은행 결산 시간처럼 테이블에 죽 앉아서 감독과 함께 현금 만 원을 다발로 세워서 선수별로 봉투에 넣어 주고 있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19] 보통 구단 대표이사직은 모기업 출신이 맡으면 전무 ~ 부사장 보직이나 김응용은 확실히 사장급 대우를 받으면서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이견희 삼성 회장의 배려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도 참석할 권한을 가졌다고 한다. 야구계에서 워낙 이름값이 높은 사람인지라 이런 인사가 가능했다.

[20] 고문 시절에도 스카우트들을 갈귀서 구자육을 뽑기도 했다.

[21] 김재박은 LG 감독을 하면서 5-8-7로 부진했다. 다만 현장 공백은 없었고, 현대와 LG 구단은 성향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22] 이 사진 속의 10개 구단 감독 중에서 김응용과 직접적인 인연을 가진 인물이 4명이다. 공로패를 전달한 김성근 감독과는 젊은 시절부터 선수와 지도자로 오랜 세월 대결했던 인물이다. 특히 김성근은 1990년대 중반 해태 타이거즈 2군 감독으로 일한 바 있다. 김기태 감독과는 2001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와 감독 관계로 생활한 바 있고(다만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못 하다. 김응용 시기에 김기태는 잉여자원에 가까웠다.) 류중일 감독과는 감독과 코치, 사장과 코치 관계로 생활했다. 맨 오른쪽의 조범현 감독과도 삼성 시절 감독과 코치 관계로 생활했다.

[23] 현대자동차와 현대카드 대표이사를 지냈고, 이를 바탕으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허나 그 이후에는 거의 야인으로 지냈다.

[24]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팀 수를 계속 늘이는 것 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출산율 저하로 청소년층 인구의 비율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고, 성적이 안 나오거나 투자 의지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해체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아마 야구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트 체육에서 사회 체육으로 저변을 넓혀야 학령 인구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고 야구라는 스포츠를 경험한 사람이 팬으로 남고 관련 산업도 생존하게 된다. 반대로 내실을 다진다는 말은 자칫 지역별 소수의 야구 특성화고를 육성하자는 말로 이어질 수 있다.

[25] 단, 투구 수 제한 강화는 천차 만별인 각 팀의 선수층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 선수층이 두터운 강팀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26] 장 감독과 김응용 회장은 해태 타이거즈에서 오랜 기간 함께한 야구계 대표적인 사제 지간이며 선 감독과는 우승을 함께 이루던 영혼의 배터리였다. 한 다리 다 건너면 다 아는 야구계에서 이런 특수한 관계를 거스르고 장 감독이 격렬한 비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며 이 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장 감독이 대학 야구와 아마 야구를 대표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심지어 이여상은 2013년 개막전 선발 2루수로 뛰었고 시즌 후 40인 외 드래프트로 롯데로 팀을 옮긴 선수다. 백 번 양보해서 아예 2군에만 처박혀 있었거나 확대 엔트리 때 1군 맛만 조금 보다가 소리소문 없이 방출되었거나 하면 이해가 간다. 다만 반론도 있는데 애초에 김응용 감독은 선수단 이름도 잘 못 외우며 개인적인 친분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이여상은 초반에나 좀 나오다가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쪽 2군에서 뛰다가 롯데로 팔려간 선수인 만큼 김응용과 가까운 사이라고 보기에다 어렵다.

[28]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기에는 수준이 낮고 시즌 일정이 꼬인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럼 프로 2군 선수들이나 후보 선수들을 섞어서 차출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 일정에도 문제가 없고 아마 야구를 위한 선발에도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뽑고 탈락했다면 프로 선수 데려가고도 졌냐며 욕을 먹었지만 적어도 중국에게 한 이닝 6점을 내주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29] 프리미어 12 대표팀이 올림픽 출전권을 땀으니 망정이지, 실패했다면 아마 김응용 회장은 더 욕을 먹었을 것이다.

[30] 양력 4월 8일 일본 프로 야구 최다 통산 안타 보유자인 장훈과 친구 사이기도 하다.

[31] 당시에는 부군면 통폐합에 의해 평원군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김 감독은 '숙천 출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32] 부친 김식영은 개성중 서무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야구한답시고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 못마땅하여 야구를 관두라는 불호령을 내렸으나 어린 김응용은 "그럼 학교에 안 가겠

습니다"라며 3일간 버텼고 결국 부친이 백기를 들었다고 한다.

[33] 2010 프로 야구 올스타 전에서는 양준혁이 홈런쳤을 때는 하이파이브를 했다.

[34] 현재 모든 감독은 정규 시즌이나 포스트 시즌이나 경기에서 승리하면 필드로 나와 선수단과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김응용 감독은 그러지 않았다. 허나 팬들에게는 늘 모자를 벗고 감사 인사는 했다.

[35] 하지만 다시 롯데 자이언츠로 트레이드되고 트레이드를 통보받았을 때 김응용한테 찾아가서 삼성 떠나기 싫다고 울기도 했다.

[36] 재밌는 건 이때 김성한 당시 코치도 김응용 감독과 같이 출연하였다는 거고, 대단한 연기를 선보이며 인상을 심어 주었다. 전설의 타이거즈에서 김성한이 밝힌 일화로 김응용이 제작자에게 '출연료는 안 주나?' 했더니 1억 원은 받아야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다가 김응용에게는 1천만 원, 김성한에게는 7백만 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37] 당시 브리또는 삼성의 상대 투수였던 케빈 호지스로부터 몸쪽 위협구를 맞을 뻔했는데 이에 격분해서 방망이를 들고 야구장 내부 통로를 통해 삼성 덕아웃에 쳐들어갔다.

[38] 세브란스의 전 출신으로 종로구 의사회 회장을 지낸 소아과 의사 최억일(崔億鎭) 박사의 차녀다. 여담으로 야구장에는 딱 한 번 가보셨다고 하는데, 옆자리의 관중들이 남편을 향해 거친 욕을 내뱉는 것을 보고는 두 번 다시는 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39] 아무래도 해태가 돈이 없다 보니 김응용 전 감독이 9회 우승을 시켜 줘어도 연봉을 많이 는 못 줬다. 그나마도 다른 구단 감독들이 우승 감독이 저 정도 받으면 우리는 짜게 받는 거 아니냐 해서 계약금 대신 연봉으로 올려 달라 한 거라고 한다. 2000년 김응용 감독이 받은 연봉은 이름값에 걸맞지 못한 겨우 1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40] 더군다나 그 시기가 1\$=1,800W 수준의 살인적인 고환율을 자랑하던 외환위기 시절이라는 건 감안해 보자.

[41] 다만 집은 근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이다.

[42] 안타를 많이 쳐서 타격왕을 하라는 의미.

[43] 김응용과 비슷한 사례로 박항서가 있다. 박항서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어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축구 선수들의 식단이 채소밖에 없는 등 너무나도 부실하여 박항서 본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가며 식단 개선에 힘을 쓰는 한편 베트남 축구 협회에도 선수단에게 고기를 최대한 많이 배급할 것을 요청해서 현재는 고기가 풍부하게 나오는 등 식단 자체도 많이 좋아졌다.

[44] 건달 할배로 유명한 채현국 이사장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45] 공교롭게도 김응용 전 감독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적 있다.

[46] 저 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문재인이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라 비판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원래 스포츠에 정치가 엮이는 것을 싫어하는 야구팬들이 많다.

[47] 공교롭게도 이듬해 연초부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이렇게 다수의 인물이 실내에 한 데 집결하는 것이 오랫동안 어렵게 되면서, 시기를 앞당겨 팔순 잔치를 미리 치른 것이 어찌 보면 신의 한 수가 되었다.

[48] 하지만 2023년 10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여전히 술을 즐겨 마시는 것으로 보인다.

[49] 다시 말해 현재 KIA 타이거즈의 12회 우승 중 4번이나 김영덕 전 감독이 바친 것이다.

[50] 1987년 플레이오프에서 3승 2패로 해태가 1987년 한국시리즈 진출, 1989년 플레이오프에서는 3연승으로 해태가 1989년 한국시리즈 진출, 2002년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는 전설의 이승엽-마해영 연속 홈런으로 감독 경력 첫 한국시리즈 진출을 한 김성근에게 패배를 안겼다. 김성근은 훗날 인터뷰에서 2002년 한국시리즈 6차전을 회고하며 야구 감독을 하면서 온 게 두 번인데 그 두 번 중 한 번이 이때라고 회고했다. 평남을 빛낸 인물 90인 202~204

7. 문화·예술계

1) 이중섭(李仲燮)

이중섭 : 호 대향(大鄉)

출 생 : 1916년 9월 16일 평안남도 평원군 조운면
(現 평안남도 숙천군 송덕리)

사 망 : 1956년 9월 6일 (서울 망우리 공원묘지)

본 관 : 장수 이씨 (시조 33세손, 양후공파 29세손 중(仲) 항렬(족보))

종 교 : 개신교

학 력 : 오산학교(졸업) 제국미술학교(서양학과/중퇴) 분카가쿠인
(미술과/졸업)

직 업 : 화 가

데 뷔 : 1941년 미술창작 작가협회전

수 상 : 1937년 자유 미술협회전 태양 8상

훈 장 : 1978년 은관 문화훈장

(1) 개요

대한민국의 예술가

20세기 한국 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특히 소를 많이 그려 한국적인 미를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릴 적부터 소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릴 때는 온종일 소만 바라봤다고 한다.[1] 대표적 작품으로는 흰 소가 있다.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사후에야 그 진가를 인정받아 작품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비교되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다만 고흐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빈궁하게 살아온 것과 달리 이중섭은 일제강점기에 돈이 많이 드는 일본 유학[2]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했던 집안 출신이다. 단지 북한이 건국된 이후에도 조선 미술건설본부 등에 활동하며 북에서 공산당 동맹에 임하다 6.25 전쟁 이후 피난을 오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험한 시기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다가 영양실조와 간암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통에 가난하다는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혀 있을 뿐이다.

그의 재능을 안타까워한 지인들에 의해 사후에 회고전이 열리고 점차 인지도가 높아졌다. 1970년대 집중적으로 발굴되어 1990년대 이후에는 박수근과 함께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민 화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2) 생애

① 유년 시절

1916년 9월 16일, 평안남도 평원군 조운면 송천리(現 숙천군 송덕리)에서 아버지 이희주(李熙周)와 어머니 안악 이씨(安岳 李氏) 사이에서 2남 1녀 중 차남이자 막내로 태어났다. 이중섭의 부친은 부농이자 지주로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또한 출생지 평원군 조운면 송천리는 외가의 집성촌이면서 외가 역시 상당한 부잣집이었다. 외조부 이진태(李鎭泰)는 서북 농공은행장, 초대 평양 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할 정도였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상당히 탁월한 재능을 보였으며, 1920년 부친 이희주가 세상을 떠났지만, 친가와 외가 모두 엄청난 부자여서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었다.

1923년 평양 외가로 이주한 뒤 평양 공립종로보통학교에 입학했다.[3]

1925년 동기 김병기의 아버지 김찬영의 작업실을 출입하며 각종 화구와 '더 스튜디오(The Studio)' 같은 유명 미술 서적을 접하고 큰 자극을 받았다.

1930년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였다.

1931년 오산학교의 미술 교사로 부임한 임파(任波) 임용련(任用璉, 1901~?)에게 미술 지도를 받았다. 임용련은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유학파로, 그의 "조선인은 조선 화풍으로 그려야 한다."라는 멋지고 훌륭한 연설에 이중섭은 깊게 감명받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적인 미를 추구하고 서명을 할 때 항상 풀어쓰기로 서명을 한 것이 임용련의 영향이라는 평이 많다. 실제로 이중섭의 작품들을 잘 보면 한켠에 '자T○스너B'이라고 풀어 쓴 서명이 있는 경우가 많다.

1932년 <제3회 전조선 남녀학생작품전람회> 중등부에 입선한다. 이 해 형 이중석이 사업을 위해 가족을 이끌고 원산으로 이주한다. 이중섭은 원산 최초의 백화점 겸 문방구인 '백두상점'을 열어 부를 일구었다. 이중섭이 시인 구상과 절친하게 된 것도, 구상 또한 어렸을 적에 가톨릭 신부이던 형을 따라 원산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1933년 <제4회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람회> 중등부에 입선한다.

1935년 <제6회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람회> 중등부에 입선한다. 다만 논란 거리가 하나 생겨난 헤이기도 한데, 졸업 앨범에 넣을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불덩이가 한반도로 날아드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는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단순히 화가의 세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하도 논란이 되어서 결국 졸업 앨범에 반영하기로 했던 것은 전격 취소되었다.

② 유학 시절

1936년 2월 오산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4월 도쿄 교외 무사시노에 있던 제국미술학교(帝国美術学校, 데이코쿠 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진학했다.



이중섭 젊은 시절

1937년 4월 제국 미술학교를 중퇴하고 문화학원(文化學院, 분카가쿠인)에 입학한다. 이곳은 경직된 일본 사회 분위기에 반기를 들고, 자유롭고 독창적이며 감성적인 인간을 키워낸다는 이념 아래 설립되어 일본 최초의 남녀 평등교육을 실시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1938년 <제2회 자유 미술가협회전>에 입선한다.

1939년 같은 미술부 한 해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法子, 1921~2022)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다. 당시 이중섭은 굉장히 미남에다가 운동, 노래도 잘 하고 그림 실력도 탁월해 교내의 인기스타였다고 한다. 이중섭과 마사코는 연애 중에 서로를 '아고리', '아스파라거스'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아고리'는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인 친구들이 턱(あご, 아고)이 길었던 이(李, 리)중섭을 부르던 별명이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턱돌이' 비슷한 셈. 당시 같은 반에 이(李) 씨가 3명이나 있어[4] 서로 구분할 겸 저런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둘이 하얀 아스파라거스 통조림을 자주 같이 먹고는 했는데, 길쭉한 아스파라거스와 마사코의 발가락이 닮았다고 해서 이중섭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한다. 또 이중섭은 마사코를 '발가락 군(ゆび君)'이라는 애칭으로도 많이 불렀는데, 전에 마사코가 발가락을 다쳐서 이중섭이 치료해 준 것이 계기이다. 우연히도 둘 다 발가락과 관련되어 있다. 처가도 그녀의 아버지가 미쓰이 창고 주식회사[5] 고위 임원을 지냈을 정도로 역시 상당히 부유한 집

안이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마사코의 집안에서 이중섭과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야마모토 마사코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부모님은 결혼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화가로 먹고살 수 있겠나?' 걱정은 하셨지만 조선인이라고 차별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딸 바보였어요. 저를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어요. 먹고살기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프리미엄조선, <이중섭과 이남덕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

1940년 <제4회 자유 미술가협회전>에 입선, <기원 2600년 기념 미술창작가협회 경성전>에 출품한다. 이 해 성탄절부터 마사코에게 그림엽서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1941년 3월 문화학원을 졸업했다. 이쾌대와 함께 "조선 신 미술가협회"를 창설한 뒤 도쿄(3월)와 경성(5월)에서 창립전을 열고 '연못이 있는 풍경'을 출품한다. 4월엔 <제5회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입선하고 협회 회우 자격을 얻었다.

③ 전쟁 말기

1942년 <제6회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한다.

1943년 <제7회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한다. 한신 태양사에서 '제4회 태양 상(조선 예술상 개칭)'을 수여한다. 이 해 전람회 준비를 위해 조선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돌아오지 못하고[6] 원산에 계속 체류했다.

1944년 12월 이중섭이 가족의 결혼 승낙을 받고 마사코를 조선에 불러온다. 당시 태평양전쟁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미군이 폭격기와 잠수함을 동원해 일본 연안 해상교통을 옥죄던 시기였으나, 마사코는 겨우 배를 얻어타고 부산과 서울을 거쳐 원산으로 올 수 있었다. 이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총 후 화가[7]로 일한 흑역사가 있다. 물론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중섭이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형 이중석[8]이 일부러 총 후 화가로 만든 것이었다. 1945년 5월 20일 원산에서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이남덕(李南德)'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둘의 결혼식 사진

④공산 치하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광복되었으나 38선이 그어지고 원산은 북한의 공산 정권 치하에 놓인다. 형 이중석이 자본가 계층으로 몰려 수난을 당하고, 이중섭은 강제적으로 공산당 동맹에 가입해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중섭의 고층이 시작되었다. 이중섭은 사상적으로 표면적 압박을 받은 적은 별로 없지만[9] 공산당 회의에 다녀올 때마다 "맥 없다(맥 빠진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는 이중섭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맞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다. 8월에는 조선 미술건설본부 회원에 가입해 연합군 환영을 위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국가 원수 대형 초상화와 국기를 그리는 일에 참여했다. 9월엔 김영주와 원산 미술협회를 결성했다. 11월에 미도파 백화점의 지하실 벽화를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

1946년 1월엔 이쾌대가 신미술가협회를 확대한 독립 미술협회에 가입했다. 3월엔 북조선예술동맹 산하 원산미술동맹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이해 봄에 첫아들이 태어났으나 해를 넘기지 못하고 디프테리아로 사망했다. 그 비통함

을 승화시켜 8월 광복절 기념 평양에서 열린<제1회 해방기념 종합전람회>에 '하얀 별을 안고 하늘을 나는 어린이'를 출품한다.

1947년 <제1차 전국미술전람회>(평양)에 출품했다.

1947년 둘째 아들 태현이 태어났다.

1949년 셋째 아들 태성이 태어났다. 원산 근처의 송도원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온종일 소를 관찰하며 연필 소묘 등을 많이 했다.

⑤ 한국 전쟁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소개령에 따라 과수원으로 이주하였다.[10] 그 와중에도 11월 원산 신미술가협회를 결성해 초대 위원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10~12월 연합군이 북진해 압록강에 이르렀다가 다시 중공군이 남하하며 원산이 전화에 휩싸이자 이중섭의 가족은 원산에 일군 삶의 터전을 모두 버려둔 채 알거지로 12월 흥남 철수에 동행하여 남한으로 내려온다. 이때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원산에 그대로 남은 노모에게 맡기고 왔기 때문에 작품의 절반 이상은 현재 쉽게 구할 길이 없다.[11]

그렇게 부산으로 피난을 오기는 했지만, 남한에 의지할 만큼 형편 좋은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이중섭으로서는 생계가 막막했다. 본래 이중섭은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란 금수저 출신이라 남에게 신세를 지고 산 적이 없다 보니, 자연히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신세를 진다는 행위를 아주 싫어하고 어쩌다 신세를 져도 어떻게든 갚아야만 하는 성격이어서, 어느 정도 뻔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시 상황이 상당히 낯설었다. 게다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예술가여서 험한 막일을 해가며 돈벌이를 하는 데에도 능숙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중섭을 대신해 부인 이남덕이 거리로 나서 재봉질을 해가며 연명하는 일이 다반사였다.[12] 이런 지경이니 취침 때도 각종 옷을 다 껴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잘 지경이었다.

1951년 1월 15일 정부의 수용피란민 소개정책으로, 그나마 조카 이영진이 있어 연고가 있다는 제주도로 보내졌다. 그러나 제주도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에 머물지도 정하지 못하다가, 어떤 노인이 "서귀포가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몇 날을 걸어갔다. 서귀포의 '알자리 동산 마을'에 도착

하자 마을 반장 송태주·김순복 부부가 본인들의 집 곁방(4.6㎡, 1.4평) 한 칸을 내어주어 네 식구가 살았다.(현 서귀포시 정방동/서귀동 512-1번지) 여기서도 그의 가족은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피난민에게 주는 약간의 배급을 받고,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계를 잡고 한라산에서 부추를 뜯으며 힘들게 삶을 이어갔다. (이 시기 꽃게와 물고기와 좁은 방에서 얽힌 가족들이 그림의 주요 주제가 된다) 그래도 몹시 춥고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부산과 달리 제주도는 그나마 덜 춥고 평화로워[13] 생활은 자유롭고 즐거웠으며,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이 언덕배기에서 산 경험이 창작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10월엔 대한오페라단 창작 오페라 '콩쥐·팥쥐'의 무대장치-소품 제작에 참여하는 소일거리를 얻기도 한다. 이 당시 이중섭이 기거하던 정방동의 송태주·김순복 부부의 집과 방은 '이중섭거주지'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으며,[14] 그 뒤에는 2002년 이중섭 미술관이 개관했다.

1951년 말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파다한 데다, 역시 제주도에 서도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어서 12월에 다시 부산 동구 범일동 판자촌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여전히 돈 벌이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가난과 추위로 상당히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다.

⑥ 가족과의 이별

1952년 엮친 데 덮친 격으로 장인상을 당하여 6월에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된다. 가족끼리의 사랑은 여전히 깊어서 이별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이미 아내 마사코와 차남의 건강이 무척 나빠진 상태였고,[15] 장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있으니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기회라고도 여겨 이를 선택했다고 한다. 전쟁 중이던 당시 한국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 남아 있다가, 배우자가 전사/행방불명 되면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던 일본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 반대로 일본에는 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뒤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할 한국인들이 제법 있었다. 이들을 맞귀국시키기 위해 일본 측에서는 송환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사코는 우선 부산 동구 초량동의 일본인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7월경에 제3차 송환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원래는 이중섭까지 온 가족이 함께 도

일하려 하였으나, 당시에는 해방 후 한일 간 국교 단절이 이어져 정상적인 인적 교류가 매우 어려웠기에[16] 이중섭은 동행할 수가 없었다. 이중섭과 마사코는 이때부터 가족의 재회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이중섭은 그림을 열심히 그려 이를 팔아 일본으로 건너갈 밑천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해 7월엔 친구 구상의 저서 '민주고발'의 표지를 정기적으로 제작했다. 12월엔 <제1회 기조전>에 출품했다. 1953년 5월 <제3회 신사실과 전>에 출품했다.[17]

하지만 이렇게 재회를 위해 안간힘을 쓰던 부부는 치명적인 사기에 휘말리게 된다. 이중섭의 오산학교 후배로 마영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18] 이 마영일이 일본에 있던 마사코를 찾아와서는 일본 서적 무역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한다. 여전히 낙후된 한국에서는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의 문물과 지식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 서적을 한국에 들여와 팔면 제법 돈이 되었다. 마영일은 마사코가 일본에서 책을 사서 본인에게 부쳐주면, 본인이 그걸 한국에서 팔아 구입 원금은 마사코에게 부쳐주고 이익금의 일부는 한국에 있던 이중섭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에 솔깃한 마사코는 마영일의 말대로 도쿄 대학가에서 서점을 하던 친구에게 약속어음을 써주고 5만엔 어치의 책을 보냈다. 이때는 마영일이 약속대로 원금은 마사코에서 보내주고, 이익금 일부를 이중섭에게 나눠줬다. 안심한 마사코는 그다음에는 무려 27만엔 어치의 책을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영일이 원금도, 이익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 마영일로부터 8만엔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나 결국 20만엔 가량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돈을 벌기는커녕 빚을 갚기 위해 마사코도 20년 이상을 샅바느질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1953년 7월 이중섭은 친구 구상의 도움으로 대한해운 공사 선원증을 얻게 되어 단기 체류로 일주일 동안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마사코의 어머니(장모)는 이중섭이 항구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신원보증서까지 구해 주었다. 그것도 보통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친분이 있던 히로카와 고젠(広川弘禪) 농림 대신에게 부탁해서 보증해 주었다고 하며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일본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이중섭을 훗날

훌륭한 화가가 될 텐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설득해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사람 역시 장모다. 이들 네 식구는 1주일 동안 히로시마의 여관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이것이 이들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 되고 말았다.

⑦ 애절한 그리움

그렇게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과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홀로 부두의 막노동을 하면서도 그림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1953년 11월 공예가 유강렬의 초청으로 통영의 나전칠기 기술원에서 교사로 근무한다.

1954년 5월 유강렬, 장운성과 <3인전>(통영 호심다방)을, 강신석, 김환기, 남관, 박고석, 양달석과 <6인전>(마산 비원다방)을, 박생광과 <이중섭 개인전>(진주 카나리아다방)을 차례로 개최한다.

1954년 6월 <제6회 대한미술협회전>(경북공미술관)에 출품했다.

1954년 7월 <현대미술 작가전>(천일 백화점)에 출품했다.

1954년 9월 책 <저격능선>, <황금충> 등의 표지화를 제작했다.

1955년 1월 <이중섭 작품전>(미도파 백화점)을 개최했다.

1955년 4월 <이중섭 작품전>(대구 미국공보원)을 개최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연 마지막 전시회였다.



그가 간간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엽서엔 가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예컨대 신혼 초에 잃은 첫아들이 관 속에서도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발가벗은 채[19] 즐겁게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그렸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그저 '벌거벗었다'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춘화로 취급되어 정부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한다.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이 폐쇄적인 시대에 작가 루이스 캐럴 같은 양반이 때때로 페도필리아로 비난받는 걸 생각하면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다지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다. 또 어디까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그린 그림에는 복숭아나 계 등 동양화에서 장수나 복을 상징하는 사물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죽은 아들이 천국에서 따다 먹으라고 천도복숭아를 그렸다는 뒷얘기가 있다.

부두 막노동조차 건강 문제로 여의치 않게 되자 당시 담뱃갑에 들어있던 은박지에 그림을 그린 것(은지화) 또한 유명하다. 당시 6.25 전쟁으로 그림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쓸모없어진 엽서나 담뱃갑의 은박지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 이런 은박지에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 뒤에 잉크를 칠하고 닦아내면 파인 곳에만 잉크가 스며드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20] 이후 은박지 작품 3점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⑧ 외로운 죽음

1955년 7월 험한 생활고로 건강을 크게 해친데다 개인전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입을 내자 상심한 이중섭은 영양실조와 거식증, 자학 증세[21] 등이 생겨 친구 구상[22]이 대구 성가병원에 입원시켰다. 10월엔 성베드로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23]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12월에 퇴원했다. 박고석이 살고 있던 정릉으로 와 한묵, 조영암과 생활하게 되었다.

1956년 1월 퇴원 후에도 삼화와 표지화를 다수 제작했다.

이후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고통을 겪으며 청량리 정신병원[24] 무료입원실에 입원했다가, 병원 원장에 의해 정신이상인 아닌 심한 간염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서울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다.[25]

그러다 여름에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황달, 정신병, 거식증 등이 겹쳐 안타깝게도 9월 6일 향년 39세라는 한창나이에 무연고자로 생을 마쳤다. 사후 문병 온 이중섭의 선배이자 소설가 김이석이 사망 소식을 처음 알고 친구와 유족에게 연락을 돌렸다. 이중섭의 시신을 수습하기 전에 병원에서 입원비로 18만 원을 청구했는데, 김광균이 5만 원, 기타 인물들의 조의금으로 4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삭감해주었다.[26] 시신은 9월 11일 홍제동 장재장에서 화장되어 봉원사 납골당에 잠시 머물다가 11월 18일 입관했다. 이중섭의 무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망우리 공원묘지에 있다.[27]

(3) 사후

① 1960년대

1960년 <이중섭 유작전>(부산 로타리다방)이 개최됐다.

1962년 <한국 현대 미술가유작전>(중앙공보관)에 출품되었다.

1967년 <이중섭 화백 10주기 추도식>(예총 화랑)이 개최됐다.

② 1970년대

1972년 <15주기 기념 전시회>(서울 현대화랑)가 열렸다.

1973년 고은이 쓴 최초의 평전 『이중섭, 그 예술과 생애』가 발간되었다. 이 작품이 이중섭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미망인 마사코는 그 내용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마사코가 남편 이중섭을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잠시 일본을 방문한 이중섭을 그의 장모가 냉대했다고 묘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아래 가족사 부분에서 보듯이 마사코는 생활력이 떨어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다가 병도 얻었고, 친정아버지의 부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국하게 된 것이다. 장모 또한 사위를 계속 아끼고 지지해줬다고 한다.

1974년 박근형 주연의 영화 《이중섭》이 만들어져 대중상 우수작품상 [28],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요절한 천재 화가라는 이미지로 대중적인 관

심의 대상이 되었다.

1978년 <미발표 이중섭 작품전>(부산국제화랑)이 열리고, 은관 문화훈장이 추서되고, 그의 그림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③1980년대

1986년 <30주기 특별기획 이중섭전>(호암갤러리)가 열리고, 이중섭 기념 사업회, 이중섭 미술상 제정이 추진되었다.

④ 1990년대

1991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에 언급되었다. 맨 마지막 인물이다.

1996년 서귀포시가 이중섭 기념관을 개관하고 이중섭 거리를 지정했다.

1997년 서귀포시가 이중섭이 거주했던 송태주·김순복 부부의 초가집을 매입해 복원했다. 가나 아트 주최로 <이중섭 특별전>(서귀포 신라호텔)이 열렸다.

⑤ 2000년대

2002년 11월 서귀포시가 이중섭 전시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형편상 유화 진품은 1점도 소장하지 못한 채 개관했다. 2003년 3월 가나 아트센터 이호재 회장이 기증한 8점을 필두로 점차 이중섭의 작품이 뒤늦게나마 들어왔고, 2종 미술관이 되어 이름이 '이중섭 미술관'으로 변경되었다. 2004년엔 1종 미술관으로 승격되었다.



왼쪽이 부인 야마모토 마사코(이남덕), 오른쪽이 3남 이태성(야마모토 야스나리)

2005년 3월 16일 이중섭의 삼남 이태성(야마모토 야스나리)가 첫

공개 해서 경매에 내놓은 그림 8점이 2005년 10월 가짜로 밝혀져서 파장이 일어났다. 이 씨가 한국 고서연구회 고문 김용수와 함께 공모해 사기를 친 것. 이를 기점으로 이중섭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이 생겨났다. 한국 미술품평가원에 따르면 이중섭이 위작이 가장 많은 작가라고 한다. 187건의 감정 중 무려 108건이 위작이고 진작은 77건, 감정 불능 2건이었다. 의뢰된 작품의 58%가 가짜였던 셈이다. 이태성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가짜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으나, 과학 감정에서 들통나고 말았다. 물감에 들어간 티타늄과 규소 성분을 찾아낸 X선 형광 분석기 확인, 현미경 관찰, 적외선 촬영 등을 활용한 과학 감정 결과 '이중섭의 그림에는 펄 물감이 사용된 적이 없는데 위작은 펄 물감으로 채색되어 있었다'고 하며 사용된 종지도 그 시절이 아닌 최근에 제작된 것이었다고 한다. 위작은 모두 압수되어 폐기되었고, 일본 국적의 이태성씨는 현재 '기소유예' 상태로 사실상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림

편지 같은 작품 때문에 이중섭의 작품세계와 불가분한 인물이기도 하고, 2022년에는 은관 문화훈장을 기증하는 등 주요 인물 대접은 받는 듯하다.

2006년 이중섭의 그림 '황소'가 35억~45억 원 가격대로 경매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2018년 47억 원에 낙찰되었다. 이후 2021년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이 기증하며 국립 중앙박물관에 소장하게 되었다.

2007년 나희덕 시인(現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이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의 자택과 미술관을 둘러 구경한 뒤에 그에 대한 시를 썼다. 이중섭이 살아생전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의 가난하고도 행복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한편 그의 작품에 대한 묘사도 절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다. 참고로 나희덕 시인은 원래 화가 지망생이어서 그림과 화가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본 작품은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연계교재에 실린다.



⑥ 2010년대

2012년 4월 10일 구글이 구글 두 들로 이중섭 탄생 96주년을 기념하여

'황소'를 로고 화했다. 2012년 11월 1일 미망인 마사코가 생전 마지막으로 92세의 나이에 서귀포를 방문했다. 이때 이중섭이 1943년 일본에서 미술창작가협회(자유 미술가협회(自由美術協會)의 전신) 태양 상 부상으로 받아 마사코에게 청혼의 징표로 선물한 팔레트를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 측에 기증했다. 2014년 5월 부산광역시가 이중섭 가족이 피난으로 머물던 범일동 풍경 거리를 이중섭 거리로 조성하기로 한다.

2014년 9월 미술평론가 최열이 5년 작업을 거쳐 돌베개 출판사에서 이중

섭 평전을 펴냈다. 2014년 12월 '이중섭의 아내'(원제: ふたつの祖国、ひとつの愛 ~イ・ジュンソプの妻)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 2016년에 개봉했다. 2016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전에 배우 이정재가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했다. 자타공인으로서 이정재가 젊은 시절 이중섭의 외모와 매우 흡사하기에, 배우 본인도 제의받은 당시 운명과 같이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 해에 차남 이태현이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⑦ 2020년대

2020년 12월 4일 일본의 신문기자 오오누키 도모코(大貫智子)씨가 이중섭-이남덕 부부의 사랑을 그린 논픽션 《帰らざる河 - 海峡の画家イ・ジュンソプとその愛 (돌아오지 않는 강, 해협의 화가 이중섭과 그의 사랑)》이제 27회 쇼가쿠칸 논픽션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愛を描いたひとイ・ジュンソプと山本方子の百年 (사랑을 그린 사람 이중섭과 야마모토 마사코의 100년)》이란 이름의 단행본으로 쇼가쿠칸에서 출간되었다.

2021년 4월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진품 12점(유화 6점, 수채화 1점, 은지화 2점, 엽서화 3점)이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되었다.

2022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는 3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미술관을 헐고 약 10배 규모(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700㎡)로 새 미술관을 건축하여 2025년 6월에 재개관하였다. 2022년 8월 12일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1,488점 중에서 선정한 이중섭의 작품 90점과 국립 현대미술관이 기존에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 10점을 더해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총 100점의 작품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배우 고두심이 오디오 가이드를 맡았다.

2022년 8월 13일 부인 이남덕은 남편을 잃은 이후에도 평생을 수절하다 일본 도쿄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향년 101세. 장례식은 8월 18일 도쿄 세타가야구 기독교회 예배당에서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상주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식인 막내아들 이태성이다.[29] 하지만 이태성은 앞서 언급된 2006년 위작 사기 사건으로 사실상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기에 한국에서 부친의 일 관련으로는 더 이상 참석하기 힘들 듯하다.

(4) 가족

- 증 조부: 이동규 (1826년~1898년)
- 조부: 이창희 (1856년~1898년)
- 아버지: 이희주 (1886년~1920년)
- 형: 이중석 (1904년~1946년) 형수: 김의녀
- 조카: 이영진 (1935년~2016년) 조카 며느리: 강순남 (1946년~)
- 조카 손녀: 이지연 (1970년~) 조카 손녀 사위: 공병인 (1962년~)
- 조카 손녀: 이지숙 (1972년~) 조카 손녀사위: 이경광 (1962년~)
- 조카 손녀: 이지향 (1974년생~) 조카 손녀사위: 심재현 (1970년~)
- 누나: 이중숙 (1914년~?)
- 본인: 이중섭 (1916년~1956년)
- 배우자: 야마모토 마사코 (1921년~2022년)
- 첫째 아들(1946년)은 이름도 짓지 못하고 디프테리아로 사망
- 차남: 이태현 (1947년~2016년) - 후두암으로 사망
- 삼남: 이태성(야마모토 야스나리) (1949년~)

(5) 기타

이중섭이 그린 초상화는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을 포함해서 5점이 남아 있다. 자화상을 제외한 초상화 중 1점은 서귀포 시절 집 주인 부부 중 남편인 송태주 씨의 초상화이고, 나머지 3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인근 서귀포 사람들의 그림이다. 본래 이중섭은 초상화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 달라고 부탁해도 그려 주지 않았을 정도이고,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인 가족 그림은 그렸어도 가족 개개인의 초상화는 그리지 않았다. 이중섭이 서귀포에서 그린 이 초상화들도 당시 전사자들의 가족들과 집주인인 송태주가 부탁해서 그린 것. 전사자들의 초상화는 겨우 남아 있는 증명사진을 바탕으로 그렸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사례로 이중섭 가족에게 보리쌀과 고구마 등을 나눠줬다고 하며, 이 초상화들은 전사자 가족들이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송태주의 초상화는 어려운 처지에

이런 밥벌이를 소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집 마루에 앉혀 놓고 그려 준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섭 본인의 자화상은 1955년에 그렸는데, 당시 이중섭은 몸과 정신 모두 병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 치료를 시키려 하자, 이중섭은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내가 미쳤다면 그림을 멀쩡하게 그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도로 자화상을 그렸다. 하지만 지인들의 권고로 정신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고 이듬해 사망하게 된다.

노래 실력이 좋아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 삽화 작업으로 근근이 돈을 마련하곤 했으나 자신은 삽화를 싫어했다고 한다.

[※] 당초 출생이 4월 10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추측하고 있다. 고은이 이중섭 평전을 집필하기 위해 일대기를 조사하다가 이중섭 친구의 생일을 이중섭의 태어난 날로 착각하여 기재한 것이다. 이중섭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해도 늦여름으로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 이중섭이 다니던 학교의 기록부를 펼쳐보니 9월 16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중에 집필된 최열 미술평론가가 쓴 이중섭 평전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 現 무사시노 미술대학

[2] 이진태(李鎭泰)의 딸이다.

[3] 1945년 5월, 결혼 기념으로 남편 이중섭이 선물한 한국식 이름이다. 남쪽 지방, 즉 일본에서 온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족보에는 이씨라고 적혀 있다.

[4] 일본에서는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서로 성씨로 부른다.

[5] 일본 3대 재벌 가운데서도 1위였던 미쓰이 그룹의 물류 회사이며, 지금도 존재한다.

[6] 당시 태평양전쟁이 확산될 시기라 징병제를 시행했던 탓도 있다.

[7] 일제를 찬양하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를 뜻한다.

[8] 당시 상당한 권력자였으며 6.25 전쟁 당시 부르주아로 몰려 비참한 꼴을 당했다.

[9] 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라 봐야 친구 구상이 참여한 시집 "응향"에 그림을 그렸다가 시집이 사상적으로 비판받자(구상은 이 일로 일찍 월남한다) 심문받은 일뿐이었다. 이 사건으로 문초를 겪기는 했으나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던 듯하다.

[10] 원산, 평양, 남포 등은 당시 UN군의 표적 1순위였다. 한 미군 장교는 "원산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원산에서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회고했을 정도.

[11] 이러다 보니 박수근과 함께 가장 위작이 많은 대한민국 화가이기도 하다.

[12] 일본 유학 시절부터 이중섭의 절친이었던 화가 황염수의 아내 남경숙은 이렇게 이남덕이 고생하는 광경을 보고 이중섭이 정말 무능하고 나쁜 남편이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

[13] 사실 제주라고 해서 그리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분명히 전쟁의 참화에서는 한 발짝 벗어나 있었지만, 4.3 사건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48년 시작된 4.3사건은 1년 가까이 맹위를 떨치다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1950년 6.25 전쟁의 개전과 함께 대대적인 예비 검속이 발동되었고, "산폭도"로 유배되어 있거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였다.

[14] 세월이 지나면서 집이 옛 모습을 잃었다가, 1997년에 1950년대의 원형대로 복원했다. 집 안주인 김순복은 마사코와 동갑으로, 최근까지도 이 집을 지키고 살았다.

[15] 원래는 아내에게 장인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아내는 심한 영양실조로 폐결핵에 걸려 각혈까지 하는 중증 환자로, 건강이 상당히 나빠진 상태여서 이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서 더 건강이 나빠질 것도 우려했고, 또한 설령 알았다고 해도 곧바로 일본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어찌어찌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아들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

[16]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상당한 배경과 재력이 있어야 했다. 평시도 아니고 전시이던 1952년에 병역을 피해 국교 단절 상태인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 시절에 있긴 있었는데, 바로 이맹희와 이창희가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굴지의 기업인 이병철 정도의 재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17] 일본 유학과 화가들인 김환기·유영국·이규상·장욱진이 결성. 신사실편(新寫實派)은 1948년 12월에 창립전, 1949년에 2회 전시회를 연 이후, 1953년 부산에서 이 3번째이자 마지막 전시회를 열고 해체되었다.

[18] 고은의 평전에서는 마영일이 부산 광복동에서 서점을 경영했다고 하고 있고, 최석태의 《이중섭 평전》에서는 통운회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19]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20] 담뱃갑 은박지가 가난한 이중섭의 상징처럼 남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은박지로싼 담배 자체도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구매도 힘들었던 물건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처절한 작품 활동이 말년의 생활고를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다.

[21] 구상의 증언에 따르면 이중섭은 "나는 그림을 그린답시고 세상을 속였다. 콩밥을 얻어 먹고 다니며 무엇이 될 것처럼 사기를 쳤다."라면서 자학했으며, 아내에게 온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다만 구상은 이중섭의 정신병 증세가 '별것 아니었다'라고 기록했다.

[22] 해당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야구선수 구자욱의 증증조부(증조할아버지의 형제)이다. 정확히는 구상의 친형의 증손자가 구자욱이다.

[23] 이 과정에서 혼자 병실 3개에 흰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다.

[24] 당시의 병원명은 청량리뇌병원

[25] 당초에는 한목과 박고석 등의 결정으로 정신과에 입원했는데, 나중에 구상이 찾아와 내과 증세가 심각한 것을 보고 여러 인맥을 동원해 전원시켰다. 정작 서울적십자병원에서는 또 발작을 일으켜 내과의가 "정신병자를 내과에 입원시키라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최열은 1956년 8월 고모 집에서 요양하는 이중섭을 보았다는 김광림의 증언을 바탕으로 병원의 반발 때문에 잠시 한 번 퇴원한 적 있었으리라고 추측했다.

[26] 이중섭의 이종사촌 형 이광석이 적십자 서울지사 사무국장 이범석과 친구였다.

[27] 후배 조각가 차근호가 1주기 때 돈을 각출해 세운 조각상이 있으며 유골의 절반은 아내 이남덕 여사가 도쿄의 야마모토 가족묘로 모셔갔다. 따라서 망우리에는 유골의 절반만 있다. 그 외에도 박고석이 이중섭이 마지막으로 머문 정릉의 청수동 계곡에 조금 뿌렸다고 한다.

[28] 최우수 작품상은 김지미 주연의 《토지》가 차지했다.

[29] 큰형은 생후 몇 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작은형은 2016년에 모친보다도 6년 먼저 숨졌다.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긴 국가답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노인 아들이 90대~100세 노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조금 더 길기 때문이다.

8. 언론계

1) 신언준(申彦俊)

신언준 : 호 :은암(隱岩)⁴⁷⁾

본관 : 평산 신씨

출생 : 1904년 11월 8일

평안남도 속천군 우상면 미남리(현 평안남도 속천군 장흥리)

사망 : 1938년 1월 20일 (평안남도 평원군)

묘소 : 국립 서울현충원 충혼당

서훈 : 1987년 건국훈장 독립장

(1) 개요

68) 평안남도 평원군출신(독립운동가:신언준) 천도교도 출신기자, 이봉창 사진 외신기자 전달, 신일철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 부친, 1904~1938 |작성자 이동현 이북도민작가

한국의 독립운동가, 기자. 198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2) 생애

① 초년기

신언준은 1904년 11월 8일 평안남도 속천군 우상면 미남리(現 속천군 장흥리)에서 부친 신정균(申貞均)과 모친 송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신언준의 부친 신정균은 동학도였으며, 신언준은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한 후에 입교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입교 경로와 교단 내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0세까지 한문을 수학했고, 14세가 된 1918년에는 오산학교에 입학했다. 오산학교는 한 말 상공업에 종사하여 크게 성공한 이승훈이 설립한 신민회계열의 민족학교로 평양의 대성학교와 더불어 서북지역 민족운동자들의 근거지였다. 그는 이곳에서 수학하면서 민족의식을 익혔다.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한 후, 평원군에게서도 3월 6일 첫 시위가 발생했다. 평원군에게서의 시위운동은 3월 18일 장날에 절정으로 치달았는데, 이날 신언준도 시위에 참가해 김억만, 박인송, 한준겸과 함께 오산학교 천도교인 학생대표로서 시위행진에 앞장섰다. 그러나 일본군 속천 헌병 분견대 군경의 제지를 받아 시위가 중단되었고 주동자들은 일제히 체포되었다. 이후 신언준과 김억만은 태형을 받은 뒤 석방되었지만, 박인송은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3.1 운동 이후, 신언준은 오산학교에 복학했지만, 오산학교가 일제에 의해 교사가 소실되었고 재학생들이 흩어져서 학교 운영이 어려웠으며, 일제 순경들의 감시가 심해 학교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었다. 그러던 1921년,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혁명공보>를 발행해 선전 활동을 했다. 이에 학교가 <혁명공보>를 발행한 학생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자, 그들은 동맹휴업을 감행했고 600명의 학생이 학교 처사에 불만을 품고 일제히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이때 신언준도 여기에 가담했다. 그러나 그는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이후로 오산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고향에 머물렀다.

② 독립운동

1923년, 신언준은 상하이로 망명했다. 그가 상하이로 망명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도교 신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국내에서 일제의 감시에

시달리느니 중국에 가서 배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신언준은 상하이에 도착한 후 곧바로 항저우로 가서 영문 전수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한 뒤,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오송 국립정치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28년에는 동오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신언준은 대학에 재학하던 중인 1924년 3월 10일 상하이에서 윤자영, 조덕진, 최충신 등과 함께 진보적 청년 독립운동단체로서 '청년동맹회'를 발기 조직했다. 청년동맹회는 '민족적 확고한 단결과 조직 위에서 자유와 독립을 획득하자'라는 목표 아래, '독립운동의 기치 하에서 민족적으로 일치단결하자', '민족적 독립의 완성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분투하자'라는 실천 강령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26년 천도교는 종파상의 갈등으로 인해 구파와 신파로 분열되었다. 신언준은 신파에 가담했고 그해 4월 신파 중심의 신문화운동 전개에 참가해 <신인보>의 주필을 맡았다. 신언준은 과거 문명, 특히 외래종교 풍습의 답습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그는 인도의 미신적 숭배 사상과 중국의 지나친 윤리적 발달에 따른 가족제, 그리고 서구 물질문명의 개인주의적 사상을 예를 들어 지적하면서, 인간 본연의 주체를 상실한 현시점에서 미래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관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가 제시한 '신인간관'의 사상적 요소는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에 근거했고 '성경신(誠敬信)'을 현대철학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먼저 '성(誠)'은 개체적 훈련의 요건, '경(敬)'은 사회생활의 요건, '신(信)'은 개체와 사회의 합일화로 풀이했다. 또한 성은 지적 명확함과 정의적 열정의 합성으로 인격체 형성의 근본이며, 경은 평등사상으로 겸양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회화의 기본이며, 성은 반드시 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내 안의 한울님을 통해 한 개인의 자유 확립으로 독립적 삶을 영유하는 동시에 사회,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단결해 나아가야 하며, 진정한 자유는 개인과 국가, 민족 사이에 '실천성'이 궁극적으로 발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신'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즉, 신은 독립적 자유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이면서도 사회실천을 전개해가는 중요한 가치철학이었다. 신언준은 성경신의 사회 실천적 요소를 '지(知)', '정(情)', '의(意)'로 다시 개념화하여 '학문과 종교,

그리고 실행적 윤리 도덕'으로 정의했다. 그는 서구물질 문명발달의 폐해에 대한 해법이 실행적 윤리 도덕이라면서 이것이 곧 정신문명의 진보라고 봤다. 다시 말해, 그는 정신문명의 진보는 인간 주체로서 스스로를 자각하여 삶을 창조하는 실천성에서 발현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신언준의 주장은 독립운동에도 적용되었다. 그는 현재 조선이 서구의 제국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맞서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가 지닌 공상적 안위와 의지적 평화에 심취해 있어서 독립을 위한 자유의지의 투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인 개개인이 일제의 침탈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각 자가 투쟁으로 결의를 통해 투쟁철학을 세울 때 진정한 독립정신이 발현된다고 봤다.

또한 한 민족의 흥망이나 한 사회의 성쇠와 한 개인의 인격은 백절불굴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용기가 없다면 그 민족은 무가치한 것으로 소멸되어 버린다면, 무저항주의는 열패한 자 또는 쇠망한 자의 비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천도교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조선 청년들에게도 용맹과 기백을 진작시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는 조선인이 될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신언준의 신 인간관은 인격의 자유를 통한 자립정신, 민족과 국가를 위해 혁명을 도모하려는 창조 정신, 그리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낳은 계급에 대항하는 평등정신에 기초했다.

1926년 7월 임시정부의 국무령에 취임한 홍진이 전 민족 대단체를 건립하자고 하면서 민족유일당 건설 운동을 촉발하자, 신언준은 이에 부응하여 상해 지역 학생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추진했다. 그는 주요섭 등과 함께 그해 10월 23일 청년동맹회와 화동 한국유학생회 등 상해지역 학생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대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한인학우회를 결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1927년 3월 10일 일부 한인 유학생들은 청년동맹회의 마르크스주의 신봉에 반감을 품고 상해 한인청년회를 결성했다. 이때 신언준도 여기에 가담해 후보집행위원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상해 한인청년회원들도 사회주의의 열풍에 휩쓸렸고, 1927년 11월 재중국 본토 한인청년동맹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신언준은 상해 한인청년회 역시 사회주의로 물들었다고 판단하고 안창호

의 흥사단에 희망을 품고 1927년 10월 27일 흥사단 원동위원부에 제220단으로 정식 입단했다. 이후 그는 안창호를 도와 독립운동 문건 작성, 통역, 강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운동의 저변을 넓혔다. 한편, 신언준은 1924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대한교민단에서 설립, 운영하던 상해 인성학교의 교사로 초빙되어 독립운동가와 교민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담당했다. 그는 교장 조상섭과 여운형, 학감 윤기섭, 교사 김두봉 등과 교류하면서 열성으로 민족교육을 실천했다. 그 결과 그는 같은 해 6월 7일에 개최된 상해 대한교민단 의사회에서 윤기섭의 후임으로 인성학교 학감에 당선되었다.

신언준은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상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세계신문> 아주(亞洲)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세계열강들의 동향과 동아시아 정책을 분석 및 보도했다. 그리고 1929년부터 <동아일보>의 상하이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아시아 정세 및 열강들의 동향을 분석 보도하고, 임시정부와 그 밖의 독립운동 상황을 국내외에 전파, 홍보했다. 그는 중국의 각 신문, 잡지에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논설들을 게재하여 한중 양민의 친선을 도모하고,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신언준은 베이징대학의 총장인 채원배와 중국의 대문호 노신등 중국의 지식인 및 정치가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관계로 임시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교섭 업무도 담당하였다. 신언준은 왕충혜, 호한민, 후스 등 다양한 중국 지식인들을 취재하고 기관지에 소개하였다.

1931년 7월 2일 중국 길림성 장춘현(長春縣) 만보산(萬寶山) 지역에서 수로 문제로 한중 양국 농민들이 충돌한 만보산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국내언론에 국민회의 동북대표단들이 일제에 항의한 사실을 보도하고, 동시에 일제가 조선인을 이용해 만주침략을 기도한다고 전하여 배일 열기가 한인들 사이에 높아졌음을 알렸다. 그리고 동북외교협회가 국제연맹에 정당한 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언준은 또 <상해 거주 조선인의 각 단체의견>을 <동아일보>에 게재해 조선 내의 동포들이 은인자중하고 중국인들에게 보복적 행동을 피할 것을 권고했으며, 장학량으로 부터 만보산 사건을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이 조선 농민사이의 분류가 아니

라 상조권 문제이며 일본의 요구를 절대 거절하겠다고 밝힌 전보 내용을 국내 신문에 기고했다. 또한 국내 조선인들에게 <이천만 동포에게 고합니다>라는 장문의 사설을 기고해 "민족적 이해를 타산하여 허무한 선전에 속지 말라"고 알렸다. 1931년 7월 10일, 신언준은 중국인들에게 직접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전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임시정부 국무위원들과의 긴급회의에 난징 정부 대표 사절단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국민당 외교부장 왕정팅과 만나 일제의 한중 민족 이간 책동에 말려들지 말 것을 호소하고, 중국 정부가 이주 한인들의 보호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친분이 있는 중국 언론계 인사들과 신문 기자들을 초청해 만보상 사건의 내막을 폭로했다.

그러나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김구는 중국 정부와 손을 잡고 일제에 대항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 일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암살 및 거점 파괴 활동을 벌였다. 한인 애국단에 의해 최초의 거사는 이봉창의 천황 암살 시도였다. 신언준은 김구의 지시에 따라 거사 직전 기념 촬영한 이봉창의 사진을 친했던 외신 신문 기자에게 주었고 외국 신문에 이봉창 사건이 집중 보도된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9일 홍콩 공원 의거 때도 윤봉길의 기념 촬영 사진을 배포했다. 이에 중국인들의 여론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야 한다는 데 모아졌다. 그 결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재정지원과 군사 협조를 받게 된 임시정부는 그간의 침체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③ 사 망

이후 신언준은 중앙군관학교의 연락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청년을 만나 중앙군관학교에 입교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1935년 초에 폐결핵이 위중한 상태가 되어 부득이 귀국했고 이후 고향에서 병마와 싸우다가 1938년 1월 20일 사망했다. 향년 34세.

대한민국 정부는 1987년 신언준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1998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 신언준은 사회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흥사단에서 활동할 당시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강론을 하였다. 한국과 중국처럼 경제적 낙후지역은 분

배보다 생산이 중요하며 협동조합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후 신언준은 1930년 홍사단의 공평사(소비합작회사) 발기인에 참여한다.

1930년에 신병(身瓶)에 걸려 홍사단 반장 직책에서 사표를 내고 1931년 베이징에 치료를 받고 왔지만 완치되진 않았다. 차이석의 서신에는 협막염으로 적혀 있다.(독립기념관 자료실)

1935년 6월 3일 인천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9. 공무원, 금융계, 실업계 등48)

1) 정중렬 (전 평안남도 도지사)

관세 전문가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실향민과 탈북자 복지에 전력투구한 평안남도 지사 정중렬(중앙고 46회)은 지난 1959년 재무부에 들어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관세청에서 감사국장을 비롯해 서울 본부 세관장 등을 역임한 관세 전문가로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 왔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기독교 개혁 신보가 사장, 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장, 한국장로회 총연합회장 그리고 중앙교우회장 등 사회 봉사직의 삶을 통해 업적을 쌓아 왔고, 특히 2년 전부터는 평안남도 도지사로 실향민의 복지와 탈북자 가족 자매결연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부친 정재윤의 고향은 평안남도 평원군 용호면 약전리이며, 정중렬은 1935년 8월 평양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일본 동북대 출신의 변호사를 했던 인텔리였고, 어머니 조선부는 해방 직후 이북 정국의 실력자였던 고당(古堂) 조만식의 딸이다. 이처럼 훌륭한 가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평양에서 성장해 종로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 월남하여 보니 신의주 학생 사건으로 이미 월남하여 큰형 세열(41회과 둘째 형 동렬(43회)은 중앙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고당의 친구인 한경직(한景職) 목사의 소개로 대광중학교에 편입 공부를 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52년 중앙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중앙고 재학 중 짝꿍이었던 김원근(金源根 46회)은 모교 송구부 주장으로

61) [출처]평양 출신, 전 평안남도 도지사(서울세관장 역임) | 작성자 이동현 이북도민작가

활동했다. 정중렬도 송구부에 들어가 열심히 운동했다. 당시 송구를 잘하던 학교로는 양정고·배재고·한양공고가 유명했다. 선수들은 중앙학교 서관 2층에서 합숙을 하면서 송구 연습을 했는데 공부하랴 송구 연습하랴 정신없이 바빴다. 선수들은 늘 피곤해 늦은 밤이 되면 서관 2층에서 몰래 밖으로 실례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최영철(崔泳哲) 선생(화학)이 늦게 그곳을 지나다 오줌 세례를 받아 선수들이 한동안 ‘졸기’도 한 일화가 있다. 당시는 요즘처럼 교내 체육서클을 도와줄 예산이 없어 항상 배고픔 속에서 운동하곤 했는데 이를 딱히 여긴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일정량의 쌀을 공출받아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중앙 팀은 송구 서울 대표팀으로 출전하여 준우승한 기록이 있다. 이때 선수로 활동한 교우는 김 주장 이외에도 고장환(46회-재미) 최양환(46회) 오병해(47회) 임정(46회-작고) 김준수(金俊洙(47회), 박대식 등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학교 운동장에서 육사 송구팀이 늘 연습을 해 이 팀의 스파링 파트너로 중앙 송구팀이 상대하기도 했다. 이런 인연으로 후일 고대와 육사 송구부에서는 중앙학교 선수들을 상대로 서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육사 송구부 후견인으로 있었던 몇 분은 1980년대 후반 이 나라 정치사의 핵심인물로 부각되기도 한다.

정중렬이 중앙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이 같은 일화 중에도 지금껏 잊을 수 없는 일은 주왕산(周王山·국어) 김창천(金昌天, 체육) 선생과 맺은 남다른 사제지간의 정이었다. 이들 선생은 고향의 제자인 정중렬에게 남다른 사랑을 베풀어 그는 후일 사회인이 된 후에 김창천 선생의 회갑연을 베풀어 드리는 등 각듯이 모셨다고 한다. 특히 주왕산(周王山) 선생덕은 생활이 넉넉지 못해 컬러 TV가 일반화되었을 때까지도 TV가 없어 처음으로 컬러 TV를 선물 해 드리기도 했다. 정중렬은 고등학교 3학년 전반부까지도 송구 선수 생활을 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공부에만 전념한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경제 분야의 공부를 한 덕택으로 후일 재무계통의 공무원이 되어 평생 봉직한다. 그는 대학 2학년 말 입대해 헌병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제대한다. 처음 재무부 공무원이 된 것은 1959년 7급 재정 공무원 모집시험에 합격하고서부터다. 일주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1959년 9월부터 서울 사세청에 근무하다 재무부로 들어온 후 재무부 인사계장, 기획 예산계장으로 일했다. 1973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관세청에서 총무과장 감사과장, 예산과장 등을 거쳐 관세청 감시국장, 감사관, 김포본부 세관장, 서울본부 세관장 등 관세청의 중요 보직을 모두 거쳤다.

모두 30여 년간의 재무 공무원으로 특히 관세청에서 근무해 관세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근무할 때 일화가 많다. 검사 출신의 최대현을 관세청장으로 모시고 5년 동안 총무과장을 할 때 청장이 워낙 청빈한 성격이어서 직원들이 외부인들로부터 넥타이를 받거나 할 때도 당사자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야단을 쳐 애를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녜다고 한다. 특히 김포세관장을 할 때 한 밀수 피의자 (미국 교포) 를 검거하여 보고를 마치고 송치 전에 피의자가 도망치게 되어 세관 전체가 발각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그를 다시 잡을 때까지완전 비밀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독려해주었던 민건식 부장검사(현재 : 변호사)를 잊을 수 없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정중렬은 시간 나는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며 체포 작전을 도왔는데 결국 11일 만에 그 범인이 택시를 타고 스스로 수사본부에 돌아와 관계자들이 놀랐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요즘이나 옛날이나 큰 사건의 범인을 잡으려면 그들의 폭력 세계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기 마련인데 이때도 명동의 ‘신상사’를 수사본부에 불러들이면서 실마리를 찾아 결국 범인을 자수하게 만들었다.

공직 생활을 마친 후 그는 1992년부터 3년 동안 한국 관세사회 이사장으로 취임, 관세사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봉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70여 년 동안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종교 분야의 봉사활동을 한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중앙 위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 사단 법인 외항 선교회 이사, 극동 방송 운영 위원회 위원장, 한국시각 장애인 선교회 이사, 동 회장,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동 운영위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가운데는 아직도 그 타이틀을 유지하면서 왕성한 봉사활동을 하는

직함도 있다. 이처럼 종교 분야에서 왕성한 봉사활동을 하던 정중렬은 지난 2002년 6월에는 중앙고등학교 교우회 회장에 취임한다. 일찍부터 계록회 회원으로 선배님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교우회 상임이사가 되고 이어 3만여 선후배 동문들 상호 간의 친목과 중앙학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교우회 회장에 오른다. 그는 무슨 단체이든 활성화되려면 조직이 살아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먼저 기별이나 직능별로 소조직으로 그룹을 만들어 단합과 친목을 위한 모임을 개최해 나갔다. 하지만 재임 기간이 짧아 전 회기를 상대로 그룹별 모임을 모두 마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막말로 자다가도 중앙 하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라며 “전통 사학의 본산인 중앙학교에 대한 사랑 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평양 출신으로 2001년 6월부터 평양 명예시장으로 월남 동포들의 친목을 다져오던 정중렬은 2004년 평양시민 회장을 거쳐 2006년 6월 행정자치부 이북 5도 위원회 평안남도 지사로 취임하였다. 평안남도는 평양시 진남포시 등 2개시와 14개군 139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다. 현재 평안남도 도청에서는 실향민들의 민원서류 처리와 매년 5월 5일 도민 단합대회 그리고 10월 중체육대회 (이북 7도 도민 단합대회) 를 개최하여 실향민의 애향심 진작과 후계세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밖에 해마다 해외동포 200명씩을 초청하여 4박 5일간 안보 현장 견학 그리고 산업시설 시찰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에는 도청에서 탈북자들의 출신성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매 결연사업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정중렬 지사도 개인적으로 충남대에서 이공계 박사 과정을 받는 이운걸 군 (평양에서 공대 이학석사 과정을 이수) 과 자매결연을 맺어 친가족처럼 돌보고 있다. 그동안 공직 생활과 다양한 봉사사업을 해 온 공적으로 많은 훈포장을 받았다. 1978년 녹조 근정훈장, 1986년 홍조근정훈장, 2003년 국무총리 표창, 200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현재 염광교회 원로 장로인 그는 부인 김순영 사이에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큰아들 성엽 등 3형제를 두고 있다.

10. 기타

1) 의사(醫師)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의사	박문선	산부인과	공덕
치과의사	나운영	치과	숙천
치과의사	김왕선		"
의사	안봉건	한양의원	용호
"	성혜향	세브란스병원	"
"	성진향	경희의원	"
"	병혜영	세브란스병원	"
"	송한영	송요셉의원	해소
"	최우건	부천 최소마과	검산
치과의사	최동현	창원 치과의원	"
의사	최창현	내과 의사	"
치과의사	오기숙	치과 의원	"
의사	김진형	을지신경외과의원	평원
"	박형순	대구 순임의원	양화
"	이우영	서울대부속병원 산부인과	"
치과의사	김병찬	김병찬 치과의원 의치학박사	"
"	박연희	충북 녹십자 병원	"
"	김규완	금성의원	순안
"	강혜기	대전	노지
"	김창희	의학박사	"
"	이우영	서울대부속병원 산부인과	양화
"	박연희	춘천 녹십자병원	"
안과의사	오영환	오영환안과의원	조운
치과의사	나인영		숙천
"	전기찬	공의	노지
"	서광권	중앙의원	해소

”	김관배	지성당의원	노지
”	안철환	평안의원	”
”	이 정	이내과의원	순안
”	송정옥	소아과	해소
”	차희국	산부인과	”
”	송복자	뉴욕시립병원	”
”	석세일	서울대학교부속병원	순안
”	병옥성	치과의원	숙천
의사	한두진	한국병원	공덕
한의사	김준영	중앙한의원	노지
치과의사	김희준	치과의원	평원
”	오기돈	오기돈치과의원	
의사	김천봉	중앙의원	
”	김찬역	아세아의원	
”	차상호	모자산부인과	검산
”	김응서	김응서내과의원	순안
”	최정혜	복음병원	평원
”	한일우	군의관	한천
”	김정홍	애린의원	해소
”	김선국	보생의원	노지
”	김명덕		
”	김길성		순안
”	김원호		동암
”	이창로	성심병원	동암
”	차창선	차성선치과의원	동송
”	차형각	서산 서울의원	”
”	이정일	이정일 산부인과	”
”	조익호	조피부비뇨기과	”
”	정성철	여흥병원	공덕
치과의사	김병기	치의학박사	노지

의사	서광욱	아주대병원	해소
의사	조익호	조의원	동송
"	위상오	위상오외과	노지
"	박중양	평화의원	평원
"	한두진	한국병원	
"	박종선	정형외과	
"	이세만	육군병원	노지
"	위기호		청산
"	한낙규		공덕
"	석재원		순안
"	차윤근	국립의료원 원장	해소
"	신례용	신례용 안과의원	숙천
"	윤필근	윤내과의원	평원
"	신기락		숙천
"	오한권	오안과의원	동암
"	서광근	서내과	해소
"	최종주	사성의원	검산
"	김관철	지성의원	순안
"	이 명	명의원	청산

직위	성명	근무처	출신면
	김형욱	남도의원	평원
"	신태철	신 산부인과의원	숙천
"	김진삼	동아의원	평원
"	김광수	광성의원	순안
"	김승문	순천의원	동암
"	김원일		동암
치과의사	이룡인	서면치과의원	순안
"	오탈량	대동치과의원	순안
의사	안정배	안소아과의원	동암
"	차학근	해림의원	"

”	박창철	의사회보사장 관리협회장	공덕
”	박창실	박산부인과의원	공덕
”	박창염	박순대의원	청산
”	차태근	한강삼성병원	
”	정원팔		
”	신재륜		숙천
의사	김관태	수원 서울외과병원	서해
”	김정태	관악보건소 소장	”
의사	김용태	아주대학교 병원	”
치과의사	신상섭	신치과 의원	”
의사	신재균		숙천
”	김화청		평원
한의사	위병룡	위병통한의원	평원
”	위정혜	봉덕당한의원	평원
의사	김수득	김외과의원	평원
”	주형일	보성의원	한천
”	김희백		평원
”	나기복	약산의원	숙천
”	위정일	위정일외과의원	평원

2) 기업가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사장	위상직	보루네오공장 주식회사	청산
회장	김영원	주식회사 진도	평원
사장	위상균	동서가구공업 주식회사	청산
회장	이호민	현대교통주식회사	서해
사장	박형철	동남철강주식회사	한천
회장	박영련	한국전선주식회사	노지
	김병설	도원교통주식회사	”

"	김재삼	동성운수주식회사	양화
"	박창욱	대일전선주식회사	청산
"	오동선	삼화전자공업주식회사	검산
"	오만순	주식회사 한도전선	청산
"	김철주	창영양조장	조은
"	김기억	남성흥진주식회사	순안
"	안병섭	경인기업	용호
"	김종근	협성한판	덕산
"	홍세주	영신상운	"
"	차용규	경보식품(당면공장)	"
"	오인석	평화고무주식회사	
"	김희동	대전교통주식회사	
사장	차준근	평양양말공업사	
"	박태홍	한국선박주식회사	한천
"	한명봉	주식회사 광영염직	서해
"	이호경	극동고무	
"	최충근	대근직물	
"	박정혜	평안농장	평원
"	박찬강	화랑농장	
"	김룡환	아시아화학공업사	
"	박응수	제일케스	
"	이명재	동대구상사	
"	이영빈	성무산업	순안
"	송한청	(주)기획파이낸스	해소
"	조성호	아산기업	"
"	김광평	현대의료기	조은

”	김운섭	인천 동부시장 대표	”
”	김진영	호진	”
”	정지근	선일상사	”
”	차성호	서지건설(주)	검산
”	차홍호	중원건설(주)	동송
”	김운섭		검산
”	정원근	선일상사	조운
”	이충렬	콘티넨탈 해운Co.	”
”	김윤권	대영인쇄(주)	”
”	김윤정	평원사(부산)	”
”	박춘산	일식(춘)	

3) 사회단체장

직위	성명	경력	출신면
회장	오훈철	통일경모회	한천
단장	한홍기	월드컵·포항제철축구단장	순안
회장	김동훈	대한금속학회	양화
단장	박진효	평양축구단장	덕산
”	김 승	상신공업사	한천
”	백기일	삼근물산	노지
”	신병만	극동금속공업주식회사	순안
”	위상돈	바로크가공공업주식회사	청산
”	이용익	아카데미화공업사	동암
”	김태원	평원건재	”
”	김종혁	삼우다이캐스팅	순안
”	이관수	쌍엽정밀	서해

”	이병룡	평화가구	”
”	김영진	주식회사 진로	평원
”	김상봉	대동중공업(주)	”
”	박영춘	동방목재공업주식회사	속천
”	박원춘	한강주유소	”
”	황대운	평천공무점(일본거주)	한천
”	한재선	사업대가	용호
”	마창엽	주식회사 평원	”
”	박제근	부덕기초건설	”
”	박석모	한국건전(주)	노지
”	김상열	산업전자	”
”	김영주	대일포장	”
회장	김동섭	남성진흥(주)	순안
사장	김기억	”	”
회장	이춘애	이성화학(주)	”
사장	이영상	이성화학(주)	순안
”	오명옥	평광임택(주)	”
”	허정운	(주)정운	”
”	김윤제	수도추레라	”
”	김기화	성미산업	”
”	한창문	화성장(천안시)	”
”	한승기	블란서 안경	”

제12장. 평원군민회 현황49)

1) 평원군민회 활동(약사)

공산 치하에서 벗어나 월남한 고향인들 이 추위와 굶주림을 극복하고 서울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헤맬 때, 친구나 고향인을 만나면 그렇게도 반갑고 다정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호구지책(糊口之策)을 마련할까!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 하며 서로 같은 처지에서 의논도 하고 서로서로 위로도 했다. 천대와 무시와 장애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차차 숨을 돌리게 되고 보니, 동향인들이 모여서 한 단체를 만들고 서로 만나고 의논도 하고 취직이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서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했다.

1947년 3월 어느 토요일, 신일여관(信一旅館)에서 정중흡(鄭鍾洽)씨 등 20여 명이 다음과 같은 취지들을 의제로 군민회를 만들 것을 의논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취지들을 의제로 했다.

(1) 명칭(名稱) : 평원군민회(平原郡民會)

(2) 목적(目的) : 동향인들의 상호연락과 군민회(郡民會) 가입, 회원 친목, 상부상조, 단체의 신장발전, 반공의식 강화, 자녀 교육문제, 군민회 묘지 마련 등.

(3) 회원 자격(會員資格) : 본 군내 원적을 둔 사람과 본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모든 분야에서 평등하다.

(4) 사업(事業)

- 우선 서울지구에 사는 군민들의 주소과약
- 군민의 구제사업
- 군민총회의 개최
- 기타 군민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5) 평원군 제78회 정기총회 책자 25P~34P

(5) 임원(任員) : 회장 1명, 사무담당 1명

(6) 경비(經費) : 임시사무소를 신일여관으로 하고, 회원제로 하여 회원이 매월 300원씩 내기로 정한 후 군민회 조직에 들어가 초대 회장에 독립운동가이며 한의사인 위병식(韋秉植) 씨를 추대한 후, 여관 주인 강진조(康鎭祚) 씨를 사무담당으로 정하고 군민들에게 군민회 창립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 시내 5개소(서울역전, 화신 앞, 파고다 공원 앞, 창경궁 앞, 동대문시장 앞)에 광고 포스터를 붙이기로 했다. 그 후 사랑방 모양으로 회원들이 찾아와서 회원 수가 늘어감에 따라 회원명부도 작성하게 되고 1948년 3월 동아일보사 1층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약 70명이 참석하여 후임 회장으로 당시 정부의 총무처장으로 있는 순안면 출신 전규홍(全奎弘) 씨를 2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얼마 후 주독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동년 9월에 임시총회를 열고 3대 회장으로 당시 농림부 축산국장으로 있는 용호면 출신 이근태(李根台) 씨를 보선하고, 부회장으로 한천면 출신 안우현(安禹鉉) 씨를 선출하였다. 1949년 3월 비원에서 개최한 총회에서는 당시 변호사직에 있는 동송면 출신 김병관(金炳觀) 씨를 제4대 회장으로 선출한 후 부회장에 안우현(安禹鉉) 씨를 유임시켰다. 이때까지는 경비문제와 회원들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져 아직은 회세(會勢)가 빈약했다.

1950년 봄 창경궁에서 총회를 열고 제5대 회장으로 박병순(朴炳順) 씨가 선출된 후 3개월 만에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군민 대부분이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1·4후퇴 때 월남해 온 군민들의 수가 합해져서, 많은 군민이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 부산으로 남하한 후 군민 회장을 찾아오는데 이들을 백방으로 도왔다.

1951년 8월 22일 피난지인 부산시 대신동 수원지에서 평원군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 서로의 소식과 정담을 나누었다. 1954년 10월 3일 창경궁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또다시 박병순 씨를 제7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그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1956년 4월 26일 별세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10대 회장 김영섭(金陽燮) 씨가 선임될 때까지도 여전히 재정이 빈약한 상태였으나, 공덕면 출신 기업가 이윤주(李允周) 씨가 기

금 일백만 원을 회사함으로 군민회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이후 후에 대출 관계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함)

1961년 5·16 군사 혁명이후 집회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일시 침체하기도 하였으나 64년에 비로소 다시 총회를 가지게 되었고, 67년에 와서는 회칙을 개정하여 총회와 대의원 회의의 기능을 분리하여 총회는 주로 친목 위주의 행사로 치르게 되어 차원을 높여 한 모임으로 참석회원도 많아지고 운영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67년 9월 20일 선임된 공덕면 출신 박병빈(朴炳彬) 회장은 군민회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실향 군민들이 갈구하던 군민회 묘지로 임야 12,660평과 밭 1,147평을 구입하여 3만 군민의 찬사를 받았다.

1973년 11월에 선출된 서상원 회장은 장학회 설립을 제창, 76년 6월 평원군 장학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천 1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979년 10월 13일 장학회 창립 회의를 개최, 초대 회장으로 한명봉 씨를 선출, 이듬해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지금까지 해마다 장학금을 수여해 왔는데 90년에 와서 송길호 씨에게 회장을 인계했다.

향후 군민회 세(勢)는 신장하여 위 병룡 씨가 1981년 12월 7일 회장으로 선임된 이래 군민의 단합과 활성화의 기풍 진작을 강조하여 청년회와 어머니회 등 유관단체의 운영이 더욱 활발해지고 군민회 기금도 증가했다.

한편 평원군지 편찬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나 회장 임기만료로 침체상태에 있다가 1989년 10월 한명봉 회장이 선임된 후 다시 위병룡 전 회장에게 계속 편찬을 의뢰하였으며 이후 여러 후임 회장님들의 노력으로 박선욱 회장 재임 시에 대망의 평원군지(平原郡誌) 편찬이 완료되었다.

평원군민회의 숙원 사업인 평원군지가 십여 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통해 1세 어르신들의 심혈과 탁월한 역사의식(歷史意識)을 통해 만들어져 1997년 12월 11일[박선욱 회장(29~31대)]에 발간 축하 기념식을 가졌다.

평원군지(平原郡誌)는 1세(世)의 고령화로 타계(他界)하시는 어르신이 늘면서 시급한 후계세대 육성(育成)과 고향을 모르는 2, 3세대를 위해 1세 어르신께서 남겨주신 귀중한 유산(遺産)으로 남게 되었다.

1996년 1월 22일 29대 군민 회장으로 박선옥(朴善郁)[이후 31대까지 역임 ~ 2001년 12일] 씨가 선출되어 1996년 10월 8일~10일 명예 면장단 수련대회(제주도), 1997년 5월 16일 우이동에서 평원군 부녀회 단합대회를 가졌으며, 해소 면에서는 고향의 어르신 26명에 대하여 금팔찌 증정을 가졌다.

평원군민회는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노력은 1980년 창립되어 현재까지 매년 장학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면 단위 장학회가 2002년 2월 5일 숙천면에서 청호 장학회가 설립하여 2002년 4월 1일[32대 이성찬(李聖燦) 회장에 청호 장학생을 배출하였고, 2002년 5월에 평원면 출신 이영덕(李永德) 씨가 33대 군민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03년 2월 15일 평원군 청년회 조직강화 대회 개최, 2003년 아시아 공원에서 개최된 제57회 정기총회는 청년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며 2세를 통한 후계세대를 육성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4년 1월 27일에 조운면 출신 정원칠(鄭元七) 씨가 34대 군민 회장으로 선출되며 2004년 9월 9일 남양주 산내들에서 평원군 임원진 및 친목회원 야유회 등의 모임을 가지며 군민회 모임을 통해 단합을 꾀하였고, 2004년 12월 16일 연말 기독교 회관에서 평원군 청년회 주최로 어르신 효도잔치를 열며 청년회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2007년 1월에 검산면 출신의 35대 오기봉(吳基鳳) 회장 이후 본격적으로 군민회 후계세대 양성과 평원군민회 묘지관리 정립을 위해 묘지관리 회칙 개정과 신평리 평원군 묘원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편의 시설을 위하여 4천여 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2세 중심의 평원군민회 운영을 위한 회기 조정 등을 통해 이후 평원군민회는 청년회 스스로 1세의 유지(有志)에 대한 역사의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과 1세 어르신의 아낌없는 후원과 청년회 성장과 3세 청년회 육성을 통해 평안남도에서 가장 먼저 2세 군민 회장 36대 전승덕(全承德)을 배출하며, 37대 이주진(李柱進), 38대 이남일(李南一), 39대 김천석 군민 회장 때는 코로나 3년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후 40대 박춘길(2025년 9월 별세) 41대 이주진 으로 6대(代)를 이어지는 세대교체(世代交替) 과정을 통해 모범적인 평원군민회로 성장하고 있

다.

몇 명의 평원군민회 장학생을 중심으로 2008년 1월 24일 발족한 3세 청년회에 대하여 평원군민회는 예산에서 3세 육성 지원금을 편성하여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다. 3세 청년회는 매년 도민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정기총회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행사지원뿐 아니라, 중앙도민회의 청년회에서 2010년 11월 13일 발족한 3세 모임에서 초대 회장으로 평원군 3세인 전준식이 선출되었고 평원군 3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북5도민 사회에서는 평원군민회 3세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2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원군민회는 70년을 이어지는 평원군민회가 1세의 못다 한 남북통일의 염원과 고향을 그리며 먼저 가신 어르신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2016년[제37대 이주진(李柱進)] 평원군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으로 1996년 발간된 후속 군지 발간을 기념사업으로 결정하였고, 1세 주중팔 고문을 군지발간 편찬위원으로 모시고 2·3세를 중심으로 군지 발간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2017년 후속 군지 발간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발간된 평원군지의 방대한 향토사 외 문화 자료를 비롯한 인문학 자료가 더할 수 없이 완성되었기에, 후속 군지 발간은 1997년 이후 평원군민회 약사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2·3세의 눈높이에서 기존의 평원군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평원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작업으로 미흡하지만 후속 군지 발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추진하여, 2017년(38대 이남일 군민회장) 70주년 평원 군지를 발간하였다.

2019년 말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74회 정기총회, 2021년 75회 정기총회를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2022년 76회 정기총회는 40대 박춘길, 2025년 9월 1일 선임된 41대 이주진 군민 회장으로 다시 시작하는 평원군으로 모토를 삼았다.

2) 역대 군민회장(2025 현재)

	성명	재직기간	비고		성명	재직기간	비고
초대	위병식 韋秉植	1947. 3. ~1948. 2	숙천	27	오학운 吳學云	1992. 9. ~1993.12	검산
2	전규홍 全奎弘	1948. 3. ~1948. 8	순안	28	김용택 金龍澤	1994. 1. ~1995.12	숙천
3	이근태 李根台	1948. 9. ~1949. 2.	용호	29~3 1	박선욱 朴善郁	1996. 1. ~2001.12	영화
4	김병관 金炳觀	1949. 3 ~1950. 2	동송	32	이성찬 李聖燦	2002. 1. ~2002.4	한천
5 ~7	박병순 朴炳順	1950. 3. ~1956.10	공덕	33	이영덕 李榮德	2002. 5. ~2003.12	평원
8	배기용 裴基龍	1956.11. ~1958. 9	숙천	34	정원칠 鄭元七	2004. 1. ~2006.12	조운
9	이학천 李學泉	1958.10 ~1960.10.	조운	35	오기봉 吳基鳳	2007. 1. ~2010. 6	검산
10~ 12	김양섭 金陽燮	1960.11. ~1967.8	동송	36	전승덕 全承德	2010. 7. ~2013. 6	동암
14~ 16	박병빈 朴炳彬	1967. 9. ~1973.10	공덕	37	이주진 李主進	2013. 7. ~ 2016. 6.	덕산
17~ 20	서상원 徐相源	1973.11. ~1981.11	해소	38	이남일 李南一	2016. 7. ~ 2019. 6.	한천
21~	위병용	1981.12.	평원	39	김천석	2019. 7.	한천

23	韋龍炳	~1987.12.			金千石	~ 2022. 6	
24	박기만 朴基蔓	1988.1. ~1989.9	공덕	40	박춘길 朴春吉	2022. 7. ~ 2025.5	공덕
25	한명봉 韓明奉	1989.10. ~1991.11	서해	41	이주진 李主進	2025. 9 - 현재	덕산
26	송길호 宋吉鎬	1991.12. ~1992. 8	해소				

3) 역대 명예군수(2025 현재)

대	성명	재직기간	면별
1~2	김양섭 (金陽燮)	1966.10.20 - 1970.6.24	동송
3~4	김영운 (金榮胤)	1970.6.25 - 1974.6.24	한천
5	이용팔 (李龍八)	1974.6.25 - 1976.6.24	순안
6~7	한명봉 (韓明奉)	1976.6.25 - 1980.6.24	서해
8~9	위해룡 (韋海龍)	1980.6.25 - 1986.6.24	평원
10	오례식 (吳禮植)	1986.6.25 - 1989.6.24	"
11	이재로 (李在露)	1989.6.25 - 1992.11.14	청산
12~13	김걸영 (金榮杰)	1993.2.28 - 1998.6.24	숙천
14	이영덕 (李榮德)	1998.6.25 - 2001.6.24	평원
15	김이규 (金利奎)	2001.6.25 - 2004.6.24	해소
16	정봉선 (鄭鳳善)	2004.6.25 - 2007.6.24	공덕

17	김순초 (金順初)	2007.6.25 - 2010.6.24	한천
18	오기봉 (吳基鳳)	2010.6.25 - 2013.6.24	검산
19	전승덕 (全承德)	2013.6.25 - 2016.6.24	동암
20	이주진 (李主進)	2016.6.25 - 2019.6.24	덕산
21	이남일 (李南一)	2019.10.10 - 2022.10.17	한천
22	김승호 (金承鎬)	2024. 5. 7 - 현 재	해소

4) 평원군 명예면장(2025 현재)

20대 명예 면장단		
직책	성명	비고
평원면	정성숙	간사면장
공덕면	이종근	
동암면	전준식	
순안면	김현섭	
양화면	현숙자	
덕산면	이숙경	
한천면	최영선	
청산면	주광재	
노지면	우선종	
용호면	오삼석	
해소면	김승호	
서해면	김정열	
검산면	오현철	
조운면	김상원	

숙천면	김선식	
동송면	신호용	

5) 면민회 회장단(2025 현재)

면민회 회장단		
직책	성명	비고
평원면	김정훈	
공덕면	(공석)	
동암면	(공석)	
순안면	김창수	
양화면	김재희	
덕산면	이주진	
한천면	오재욱	
청산면	주중괄	
노지면	김문진	
용호면	(공석)	
해소면	김승호	
서해면	(공석)	
검산면	김지원	
조운면	김재만	
숙천면	박영춘	
동송면	신재용	

6) 평원군 조직현황 (평원군 집행위원) (2025년 현재)

직책	이름	군	비고
명예회장	김천석	한천	
군민회장	이주진	덕산	
명예군수	김승호	해소	
장학회장	박영춘	숙천	
상임고문	오기봉	검산	
상임고문	주중괄	청산	
고 문	전승덕	동암	
고 문	이주진	덕산	
수석부회장	(공석)		
상임부회장	이종근	공덕	
감 사	정규식	조운	
감 사	최국진	동암	
산악회장	김영주	노지	
부녀회장	정성숙	평원	
새마을회장	최영선	한천	
위원	박상훈	순안	
위원	이기순	공덕	
청년회장	김선식	숙천	
상 무	이남일	한천	

2. 평원군 친목회 (平原郡 親睦會)⁵⁰⁾

1970년 2월 21일 박병빈(朴炳彬) 군민회장 당시 청계천 삼우정에서 확대 임원회(任員會)를 개최하고 군 임원 및 유지(有志)분들이 친목회 조직을 결의하고 다음 달 3월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매월 지속되고 있다. 운영은 월 회비는 3만 원으로 정하여 당일 식사 비용을 공제한 후 월 2명씩 계금조로 해당 금액을 지급(支給)하고 있으며, 계원 중 경조사(慶弔事)가 있을 때 식대를 찬조하여 비축된 예산을 군민회(郡民會) 행사 시 친목회 회비 일부를 찬조(贊助)하는 등 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평안남도에서도 인정하는 오래된 친목회이다. 세월이 흘러 월남 1세는 점점 타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1세가 참여하던 친목회에 공석이 많이 증가할까 우려하였지만, 변함없이 이어져 왔으며 오히려 참여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增加)하고 있다. 이는 2·3세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대(代)를 이은 향수의 욕망이며 이미 평원군 군민회장직은 2010년도 2세이신 전승덕(全承德) 회장이 승계함에 따라 평안남도 도민회에서 최초로 세대(世代)교체를 이루게 되었고 따라서 본 친목회도 세대교체를 이루게 되어 체제개편(體制改編)을 하고 체질개선을 위한 회칙을 작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고향의 원적(原籍)을 평원군에 둔 모든 분에게 문을 개방(開放)하게 되어 자진하여 입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으며 면민 회장 면장 및 평원군민회 보직자는 당연직으로 입회하게 됨에 따라 본 친목회는 매월 끝 주 토요일에 개최하기로 정하고 전원 참석하게 되며 본 군민회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토론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일면식도 없던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며 정담을 나누면서 서로 생활의 정보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상호 간에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회원 중 경조사가 있을 시는 전 회원이 참석하여 회비애락(喜悲哀樂)을 같이 나누어 왔으며 이미 비축된 기금에서 찬조금을 인출(引出)하여 상조(相助)하는 미풍을 만들고 있다. 연말(年末)에는 불우한 동향인(同鄉人)을 찾아 돕고 위로하기 위하여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2·3세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지며 이 아름다운

66)2017년 평원군지(70년사) 발췌 수록

뿌리가 친목회에서 싹트기 시작하였음을 주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매사에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대통령기 체육대회 및 평남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게 됨은 본 친목회에서 화합된 의견과 단결력을 조성한 결과이며, 이 뜻의 산실이 바로 친목회임을 직시하고 친목회 발전과 아울러 1세 어르신들이 이룩한 전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3. 평원군민회 장학회

본 장학회(獎學會)는 남한(南韓)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고향의 얼을 심어주고 불우학생 및 우수학생들에게 면학에만 전력을 쏟아진, 선, 미의 생활을 추구하고 고향 땅 재건에 선봉장이 되는 믿음직스러운 평원청년(平原靑年)을 양성하기 위하여 1979년 10월13일 오후 3시 을지로4가 안면옥(安麵屋)에서 창립총회(創立總會)를 개최하였다. 1980년 3월 21일 대학생 6명, 고교생 2명에게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후 매년(每年) 계속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83년 초에 금리문제와 재산보관상 안전을 기하기 위해 방산시장 3층의 점포를 매입하여 그 월세를 받아 장학금지급(獎學金支給)을 진행하다 1989년 5월 실향민들이 모두 동참한 동화은행주(同化銀行株)를 매입키 위해 점포를 매각하였다. 본군 임원진들 및 군민들의 찬조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였으며, 1998년 구조조정으로 동화은행이 신한은행으로 넘어가며 사실상 그동안의 주식(株式)으로 비추되었던 기금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었다. 다시금 군민들의 자발적 기금조성(基金助成)으로 장학금을 마련하며 현재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980년부터 2017년 3월 현재 대학생 353명, 고교생 78명을 배출(輩出)하였다. 기금은 현재 우리은행에 1억 3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매년 이자와 함께 장학위원(獎學委員)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장학금을 전반기 1백만 원 후반기는 해외연수 워크숍 비용으로 1백만 원 지원하기로 함.

1차 2018년 8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6명)

2차 2019년 8월 베트남 다낭 (8명)

2020년-2022년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함.

1) 평원군(平原郡) 기부장학금(寄附獎學金)

군민 개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출연하여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나, 전문적인 학업을 추구하여 사회 진출후, 군민회(郡民會)의 위상(位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며, 수시로 설립되는 평원군만의 특별한 장학금 제도이다.

2) 숙현 장학금

어려운 환경(環境)속에 법학(法學) 및 경영(經營)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에만 열중할 수있도록 지원키 위해 2013년 2월에 용호면(龍湖面)출신, 김현숙씨가 2천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設立)한 장학금(龔學金)이다.



매년 2명씩의 장학생을 배출하였으며 장학생 일부는 벌써 사회에 진출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2월에 2천만 원을 재 기부하여 2023년까지 장학금을 수여하였음.

(고)김현숙(숙현) 장학회장님께서서는 2021년 10월 31일에 별세하셨습니다.

3) 윤건 장학금 (獎學金)

제18회(1997.2.) 본군 장학생 출신인 방송인 윤건(本明 양창익(楊昌益:조운면)씨가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음대(音大) 다닐적에 도움을 받아 사회에 진출하여 예능(藝能)쪽으로 안정되자 군민회(郡民會)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여 2012년 2월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하여 본군출신 학생 중 예능(藝能)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매년 1명씩 장학금을 2백만 원씩 2016년까지 지급하였다. 1979년 첫 장학생 배출후, 장학생이 사회 진출하여 군 후배들에 장학금(龔學金)을 출연한 것이 장학생(裝學生)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가 되었다.



2025. 5. 10 평원군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2025. 5. 10 평원군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2025. 5. 10 평원군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4. 평원군민회 청년회

1) 평원군 청년회(平原郡 青年會) 약사

본 군민은 공산 치하에서 벗어나 월남한 고향인들이 고생스러운 삶의 터전을 준비하면서 동향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의논 및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 3월 평원군민 친목회를 구성하였다. 휴전 후 군민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발전되면서 1979년 10월 13일 안면옥(을지로4가 소재)에서 본군 출신 학생들이 학업을 후원하기 위한 바람으로 평원군 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후 본 군 출신 청년들의 상호친목과 남북통일의 중책을 지고 있는 2세로서의 결의와 기성세대들이 못다 이룬 일들을 승계하여 앞으로 군민회를 비롯 장학사업 등을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로서, 선조와 부모들에 대한 공경심과 애향 정신을 본받고 조직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며, 고향을 알고자 하는 동질감으로 어른들의 따뜻한 지도하에 당시 활동하던 청년을 중심으로 1980년 11월 19일 각 면을 대표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의 축복과 격려를 받으며 “평원군 청년회”의 이름으로 조직 발족하였다.

그동안 청년회는 1세 어르신들의 경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석하여 경로효친의 실천을 몸소 행한 술선수범을 통하여 자제들을 본회에 참여유도 시키며 활동하는 청년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1980년 평안남도 중앙청년연합회가 설립 당시 본군 회원들이 주요 역할을 하였고, 본회 4대 회장인 이주진(現 군민회장), 11대 정규식(現 도 새마을협의회), 12대 이남일(現 군민회 상무)은 평안남도 중앙청년 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또한 전승덕씨는 본 군 군민회장, 군수를 역임하고 현재 도민회 수석부회장으로 13대 김기현씨는 평안남도 중앙청년연합회 청년회 수석부회장의 직책으로 군 및 도민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평원군민회장, 명예군수 등의 모든 임원진을 평안남도에서 최초로 2세들로 구성시켰다.

본회는 타도 및 타군에서 활성화하기 힘든 3세 육성사업을 2008년에 3세 청년회를 최초 조직하였으며, 평안남도 3세 청년회 발족시 본회 3세들을 주축으로 조직되었고, 초대회장을 본군 3세 전준식군이 임명되었다. 이런 큰 성

과를 이룬 각대 회장 및 임원진들은 중앙 청년연합회 및 도민회,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직책을 담당하여 현재의 위상을 떨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회는 1967년에 조성된 군민회 묘지(포천 신평리 소재)를 수시로 방문 관리, 보수하며 명절 때마다 일찍 방문하여 새로운 2,3세 회원들을 가입시켰고, 군 장학생 선발에 참석하여 3세들에게 통일을 대비한 애향심을 심어주고, 매년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단합된 서로의 형제애와 우정을 통한 일체감 조성으로 평원청년회원들의 유대들 돈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많은 회원을 바탕으로도 체육대회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여 타 군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현재 100여명의 정회원들로 구성되어 도내에서 제일 많은 16면을 중심으로 각 면 청년회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후에 각 면민회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 주도적인 직책을 맡아 1세들의 모든 업무를 인수토록 하여 통일을 대비한 어르신들의 사업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청춘이 백발이 되고 이미 실향의 한을 간직한 채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고향을 잊지 않고 더욱 더 발전 계승하여 망향의 한을 꼭 풀어줄 것이며, 이 시대가 바라는 실향민 사회를 이룩하고 새 시대에 부흥하는 선도적인 실향민 2,3세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긍지있는 청년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



2) 평원군 3세 청년회(平原郡 3世 青年會)

군민회가 결성된 후 어르신들이 각자 아이들의 손잡고 가족동반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는 가운데 그 기반으로 삼아 삼삼오오 청년회원들이 모이고 어른들의 따뜻한 지도하에 당시 활동하던 청년을 중심으로 1980년 11월 19일 각면을 대표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의 축복과 격려를 받으며“평원군 청년회”의 이름으로 조직 발족하였다.

그 후 청년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청년회 사업 중에 후계세대 육성 사업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2세 청년 회원들이 성장을 하여 결혼하며, 예전 어르신들이 하던 것처럼 청년 회원들도 월례회 및 야유회 모임 등 활동을 할 때 그 자식들을 하나하나 손잡고 참석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 대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하는 3세들이 있었다. 그런 3세 후손에게 어른들이 정성스럽게 모아두신 돈을 장학기금을 만들어 장학생을 배출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회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보고 3세들만의 결속이 필요한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여러 청년회장들이 3세 육성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속을 맺지 못했다, 13대 김기현회장이 2008년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과 더불어 자주 활동하는 3세 회원 김정열, 김려안, 박다연, 전준식, 전동식 외 다 수명이 모여 평원군 3세 모임을 하자고 결의를 하고 여러번의 모임을 하고 나서 2008년 12월 평안남도 중앙청년연합회 회장 및 각 시군 청년회장들과 평원군민회장, 군수 및 임원진 어르신들, 평원군 청년 회원들을 모시고 평원군 청년회 정기총회 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정식으로 3세 청년회가 출범되었다.

초대 회장에 김려안(해소면)양을 선출하고 매년 4월 평남 청년체육대회 및 5월 평남 도민의날은 본 회원 위주로 선수 구성하여 모든 체육 행사를 주관 운영하고 명절 때마다 평원 추모공원묘지 주변청소 및 편리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 본 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평남중앙 청년연합회도 숙원 사업이었던 3세 육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평안남도 중앙청년연합회 3세 청년회(연우회)가 발족시키고 초대 회장으로는 평원군 동암면 출신 전준식군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 이후로 각 시군에서도 3세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계속 발족을 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연우회에서는 본군 이승호(한천면)군이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서 도민 사회에서 평원군의 위상에 빛을 내주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4년 평원군 3~4세 청년회 정기총회

5. 추모공원 약사

평원군민의 망향의 한을 위로하고 사후 안식처 마련 및 조상과 부모형제에 대한 추모의 기념장소이며 군민의 위업을 기리고, 후계세대들에게 통일주체의 역량을 배양시키며, 선조 경모 사상과 통일을 기원하는 장으로서 군민의 단합과 발전을 기하며, 사후라도 고향인들끼리 함께하다 통일되는 그날에 고향산천 선산에 돌아가기를 희망하여, 1967년에 박병빈회장이 전 군민을 상대로 노력하여 16개면에서 십시일반 모금하여서 거금을 만들어 군민회 묘지로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 산4번지의 임야(林野) 12,66평(坪)과 신팔리 62번지 전(田) 1147평(坪)을 구입하여 1972년에 토지 소유권이전을 등기하였다. 또한 35대 오기봉 군민회장님과 주중팔 상무, 청년 회원들과 함께 직접 묘역을 전수 조사하여 420여기의 표역마다 구역번호판을 제작하여서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성묘객들의 휴식과 편리를 위하여 주차장입구에 대지면 적 500㎡, 건축면적 66㎡의 현대식 철물골절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사무소를 준공하여 성묘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 때마다 청년 회원들이 묘역 주변정리 및 음료제공 등 봉사를 통하여 성묘객 중 후계세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회의 지속적 애향발전에 큰 장이 되고 있다. 2022년부터 매년 6월 망향제를 지내고 있으며 망향비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수년 전부터 망향비 공원묘지 내에 설치하여 멀리서나마 고향에 모신 조부모, 부모의 제를 지낼 수 있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2천만 원 가량 소요되는 경비는 오기봉 상임고문께서 5백만 원을 찬조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군민회원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였습니다.

박춘길 군민회장님, 이주진 고문님이 준비 위원으로 2024년 5월부터 준비하여 6월 22일 망향비 제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6일 10시 망배단 망향비 제막식후 추모공원 내에서 제 4회 망향제를 거행하였습니다.



2025.04.26.제 4차 평원군 추모공원 망향제



2025.04.26.제 4차 평원군 추모공원 망향제



2024. 6. 22. 추모공원 망향비 제막식



2024. 6. 22. 추모공원 망향비 제막식



2000. 9 추모공원 정상에서 바라봄



2019. 10 화천 평화의 댐 하류

6. 평원군(平原郡) 부녀회(婦女會)

1983년 봄에 어머니회가 조직(組織)을 하면서 초대회장(初代會長)에 이강순(李康順) 여사를 선임(選任) 발족(發足)했다.

제37회(83년) 군민회 정기총회(定期總會)때 이를 공포(公布)하고 회원들을 소개(紹介)했다. 향후 해마다 열리는 군민회(郡民會) 정기총회장에서 안내, 접수, 정리, 식사준비등 자원봉사(自願奉仕)를 맡아 했으며, 회원들끼리는 친목회(親睦會)와 경로(敬老)잔치, 경조위문(敬弔慰問) 등의 참뜻을 행하였다.

십여년전 부터는 청년회소속(青年會所屬) 부녀회(婦女會)와 함께 행사를 주관(主管)하고 업무인계(業務引繼)를 차근차근 진행(進行)하고 있다.



2019. 10 화천 평화의 댐 평화의 종 타종

7. 평원군(平原郡) 새마을협의회(協議會)

1970년 이래 정부 주도(政府 主導)로 추진(推進)해 온 새마을운동을 순수한 민간 주도(民間 主導)로 전환(轉換)·추진(推進)하기 위해 1980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運動中央本部)가 창립(創立)되었으며, 1989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명칭(名稱)을 바꾼 후 2000년 지금의 명칭(名稱)으로 다시 변경(變更)했다. 1998년 제 2의 새마을운동 추진 선언(推進 宣言)을 하고 ‘생활개혁운동’(生活改革運動)과 ‘새로운 지역공동체운동(地域共同體運動)’을 양대 축(軸)으로 하여 경제난국 극복(經濟難局 克復)을 위한 경제(經濟)살리기 운동과 실업극복및 청소년 통일안보(統一安保) 의식 고취(鼓吹) 북한이탈주민과 가족결연(家族結緣)등 실향민 사회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펼치고있다.

초대 협의회장 김영주. 2대 정규식. 3대 김기현. 4대 이남일.

초대 부녀회장 김재일. 2대 최영선. 3대 이기순. 4대 최영선.

8. 평원군 유관단체

○ 평원군 공원 묘지

본 공원 묘지는 포천 신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00기가 있음. 묘지 관리위원회에는 오기봉(집행위원) 묘지관리위원으로는 김정열, 이종근이 있음.

○ 평원군 친목회

1970년 2월 21일 박영빈 군민회장 당시 청계청 삼우정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임원 및 유지분들이 친목회 조직을 결성하고 다음달 3월에 발족, 현재까지 매월 지속되고 있음(회원 60명.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1시) 운영은 월회비 3만원으로 정하고 당일 식대 15,000원을 공제한 후 월 2명씩 계금조로 30만원 해당금액을 지급함. (봄.가을 칙목계 단합대회)

○ 평원군을 사랑하는 모임 (평사모)

- 청년회를 거친 장년들의 모임

회장 - 김승호(해소)

매월 3번째주 토요일에 모임

가입조건 : 평원군 출신 만 60세 이상

○ 장학회

초대회장 한명봉(서해) :1979. 10. 31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24년현재까지 박영춘 회장(집행위원) 으로 이어지고 있음.

1980년 3월 21일 대학생 6명 고등학생 2명에게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 매년 지급 중입니다.

- 1차 :3월 100만원지급

- 2차 :7월해외연수(100만원.독립운동 유적지)

1. 숙헌 장학금

1차 2013년-2017년, 2차 2018-2022년, 용호면 출신 (古) 김현숙고문(집행위원)께서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 어려운 환경속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명씩(각 2백만원) 장학생을 배출하였음.

2. 윤건 장학금

제18회(1997.2.) 본군 장학생(本郡獎學金) 출신인 방송인((放送人) 윤건(本明:양창익(楊昌益) 조운면)씨가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음대(音大)다닐적에 도움을 받아 사회(社會)에 진출(進出)하여 예능(藝能)쪽으로 안정(安定)되자, 군민회(郡民會) 학생(學生)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여 2012년 2월에 1천만 원의 장학금(龔學金)을 출연(出指)하여, 본군(本郡) 출신(出身) 학생중 예능(藝能)을 전공(專攻)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매년(每年) 1명씩 장학금을 2백만 원씩 2016년까지 지급하였다.

평원군 청년회

1980년 11월 19일 초대회장 1세 위해룡(평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 현재 김선식 3세 회장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1. 청년회 조직도 (전원 3세로 조직되어 있음)

명예회장 : 박정규(평원면)

회장 : 김선식(숙천면)

수석 : 노현진

감사 : 전준식, 이영림

사무국장 :

사무차장 : 이관호

회원 : 약 30명

O. 부녀회

회 장 : 정성숙(집행위원) 외 10명

O.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 남자회장 - 이남일

여자회장 - 최영선

O. 산악회

산악대장 김영주 외 6명

중앙도민회 산악회 매달 참석

O. 탈북자 지원

-자매결연(부자치간 연결)

-장학생 발굴

제13장. 기타 활동사진



2013년 5월 5일 평안남도 도민의 날 대회



2017년 평원군 평원군 제70회 정기총회



2025년 5월 3일 제54회 평안남도 도민의 날 대회



2025.04.26. 제4차 평원군 추모공원 망향제 후 야유회(아침고요 수목원)



2025.04.26.제4차 평원군 추모공원 망향제



2017년 평안남도 평원군 제70회 정기총회



2010년. 평안남도 도민의 날 대회



2017년 평안남도 평원군 제70회 정기총회



2017년 평안남도 평원군 제70회 정기총회



2016. 평원군 정기총회시 체육대회



2016. 7. 화성행궁 야유회



2016. 7. 화성행궁 야유회



2016. 7. 화성행궁 야유회



2015. 평원군 군민회장의 집행부



2020. 군민회 집행위원 회의



도민의 날 유공 표창자



2017. 도민의 날 청년회 축구팀



1999. 6. 평안남도 중앙청년 연합회 제10차 백두산 망향제



평안남도 도민의 날 평원군 경품 추첨



2020. 평안남도 도민의 날 평원군 천막 대기



도민의 날 대회 행사후 청년회 회식



평원군 3.4세 청년회 월례회의 모임



평원군 집행부 2.3세 친목 모임



2018. 평원군 축구선수단



제97회 전국 체육대회



2018. 평원군 집행부 등반대회



2018. 평원군 집행부 등반대회 후 점심 식사



2016. 7. 화성행궁 야유회



2015. 평안남도 평원군민회 정기총회



평안남도 평원군 정기총회



2024. 12 평원군 부녀회 송년회



평원군 친목 야유회



평원군 정기 월례 친목회



2014. 평안남도 평원군 친목회



평원군 하계 수련회



평안남도 시·군민회 단합대회



평안남도 도민의 날 대회 청년회



2017. 야유회 광명동굴 탐방



2017. 경인 아라뱃길 선상파티



2017. 경인 아라뱃길 선상파티



2000. 2 평원군민회 군민회장의 임원



평원군민회 추계야유회



평원군민회 정기총회 야외 개최



평안남도 시·군민회 단합대회



2024. 9. 평원군 추모공원 추석 전 2~3세 주변청소 후 휴식



2002. 1. 17~18 평안남도 중앙청년 연합회 동계수련회



2001. 6. 평안남도 중앙청년 연합회 제12차 백두산 망향제



평원군민회 정기총회(우이동 우이령산장) 1세 어르신 장기자랑



평안남도 도민의 날 대회



2003. 6. 평안남도 중앙청년 연합회 동유럽 해외 연수



1999. 5 평안남도 중앙청년 연합회 금강산 망향제



평안남도 평원군 군민회장·명예군수
이취임식



평안남도 평원군 군민회장·명예군수 취임식후 집행부 소개



2016. 6 평안남도 평원군 전 군민회장·명예군수 이임식



2010. 5. 평안남도 도민의 날 우승



제14장. 참고문헌

1. 국립통일교육원. (2024). 2024 북한문제 이해 : 국립통일교육원 2024
2. 국립통일교육원. (2024). 2024 통일문제 이해 : 국립통일교육원 2024
3. 국립통일교육원. (2024). 지식사전: 국립통일교육원 2024
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한국지명유래집 북한편
5.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6. 평안남도중앙도민회 (1990) 평남망향반세기 평원군
7. 평안남도중앙도민회 (1977) 평남남도지 평원군
8. 평화문제연구소편저 (2006) 조선향토대백과 평원군
9. 도편 최선웅, 해설 민병준 (2017) 해설대동여지도, 진선출판사
10. 중앙일보사 (1991) 인물의 고향(북한편) 지명인사
11. 통일원 (1993) 북한지지도요람 평원군
12. 대동회지편찬위원회 (1998) 대동회지
14. 평원군민회 (1997) 평원군 제50년사 군지
15. 평원군민회 (2017) 평원군 제70년사 군지
16.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 각 시, 군 자료
17. 평남민보 기사 (축쇄본)
18. 국가유산청 (<https://www.khs.go.kr>) 평안남도 무형유산 사진

2025 평안남도 평원군 조사연구서

1판 1쇄 발행

발간일 : 2025년 12월 30일

발행인 : 2025 평원군 조사연구 편찬위원회

편집 : 김승호

출판 : 한국웰스매니지먼트인스티튜트

이메일 : soung23@empal.com

인쇄 : 성문문화사(02-323-1115)

가격 : 비매품